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 425 / September /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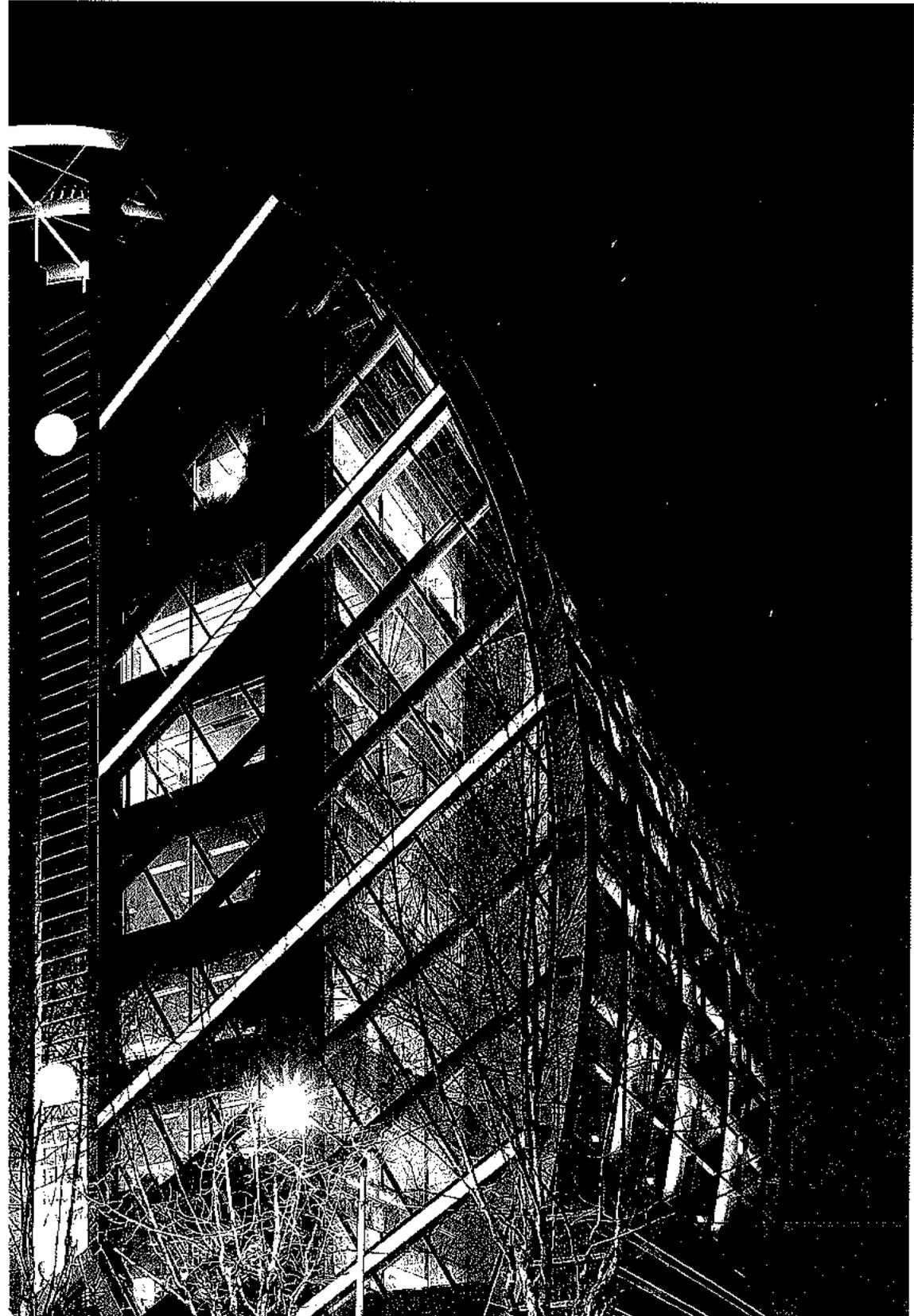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인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 137-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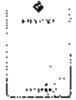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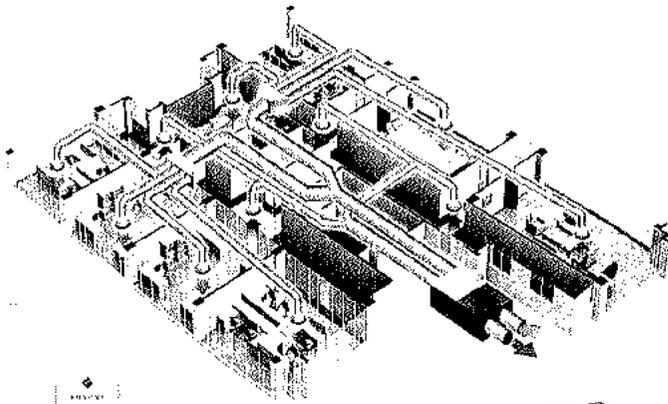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923 E-mail : korea@kira.or.kr

<http://www.kira.or.kr>

건축사



맑고 건강한 공기를 위한
환기 시스템을 생각합니다



● KT 신기술 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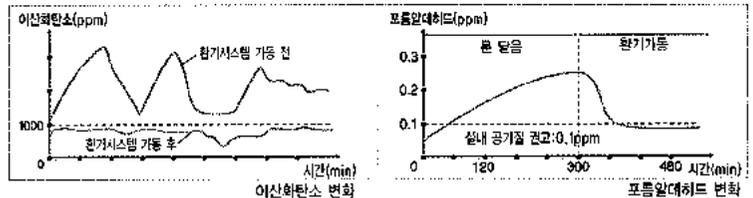
● 고효율 전열교환 환기 시스템 (ISO-1,000CMH)

LG 환기시스템 **ecoV**™

오염된 실내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신선한 실외공기를 공급해 주는 에코브이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  세집 중후군(SBS)을 유발하는 각종 실내 오염물질 제거
-  부직포 필터를 통한 황사 및 먼지제거
-  전열교환(온도/습도 교환)을 통한 냉난방 운전비용 절감
-  습도유지 및 발취 기능

■ LG 환기시스템 가동 후, 실내 유해물질의 변화 (자사시험 data기준)



난방비 걱정 끝!

가스 1년 난방비로 2년간 난방!
기름 1년 난방비로 3년간 난방 가능!



세계에서 인정받은 바닥난방 초절전 온수관난방 시스템!
일반용전력으로 심야전력기보다 저렴한 난방!
기존 온돌 히터 전력량의 1/3로 난방 가능!

1.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에너지 소비가 적은 고효율 전기 난방

- 1) 밀폐한 XL온돌관 내부에 저온의 복수발열선을 응용. 온수와 증기 2상 매체의 방열로 제자리에서 열 손실없이 난방 하도록 활용한 초절전 난방기술!
- 2) 전기 압력밥솥과 같은 기존의 과학적 공학적원리를 새롭게 조합하여 비축열을 증가시킨 밀폐방식의 온수관난방
- 3) 비슷한 용량의 냉난방 부하를 계절따라 절제방식으로 활용 전력증설(변전시설) 및 기본요금 불필요

2. 세계에서 제일 저렴하고 간편한 시설, 동파 없는 영구적 난방 시스템

과열방지 장치 없는 저온 난방은 고열에 의한 화재 위험을 없애고 전자파 차단효과를 가져온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중앙집중식 개별난방 시스템!

3. 보일러 시설이 없어 난방관리비가 불필요

대형건물에 강한 난방시스템 [기숙사, 연수원, 군경내무반, 실버타운, 호텔, 모텔, 콘도, 병원 등] 일정온도 유지로 쾌적하고 고장 없는 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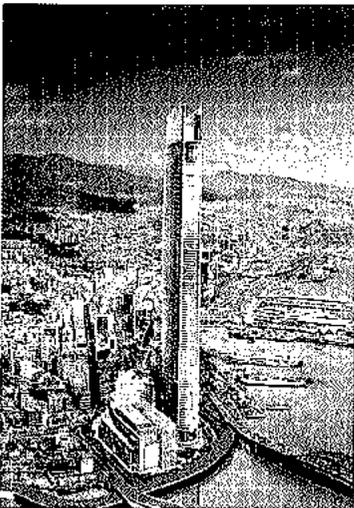
- ※ 발열선의 고열 때문에 금속관만을 사용하던 Elec Heat Pipe를 비닐온수관에 적용하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발명 특허 획득!
- ※ 각실의 온돌배관 양단에 점검 Box을 설치 한 다음 열매수와 전열선을 삽입, 교체, 보충, 밀폐하는 작업을 쉽게하는 특허기술로 기존 사용중인 온돌배관을 재사용. 가구 이동 없이 당일 시공, 당일 난방이 가능한 세계최초의 발명 특허 시스템

- ◎ 세계 8개국 '발명특허 획득'업체
- ◎ '전기에너지 절약 부문'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 특허청
- ◎ '신기술 개발 벤처 기업' 중소기업청 인증
- ◎ 'ISO 9001:2000 인증'
- ◎ '품질보증인증(Q마크)'업체
- ◎ '전자파 환경인증서' 산자부산하 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인증
- ◎ '전기공사업등록'업체

※당사 초절전 온수관난방은 특허기술이므로 무단 사용시 특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본사를 사칭 또는 유사제품은 열선의 표면온도가 80℃를 초과하여 온돌비닐 파이프가 녹거나 타입니다.

참조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제255조 (전기온돌등의 전열장치의 시설)5항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를 넘지 않도록 시설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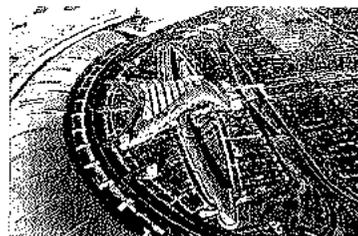
건축방재계획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비상시 대응계획 소방설계 · 감리 ·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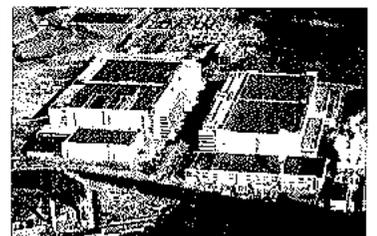
부산제2롯데월드(107층)



타워갤러리스(69층)



인천국제공항



삼성반도체(화성공장)

기술제휴

- 미국 RJA
- 일본방재서비스센터



국내최대 소방방재업체

(주) 한국방재엔지니어링

www.kfpe.co.kr

Tel_ 02-579-4111

세·계·최·초·독·자·모·델·로·대·만·민·국·을·대·표·하·는·주·차·기·가·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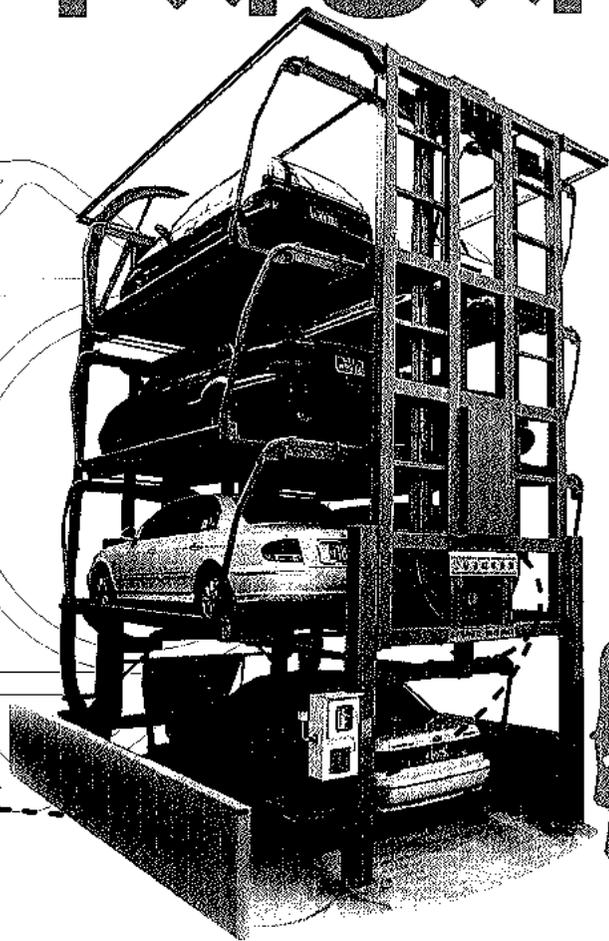
미노타리식 입체주차장치



ISO 9001 인증업체

실용신안등록 제20-0190325호

실용신안등록 제20-02463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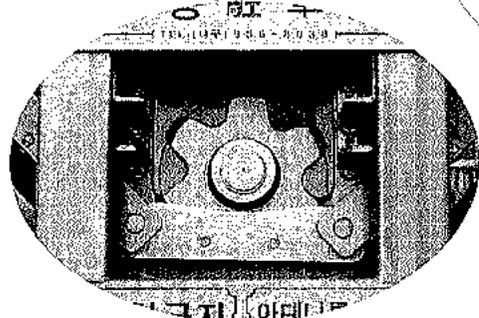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세계 최초의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접속구동의 新 메커니즘



더 이상의
고품질은 없다!

"세계최초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 초슬림형"

자매품 Pit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 이렇게 다릅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항상 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 줄였습니다.
- 정밀기공 및 JIG 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주차"를 입력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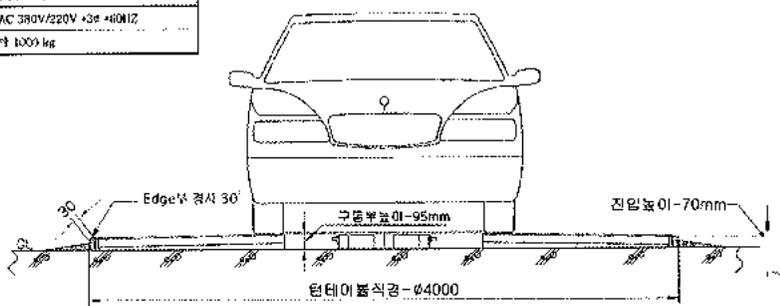
■ 사양 (뉴그랜저급 진입가능)

모델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最小)	주차기 길이(最小)	소요높이(最小)
SKY PARK-5	5대	4570	6090	6830
SKY PARK-6	6대	4570	6090	7720
SKY PARK-7	7대	4570	6090	8600
SKY PARK-8	8대	4570	6090	9380
SKY PARK-9	9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대	4570	6090	13060

▼ 신제품 지상설치형 턴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지상높이 70mm!

명칭	정공턴테이블(신형)	
수용차종	중소형승용차(무게 2000kg 이하)	
주요사양	구동방식	미향 자동식
	구동모터	0.15KW x 4P x 3개
	장리속도	약 11RPM
조작방법	PUSH BUTTON	
연결전원	AC 380V/220V x 3φ +GN12	
최대중량	약 1000kg	

실용신안등록제0263726호



아주 특별한 주차기회사
(株)창공駐車産業
www.Juchagi.com

본사·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하리 64번지

전국 대표전화 (상탄, A/S) **1544-3335**

- E-mail : cgp210@kornet.net
- FAX : (054)973-0067
-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67-29, FAX : (02)333-4442
- 부산사무소 : (051)303-2296
- 광주연락소 : (062)942-6923

Since 1989

한글도매인 : 주차

디지털 프론티어 - 삼성

건축사의 신용, 대출名家의 자존심을 약속합니다

보험으로 쌓은 신뢰, 대출로 이어가겠습니다.

고객여러분의 소중한 희망을 위해
이젠, 보험뿐만 아니라 대출도 삼성생명과 상담해 주세요.

내일을 위한 희망설계 - 삼성생명 대출

삼성생명 대출 특선!!



신용대출 안내 (무담보 무보증 원칙)

대출자격_ 건축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교사, 기타 공무원

대출금액_ 1천만원~1억 5천만원

예상금리_ 연 6.4%~7.2%

기 간_ 1년~5년(수시상환, 연장,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가능)

대출기관_ 삼성생명, 제1금융(은행), 제2금융(보험사, 금고 등)

- 창업자금 특별상담
- 담보대출 : 최저금리, 설정비 면제
- APT 소유자, 구입예정자 : 5.7%~6.0%(10년, 15년, 20년, 30년형)
- APT, 단독주택 등 주거용 전세자금이면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상가, 빌딩 등 임대보증금을 담보(질권설정)로 설정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스피드 학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최고액 대출

삼성생명
Seed Bank

최저의 금리

신속한 처리

상담문의

삼성생명 강남 AM
Seed Bank

Tel_ (02)545-8853~4

Fax_ (02)545-4939

HP_ 011-9738-0087

내일을 지키는 힘

SAMSUNG

LIFE INSURANCE

2004

한국건축문화大賞

작품공모
가공공모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와 건축사
가들의 작품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수상작은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여 시상함으로써
한국건축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건축문화의 향상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Korean Architectural Award

1. 목적
본 대상을 제정하는 목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와 건축사
가들의 작품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수상작은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여 시상함으로써
한국건축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건축문화의 향상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대상
본 대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와 건축사
가들의 작품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수상작은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여 시상함으로써
한국건축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건축문화의 향상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분	대상	대상	대상	대상
1.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2.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3.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4.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3. 심사
본 대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와 건축사
가들의 작품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수상작은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여 시상함으로써
한국건축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건축문화의 향상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최 /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흥위원회
주관 /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흥위원회
후원 /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흥위원회
협찬 /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흥위원회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공모주제

■ 주제 : 불이(不二) / Architecture in Nature · Nature in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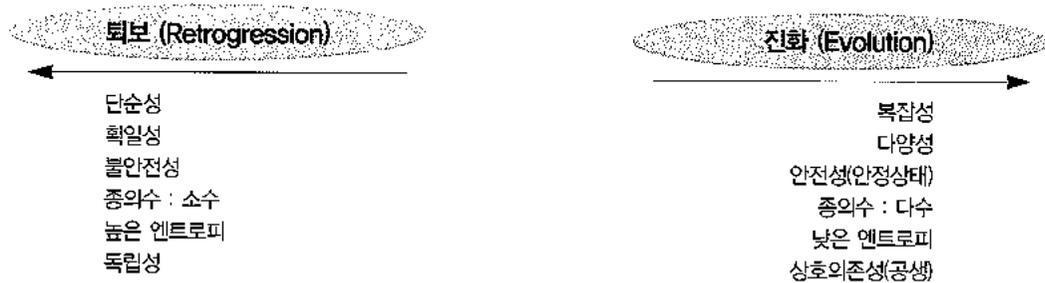
- 각 지방도시들의 지역에 적합한 구체적인 장소를 선정
- 도시, 건축, 구조, 조경, 실내외 환경디자인 등 제 분야에서 계획

■ 주제설명

건축은 장소의 한정성과 물질적 기능의 확대욕구로 인해 더 높게 더 넓게 만들어짐과 동시에, 고도의 과학기술과 하이테크의 결합으로 건물은 쾌적한 인공환경을 갖추어 더욱 더 지능화, 자족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건축의 욕망은 도시와 자연과의 공존에서 벗어나, 오히려 도시에 위압적이면서, 자원에너지의 고갈과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도시의 거대화, 인공화의 진행은 도시 내 거주자들의 인간성 상실과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앞으로의 삶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건축은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우리의 사고와 건축계획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연과의 공생과 상생을 담은 자연공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건축은 자연과의 관계성을 확립하여 자연과 통합을 추구하므로써, 우리의 건축디자인은 자연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유기적 전체에 통합되는 인공환경구축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건축과 자연과의 관계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둘이 아니라), 역동적인 상호적 관계로 얽혀있다. 서양적 이성, 근대서양의 유산인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의 부정과 포기가 아니라 동양적, 생태적 세계관에서 통합으로 이제 우리는 최상위의 척도를 인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문화, 사회, 기술에 대해 가치 매김을 하기 위한 척도가 바로 인간과 자연 공존의 가치 체계로 최우선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적 건축이라 해서 단순히 녹지가 잘 조성되고 자연을 복원시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와 건축에 자연 공기의 흐름이 있도록 하고 외기와 접하도록 하고, 살아있는 생물체를 도시건축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물과 바람의 흐름과 공기의 이동을 이해하고, 빛의 원리를 이해하고, 재료의 속성을 깨우치고, 보다 큰 자연의 순환논리를 감지해야 할 것이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부채 / 이안.L 맥하그

지속 가능한 미래의 도시 건축상은 자연과 건축을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로 파악하고 자연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복잡성, 안전성, 상호의존성(공생)에 가깝도록 계획하고 설계하므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회복하고, 건축은 인간과 자연과의 화해를 위하여 그 몫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단서들 : 땅, 물, 바람, 빛, 수목, 경사지

「건축사」는
회원 여러분의
“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지는 회원 서로가 뉴스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회원의 작품과 관련된 소개는 물론 회원 활동과 건축계 주변의 소식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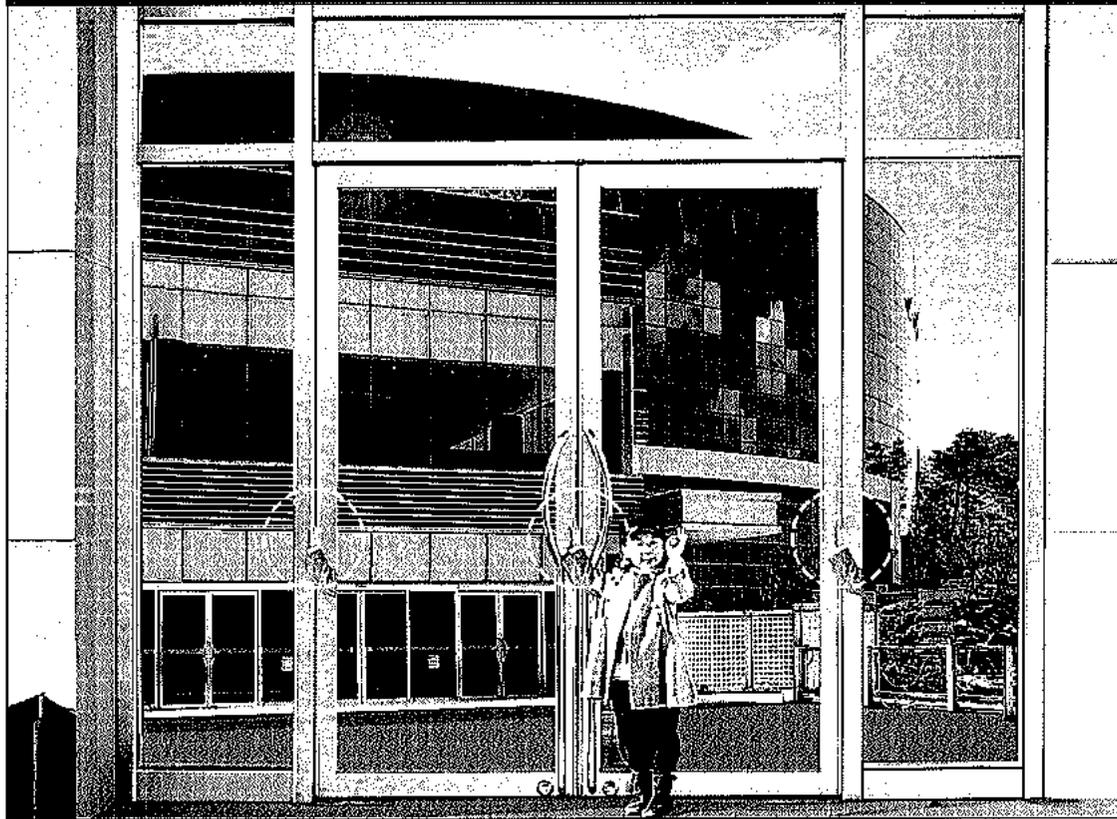
구분	내용
준공작품	최근 준공된 프로젝트 (슬라이드 필름 10컷 내외, 설계개요, 설계소묘 (200자 원고지 3~4매), 기본 도면(배치, 단면, 평면))
현상설계	최근 현상설계 경기에 응모하였거나 입상한 프로젝트 (투시도 또는 모형사진 2~3매, 주요도면 3~4매, 설계개요, 설계소묘 (A4 1매 내외))
계획작품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미준공 작품) (투시도 또는 모형사진 2~3매, 주요도면 3~4매, 설계개요, 설계소묘 (A4 1매 내외))
작품노트	준공, 계획, 미실현된 작품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을 선정, 작품과 관련된 뒷이야기를 수필형식으로 집필(A4 2~4매 내외, 관련사진, 도면, 스케치 등 제공)
기타	건축여행, 세미나 참가, 기타 건축계 주변의 활동사항이나 알고 싶은 내용 등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보도자료 및 관련사진 1~2매(분량 제한 없음))

원고마감 : 매월 5일(수시 접수가능)
보내실 곳 : 서울시 서초구 서초 2동 1321-6
동아타워빌딩2층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
(우편번호 137-857)
문의 : 「건축사」지 편집담당
전화 02)581-5711~4
팩스 02)586-8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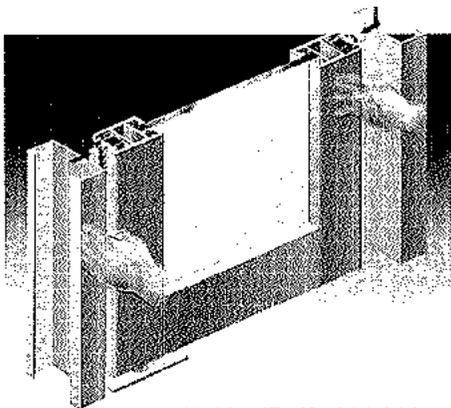


세이프강화도어

제조물 책임(PL)법에 의해 제작된 안전한 문. 세이프 강화도어! — 정우는 안전한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어린이 "손"을 보호하는 도어, 유리 "문" 파손방지 및 에너지 절약, 방음, 방풍이 완벽한 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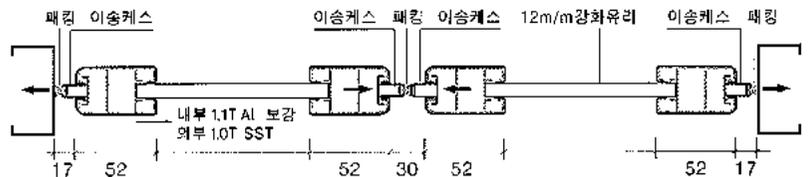


단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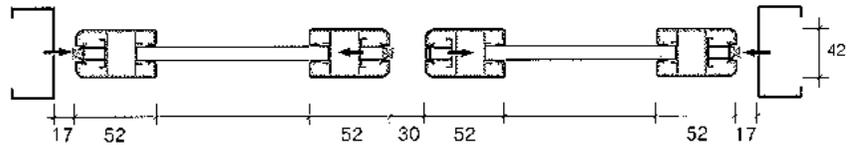
사용시에는 방풍, 방음, 단열이 완벽하고 손가락이 끼었을 시에는 이송케이스가 유연하게 작동하여 손가락을 보호하여 줍니다.

평면 상세도
 손가락이 끼었을 때
 도어는 유연하게
 작동하여 손가락을
 보호합니다.

사용 상태도



어린이 손가락이 끼었을 때 작동 상태도



※ 단가표: 한국물가 자료집 432p 참조 / 유통물가 자료집 387p 참조
 ※ 공장출고가격: 900×2100mm 기본, 투명유리 ₩ 218,000(전국배달)

설치 장소 / • 오피스텔 • 공공건물 • 은행 • 아파트 • 학교 • 스포츠시설 건물 • 백화점(마트) • 병원 • 호텔

• 스텐세이프 강화도어

• 골드세이프 강화도어



• A.L. Color(블스코팅) 세이프 강화도어

신자재 공모등록업체 인증 (현대건설 200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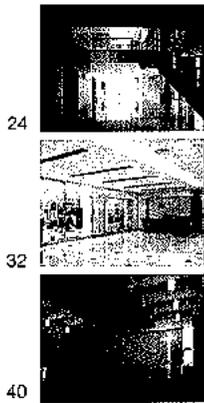
어린이 "손" 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정우산업
 www.safedoor.co.kr

본사: 대구광역시 북구 음내동 1234-77
 전화: (053)325-9800/325-9801~2
 FAX: (053)325-9802
 E-mail: jungwoo9800@hanmail.net

벤처기업등록업체

Contents



건축사
korean architect

차례 2004 09 425호

칼럼	건축사, 협회 그리고 독불장군(獨不將軍)	오선교	14
건축만평		유원재	18
회원작품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제3과학관	김인석	22
	세정서울사옥	이영수 최영돈	26
	월산교회	이관직	34
	에이스 테크노타워III	오근석 문 호	42
	리즈&마리안 여성병원	박 훈 배지철	50
	더클래스 호성 메르세데스 벤츠타워	김광욱	58
계획작품	화도칩터	김영환	66
작품노트	삼합현	조인철	6
연재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 - 03	최재석	7
연구	건축의 스타일	이동호	80
기고	점점 잊혀져 가는 한옥에 대한 단상斷想	이 심	86
	어느 지방건축사의 일상	양 건	88
보고서	신의주 출장기	김선양	91
건축마당	합회소식		96
	건축계소식		98
	현상설계		102
	해외집지동향		124

발행처: 이세훈
 편집기: 김선양, 장영순, 김종복, 박영순, 손기진, 오성복,
 유시덕, 이관직, 이자람, C.중호, 주수필
 취재·편집: 김은경, 박은주, 조희규, 임정, 최익현, 김영희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워빌딩 2층
 우편번호: 137-857
 전화: 대표 02-351-6711~4
 팩시밀리: 02-35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민속민: 김중식 / 지.이.이 02-2269-7619
 광고문의: 홍보편찬팀



49



57



64

Korean Architect

Vol. 425
September 2004

Column

Architects' Institute and a Prison left out in the cold Oh Seon-Kyo 14

Cartoon

Yoo Won-Jai 17

Works

Danwon University Science Building Kim In-Seuk 18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Young-Soo & Choi Young-Moon 26

Woojin Lee Kwan-Jick 34

Academy Tower Yil O Kun-Sok & Moon Ho 42

Liz & Marian Woman Hospital Park Hoon & Bae Ki-Cheol 50

The Class HYOSUNG Mercedes-Benz Tower Kim Kun-Sig & Kim Kwang-Uk 58

Process works

Rest Area at Hwado Min O-M 66

Design note

Sam-HapHeon Zho In-Choul 68

Serial

Dutch Modern Housings Choi Jae-Suk 72

Study

Style in architecture Choi Dong - Ho 80

Feature

Random Thoughts on Your Forgotten Hanoks Lee Sim 86

One Local Architect's Daily Life Yang Gun 88

Report

My Business Trip to Sinui-ju Kim Sun-Yang 91

Architects' Plaza

Kira news 96

Archi-Net 98

Competition 102

Overseas Journal 124

Publisher Lee Se-Hoon
Assistant Editor Kim Sun-Yang, Chang Yang-Soon, Kim Jong-Bok,
Park Young-Soon, Son Ki-Chan, Oh Seom-Hoon,
Yoon Si-Deok, Lee Kwan-Jick, Lee Jae-Rim,
Lee Jong-Ho, Jugh Soo-Ille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321-6 Seocho-2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57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art)

건축사, 협회 그리고 독불장군(獨不將軍)

Architects, our Institute and a Person left out in the cold

흔히들 건축을 찬미하는 입장에서는 건축을 종합예술이라고 한다. 요즘은 건축사가 마스터 엔지니어(Master Engineer)로 불리어지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네덜란드의 건축가 렘 쿨하스(Rem Koolhaas)는 건축가라는 직업을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직업으로 말하고 있다. 자신의 구상을 현실화시키는데 만 몰두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기획을 빌어 자신의 꿈을 펼쳐보이고자 노력하는 인간들이 건축가이며 항상 과대망상에 젖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가는 보통수준의 건축인이 아니라 일정수준 이상의 예술가 반열에 올라선 작가를 두고 한 말이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적인 건축사 입장에서도 '불안하고 위험한 직업'으로 느껴짐은 서로 통하는 데가 있는 것 같다. 다만 우리네 건축사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동분서주하면서 자기의 재산과 아이디어를 투자하여 자신의 꿈을 펼쳐고자 과대망상에 젖을 틈도 없이 노력하는 것이 렘 쿨하스가 말하는 건축가와는 다른 점이다.

어떻든 건축사란 불안하고 위험한 직업인 것은 맞는 말인 것 같다. 항상 자기작품에 만족을 못하는데서 오는 본질적이며 정신적인 불안감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건축사들이 불안하고 위험한 직업 환경에서 벗어나 안정된 작업환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독불장군의 도그마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마스터 엔지니어의 기능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마스터 엔지니어만이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유일한 길일까?

그것은 건축설계를 하루 빨리 개인적인 작업 틀에서 수행하여야 한다는 고전적인 관념에서 탈피하여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체제로 바꿈으로서 작업환경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감의 수주, 계획, 설계, 시공감리 등 일련의 작업과정을 건축사와 몇 명의 보조원이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고전적인 작업관습에 따라 일관적으로 아무 탈 없이 수행해 가기에는 주변의 여건들이 용납해주지를 않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고객의 요구가 전문화되고 증대될 뿐만 아니라 변화하기 때문에 이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 서비스의 범위, 종류, 요구사항들은 더 많아지고 세부적이며 보다 완벽한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하기에 대다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 할 수 없게 되고 허가대행기능으로 존립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건축설계업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경제활동구조 특히 시공, 엔지니어링, 부동산개발, 감리 등의 업종은 조직규모와 업무의 영역도 계속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업무영역 경계선도 없어지고 있으며, 독립된 업무들도 상호 융합화(Fusion)되어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듯 우리 주변은 급속한 변화와 구조조정으로 각자의 시스템을 다방면으로 개발 확충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설계업계는 어떠한지 한번 반추해 보자. 아직도 개인 직업 틀을 유지하는 영세규모의 사무소가 거의 전부이다.

건축디자인 기능 이외에 필수적인 구조, 전기 및 통신, 기계설비 등의 기본적인 설계기능을 보완시켜 규모화를 이루는 것도 시스템화로 유도하는 구조조정일 수 있지만 현실적 여건,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실행에 옮기기까지에는 상당한 용기와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업무의 영역을 넓히고 규모를 확대하는 수평적 확장만이 건축설계업계의 구조조정일 수는 없다. 현 기능을 수직적으로 확장 개발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즉 전문화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의뢰계와 같이 건축설계체계도 건축물을 용도별 전문설계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계 단계별 전문화, 공사부문별 전문화도 가능한 구조조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현재 각 건축사사무소가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Know how)를 바탕으로 전문화의 방법을 찾아보면 그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무로 나오키(小室直樹)는 한국경제가 고속성장을 하던 80년대에 「한국의 붕괴란 책을 통하여 한국인의 의식 근저에 깔려 있는 양반근성(兩班根性)과 장인정신(匠人精神)의 결여 때문에 한국은 붕괴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수출 생산 원가의 대부분을 부품비와 특허료로 미, 일에 내어줌으로서 목줄 묶인 양쯔강의 가마우지와 같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장인정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프로정신(Professional Spirit) 즉, 전문가정신이 아닐까. 「한국의 붕괴」를 「한국 설계업의 붕괴」로 바꾸어 생각해 보자. 하나의 건축물을 탄생시키는데 마스터 엔지니어는 적을수록 좋다. 마스터 엔지니어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의 기능밖에 못한다. 프로페셔널 엔지니어(Professional Engineer) 즉, 전문분야의 건축인이 많이 참여할수록 내실 있는 작품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건축설계업의 수직적 구조조정은 전문화를 유도하고 장인정신으로 설계도서 전반에 정성과 혼을 불어 넣음으로써 건축설계의 품질과 설계업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건축사 업무의 구조조정도 설계업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분하여 세부적으로 수직적인 방향에서 전문화 시키는 방법을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차체에 우리협회도 회원관리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건축사업무의 전문화, 업무영역개발 그리고 건축설계직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의 건축설계업 구조조정 문제를 정책적인 연구과제로 채택하는데 협회 임원들의 의견이 모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여기서 필자는 마스터 엔지니어가 되기만을 지향하면서 불안하고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새내기 건축사를 포함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설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중견 건축사들께 당부 드리고자 한다.

스스로 독불장군의 미망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한번 성찰해 보자. 또한 1등(Master Engineer)만을 추구하면서 스스로의 여건과 주변의 변화에는 깊은 고려도 없이 결코 2등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며 개업을 서두르지는 않는자...

현대의 건축은 1등보다도 특정분야에 전문적이면서 깊이 있는 건축사(Professional Engineer), 즉 2등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1등은 2등보다 불안하고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 가마우지의 목줄을 잡고 있는 주인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한국이 아니라 가실 뒤에서 부품과 기술을 공급하는 일본이다. 장인정신으로 무장한 2등이 불안과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고, 나아가 한국 건축의 내실을 다지는 구조조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색의 계절 가을 나와 우리, 오늘과 내일을 생각해 보자.

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협회도 크고 작은 독불장군들의 모임체가 아닌가 생각될 때가 가끔 있다. 자기의 주장만이 옳고 모두가 제각기 1등이며, 결코 2등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한다.

우리들이 언제나 외치면서 해결은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커지지만 하는 문제점들, 건축사의 위상, 저렴한 설계용역비, 건축사시험제도, 교육인증원 설립, 기타 권익보호와 관련된 현안 사항들...

이제는 한 목소리를 내야할 때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단순한 격언은 인간만사해결의 공통진리이다. 지난 일을 정리한다고 역사가 바로 서고, 잘잘못을 따지기만 한다고 협회가 바로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ㄸ



선생님, 수도를 이전하면 여길
학습농장으로 만들면 좋겠네요!

- 청와대 건축은 초등학생들

유원재 / 다건축 wonjaeyoo@hot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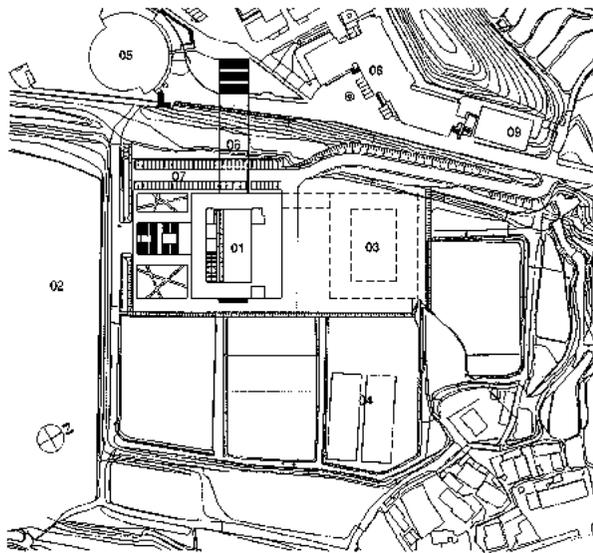
건축만평은 회원들의 열린 이당입니다. 이 난은 우리 철학의 공식적 루지의 터를 수 있으며, 다양하고 자유스런 주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는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기 쉬운 만화라는 장르를 통한 최진 어려운 생각을 펼칠 수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제3과학관

Dankook University New Science Building

● 배치도

● 건축개요



- 01. 제3과학관
- 02. 전도지
- 03. 중축에 정지
- 04. 기존운동선
- 05. 학생회관
- 06. 연결보행지
- 07. 주차장
- 08. 생명자원과학관
- 09. 실험연구동

대지위치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29-1외 129필지
용도	교육연구시설
건축면적	3,258.51㎡
연면적	10,895.51㎡
규모	지하 2층, 지상 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알미늄복합패널, 케라이온패널, 노출콘크리트, 드라이비트
기계설비	보우기술공사
전기설비	세한전기
구조	하나구조
시공	LG건설(주)
감리	도원엔지니어링
설계담당	고흥각, 김윤범, 김동수, 김하태, 최혁근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채수옥)

신과학 캠퍼스 마스터플랜에 기초한 계획

제3과학관은 기존 캠퍼스 동남쪽의 농업 실습장이 신과학 캠퍼스로 개발되어지는 최초의 시설이다. 앞으로 이곳에 계속해서 과학계 시설의 건축이 이루어질 계획이어서 제3과학관은 앞으로 개발계획의 대표모델로서 중요하다 하겠다.

기존캠퍼스와 새캠퍼스와의 레벨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계획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 기존 캠퍼스 쪽의

과학관과 농학관 앞 광장에서 보행자 데크와 일부 레벨차이에 따른 계단광장을 통해 건물 중정에 이르고, 다시 두 방향의 계단을 통해 신과학 캠퍼스의 주 출입구와 호수 쪽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건물 자체가 두 개의 캠퍼스를 이어주는 커다란 계단 같이 통과하는 사람들의 흐름과 활동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새 캠퍼스에 활력을 주는 상징적인 건물이 되도록 하였다.

차량 통행도로와 주차장은 새 캠퍼스의 외곽으로 설치해서, 캠퍼스간의 연결 통로는

기본적으로 보행자 전용이 되도록 했다. 호수변에는 워터프론트 공원을 조성하여 신과학 캠퍼스를 쾌적하게 하였다.

연구, 교육 및 다양한 기능을 가진 건물

제3과학관은 연구, 교육 기능외에 국제회의, 강연회 등의 다양한 이벤트에 대응하는 시설내용을 갖는다. 건물의 저층부는 공동실습실과 국제회의장 및 강의실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국제회의장은 이동식 좌석을 설치하여 다양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건물



의 상층부는 실험실과 교수연구실 중심으로 계획하였는데, 복도의 중간 중간에 발코니를 만들어 학생과 교직원들이 건물 앞 호수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쉴 수 있고, 건물 창을 포함한 발코니들의 크고 작은 오프닝들이 건물 외관에 변화를 주었다.

교직원, 학생의 휴식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여유로운 공간

현재의 캠퍼스에서는 교직원과 학생이 휴식하거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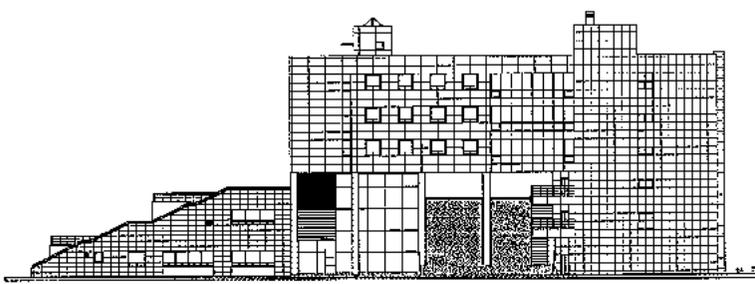
과학 캠퍼스에는 보행자 물과 워터프론트 공원이 교직원과 학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며, 제3과학관에는 중정 및 워터프론트 공원과 연속된 쾌적한 외부공간이 계획되었다.

대형계단은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옥외행사가 있을 때는 관객석으로도 쓰인다.

제3과학관내의 일층 입구홀, 카페테리아, 회의장홀, 강의실은 워터프론트 공원과 연속되게 하여 쾌적한 공간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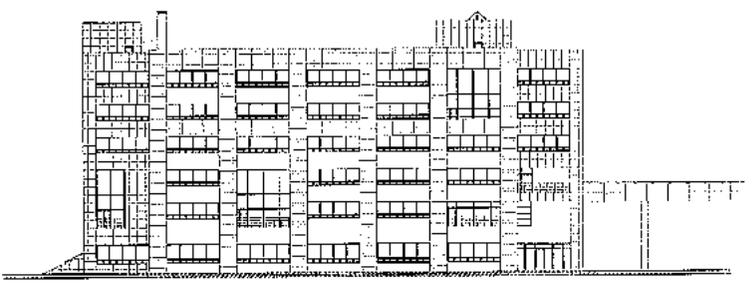
첨단과학 연구시설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건축스타일

기존의 캠퍼스는 전체적으로 석재와 붉은 벽돌 등으로 지어진 건물이 많아 어느 정도 일체감과 통일성이 있으나 신과학 캠퍼스의 건축 스타일로서는 보다 하이테크한 이미지, 첨단과학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건물의 외부재료를 유리 와 알코본드 패널 그리고 케라이온 패널 등을 사용하여 기존의 캠퍼스 건물과 차별화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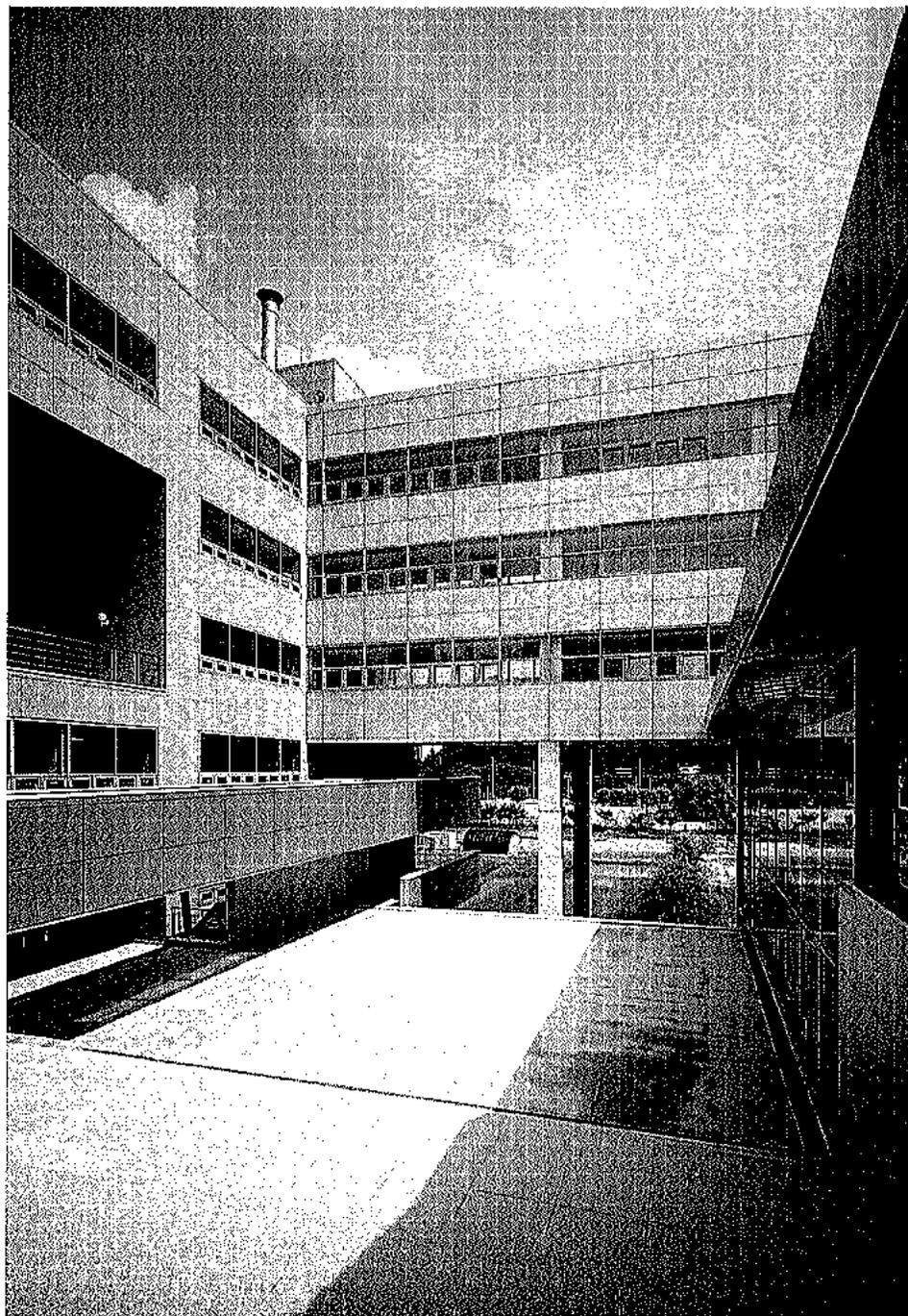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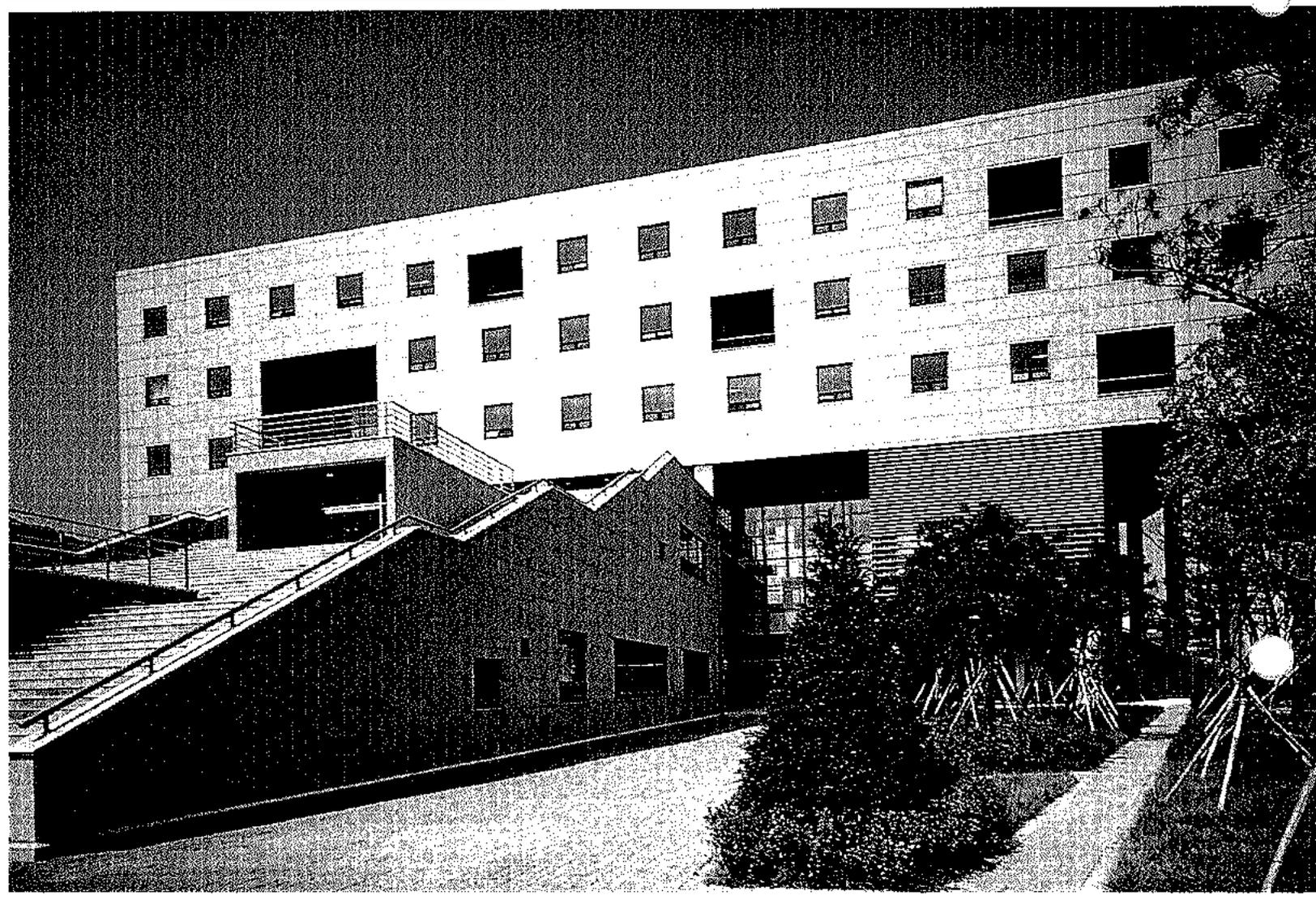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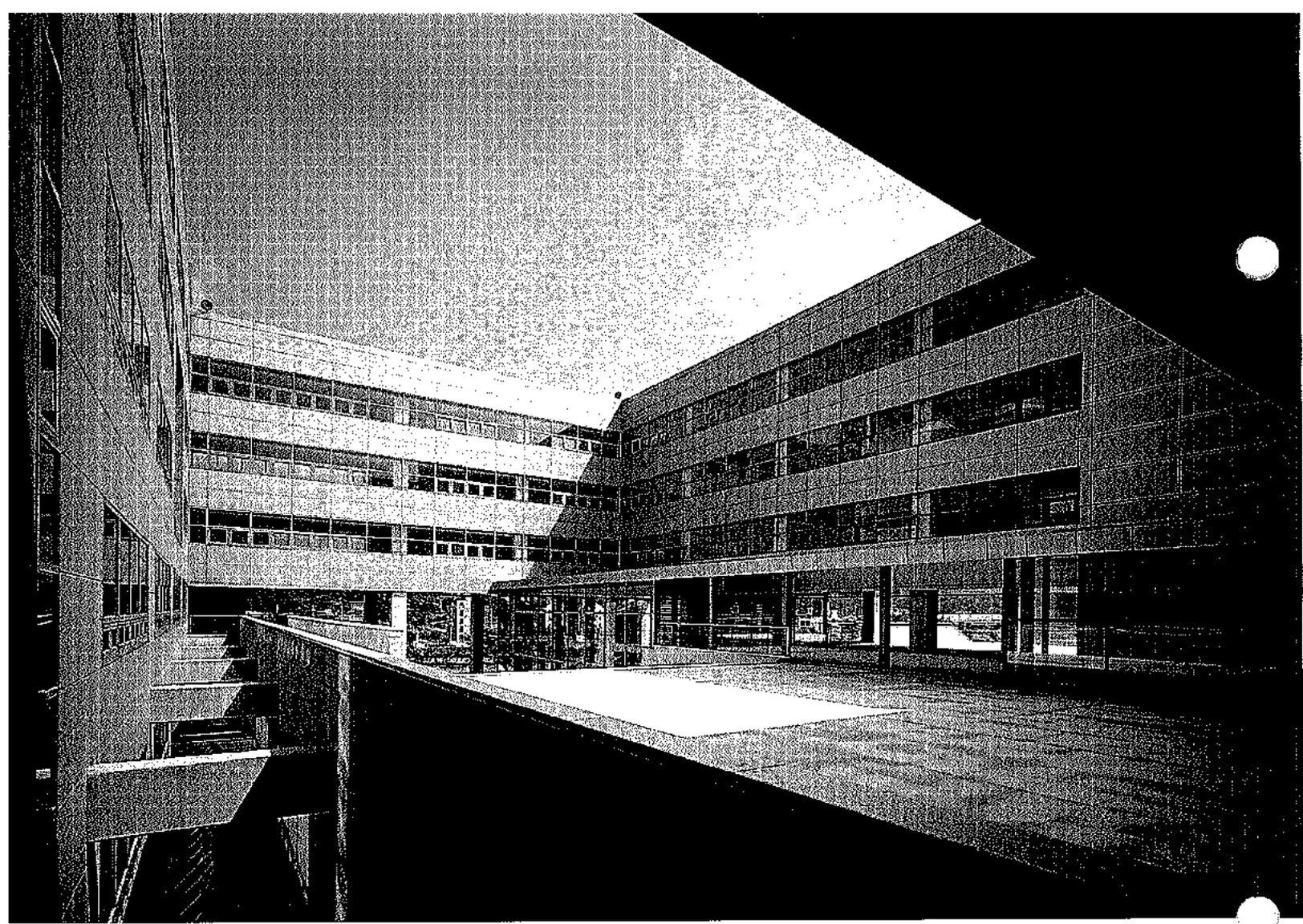
0 1 2 5 10
 1L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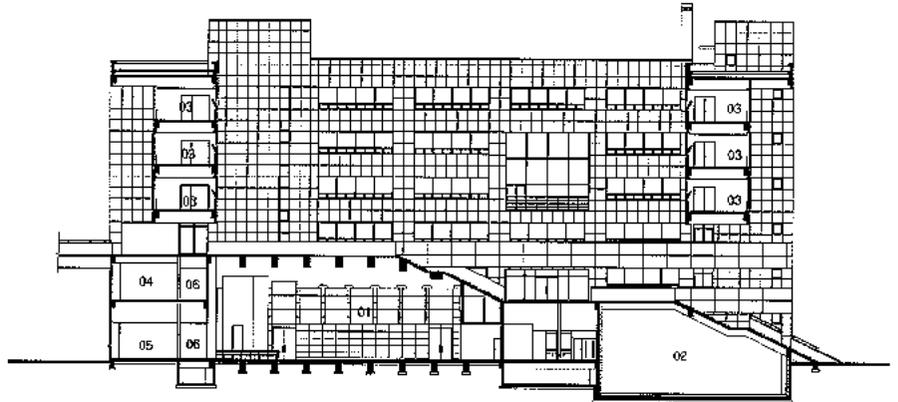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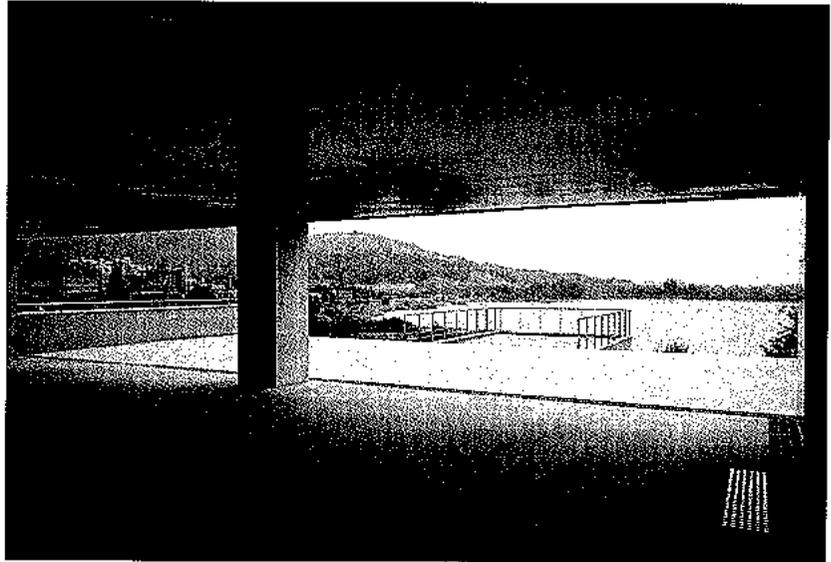


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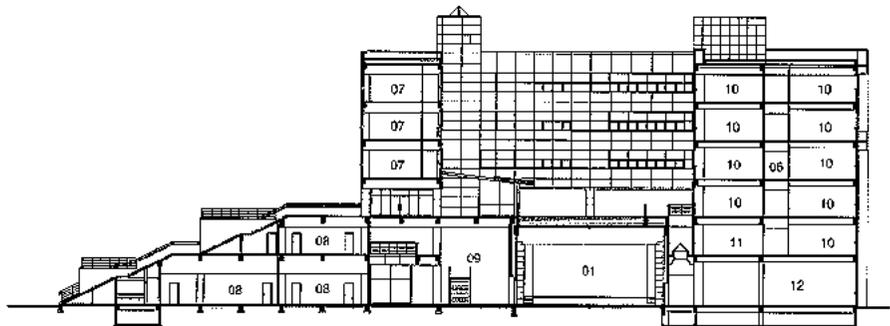


- 01. 국제회의장
- 02. 전기실
- 03. 리운지
- 04. 기계실
- 05. 감사대기실
- 06. 복도
- 07. 교수실
- 08. 강의실
- 09. 휴
- 10. 심원실
- 11. 컴퓨터실
- 12. 공동실습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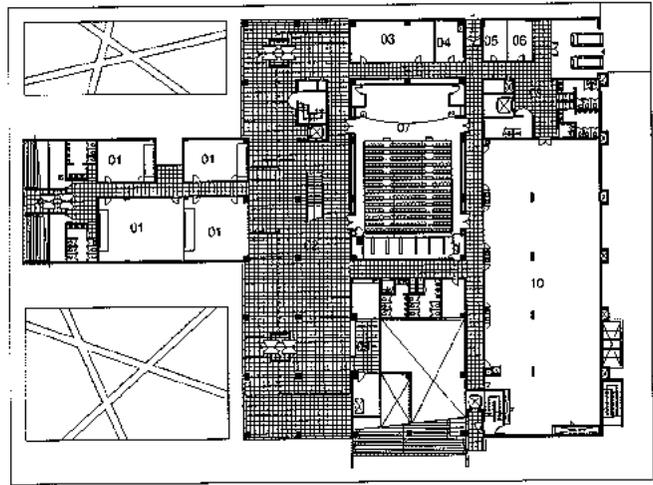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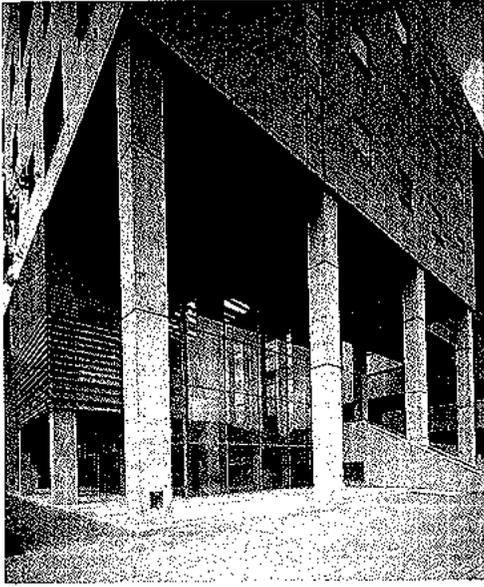


0 1 2 5 10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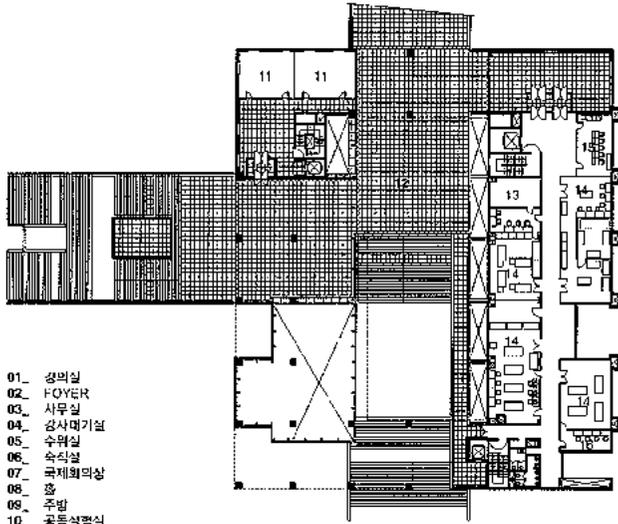
횡단면도



0 1 2 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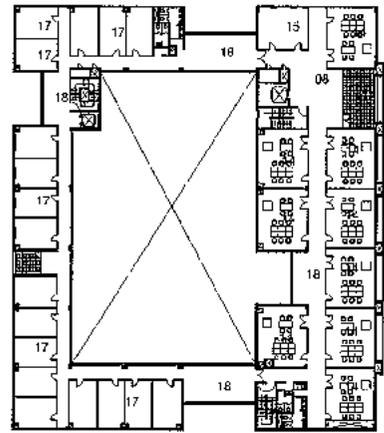
1층 평면도





- 01. 강의실
- 02. FOYER
- 03. 사무실
- 04. 감사대기실
- 05. 수위실
- 06. 숙식실
- 07. 국제회의실
- 08. 홀
- 09. 주발
- 10. 공동실용실
- 11. 세미나실
- 12. 중상
- 13. 입실
- 14. 실용실
- 15. 학과사무실
- 16. 연구실
- 17. 교수실
- 18. 라운지
- 19. 테라스

3층 평면도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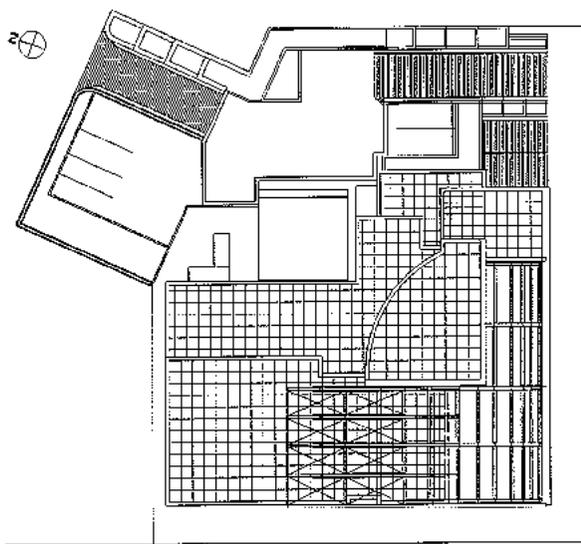


세정서울사옥

Sejung Building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2-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4종미관지구
대지면적	1,773.60㎡
건축면적	802.25㎡
면적	8,835.15㎡
건폐율	45.23%
용적률	291.57%
규모	지하 3층, 지상 10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주차대수	79대
외부마감	TEC PANEL, 커튼월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말 거두기

건축이 가진 언어는 풍부하고, 건축이 가진 무게는 참 무겁다.

하나의 건축물이 주는 사회적 파장은 그 건축물을 조각해 가는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에 달려 있다.

땅 위에 세워져 30년 혹은 100년 이상으로 나이를 먹게 되는데, 나이 들수록 거기에 걸맞은 태도와 쓰임새는 필요하리라.

작가는 하나의 건축물이 구성원의 일부

일부가 모여 전체 큰 사회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상황이, 오늘 책상앞에 앉아 하나 하나의 작은 디테일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좋은 사회를 위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 한다.

주변 넓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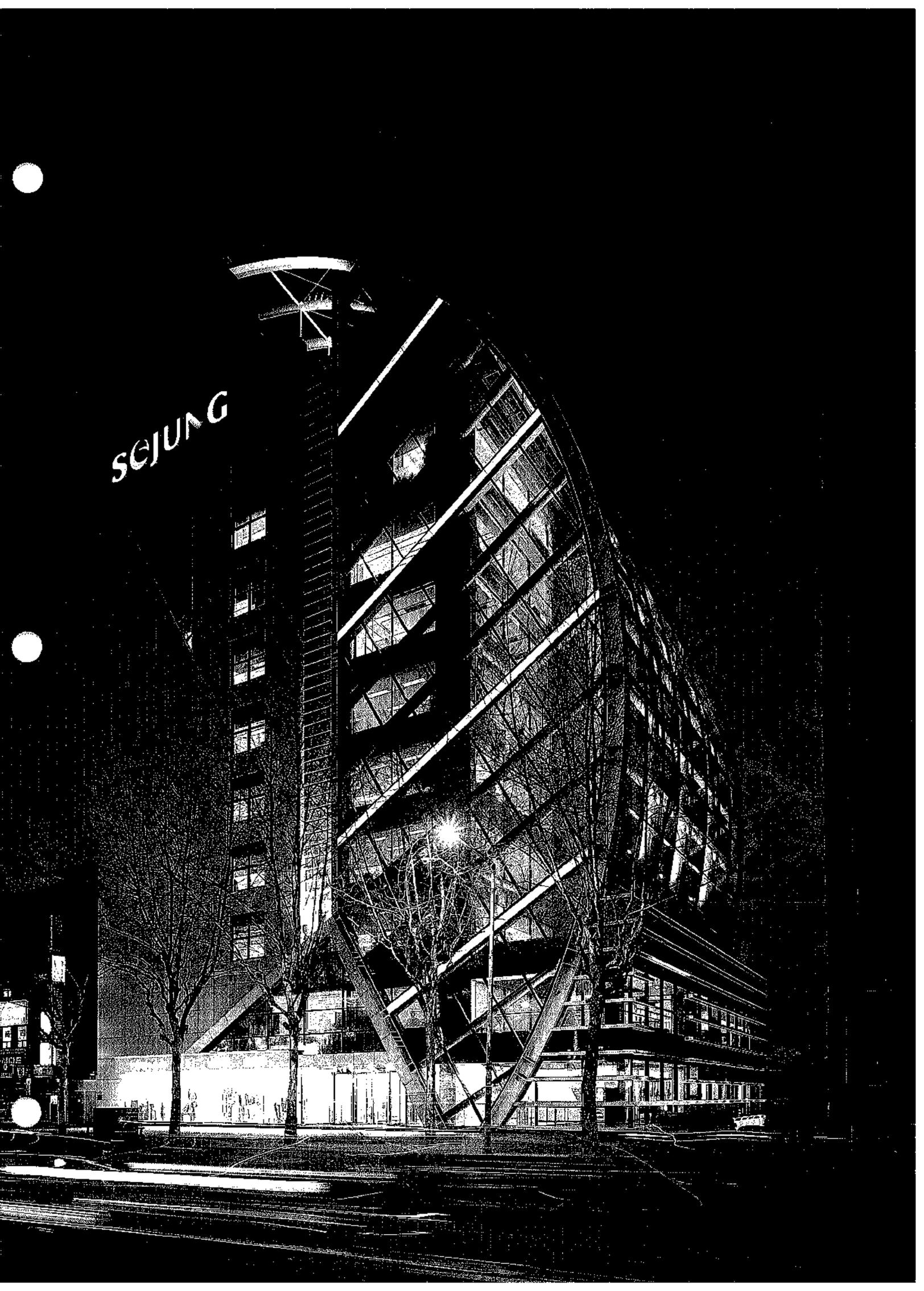
지나가듯 스쳐가는 표정으로 남고 싶지 않아 기(氣)를 쓰고 몸치장하지 않고 달려온 날들이었다. 봐도 봐도 보고 싶은 얼굴을 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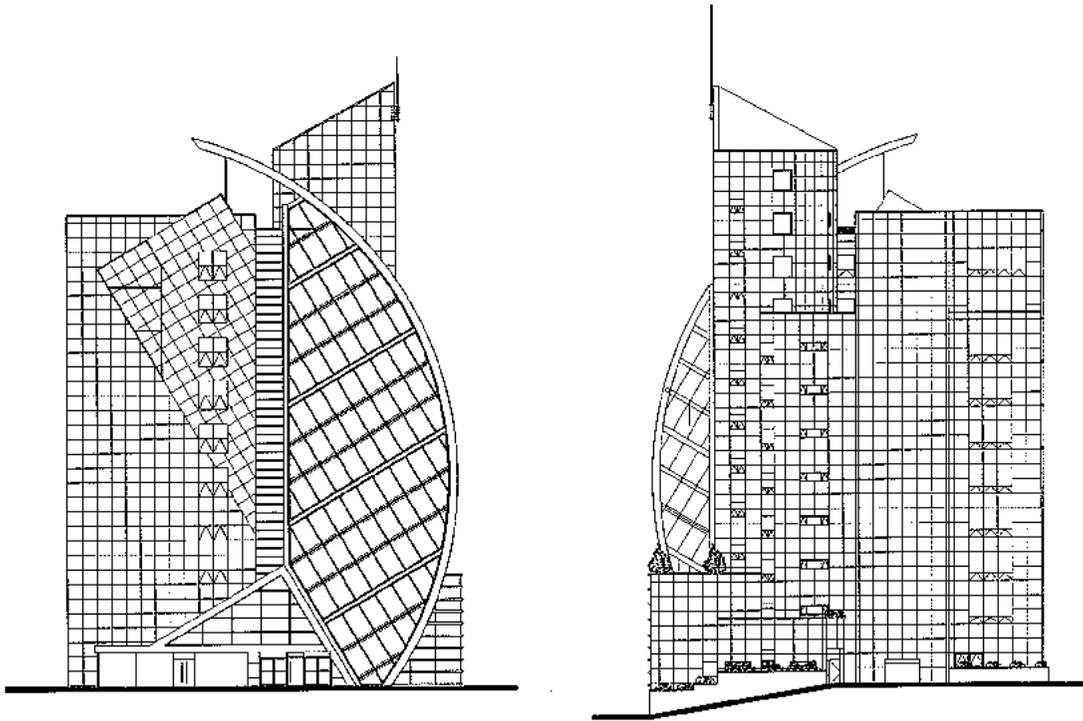
고 싶었다.

환해진 모습, 예쁘고 잘생긴 모습, 속이 콕찬 모습으로 거듭나고 싶었다. 사치를 남발하지 않고 그땅이 원하는 대로 주변의 넉넉한 얼굴이 되고 싶었다. 모나지도 잘나지도 않고 오히려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은 표정이 되고 싶었다.

건축주의 무리한 요구사항에도 항거하지 않으며, 건축사의 의도를 무리하게 요구하지도 않으며, 도시 틀속에서 공감의 축(軸)을

SEJUNG





정면도

배면도

상호 펼쳐는 시각에서 주변여건을 놓치지 않고 주변 성장의 미래를 예측하며 건물이 주변에 넓혀나가는데 디딤이 되고자 하였다.

가던 발걸음 멈추고 당찬 껍데기 속에 담겨있는 그 무엇인가를 봤으면 한다.

디자인 펼쳐기

테헤란로변 포스코센터 사거리에서 대치 사거리로의 오르막길 정상에 35m 삼성로를 두고 서측면을 정면으로 한 대지에, 1998년 건축주 지명현상설계를 통한 시험을 치르고 그동안의 기나긴 세월을 여과하듯 자태가 사뭇 당당하다.

'인디안'이란 상표로 널리 알려진 패션 전문회사인 (주)세정서울사옥은 인디안이 하늘을 향해 활사위를 당기듯 사뭇 팽팽한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금방이라도 과녁을 향해 날아갈 듯한 사선 형태의 화살 이미지를 경쾌한 커튼월로 처리, 따사로운 햇볕을 가득 품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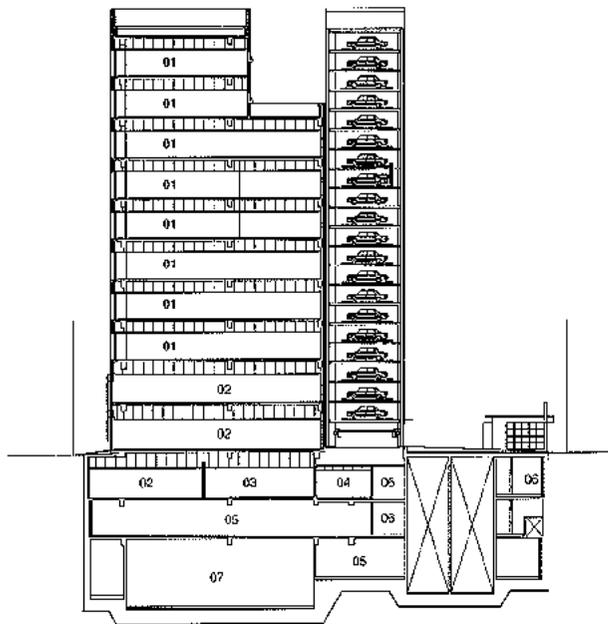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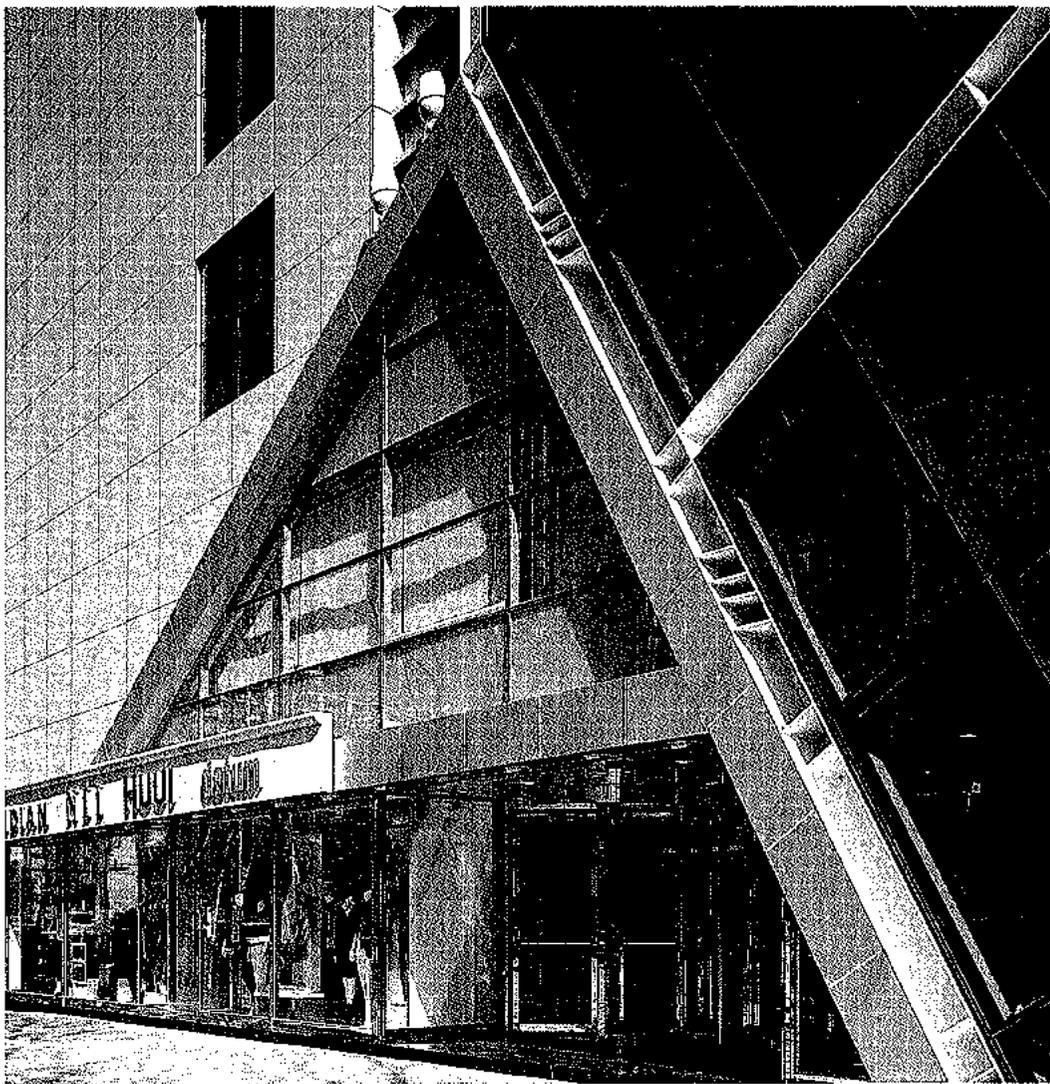
편 가르듯 정면을 들로 나누어 SOLID한 벽체 그 위에 격자 GRID PANEL로 벽을 만

들어 조금 아쉬운 듯 우측면 커튼월 구조를 사선으로 놓고 보니, SOLID한 벽면과 거리감이 생긴지라 좌측면 상부창을 커튼월 구조와 맞대응시켜 땅으로부터 사선으로 솟구쳐 오르는 거대한 H형강 통속에 영락없이 하나가 되고, 오른쪽 커튼월 중정속 반대편 북쪽 하늘이 파노라마처럼 겹쳐 밀려온다. 땅으로부터 솟아올라 유려하게 휘어진 강한 근육질의 노출된 H형강이 허리를 휘감듯 돌며 머리까지 뺏친 자태는, 강한 프레임속에 극히 절제된 지붕에서 하늘을 꿰뚫고 지붕을 겨루듯 지나가는 처들이 그 앞에서 하나의 세세한 조각품이 되어주길 바란다.

안 들여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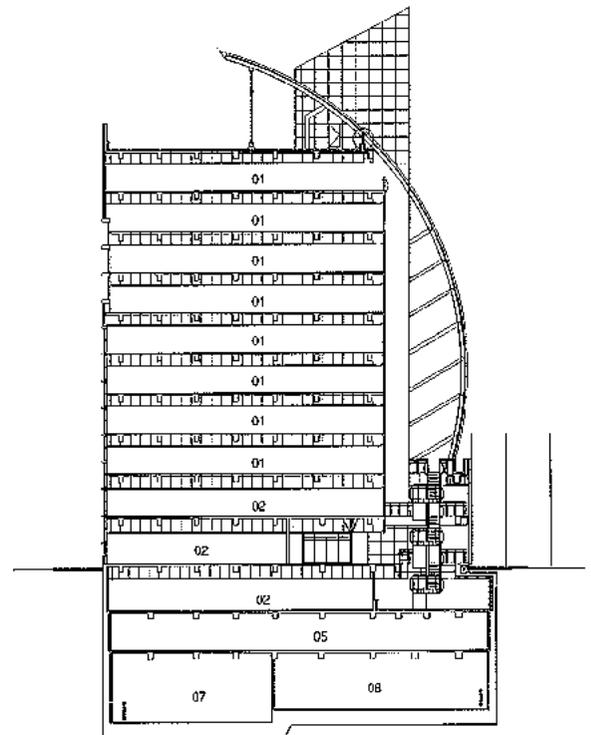
임대없이 전체를 사옥으로 쓰고자 하는 건축주에게 아트리움(Atrium)은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되고자 했다.

지상 1층에서부터 9층까지 아트리움(Atrium)을 향해 열려있는 사무공간은 커튼월이란 프리즘을 통해 외부의 세계를 조망할 수 있다. 서측으로 35m 떨어진 삼성로의 차



종단면도

- 01_ 업무시설
- 02_ 근린생활시설
- 03_ 식당
- 04_ 주차
- 05_ 지하주차장
- 06_ 상고
- 07_ 기계실
- 08_ 전기실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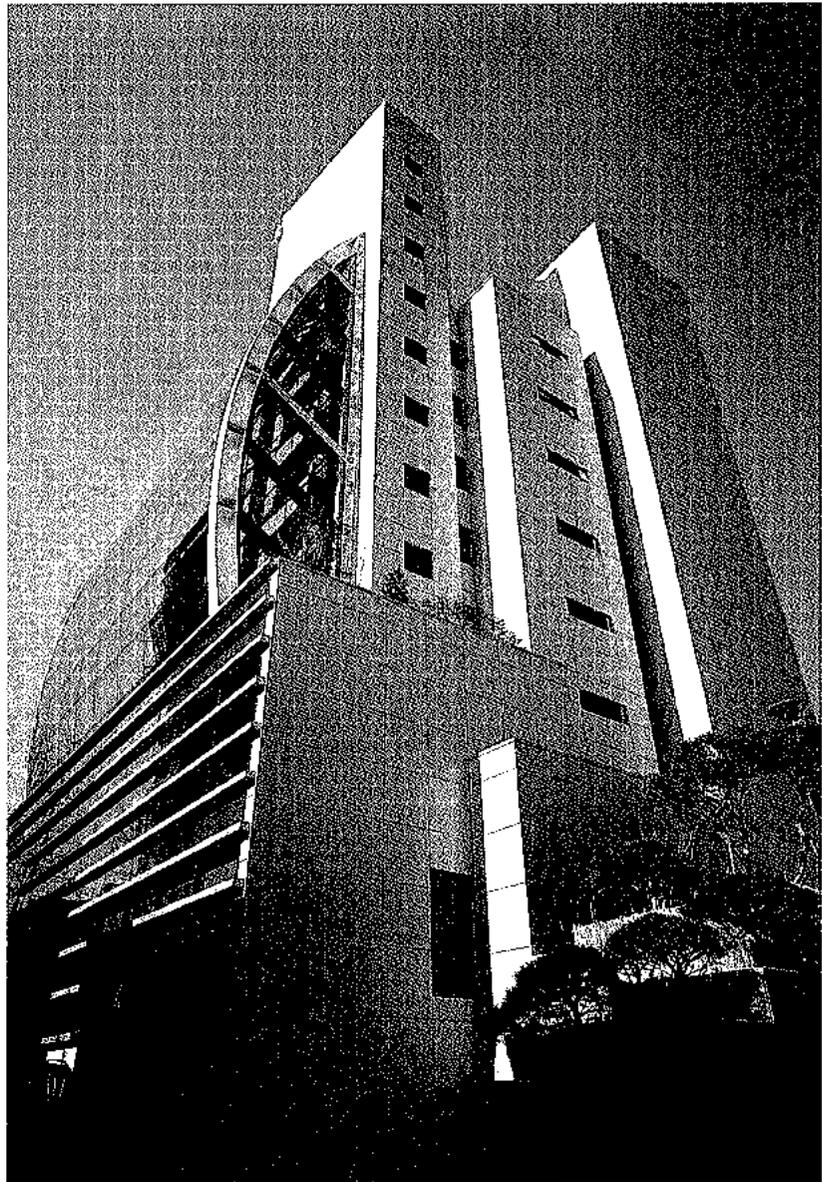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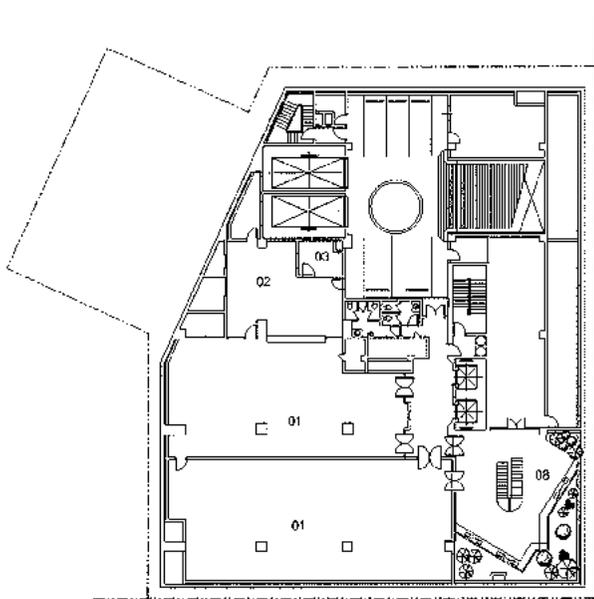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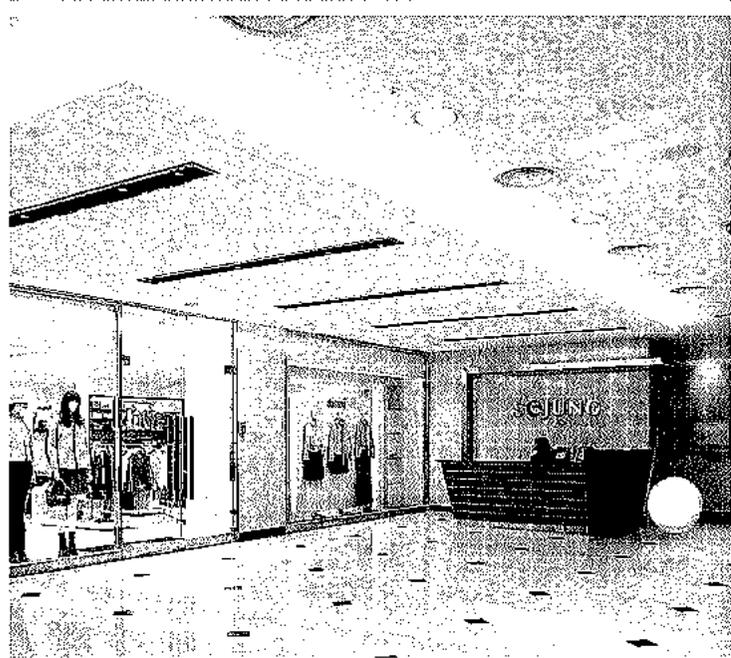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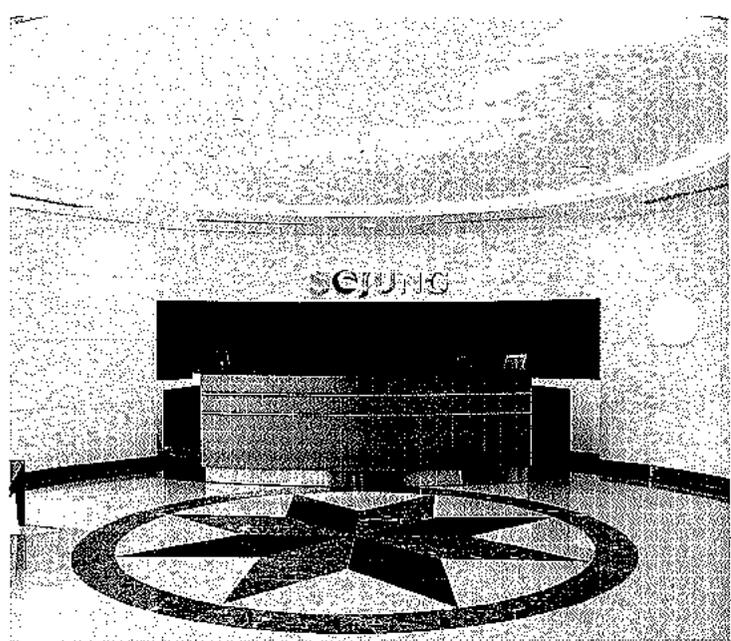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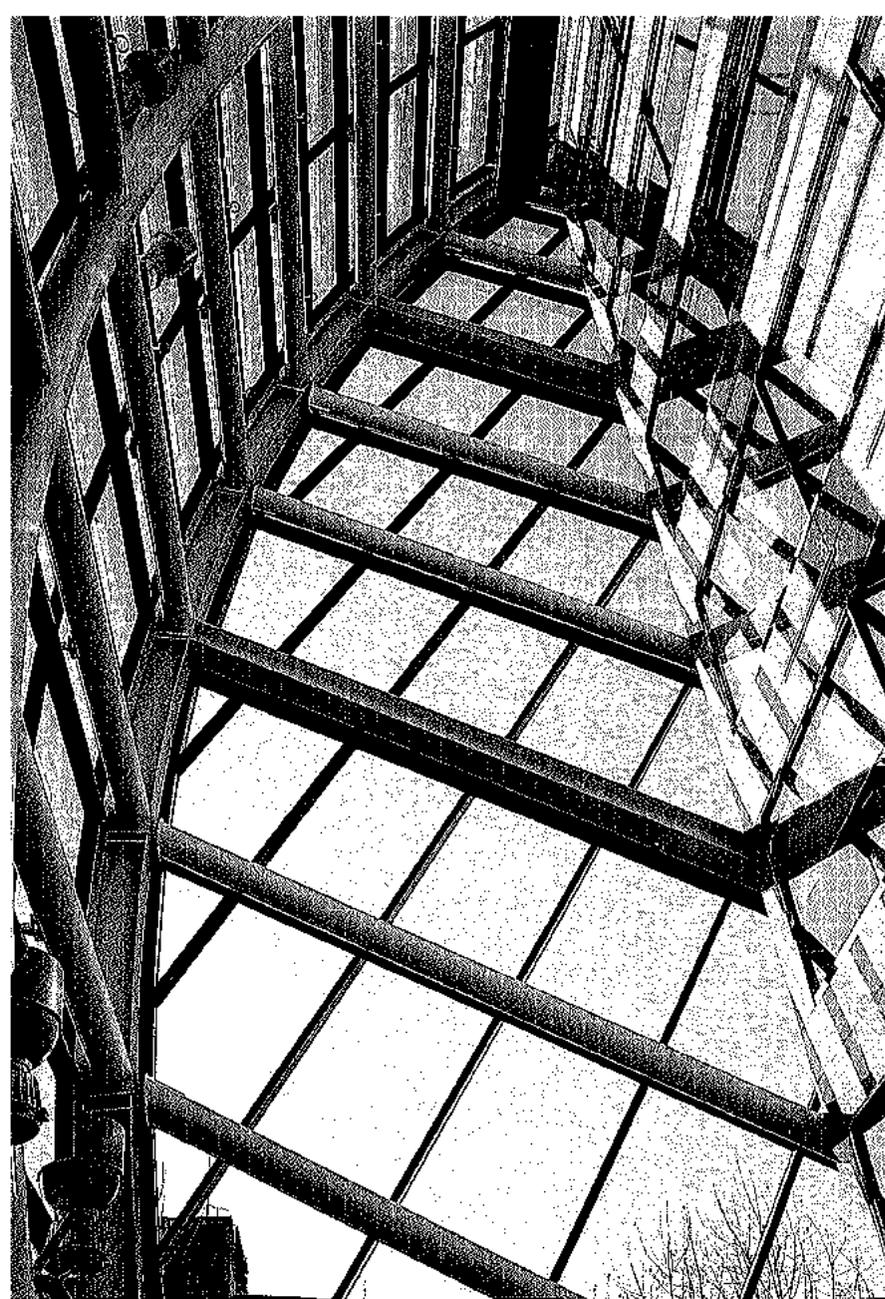
량 소음을 최소화하는 한 방법으로 전면부 Window Open을 절제하고 아트리움(Atrium)과 연계되는 부분에 창을 설치함으로써, 남측의 풍부한 일조량 확보와 대로변의 소음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사무공간을 갖 고자 하였다.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3층까지 직접 연결되는 증정의 Open된 내부계단은 지하 선 큰기둥과 풍부한 내부 공간의 연출이 되고자 하였다. 특히 지상 3층 아트리움(Atrium)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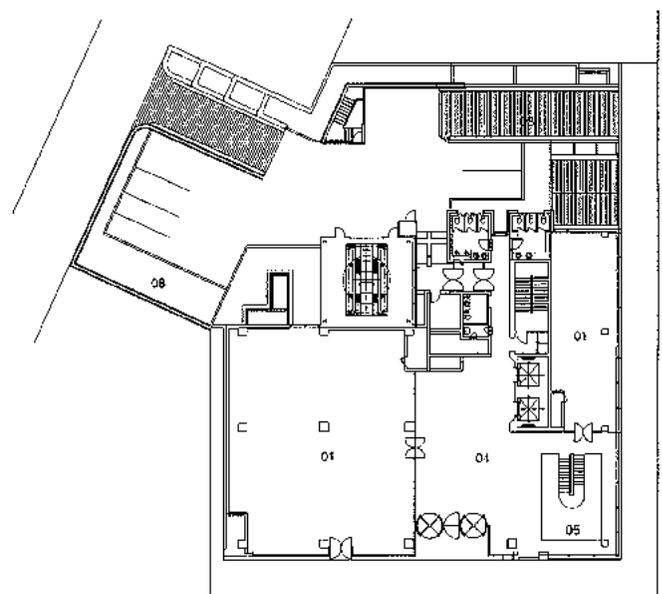
부에서는 추후 패션쇼 등 이벤트 행사장이 가능토록 계획하였으며, 각종 계단실 발코니 에서도 이 광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하 1층, 3층, 9층, 옥상에 설치된 조경시 설은 내부공간의 가치를 더욱 풍성히 높여줄 것이다. 주차장은 지하 1층에서 Car Lift를 통해 지하 2, 3층 주차장으로 곧바로 연계될 수 있게 하였고, 지상 1층에서는 Tower Parking 설치로 원활한 주차동선에 흠이 되지 않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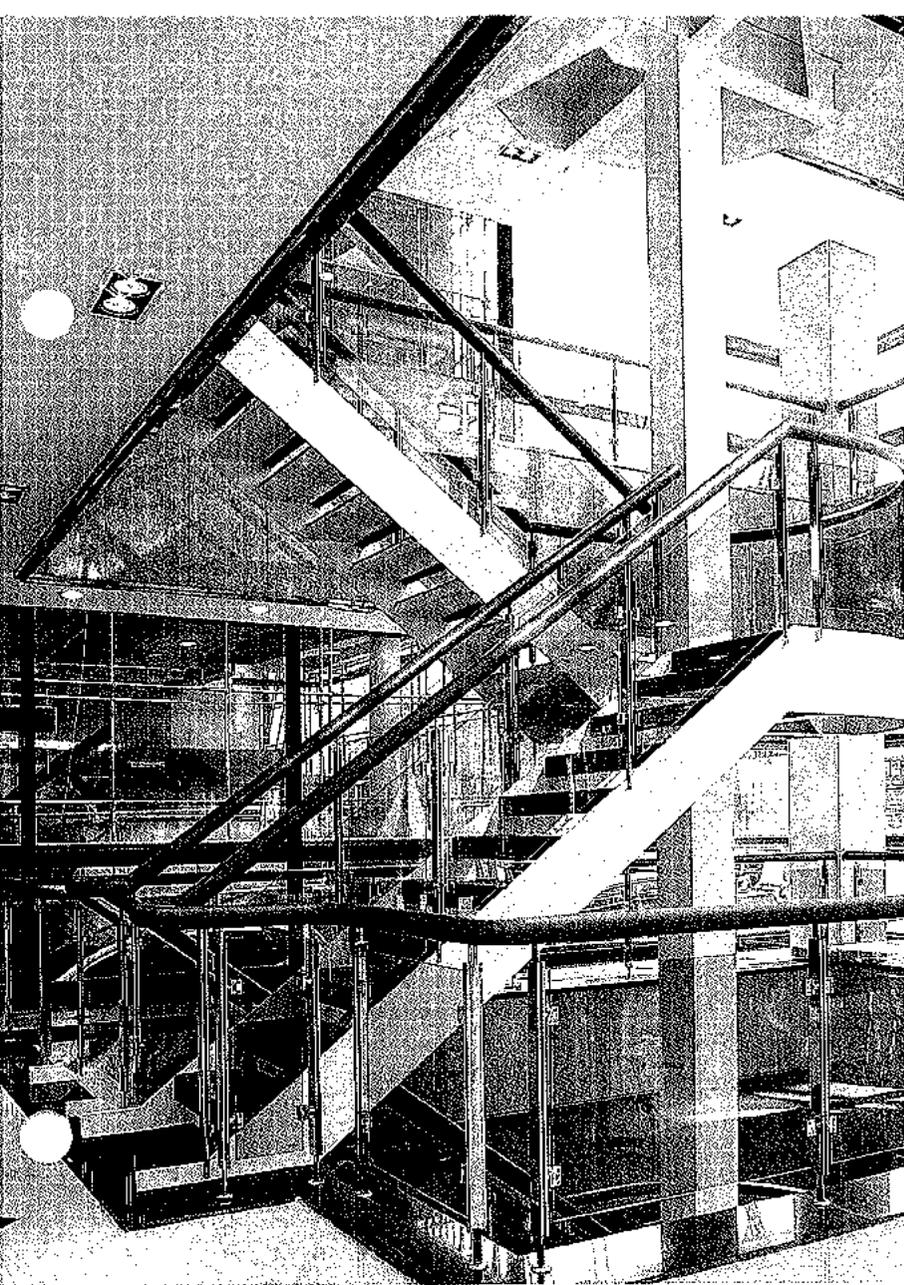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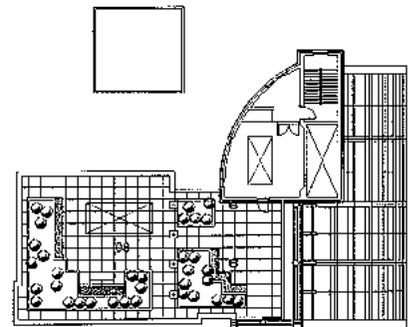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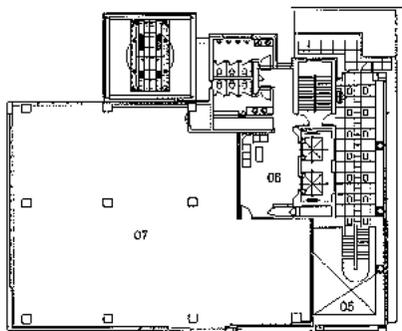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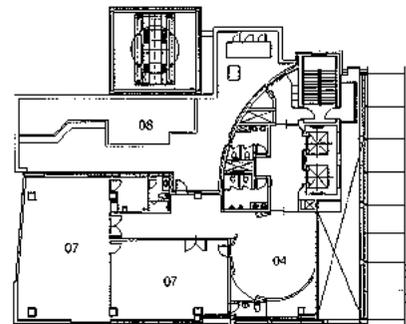
- 01_ 근원생활시설
- 02_ 복병
- 03_ 관리실
- 04_ 로비
- 05_ 아트리움
- 06_ 홀
- 07_ 업무시설
- 08_ 보강



9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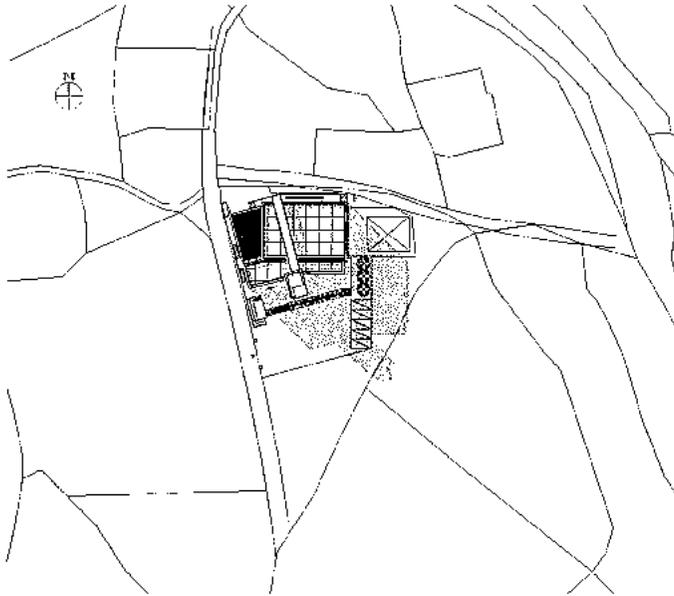
9층 평면도

월산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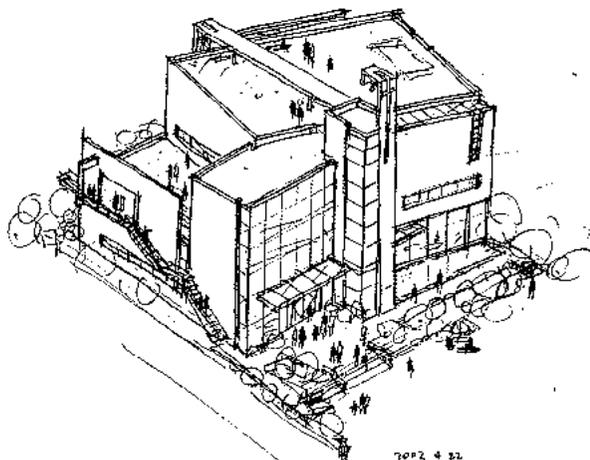
Wulsan Church

● 배치도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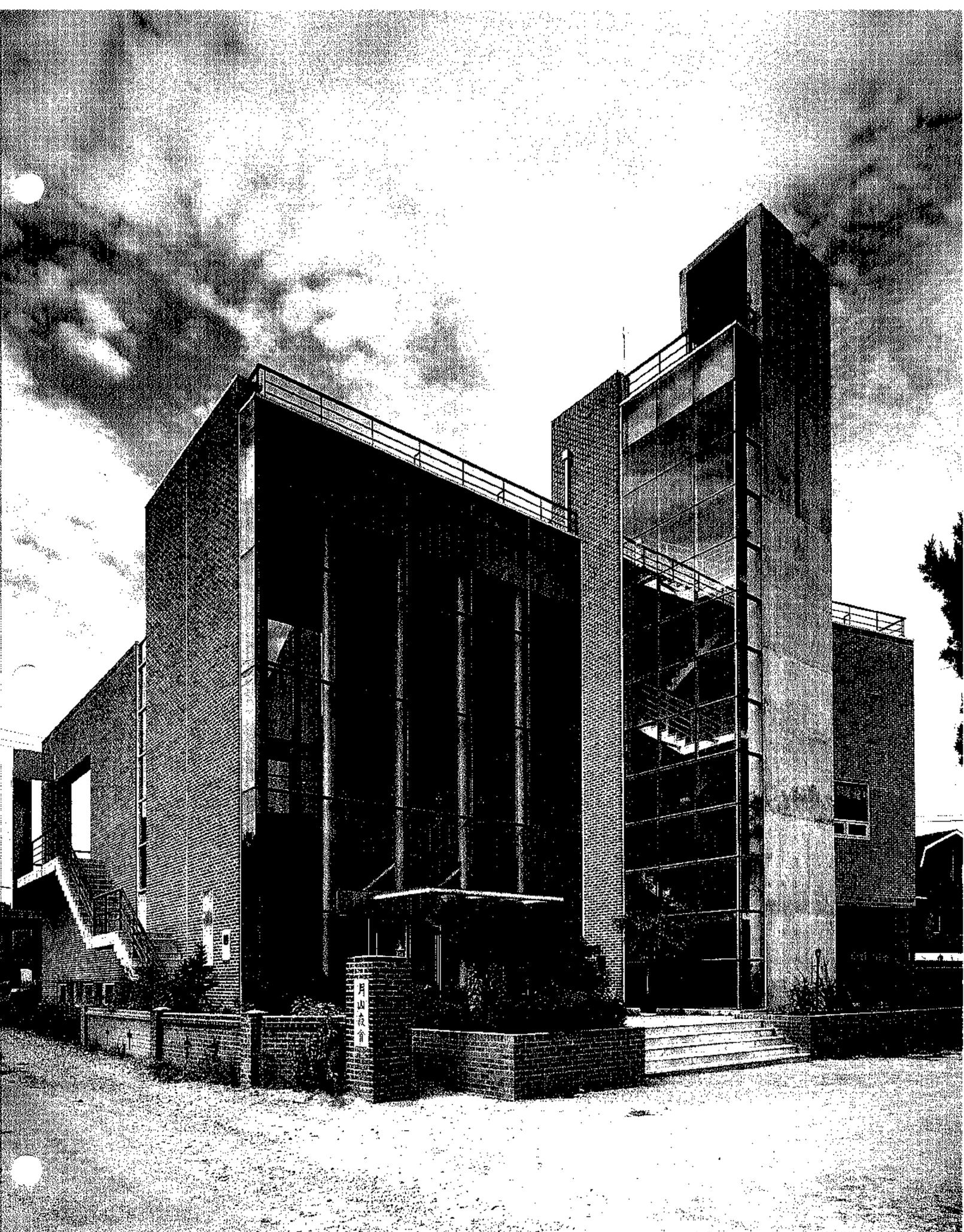
대지위치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555-1, 2, 3번지
지역지구	관리지역,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
대지면적	2,417.00㎡
건축면적	460.49㎡
연면적	799.01㎡
건폐율	38.86%
용적률	67.43%
규모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치장벽돌쌓기, T18복층유리
내부마감	화강석, 치장벽돌쌓기, 수성페인트
건축주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
시공	다동건설
구조설계	사림구조
기계	선화기술단
전기	(주)우림이앤씨 컨설턴트
설계담당	박지훈, 전영순, 유은미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채수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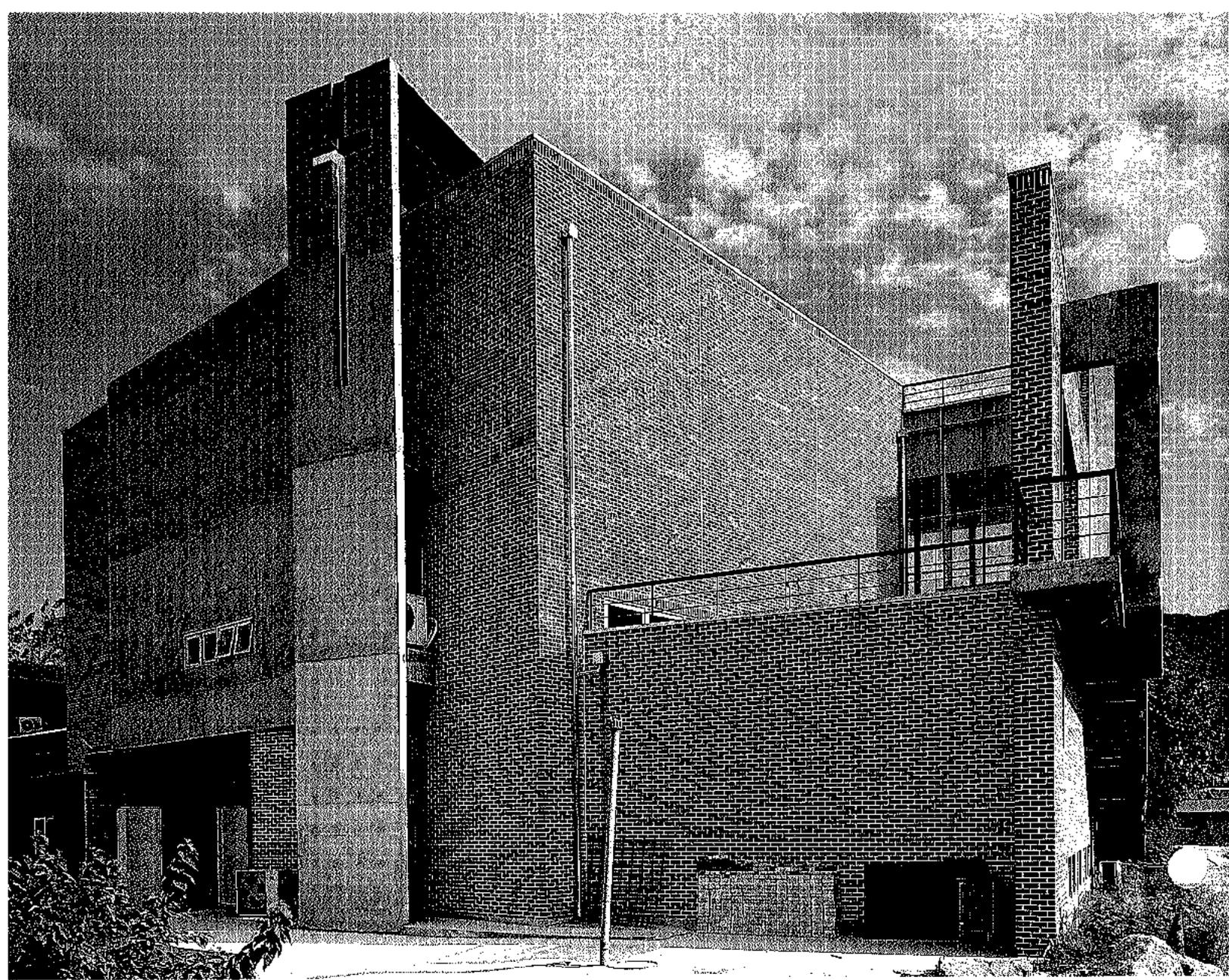


건축가에게 건축은 좋은 기회이기도 시험이기도 하고, 작가의 전부를 드러내는 실력과 내면의 노출이기도 하다. 자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

월산교회는 200여평 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교회 건물이다. 그렇지만 거의 100년 가까운 교회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신도 분들과 목사님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상수도 보호 지역으로서 단위 건물이 800㎡이하의 법적 조건이 있었다. 300평 정도의 본래 프로그램을 240평(800㎡)이하로 축소해서 면적을 맞추었다. 교회부지는 비교적 넓었지만 건축할 수 있는 대지는 여러 조건으로 크기가 제한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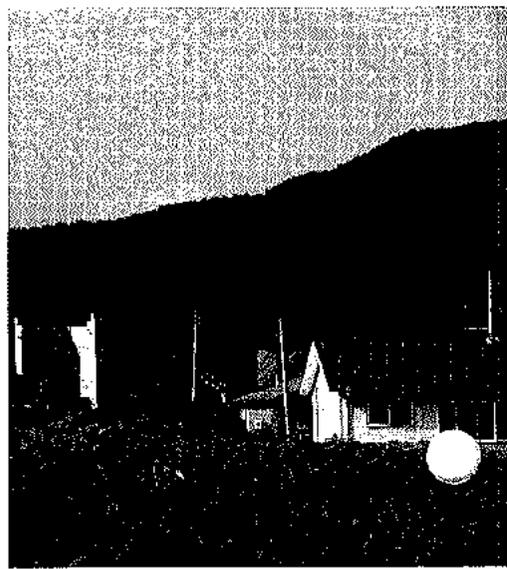


좁은 대지에서 건물의 배치와 평면은 대지 모양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칠산교회는 대지모양의 영향을 준 두개의 상자가 결합되어 있다. 하나는 2층에 위치한 대예배실의 덩어리이고, 하나는 1층의 입구 홀과 소예배실 덩어리이다. 두개의 상자가 만나는 작은 각도가 조형의 변화를 만들고 다른 축이 만나는 꺾인 부분에 계단실을 설치하고 평면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계단의 수직적 요소는 대예배실로 가는 주된 실내 동선이 되고 십자가와 종탑으로 활용한다.

교회의 오랜 상징으로서 십자가는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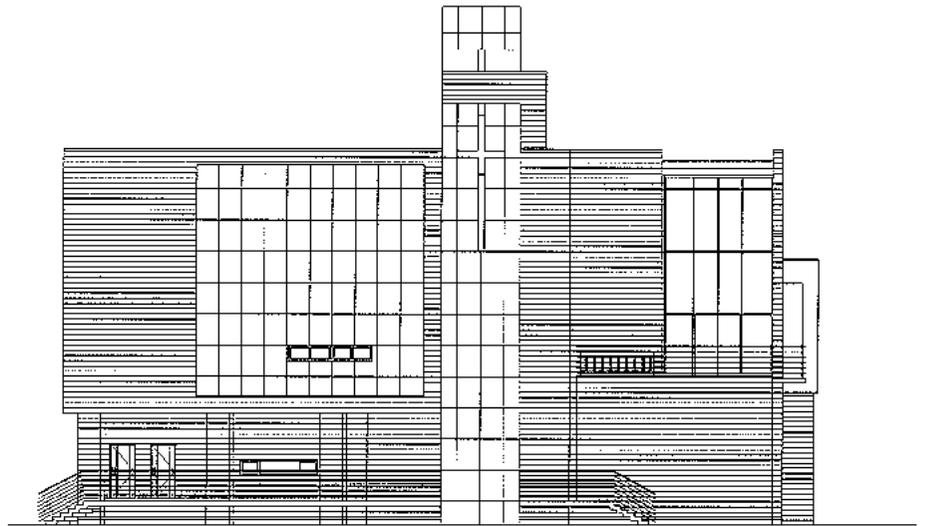
를 동선으로 만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움 중에 하나였다. 돌출 모양의 붉은 네온으로 생각되는 입상적인 교회의 십자가를, 노출 콘크리트 음각 십자가로 변형해서 표현했다. 음각으로 투시형 십자가는 건물 배면에 한 개가 더 있고, 대예배실의 강대상 상부의 주십자기도 음각 투시형으로 계획되었다. 특히 대예배실의 십자가는 동향을 향하고 있어서 오전에는 십자가 모양의 햇빛이 대예배실 안으로 김숙이 든다. 밤이 되면 강대상의 하얀 벽과 대비되어 검은 색의 선명한 십자가도 새롭게 드러난다.

예배실은 고백의 장소이자 찬양과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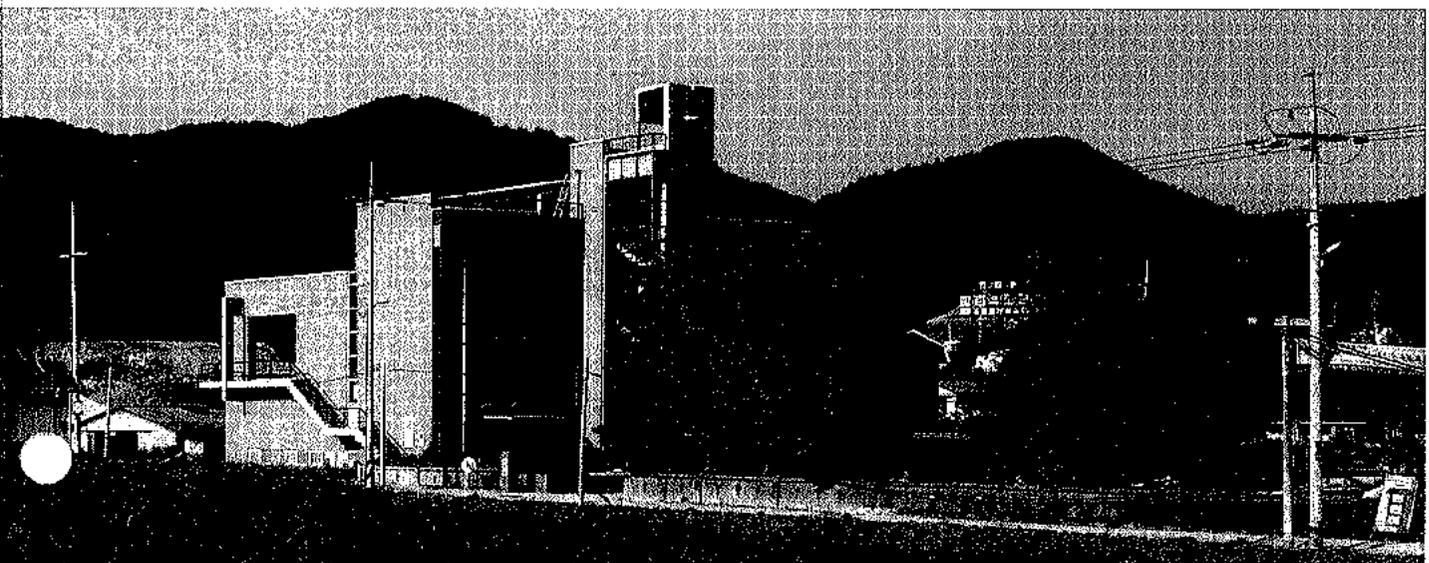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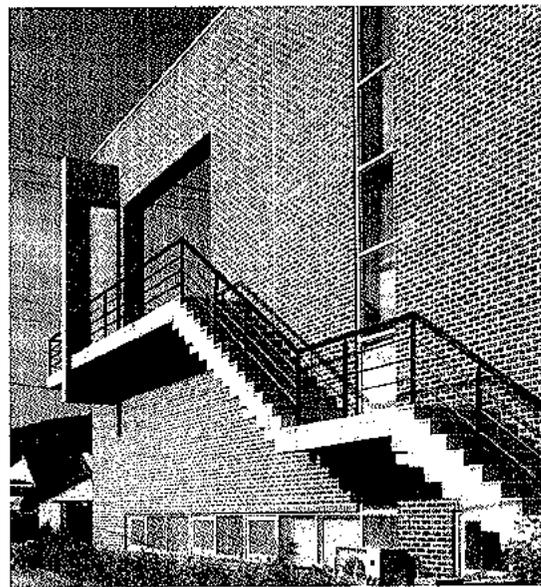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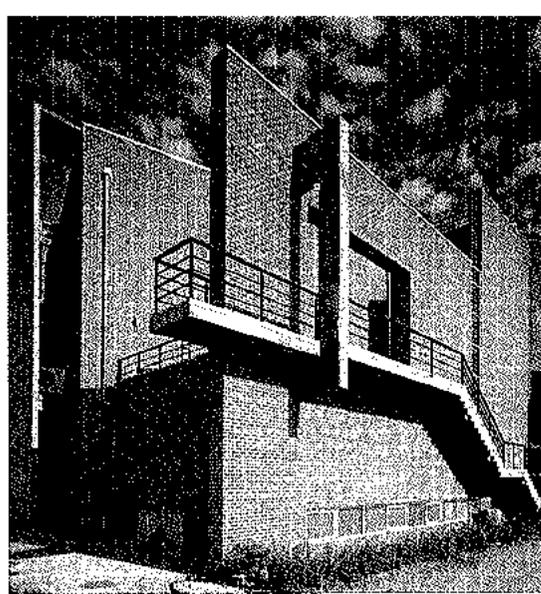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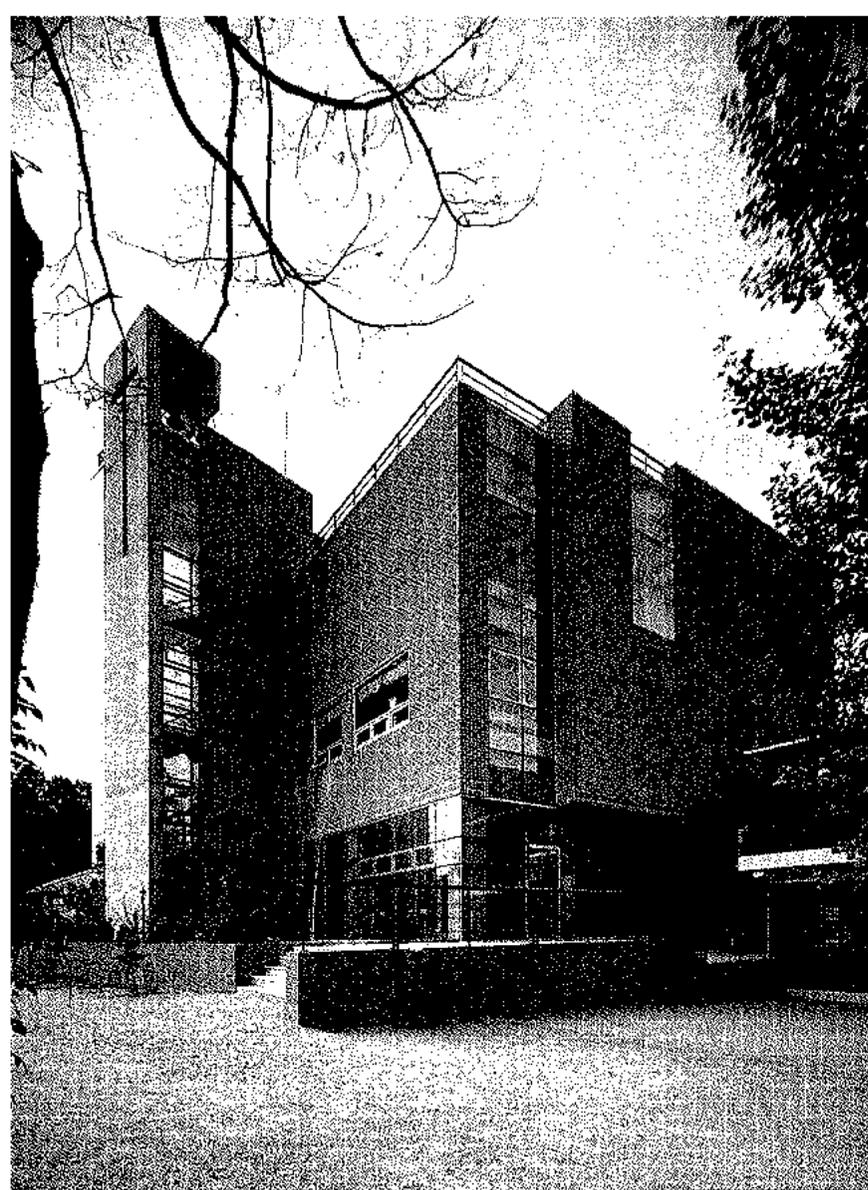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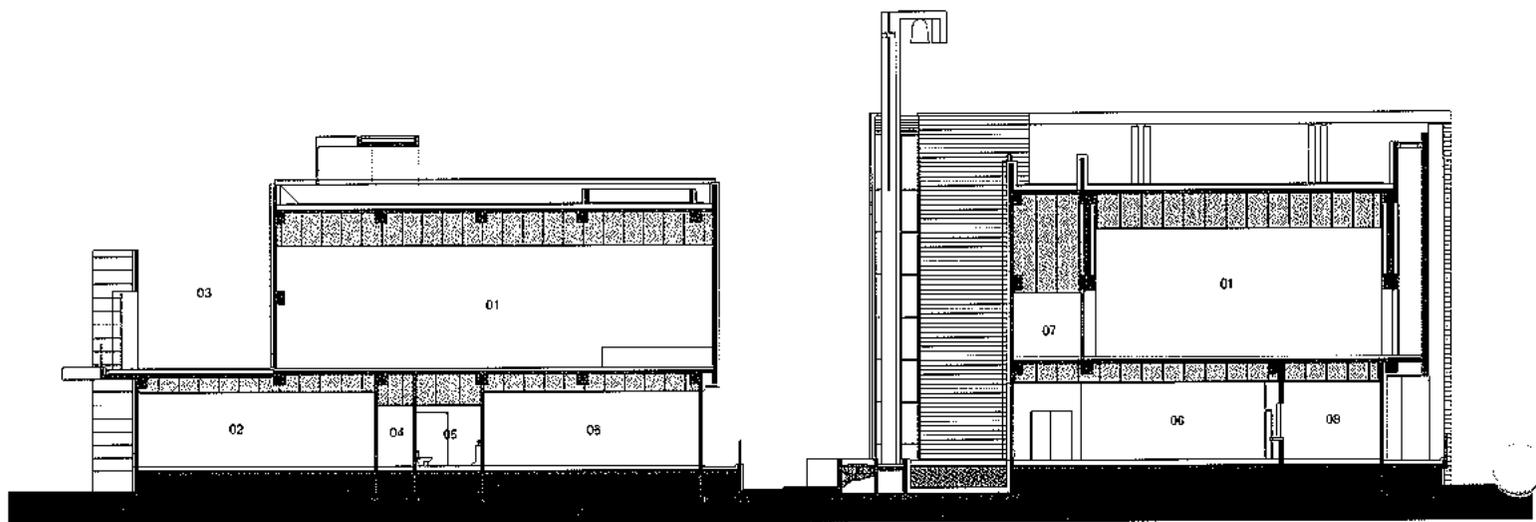


북측면도





- 01. 대예비실
- 02. 소예비실
- 03. DECK
- 04. 복도
- 05. 화장실
- 06. 식당
- 07. 지모실
- 08. 주방



주단면도

의 장소이기도 하다. 사용 가능한 대지가 협소한 이유로 해서 공간을 만들고 동선을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예배실로 접근하는 동선에 관해서 조금은 길이를 만들면서 예배의 장소가 점층적으로 마음의 이끌여지도록 만들려는 건축적인 장치가 외부계단과 2층의 데크다. 예배 전공간으로서 2층의 야외 데크는 대예배실과 같은 레벨로서 예배 전후 시간에 친교와 준비의 장소가 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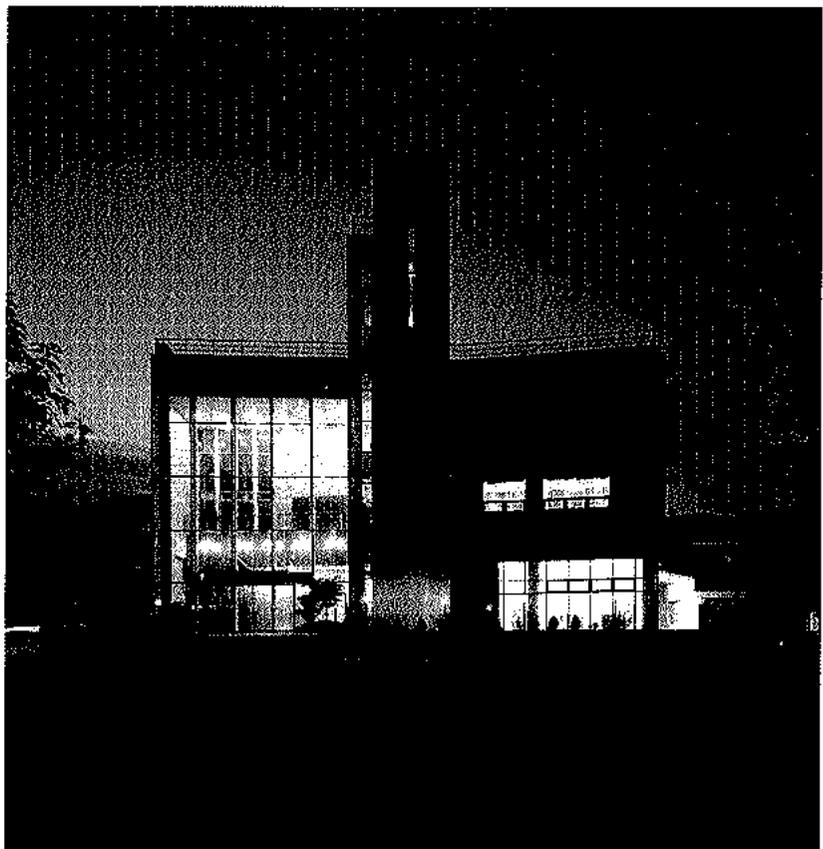
조금은 돌아가지만 벽을 타고 설치된 계단은 새로운 조망이 생기면서 대예배실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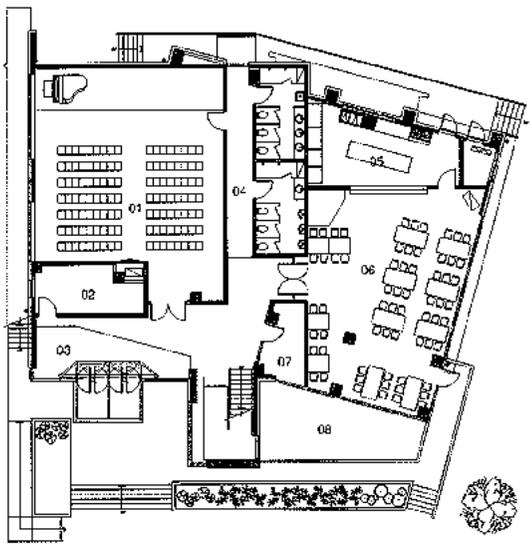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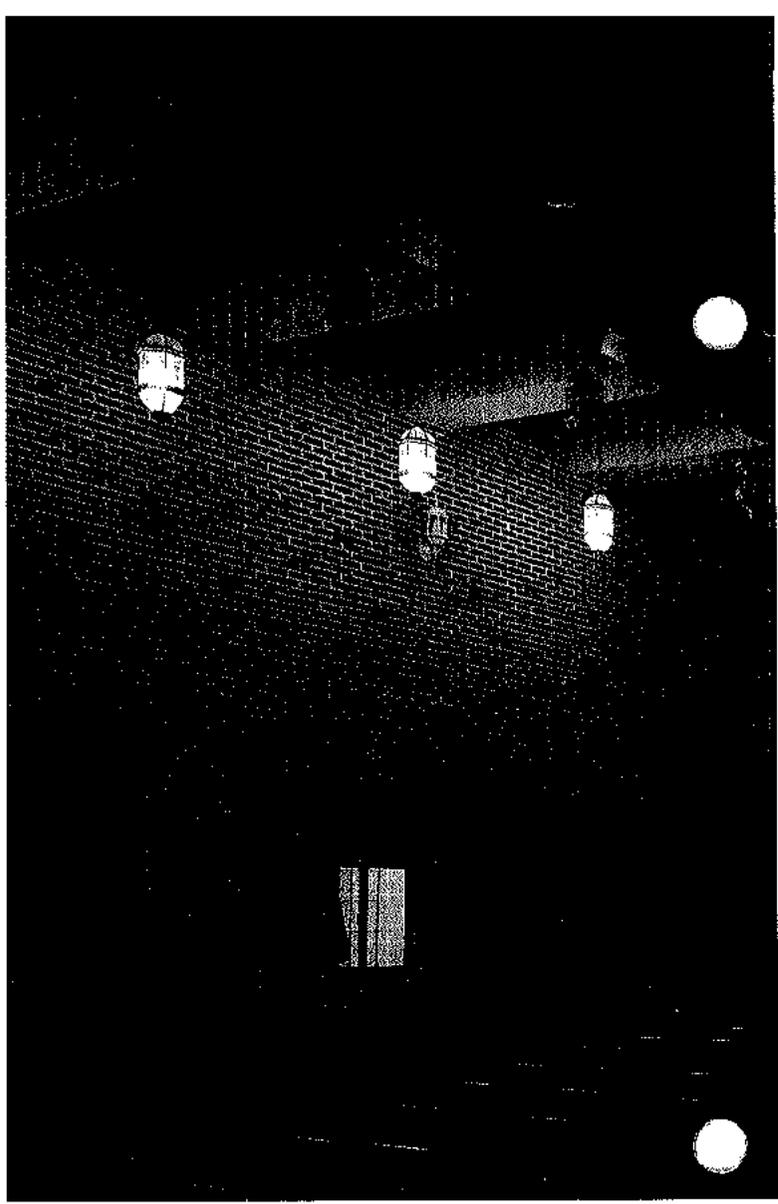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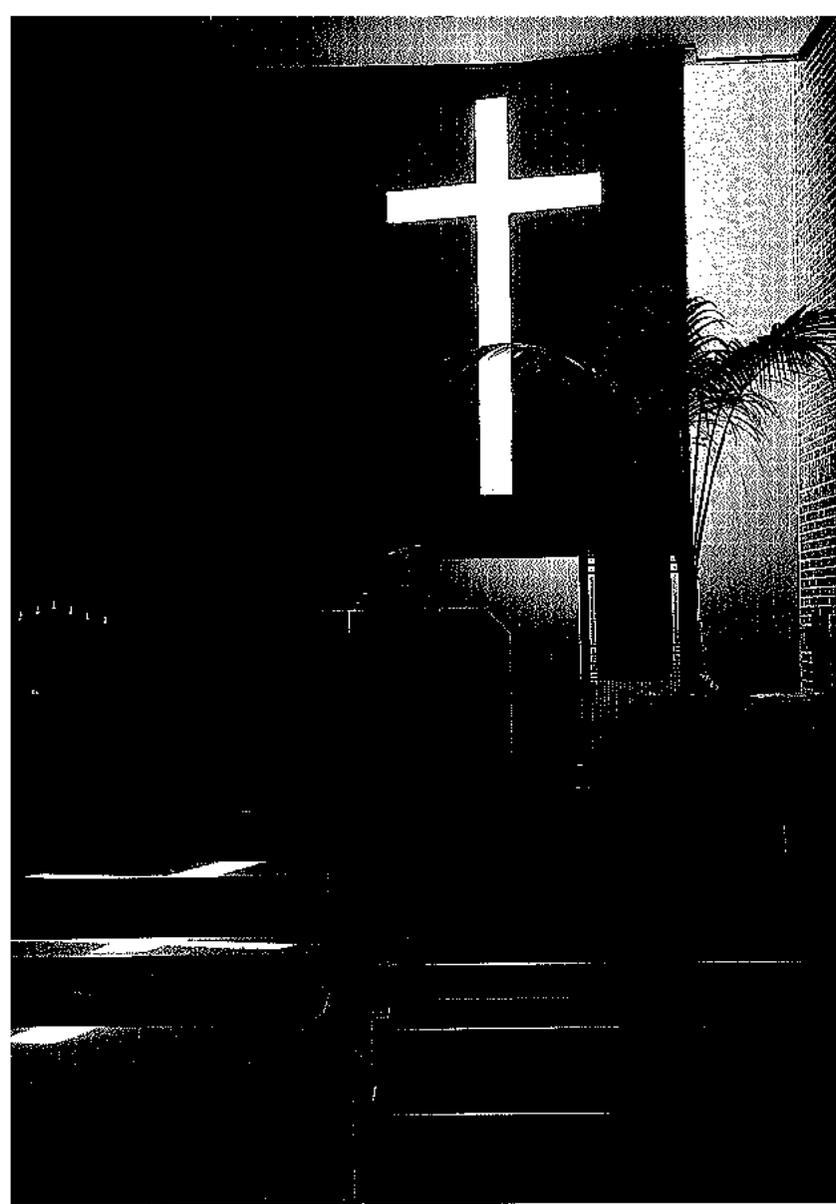
소예배실은 학생과 청년들의 장소로 주로 활용될 것이다. 1층에는 샤워실이 포함된 화장실과 미당쪽으로 전면창을 한 식당이 있다. 식당은 내부에서 이용하게 되어있지만 교회 마당에서 진입도 가능하다.

옥상은 또 하나의 조망, 휴게, 야외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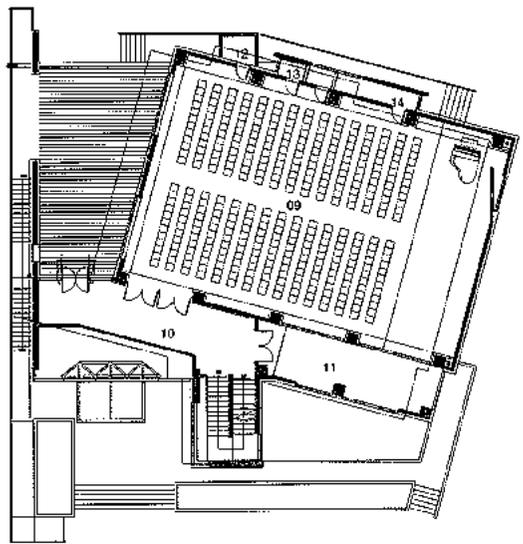
등을 위한 마당으로 활용될 것이다. 노출콘크리트로 된 후면 십자가벽의 수직요소가 옥상의 수평 파고리와 만나서 입체감을 만드는 조형요소가 된다.

계단실과 함께 주출입구의 벽을 이루는 유리 커튼월 벽은 주 외벽 재료인 벽돌과 대비되어 투명하고 가벼운 건물의 이미지를 만든다. 2층 데크에서의 출입구 부분의 벽도 유리 커튼월로 되어 있다. 벽돌 건물들이 갖는 무겁고 중후한 느낌을 유리의 투명한 느낌이 상쇄시켜 밝고 경쾌하게 느껴졌으면 한다. 밝고 빛이 많은 건물. 그 안이 건강한 삶과 신앙과 친교의 다양한 즐거움이 피어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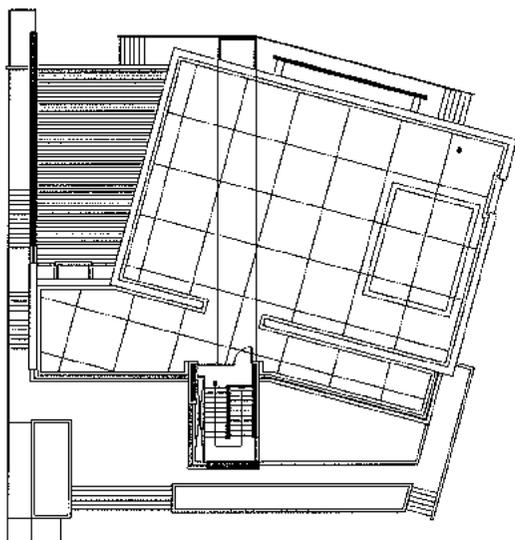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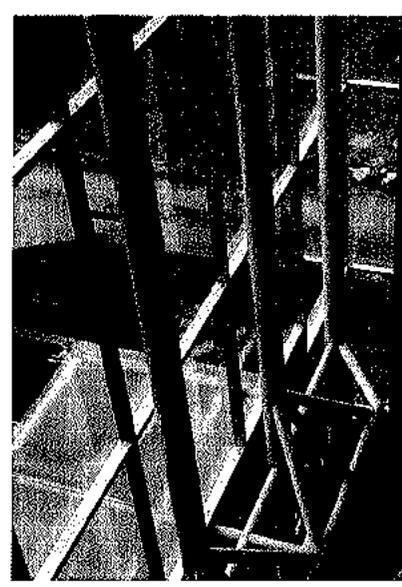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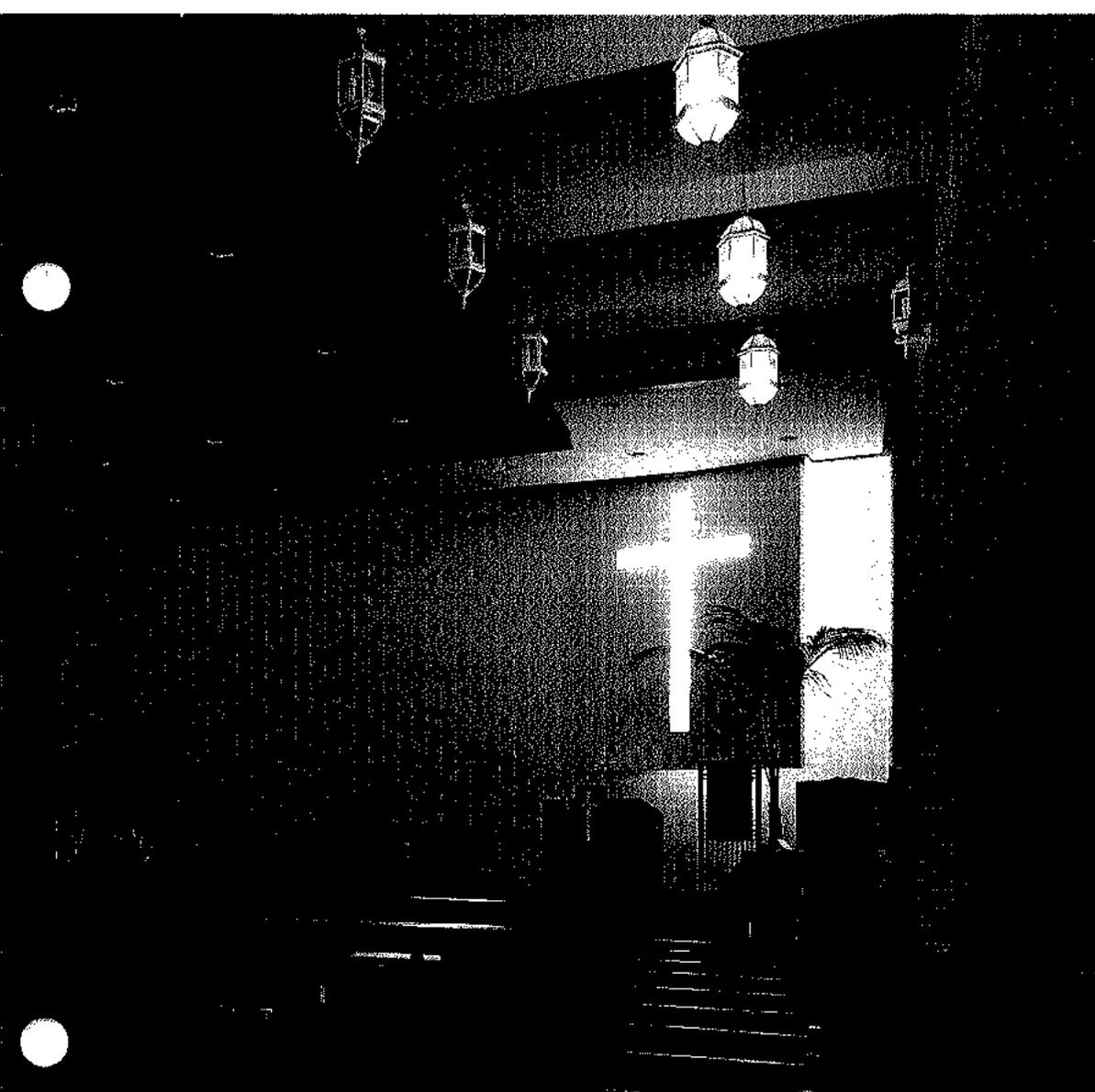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01_ 소례배실
- 02_ 교목실
- 03_ 복도
- 04_ 복도
- 05_ 주방
- 06_ 식당
- 07_ 사무실
- 08_ ROND
- 09_ 대미배실
- 10_ 층
- 11_ 자양실
- 12_ 경교니
- 13_ 기도실
- 14_ 음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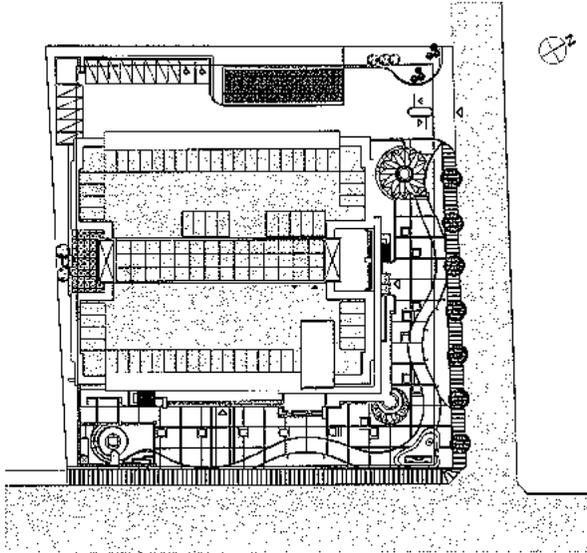
PH층 평면도

에이스 테크노타워 VIII

Ace Techno Tower VIII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 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1-7번지
지역 지구	준공업지역, 공항고도지구(진입표면)
용 도	아파트형공장
대지면적	6,772㎡
건축면적	2,851.70㎡
연 면 적	42,352.06㎡
건 폐 율	42.11 %
용 적 륜	478.23 %
규 모	지하 2층, 지상 1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저반사 칼라 복층유리, 일미능복합판넬
설계 담당	김용호, 박장호, 홍승진, 조병철, 심태성, 김성일
감 리	노덕환
시 공	에이스종합건설(주)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채수옥)



이 건물이 위치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과거 구로공단의 이미지가 먼 추억속으로 사라져 가고, 최근 몇 년 사이 첨단산업의 집적지로서 그 모습을 탈바꿈 했으며 지금까지도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동일 블럭내 에이스 타운을 이루고 있는 1차~7차의 전작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적 맥락을 유지하면서 한층 성숙된 현대미를 갖는 디자인의 진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인근의 개발과 무질서가 공존하는 환경에 질서를 주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건물의 배치는 산업단지의 주요 관통로인 전면 25m 공단로변에 가능한 많은 전면공지를 확보하기 위해 뒤편으로 밀어 배치하였다. 건물의 대지 후면 배치는 가로변의 개방감을 확보 하고 넓은 면적의 공개공지 설치로 도심속 휴식공간 제공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전면공지에는 선크 및 주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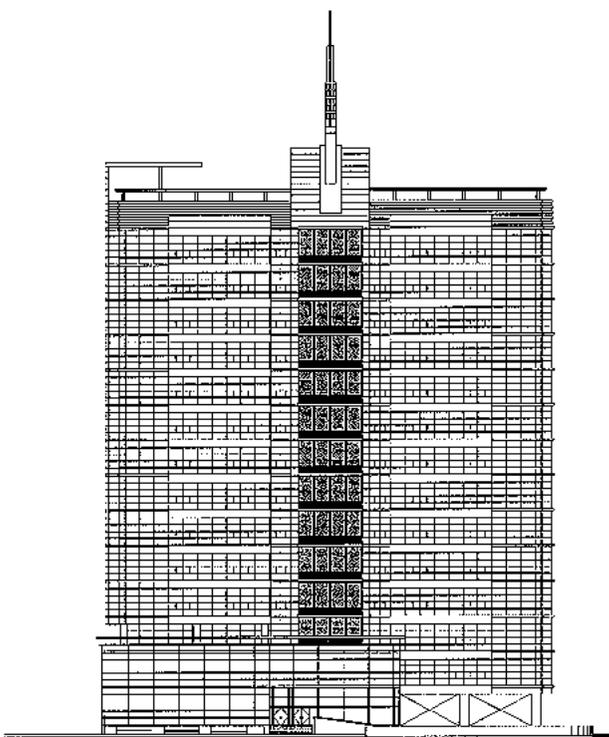
구를 두어 보행자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주차 및 하역동선은 건물 뒤편에 두어 이면도로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하였다.

평면구성은 코어를 중심으로 양측에 복도를 설치하고 실을 배치한 대칭형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평면 형태는 구조적인 내진성능 향상 및 각 실로의 접근성을 좋게하고 상호간 프라이버시를 유지케하는 장점이 있다. 기준층 코어는 간결하고 밀실한 구성으로 전용율을 극대화하고 기준 모듈은 동일하게 8m로 단순히 계획하여, 기능성 및 시공성을 충족시키되 분양시 가변형 분할이 자유롭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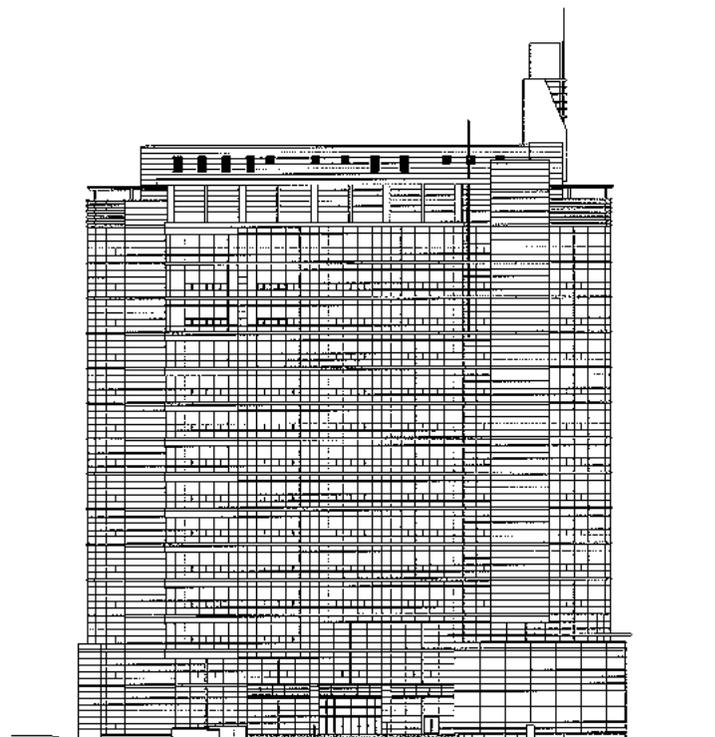
사업주인 기업은 물질적 측면의 사업성을 최우선 하지만 점차 건물의 건축적 가치

와 공간의 질을 중요시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려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도 건축의 패션화와 고급화를 추구하여 공용부분 및 1층 로비를 여유있고 고급스럽게 계획하였고,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14층 높이의 애매한 비례를 극복하기 위해 SOLID와 VOID의 면분할을 통해 MASS의 수직적 상승감과 긴장감을 주었으며 외벽의 주재료를 유리와 알루미늄합패널로 선정하여 첨단시설의 기능에 부합하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번 프로젝트가 도심의 활력넘치는 표정을 담아내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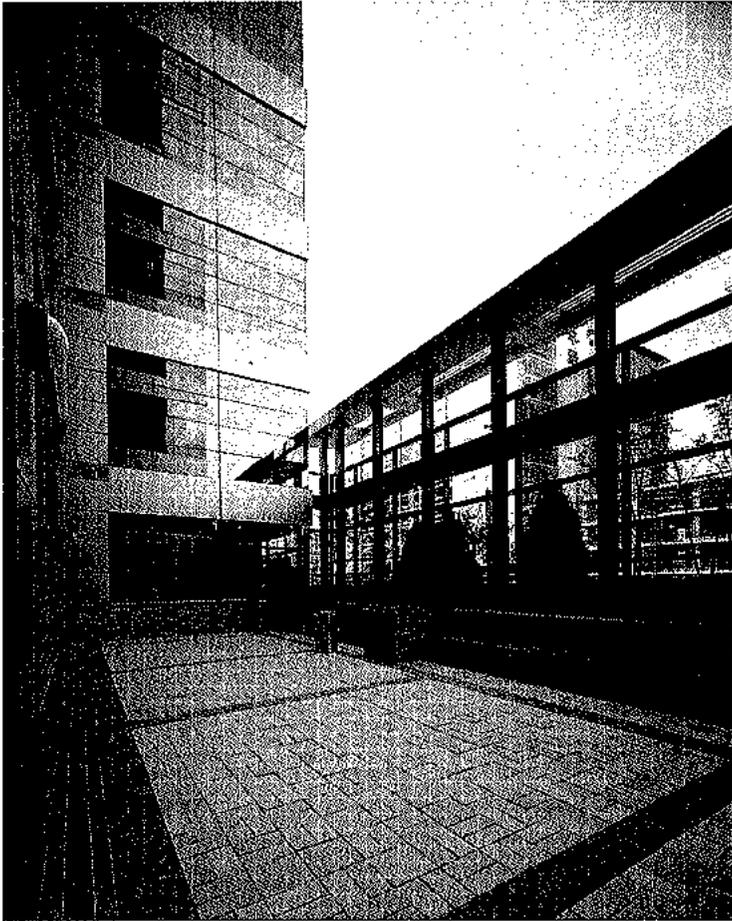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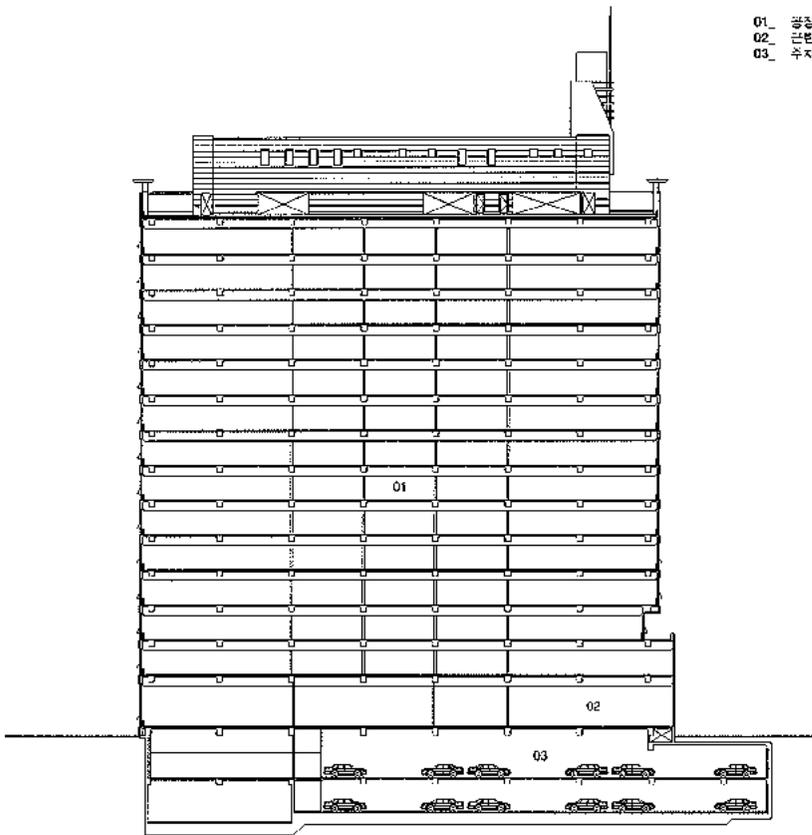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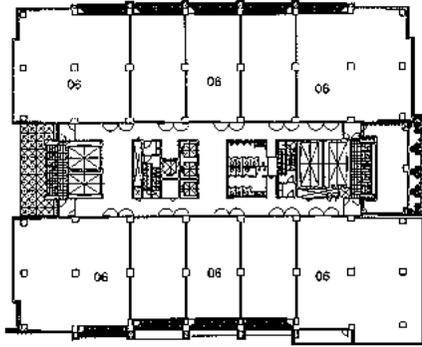
- 01_ 공강
- 02_ 근면생활사실
- 03_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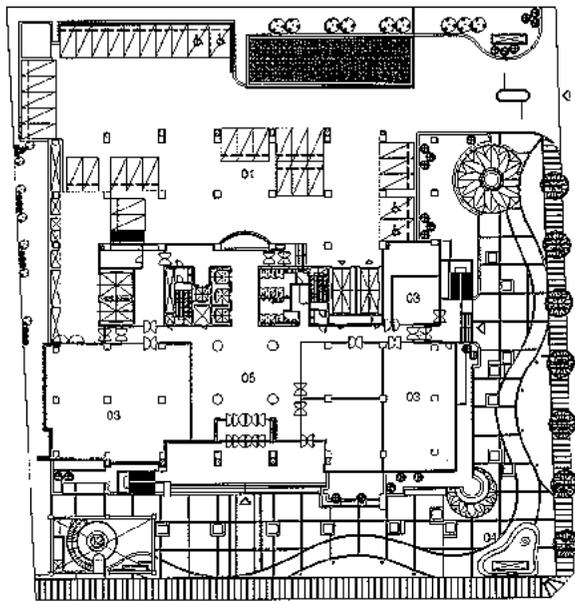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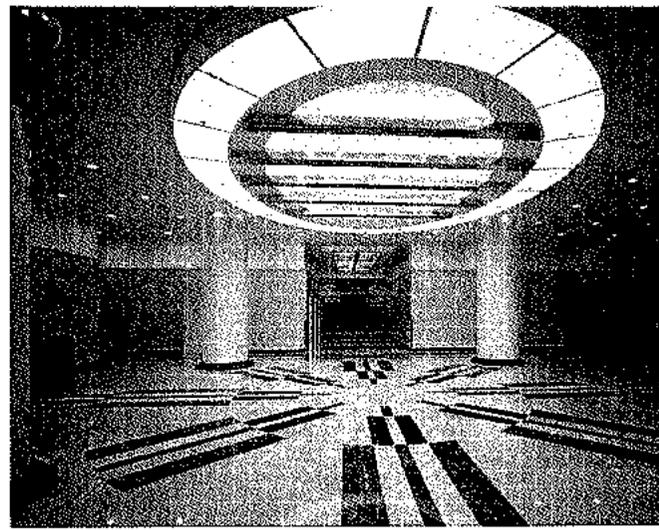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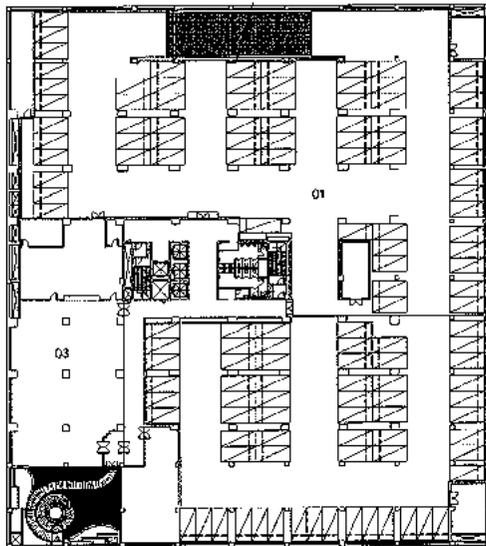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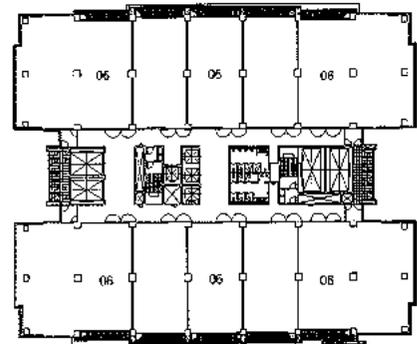


1층 평면도

- 01_ 주차장
- 02_ 선반
- 03_ 직원상용사실
- 04_ 영계공시
- 05_ 복도
- 06_ 화장
- 07_ 옥외휴게공간



지하 1층 평면도



기준층(4~14층) 평면도

리즈&마리안 여성병원

Liz & Marian Woman hospital

● 건축개요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두정동 1289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517,70㎡
건축면적	379,49㎡
연면적	2,463,90㎡
건폐율	73,30%
용적률	421,52%
규모	지하 1층, 지상 8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시암레드, 그레이, 외단열시스템
내부마감	석고보드위 V.P 도장, 천연대리석, 비닐계타일
주요설비	패널히팅, FCU, 시스템에어콘
설계담당	김원덕, 강신국, 이승찬
인테리어	(주)건축사사무소 아이.디.에스
시공	(주)대우산업개발
감리	(주)건축사사무소 아이.디.에스
건축주	정락은 외 2인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박영채)

Concept 1

리즈 앤 마리안 여성병원은 새롭게 상업지역으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져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 주변은 아직까지는 비워져있는 땅이 대부분이지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유사한 규모와 용도를 가진 건물들이 곧 들어서 평범한 가로변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이유로 대지가 가지는 특성보다는 여성전문병원이라는 기능과 그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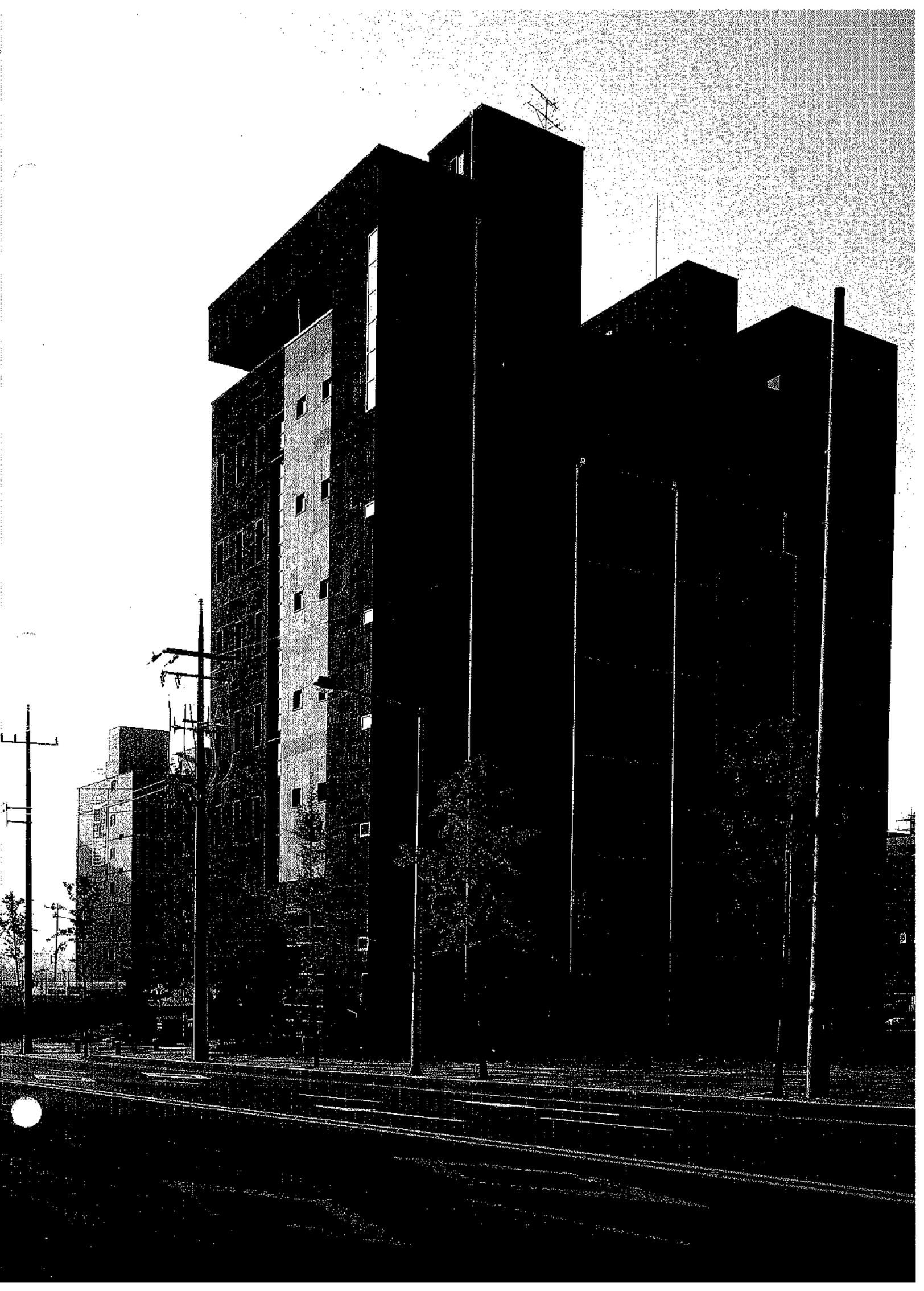
Concept 2

현재 병원 건축의 큰 유형은 동네의원, 대규모 종합병원, 도심형 전문병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중 도심형 전문병원은 동네의원의 경우처럼 임대형 건물에 인테리어적 해결 방법으로 병원을 구성하거나, 종합병원처럼 비교적 넓은 대지에 단장을 두르고 들어설 수가 없다.

리즈 앤 마리안 여성병원 또한 도심형 전문병원으로서 주어진 대지 면적에 비해

병원을 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각 실의 종류와 면적은 상당하다. 그와 더불어 환자들의 쾌적한 공간 조성 또한 기능의 해결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러한 상충된 요구와 더불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최고 층수 제한도 있었으므로, 적절한 면적 배분으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곳곳에 실내정원과 데크를 설치함으로써 건물전체에 여유를 만들어 주고자 하였다.





Program

리즈 앤 마리안 여성병원은 이름처럼 여성전문병원으로써 전체 건물을 사용하지만 크게는 소아과, 산부인과, 건강검진센터, 비만, 피부클리닉으로 구성되었다. 1층은 소아과와 전체 건물의 로비로서, 외부조경과 시각적 연계를 가지는 실내조경이 2층 산부인과 외래진료 대기실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2층 대기실에는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데크를 만들었고, 3층은 수술실 등 병원의 주요 기능적 실들이 모여있다. 4~6층은 입원실이 있는곳으로 전체 병원규모와 비교해볼 때 꽤 큰 공간을 할애하여 실내정원으로 만들어 환자 보호자

나 그 밖에 환자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싶 수 있도록 하였다. 7층은 건강검진센터와 비만클리닉으로 외부 데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8층은 피부클리닉과 직원 식당으로 사용하며 전면의 발코니와 식당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발코니를 설치하여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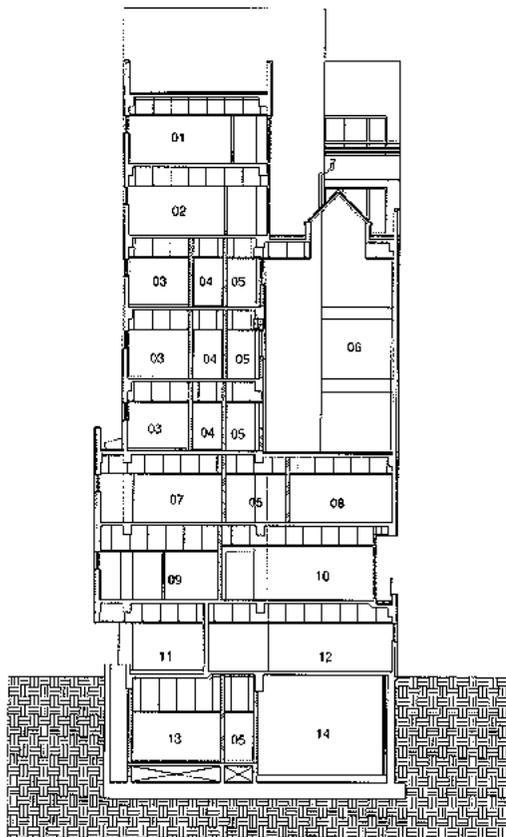
Material

여성병원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초기부터 건축주는 경제적이면서도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외장재를 원하였기에 붉은사암을 전면부에 주로 사용하였으며 부분적으로 회색사암을 사용하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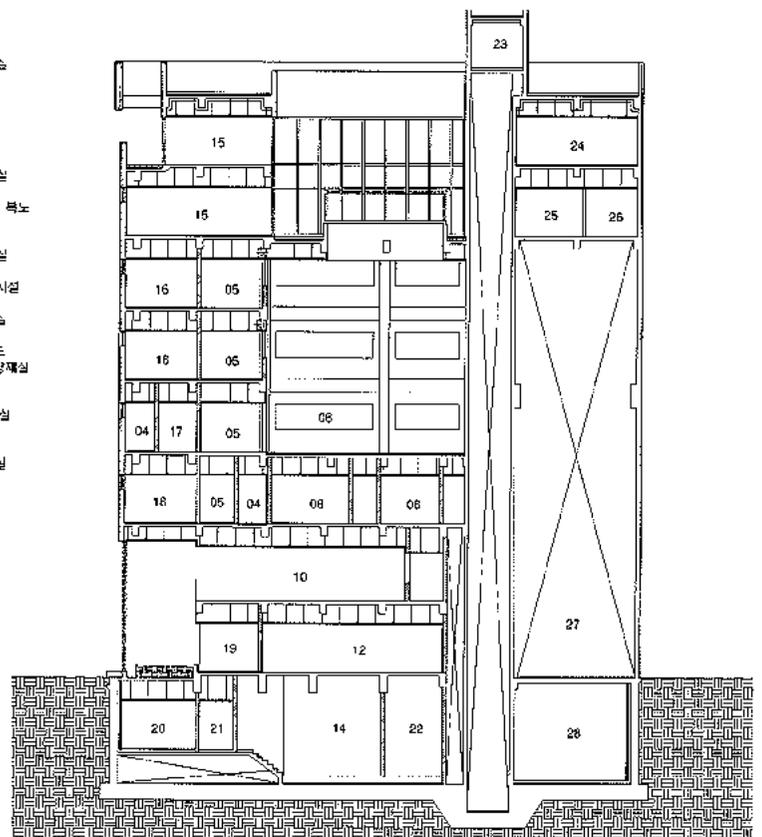
를 주도록 하였다.

외장재인 붉은 사암은 부분적으로 내부까지 끌어들이 외부의 이미지를 내부에서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무늬목과 패브릭 소재를 사용하여 친근하고 안락한 느낌을 받을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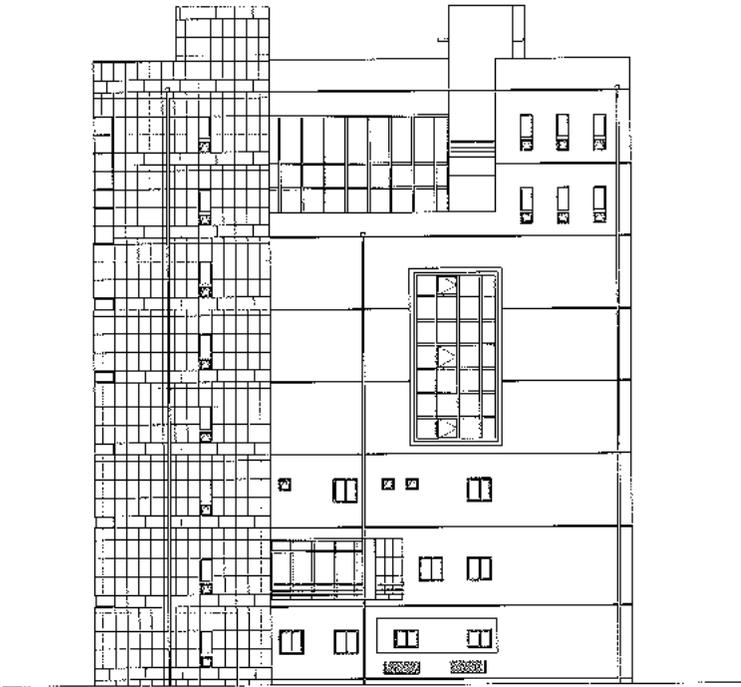
다만 비만, 피부클리닉은 이와는 달리 모자이크 타일과 밝은 색의 도장으로 경쾌한 느낌을 살리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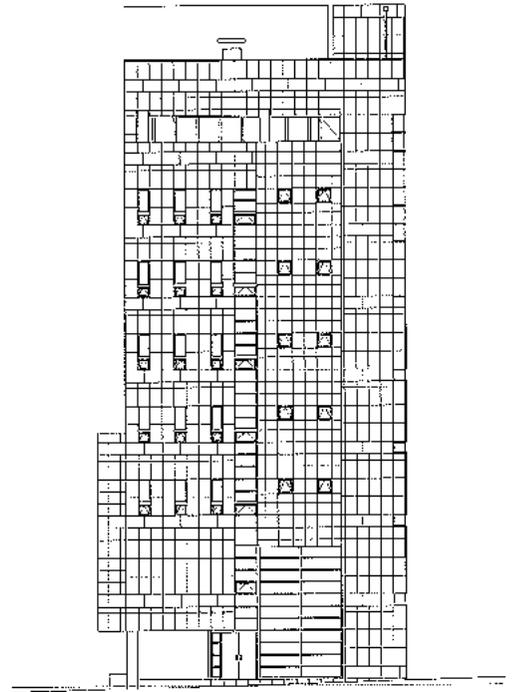
- 01. 피부관리실
- 02. 방사선실
- 03. 입원실
- 04. 화상실
- 05. 복도
- 06. 순환정원
- 07. 최복실
- 08. 가족방안실
- 09. 진료실
- 10. 대기실 및 복도
- 11. 주차장
- 12. 소아과
- 13. 세탁건조실
- 14. 집기실
- 15. 근린생활시설
- 16. 간호사실
- 17. 교목회의실
- 18. 수유실
- 19. 총 및 복도
- 20. 통신 및 방재실
- 21. 휴
- 22. 열선기실
- 23. E.L.E. 기계실
- 24. 식당
- 25. 대기실
- 26. 비만치료실
- 27. 주차타워
- 28. 기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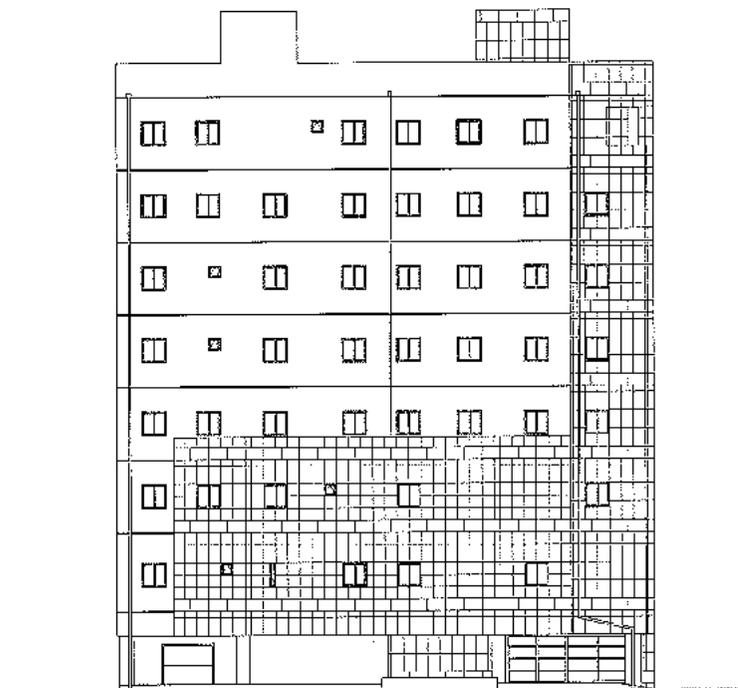
주단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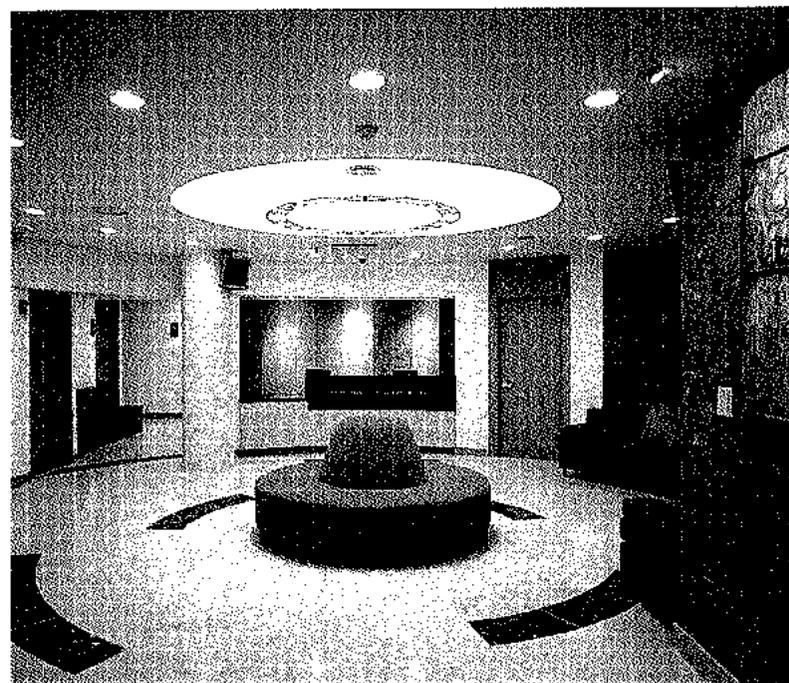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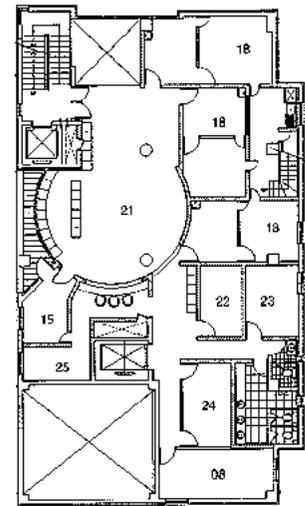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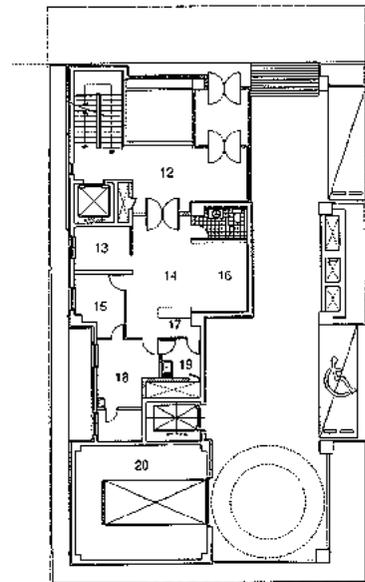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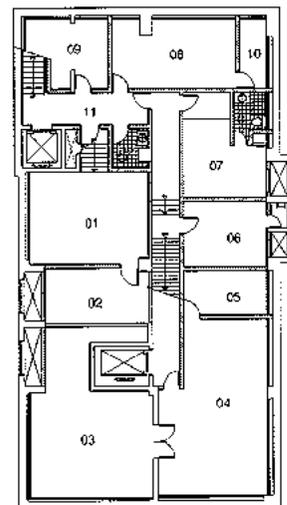
- 01. 전가실
- 02. 발간기실
- 03. 기계실
- 04. 저수조
- 05. 의료가스실
- 06. 세탁건조실
- 07. 의사당직실
- 08. 원무과
- 09. 통신 및 방재실
- 10. 약실
- 11. 총
- 12. 총 및 복도
- 13. 놀이방
- 14. 소아과
- 15. 주사실
- 16. 대기실
- 17. 접수
- 18. 진료실
- 19. 간호사실
- 20. 주차타워
- 21. 대기실 및 복도
- 22. 예진실
- 23. 임상병리실
- 24. 정밀조음파실
- 25. 처트실
- 26. 교육회의실
- 27. 입원실
- 28. 실내정원
- 29. 피육실
- 30. 특수실
- 31. 간호사실
- 32. 상담실
- 33. 처치실
- 34. 피육관리
- 35. 식당
- 36. 주차
- 37. 강의실
- 38. 옥외테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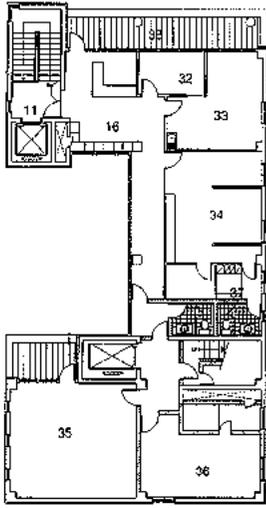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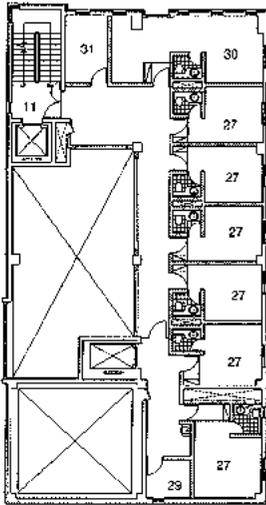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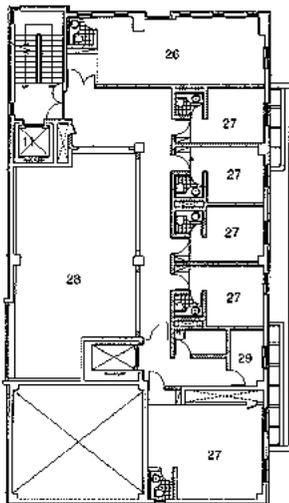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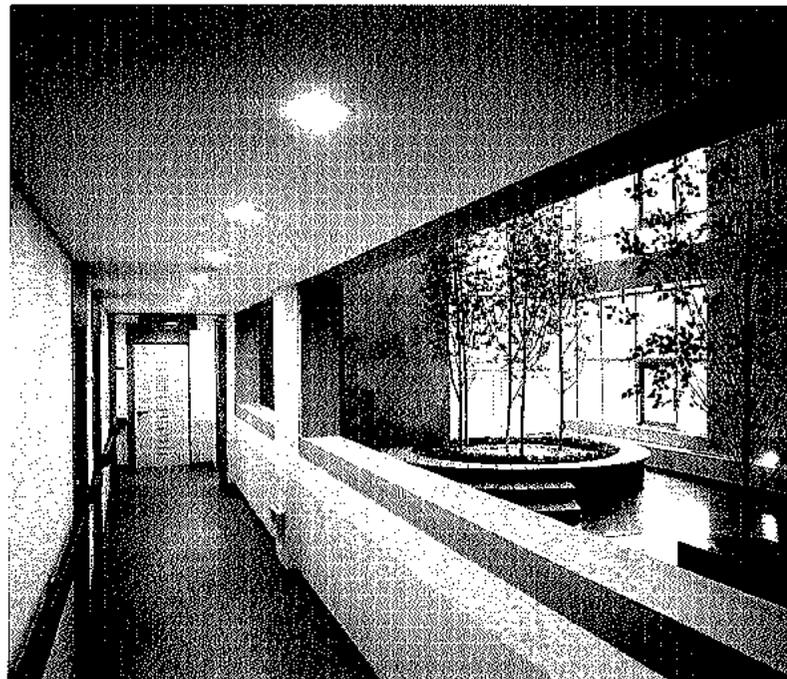
8층 평면도



5~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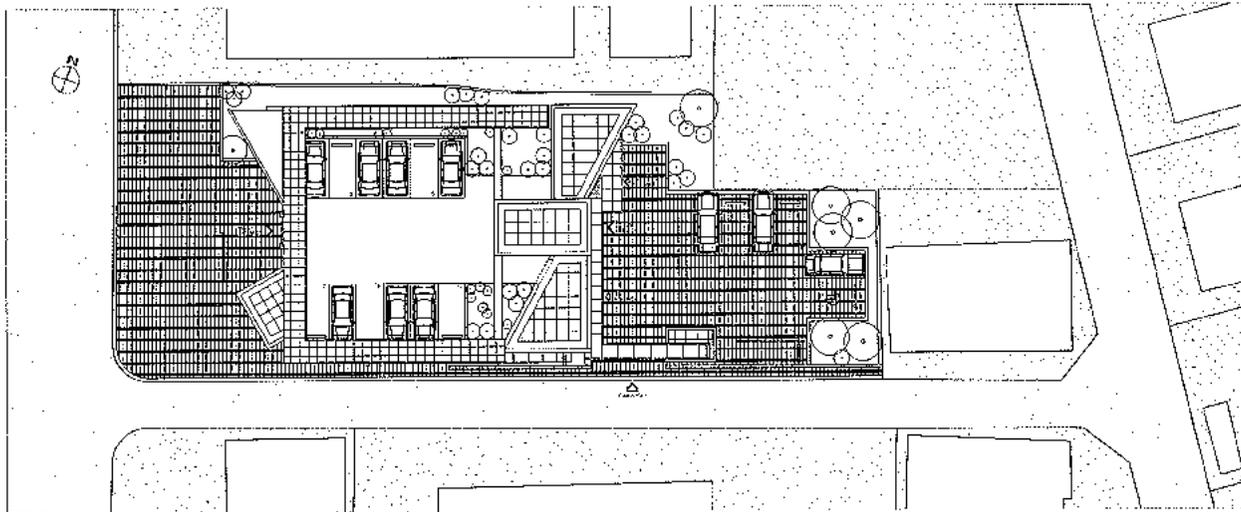
4층 평면도



더클래스 효성 메르세데스 벤츠타워

The Class HYOSUNG Mercedes-Benz Tower

● 배치도



0 1 3 5 10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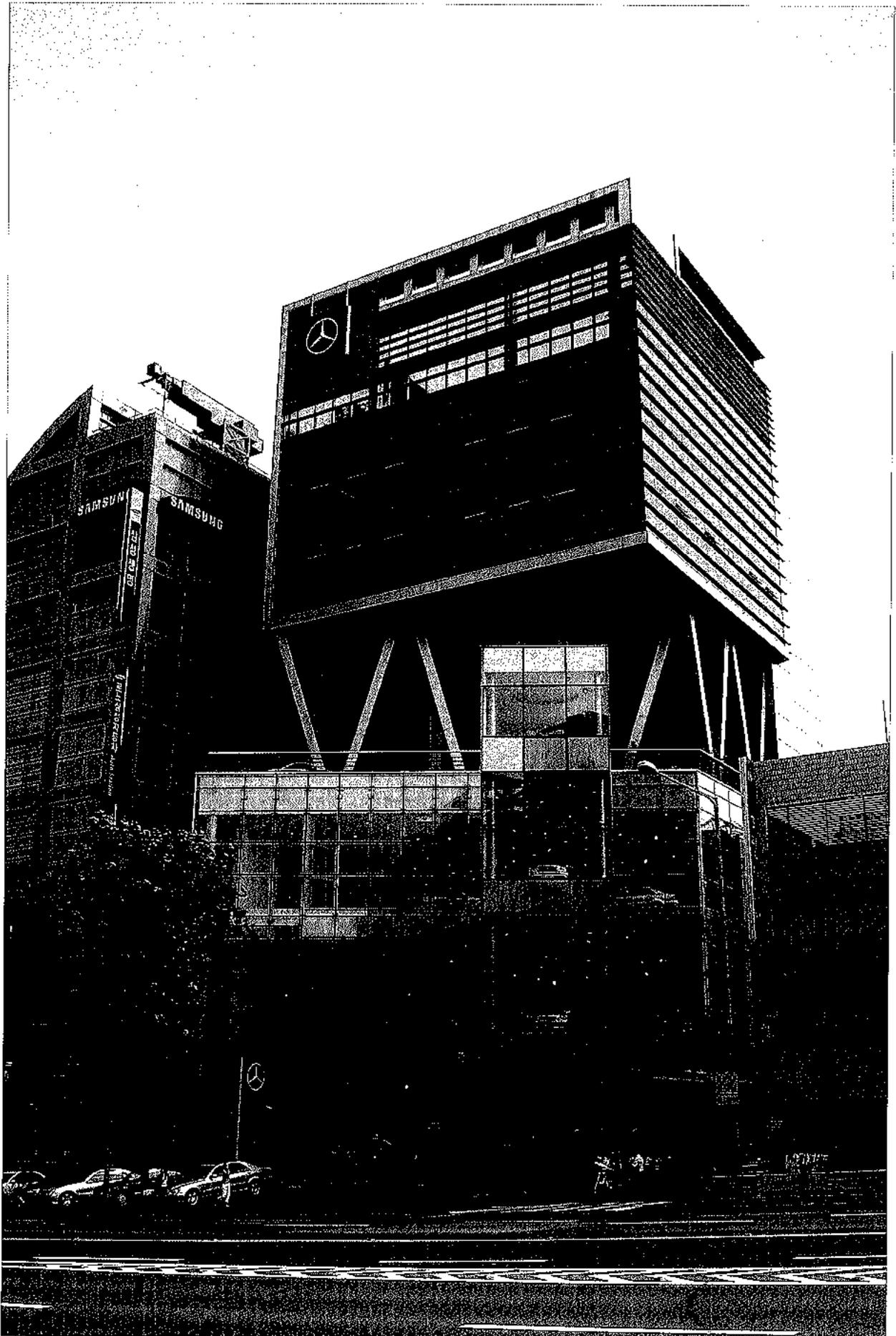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46-1외 2필지
대지면적	1,326,80㎡
건축면적	609,54㎡
연면적	4,207,74㎡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외부마감	SPG Curtain-wall System, ZINC Panel, SST TM Honeycomb Panel
설계담당	여상권, 이상호, 손만선, 권영진
구조설계	(주)한울구조 안전기술사 사무소
인테리어	(주)계선
설비	나우 설비기술 주식회사
전기	(주)지성 설계 컨설턴트
시공	(주)효성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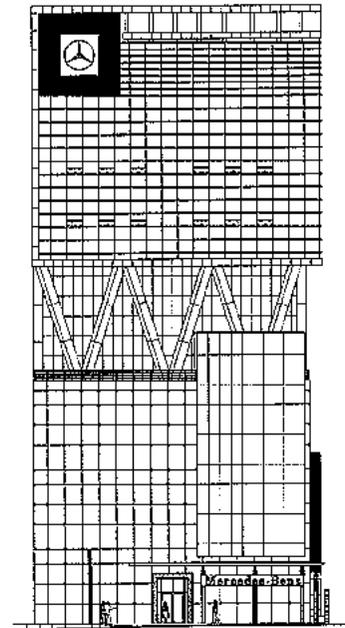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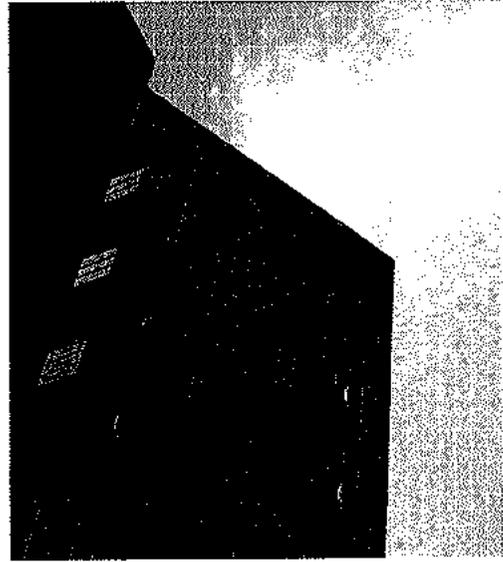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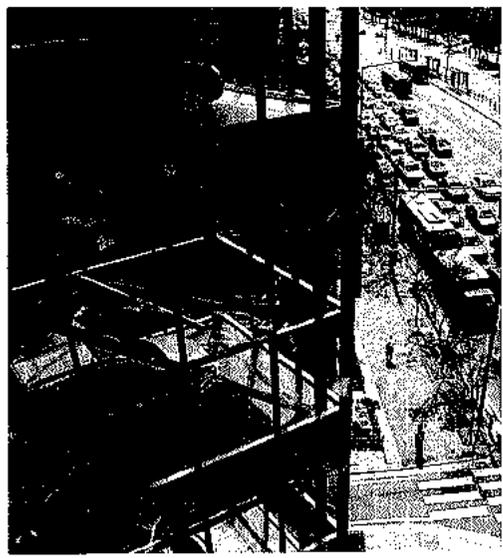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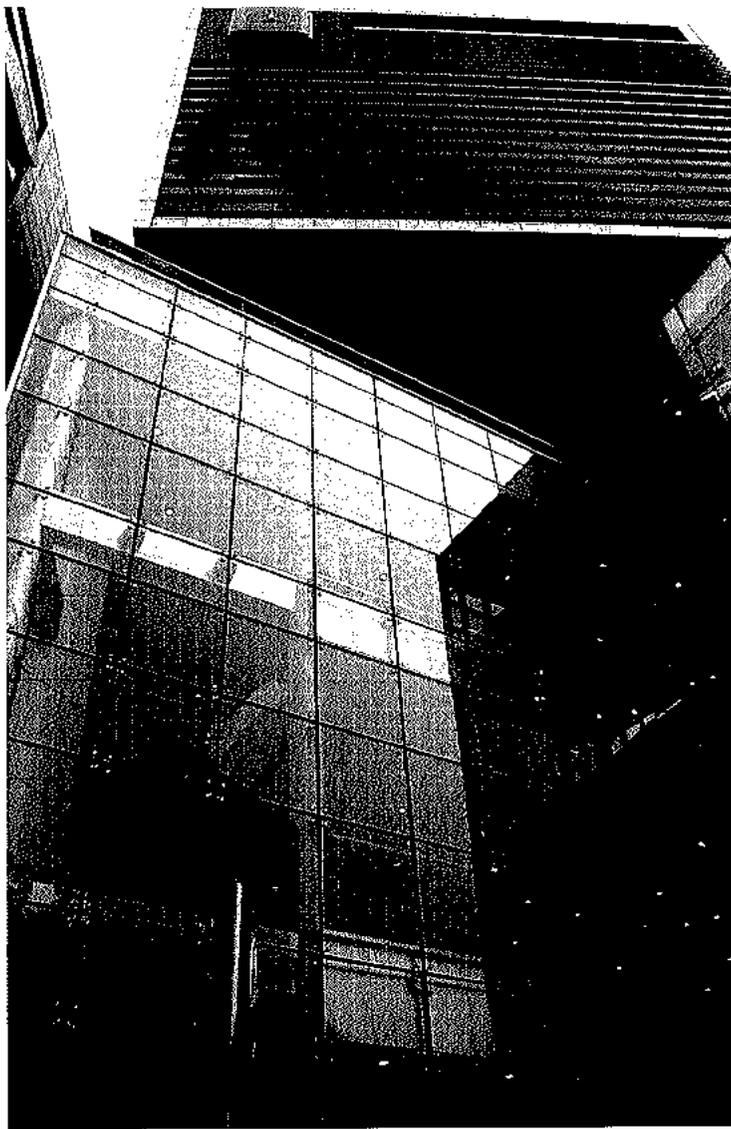
序

사무실 창문 너머로 비가 몸을 푸는 날, 우리 모두가 투
신했던 맹렬했던 시간들의 이야기는 저 말없는 건축안에
있고 건축은 그 이야기들 속에서 말이 없다. 진정, 건축은
스스로 결정(結晶)될 수 있는가...

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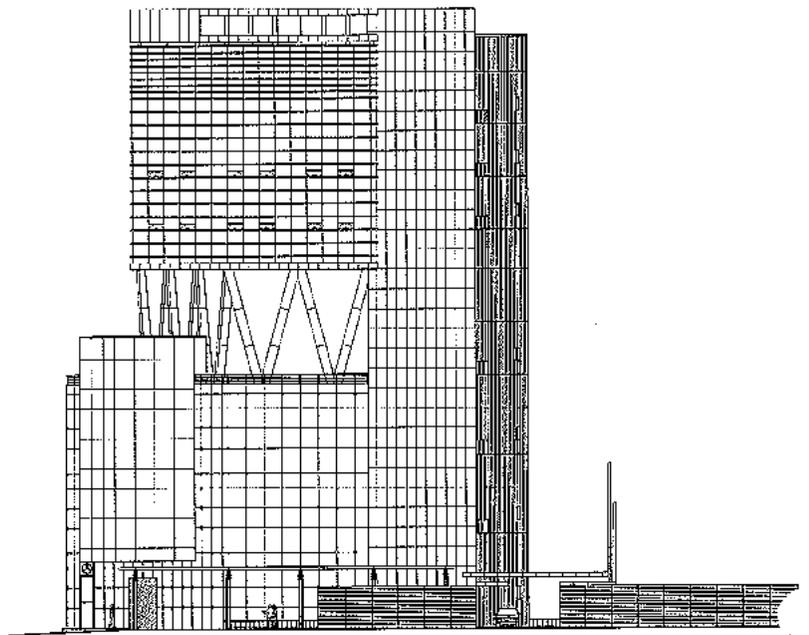
건축주의 요구는 2가지였다. 강남대로 상에 Benz
Tower라는 Masterpiece를 건축하고 Benz 고객을 위한 지
상(至上)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Hub Space를 꾸미자는 것이
었다. 처음에는 지상 1층과 2층에 전시장, 3층에 Quick
Service(A/S) Zone, 4~6층은 사무실,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배분하고, 커다란 중정을 과감하게 열어놓는 Space
Program을 기반으로 한 Minimal한 초기안으로 진행되었다.





0 1 3 5 10

정면도



우측면도

그러나 협의가 진행되면서 Global-Top Brand로서의 Benz의 위상을 대변하기에 걸맞는 차량과 고객을 위한 High-end의 공간을 갖추자는 요구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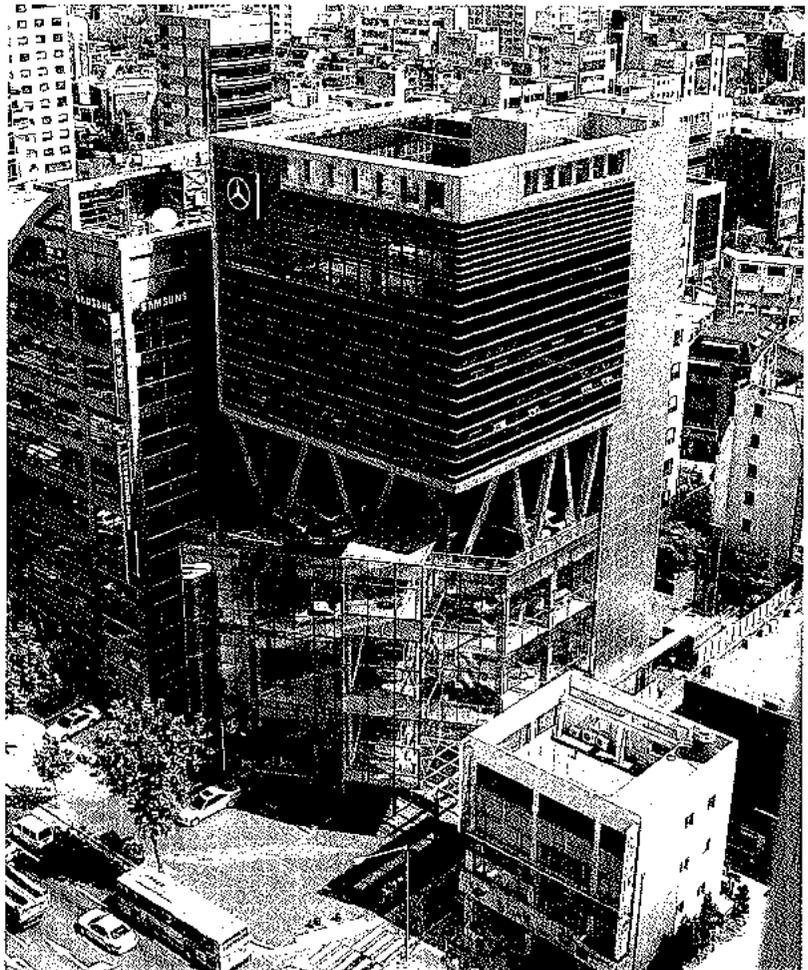
그에 따라 지상 1층을 과감하게 호텔수준의 Reception Lobby수준으로 꾸미고 전시장(2~3층), Quick Service Zone(지하층), 사무실(5~6층), 주차장(옥상층) 등의 공간을 다시 프로그래밍(Reprogramming)하게 되었다. 덧붙여 평면적 사선요소를 적용하여 1층 외부공간을 고객을 향해 열어놓고 이로써 생기는 공간의 상부를 돌출된 전시공간으로 꾸몄다.

프로그래밍에 의해 건물상부에 자리잡을 수밖에 없는 주차장 공간을 4층에 삽입하거나 옥상에 배치하였다. 특히 4층에는 V형

기둥(수직적 사선요소)과 축제 연등 이미지 의 원형 등 Box 등의 요소를 도입하여 Festive한 Benzscape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공간으로 자리잡도록 하였다. 다만 정면 좌측의 자투리공간을 도심속의 작은 Green Oasis이자 도시의 풍경을 교류하는 장소로 꾸미려한 애초의 의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많이 아쉬울 따름이다.

5~6층의 Office Zone은 전시장 부분과 대조를 이루면서 최대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정방형의 형태로 도입하였다. 아울러 이웃한 르노삼성자동차 빌딩과의 입면적·재료적 Context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평 루버, 유사한 질감의 재료(SST L Panel)를 적용하였다.

Benz Tower의 배타적·상징적 장소성



을 부여하기 위해 전·후면의 외부 공간을 대지의 축을 살려 동일한 패턴의 석재로 디자인하였다.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Benz의 Global C1과 이번 Benz Tower가 최대한 건축적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소화해내는 일도 힘든 작업이었다.

장방형의 Facade를 가진 대지에 맞도록 짜여진 C1 기준상의 정면 열주(列柱)와 간판, Main Entrance 등을 서울 강남의 좁은 facade를 가진 대지, 건물과 맞닿나게 어울어질 수 있도록 하는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규정에 따른 기둥을 대지축에 맞춰 정면과 우측면에 배열하고 캐노피를 씌웠다.

전시장의 정면사선에 의해 생긴 공간을 앞마당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내기 위해 캐노피 하부를 고객을 맞이하고, 차를 인도하는 장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공간에는 Grand Stair와 벽천, Lighting Wall, 누드 엘리베이터, 대형 전시

용 Turn Table 등을 두어 최고의 차는 최고의 공간에서 판매한다는 전략에 부합하도록 했다.

낮은 용적률로 인해 직원들을 위한 부대공간이 다소 부족하고, 짧은 설계 및 공사 일정으로 인한 의사결정 및 설계변경의 어려움 그리고 Detail한 부분 등에 정성을 쓸수 없었다는 점이 너무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結

찌르레기 한 마리 날아와
나무에게 키스했을때
나무는 새의 입속에
산수유 열매를 넣어주었습니다.

달콤한 과육의 시절이 끝나고
어느날 허공을 날던 새는
최후의 추락을 맞이하였습니다.

바람이 떨어진 새의 육신을 거두어 가는 동안 그의 몸안에 남아 있던 산수유 씨앗들은 싹을 틔워 잎새 무성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나무는 그렇듯
새가 낳은 자식이기도 한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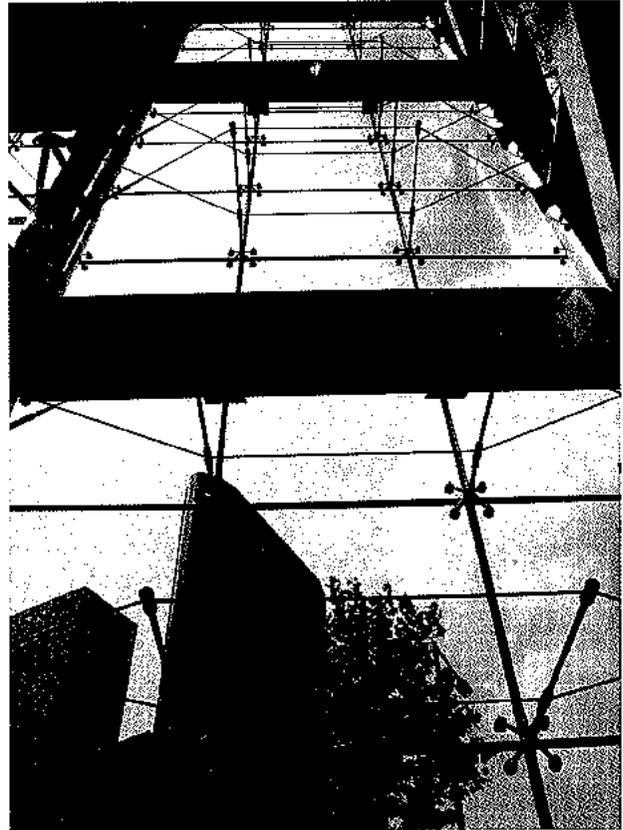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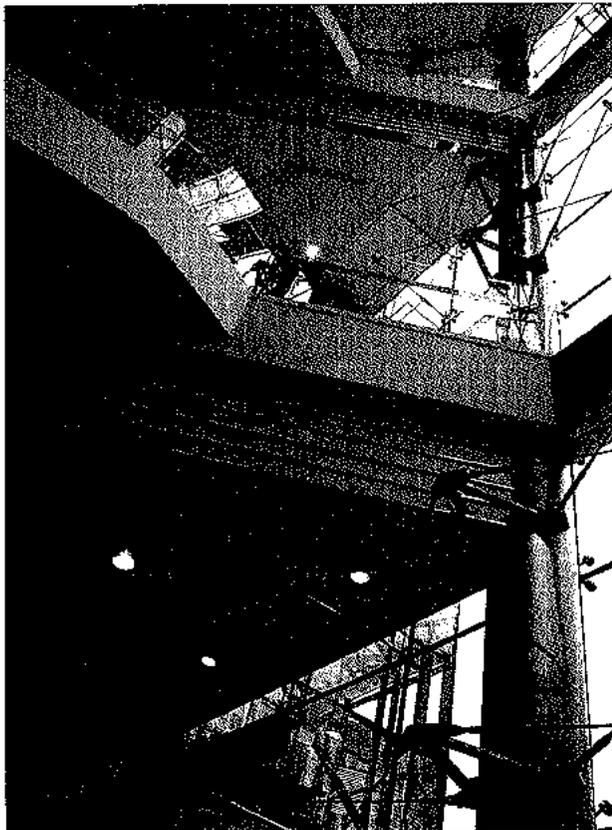
새떼가 날아갑니다.
울창한 숲의 내세가 날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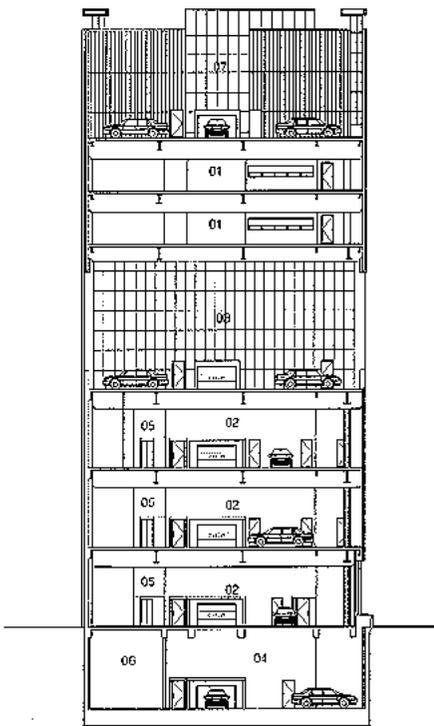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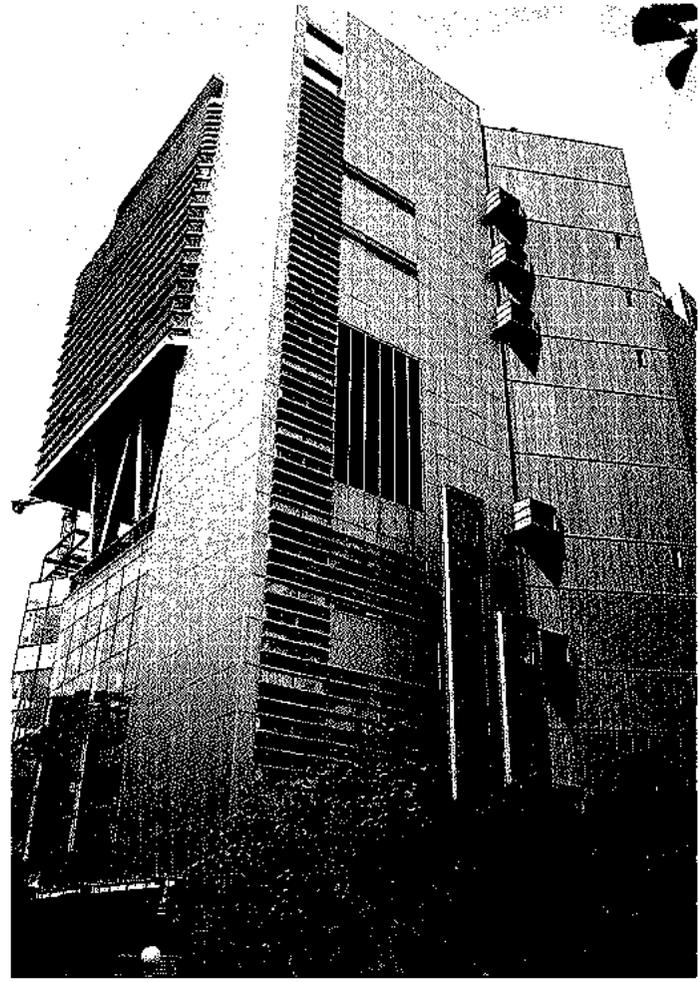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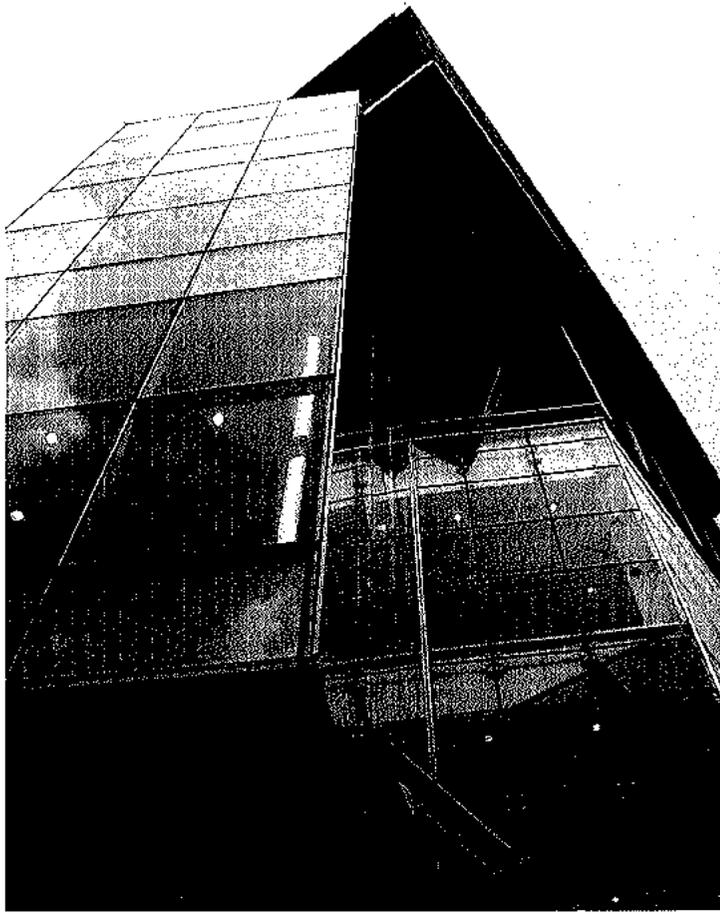
유하의 『나무를 낳는 새』 전문

Benz Tower는 이렇듯 우리 모두가 혼연의 힘을 쏟아 낳은 자식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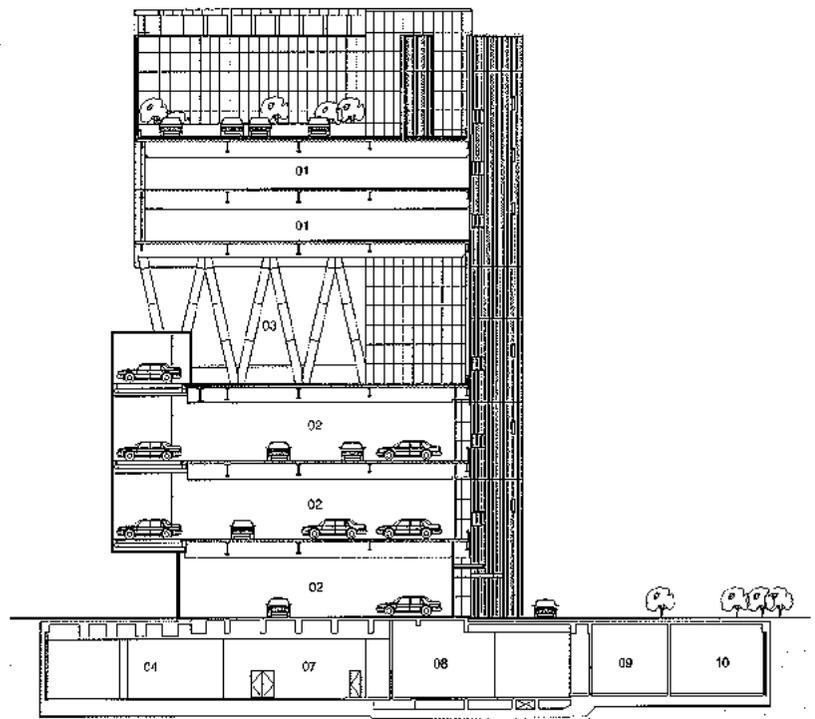
건축가도 시공자도 아젠 치열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떠났지만, Benz는 Tower를 밀거름으로써 사업주의 Vision과 울창한 미래가 싹틔으면 한다.

Let Benz, Be Benz! (글:김광욱)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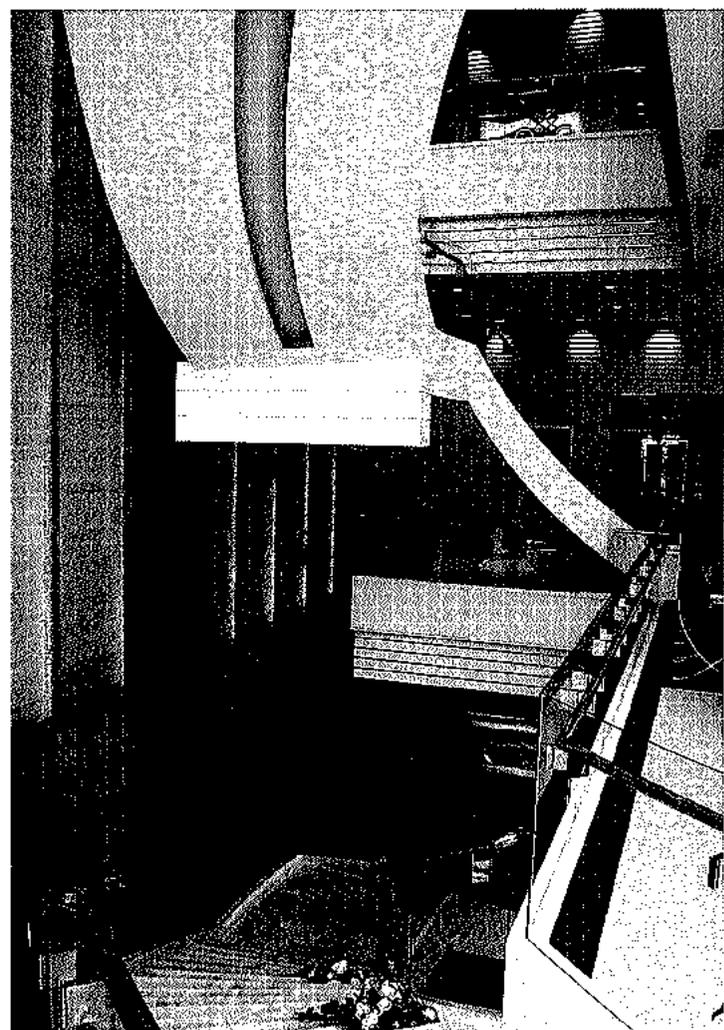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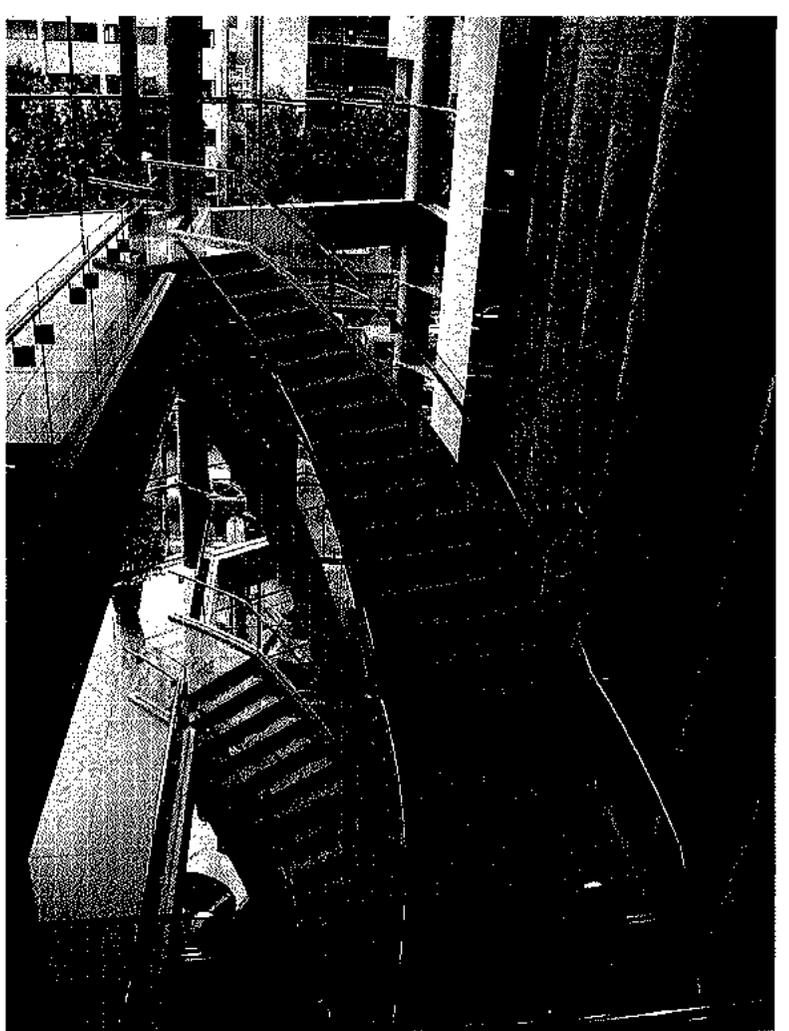
- 01. 사무실
- 02. 전시장
- 03. 주차장/이벤트마당
- 04. 서브소인더
- 05. 디도V.존
- 06. 창고
- 07. 주차장
- 08. 고객대기실
- 09. 기계실
- 10. 전기/발전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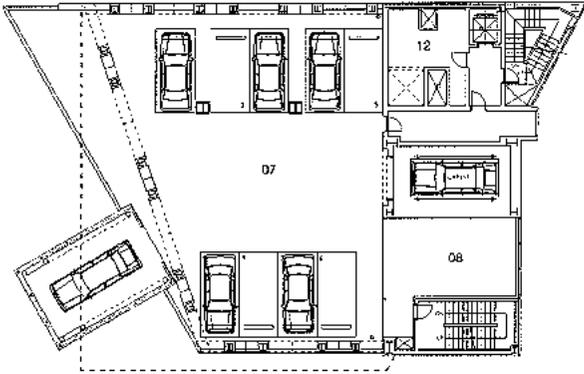


0 1 3 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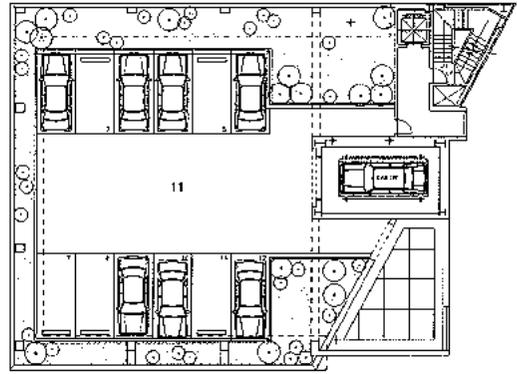
횡단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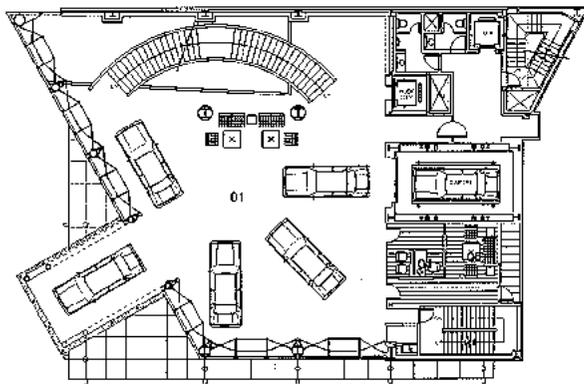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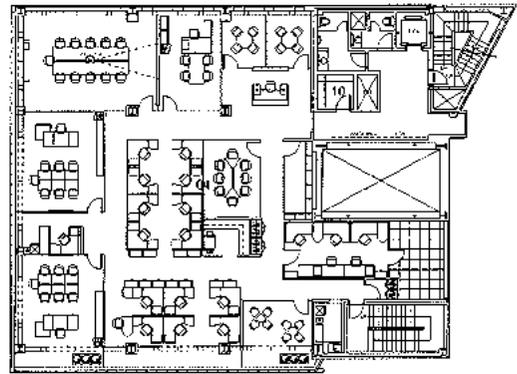
4층 평면도



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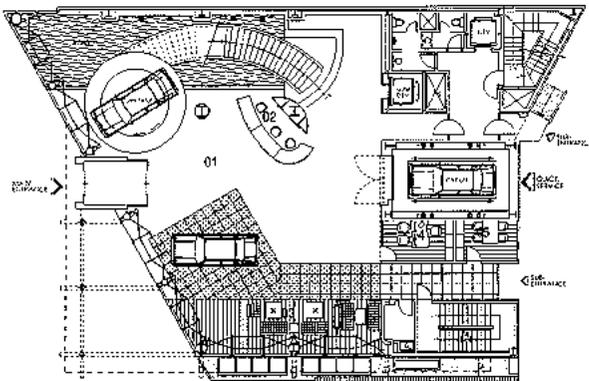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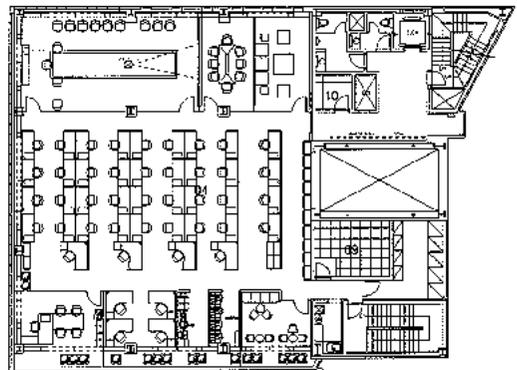
6층 평면도

- 01_ 전시장
- 02_ 안내
- 03_ 잠깐공간
- 04_ 사무실
- 05_ 양쪽실
- 06_ 고객대기실
- 07_ 주차장 / 이폰트야당
- 08_ GHF실외기실
- 09_ 통상실
- 10_ 광고
- 11_ 주차장
- 12_ ELEV 기계실



0 1 3 5 10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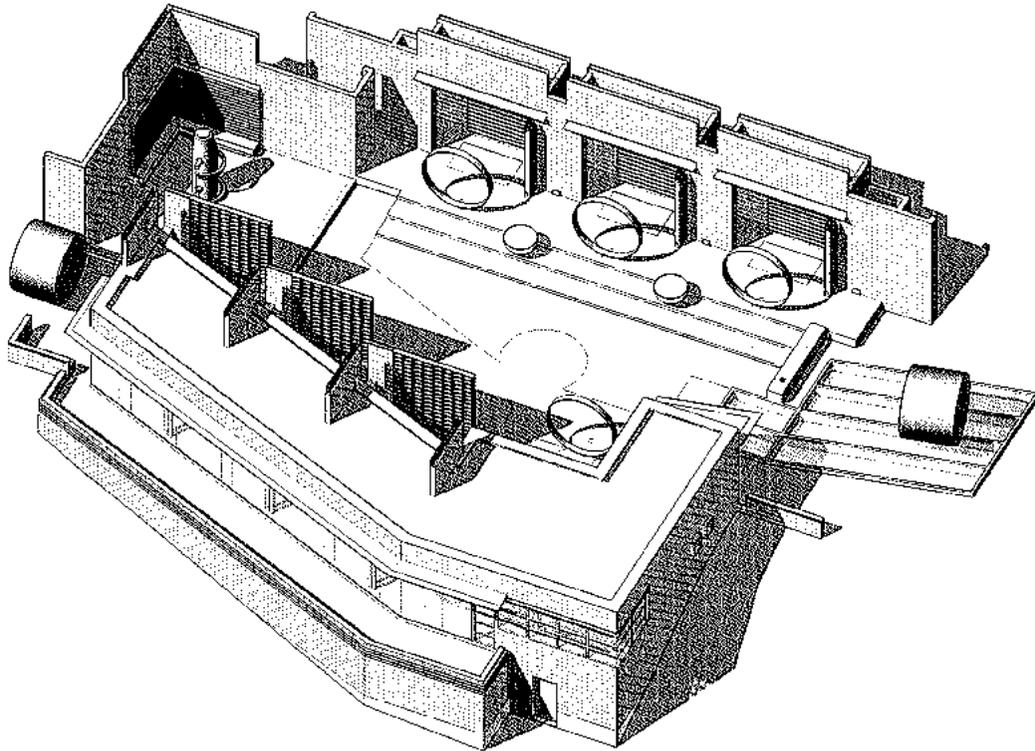


5층 평면도

화도심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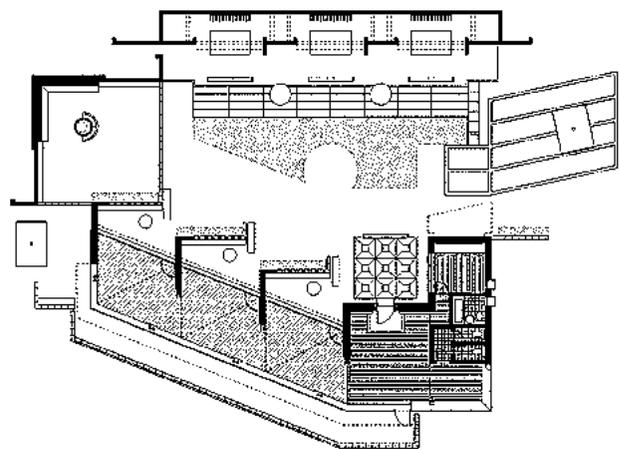
Rest Area at Hwado

● 엑소노메트릭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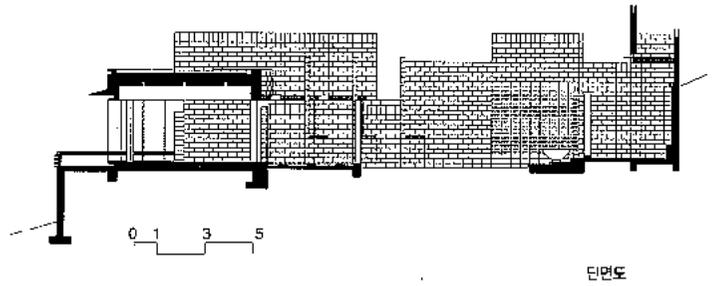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대지면적	405.34㎡
건축면적	141.51㎡
연면적	196.00㎡
건폐율	35.78%
용적률	48.35%
규모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외부 드라이비트 뿔철, 미천석 물갈기
내부마감	바탕-온돌마루판, 대리석 벽-석고보드위 백색라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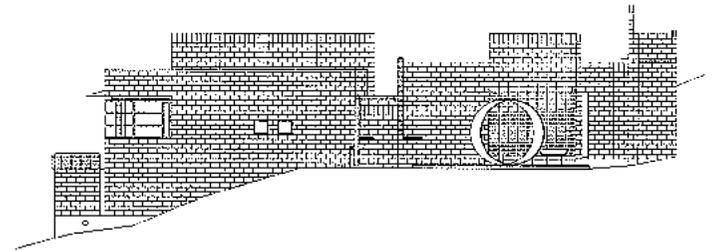
평면도

경기도 마석의 한 저수지 부근, 급경사지에 계획된 전원카페이다. 이 카페의 주인은 최초 설계단계에서 자신이 거주할 원룸형 공간을 함께 원했다. 결국 최종적인 설계안에서는 규모는 작지만 주거공간과 그와 연결되어 있는 상업공간으로 계획되어졌다. 주거공간은 바로 앞의 상업공간과 주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진다. 카페공간은 경사면을 일부 깎아서 평탄한 면을 만들고 전면 개방된 유리면을 따라서 그 공간이 저너머 저수지까지 시각적으로 시원스럽게 확장되어질 수 있게 계획되었다. 후에는 진입시 통과하게 될 후정을 두어서 상업적인 영업공간이 비록 작지만 큰 공간감을 갖고 다양한 공간을 접근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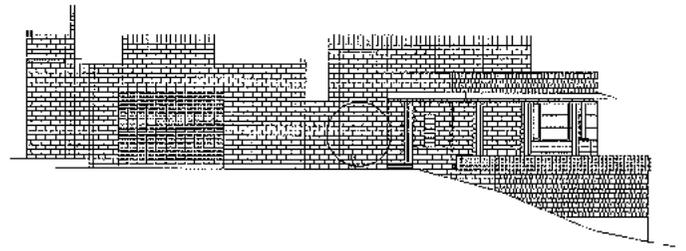
이 계획안은 건축주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 처음으로 설계한 필자의 주택 한호재를 마치고 두 번째로 설계한 프로젝트였는데,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여기에서는 한호재보다도 더 많은 콘크리트 블록 건축이 실험되어졌다. 한호재처럼 U형 블럭과 일공블럭도 사용되었지만 한호재보다 벽의 구축방식이 훨씬 복잡해지고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한편 대형 철제 원형관을 갖고서 이를 입구 쪽의 구조물과 연못상부의 구조물로 사용하여 강한 느낌의 시각적 초점을 형성시켰다. 이 프로젝트에서 시도된 여러 시도들은 최근에 완성되어 그 모습을 나에게 보여준 '생각속의 집'이라고 하는 펜션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었다. 지금은 대다수의 지어질 수 있었던 건물들의 스터디 모형들은 모두 폐기한 상태지만 이 건물의 모형만은 많은 아쉬움 속에 잘 보관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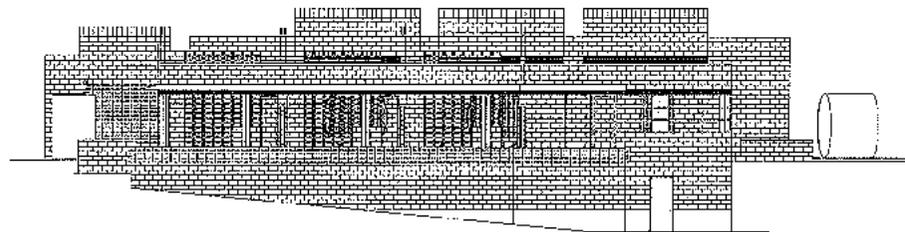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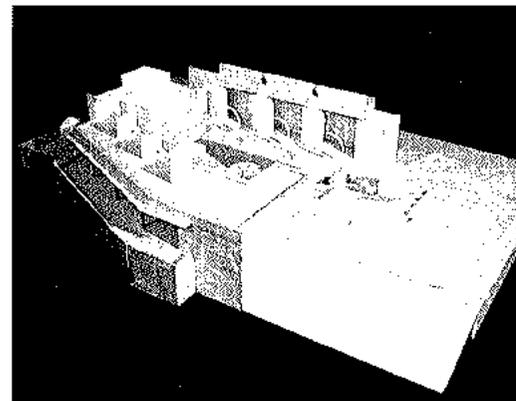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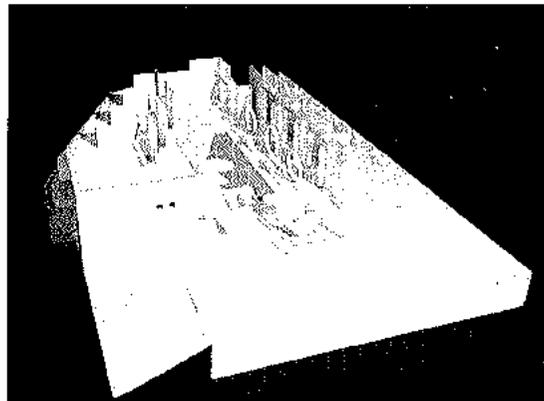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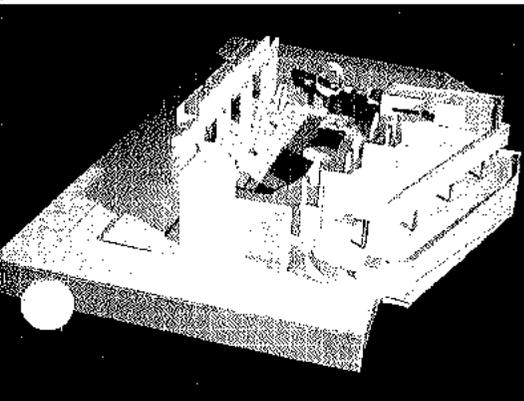
북측면도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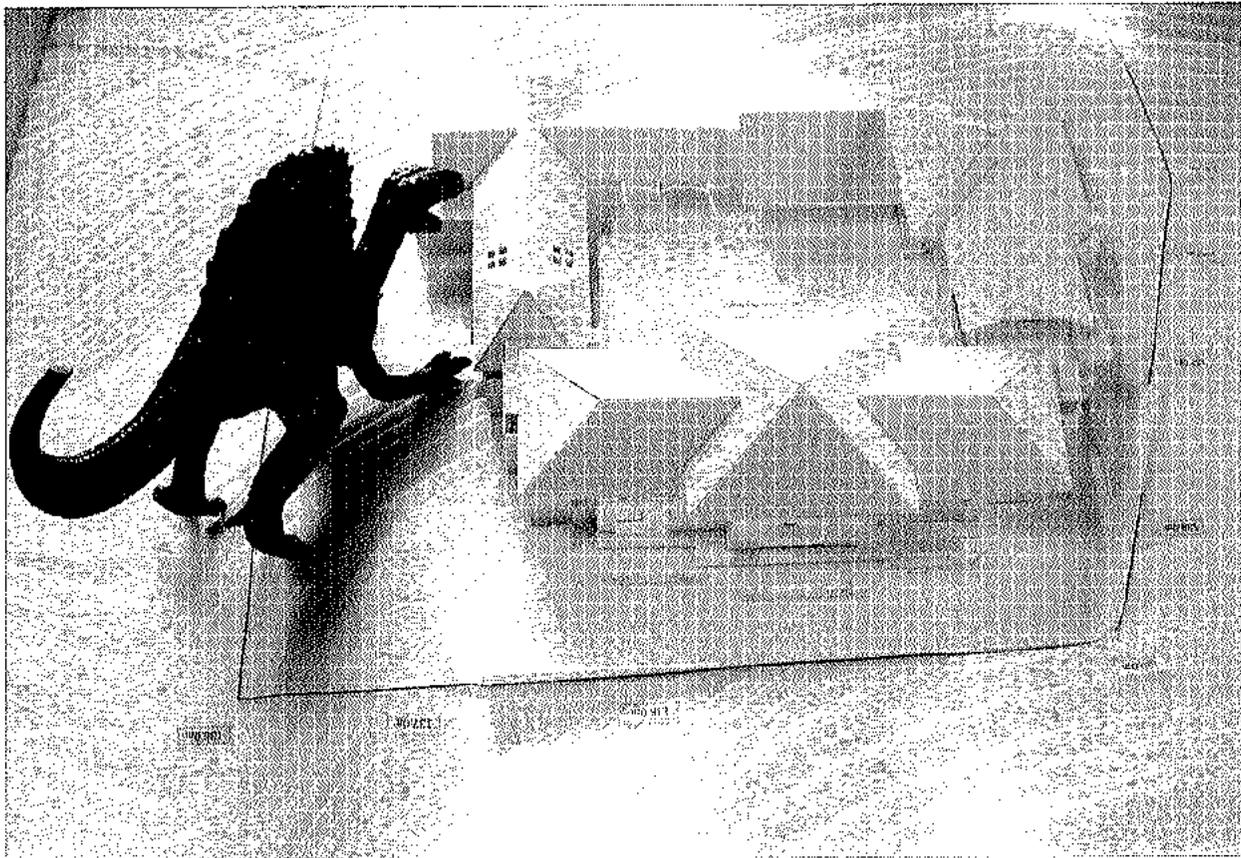


동측면도



삼합헌

SamHapHeon



내부의 좋은 기운은 꼭 조여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외부의 해로운 기운은 철저하게 방어하는 자세를 취한다.

지형의 분석

삼합헌은 주산(主山)인 원효봉(604.7m)에서 청룡과 백호의 줄기가 좌우로 감싸며 내려오고, 가운데 현무에 해당하는 줄기가 쌍으로 내려오는 곳에 터를 정했다. 좌(坐)방위에는 원효봉이 받쳐주고 향(向)방위에는 덕숭산이 조아리고 있다.

전체적인 형국을 보면 동남방위가 열려있고 나머지 방위는 덕숭산, 가야산의 줄기가 연결되면서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형국 속에 떨어진 빛들은 hen 골짜기로 모여서 결국 동남방위로 빠져나간다. 전체적으로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서고동저(西高東低)의 형세인 것이다. 덕숭산의 남쪽사면에는 수덕사가 자리하고 가야산의 세봉우리인 가야봉, 석문봉, 옥양봉이 감싸는 아래에는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가 있다. 큰 형국으로 보았을 때 삼합헌은 수덕사와 남연군묘가 있는 양쪽의 가운데 골짜기를 찾아 들어가 터를 골랐다.

계획의 방향

우선 건축물의 배치는 주변의 형세를 본 받아 동쪽으로 열리고 주변이 둘러싸진 '미음자' 형으로 하기로 정했다. '미음자' 집의 경우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내부의 마당을 아주 정제된 형식으로 다듬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외부의 환경은 인간이 직접 접하기는 거칠고 험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어떻게 조율하여 인간에게 적합하게 가다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음자' 집에서 생기는 중정(中庭)의 공간은 외부와 내부의 중간적 성격의 공간이다. '미음자' 집의 단점은 건축물의 표면적이 '일지형'에 비해서 넓어지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생긴다. 도심지의 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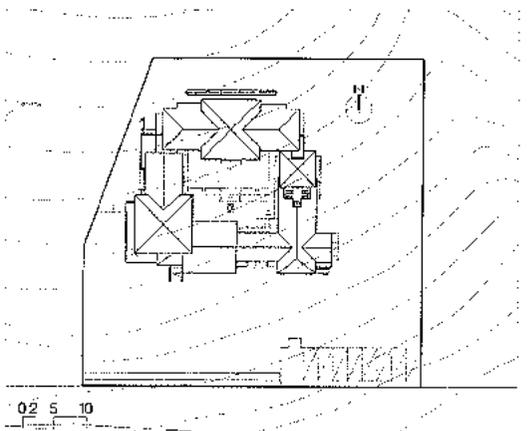
은 땅에서는 높이제한에 묶여 시도하기 어려운 건축형식이다.

주어진 대지에서 '미음자' 집이 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대지 앞뒤의 높낮이 차이가 3m 정도 되는데, 이를 건축물 안에서 흡수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다. 이 문제는 가운데 중정을 들로 나누고 단을 주었으며, 실내에서는 군데 군데에서 적절히 단을 주어 소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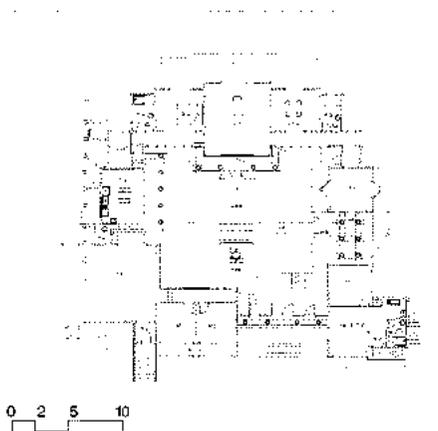
'미음자' 집에서 첫째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개방감과 폐쇄감의 적절한 조율이다. 접근도로에서는 쉽게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게 하고 안에서는 바깥경관을 보는데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아의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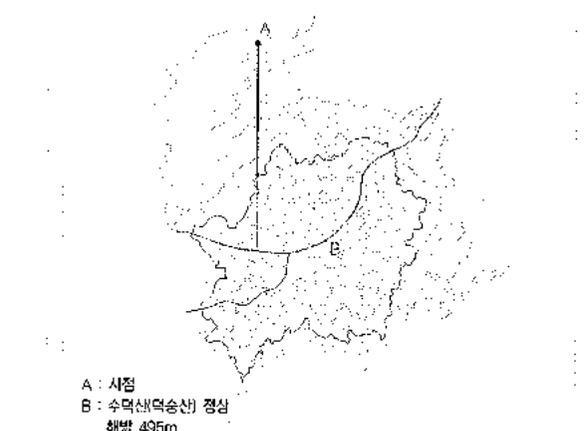
집안에서 제일 위계가 높고, 건축물의 높이가 높은 곳은 집주인이 사용하는 서재이다. 서재에서 바라볼 때 덕송산에 의해서 능압(陵壓: 능멸하고 압박함에 걸리지 않고 산의 적정한 높이부분을 끌어들이는 시선의 정리가 필요하다. 서재에서 바라볼 때 '미음자' 집의 남쪽에 위치한 실들의 용마루높이가 시선의 하한선(下限線)이 된다. 시선하한선 아래의 부분은 서재에서 보이지 않고 지붕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는데, 덕송산 북쪽사면의 아래부분으로서 일부 개발흔적이 있어서 다소 지저분한 흔적이 있는 곳이다. 시선의 하한선 계획은 덕송산의 깨끗한 느낌을 주는 윗부분만 차경(借景)하겠다는 것이다. 시선하한선의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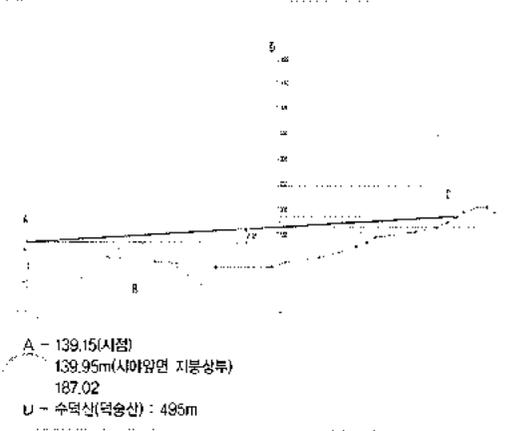
배치도
'미음자' 집의 형식이다. 가운데 2단으로 구분된 중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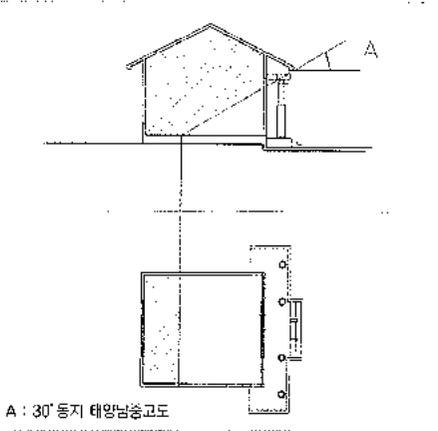
1층평면도
서재가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좌측에 침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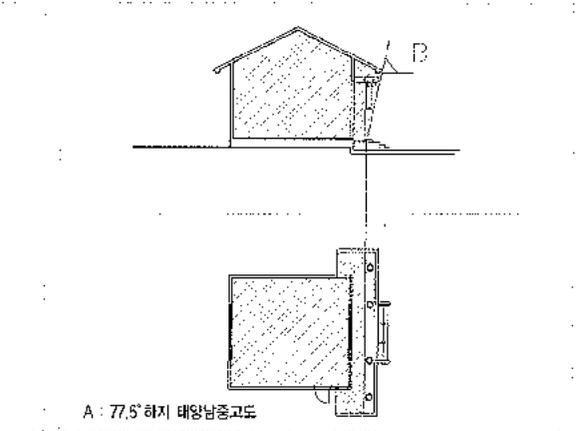
시선계획도 1
A : 서재
B : 수덕산(덕송산) 정상
해발 495m
서재에서 바라볼 때 덕송산정상 해발 495m의 상무암무용(해발 190m이상)만 보인다.



시선계획도 2
서재에서의 시선보다 남쪽 행랑채의 지붕 용마루의 높이가 2-3도 가량 높게 계획되었다.



A : 30' 동지 태양남중고도
입조경토(동지 2시)-서재
동지중오 배의 일조정도를 검토하였다. 서재의 결반이상에 햇빛이 든다.



A : 77.5' 하지 태양남중고도
입조경토(하지 2시)-서재
하지중오 배의 일조정도를 검토하였다. 서재의 안쪽에는 햇빛이 들지 않는다.

토는 국립지리원에서 구입한 1:2만5천 축척의 지도에서 등고선의 높이와 계획대지의 해발 등고선의 높이를 감안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설계단계에서 3D 작업이 없이도 거의 실제상황에 근접한 시야 확보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

일조의 조절

일반적으로 '미움자' 집은 중정에 면한 실들의 일조량이 부족해지기 쉬운 단점을 갖고 있다. 삼합헌에서는 동지 때와 하지 때의 태양의 방위각과 고도를 기준으로 실내에 햇빛이 들어오는 정도를 검토하였다. 각 12시의 남중고도를 중심으로 검토해본 결과 적정량의 일조가 공급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대한 검토는 이경희교수의 저서 「건축환경계획을 참조하여 춘분, 하지, 추분, 동지 때의 일조(日照)량을 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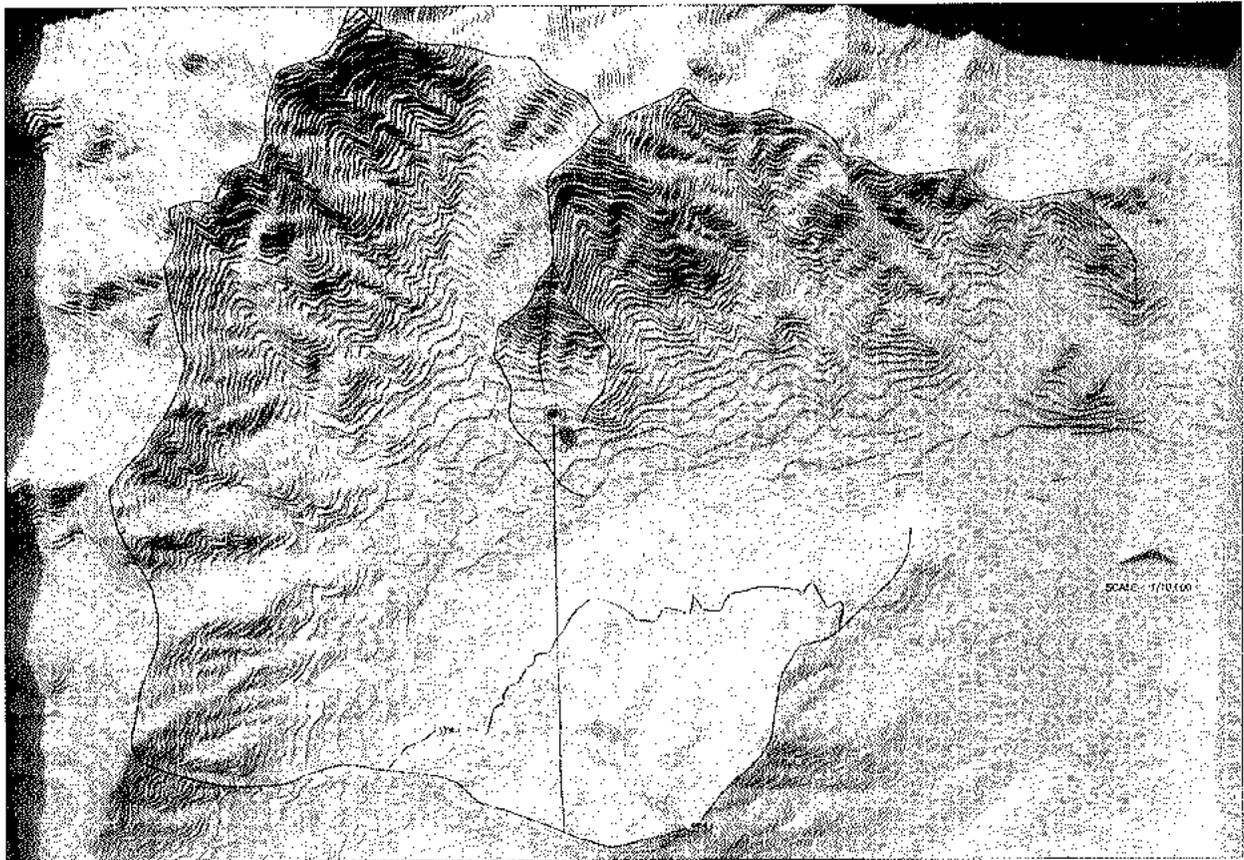
낮은 곳은 높이고, 높은 곳은 낮춘다는 것이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건축의 논리인데 이곳의 경우는 그 이론에 꼭 맞추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진입도로의 접근 방향이 동쪽에서 이루어지므로 서쪽에다 옹마루가 제일 낮은 대문 칸을 구성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즉, 서고동저의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동쪽이 낮고 서쪽이 높은 형식의 건축물이 되었다는 뜻이다. 서고동저의 지형일 때 건축은 동고서저의 형식이 되는 것이 논리상 옳은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논리를 잘 따르고 있는 건축사례는 강릉에 있는 '선교장'이다. 너무 이론과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지형의 특성이 무시되어 무리한 형식의 건축이 나오기 마련이다. 서고동저의 지형은 넓은 국면에서의 조건이고 진입도로의 방향은 근접한 국면의 조건이다. 근접하고 직접적인 조건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되어야한다는

것 또한 전통건축의 기본적인 논리이다. 그래서 이번 '미움자' 집은 누가 뭐래도 '서고동저' 형이 되어야한다. 서고동저형의 집은 일조(日照)의 조건에서 여러 가지 유리하다. 서고동저형의 주택에서는 해가 일찍 뜨고 일찍 저문다. 동남쪽의 햇빛을 오래 받고 서남쪽의 햇빛은 짧게 받는다.

전통건축에서 권위의 상징이었던 솟을대문이 삼합헌에서는 낮은 맞배지붕으로 처리되었다. 어떻게 보면 행랑채의 지붕보다 더 낮게 처리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삼합헌의 건축에서 대문 칸의 지붕이 낮아진 것은 대문이 갖고 있는 권위 보다는 중정에서의 시야 확보에 더 가치를 두었다.

미움자집의 기하학

건축평면이나 배치도를 그림에 있어서 기하학적인 규칙성을 가지고 있으면, 면의 분할



삼합헌주변의 지형
주산인 원효봉에서 한두, 좌청룡, 우백호의 산줄기가 뻗어 내려온다. 앞에 있는 산이 덕숭산이다.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03

Dutch Modern Housings

원제 :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어느 나라보다 공동체 인식의 바탕에 형성된 네덜란드 집합주택은 엄격한 가톨릭 정신과 자연을 극복해야만 하는 절박한 운명이 네덜란드인을 하나로 묶으면서 동시에 집합주택이 도시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네덜란드인의 기본정신 위에 발전된 집합주택은 이념을 달리 하는 다양한 건축운동, 건축가의 의지와 실험정신, 그리고 예술가와 건축가의 협력 등이 모태가 되어 생성되었다. 역자가 몇 번에 걸쳐 연재할 호린베르흐(Donald I. Grinberg)의 저서,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Delit University Press/1982)을 통하여, 네덜란드 근대집합주택을 '근대'라는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사정만이 아닌 도시미와 커뮤니티 그리고 선단적인 집합주거 공간을 파악하는 주요한 단서로서 기대하고자 한다. <역자 주>



- 01_역자서문/첫머리에/산업혁명 이전의 주거상황/산업화와 도시화
- 02_1900년 이전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 03_1902년에 제정된 주택법/카미로 지테의 영향
- 04_건축가의 새로운 역할
- 05_전원도시의 전통
- 06_집합성과 공유공간
- 07_표준화
- 08_이데올로기(목적과 수단)/공간의 새로운 개념
- 09_공간의 개방상·고층화/결론

※ 저자 호린베르흐(Donald I. Grinberg)는 미국인으로 하버드대학 대학원을 마치고, 네덜란드로 건너가 델프트 공과대학 건축학부에서 연구하였다. 부인이 네덜란드인으로 자료를 요구거나 분석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호린베르흐 자신도 능숙하게 네덜란드어를 구사하게 되어, 네덜란드 체재 5년간의 연구 결과로 출판된 것이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이다.

※ 역자 최재석은 1982년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요코하미국립대학 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경원대, 목원대, 참주대 건축학과 강사를 거쳐 현재 한라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전공은 '건축 설계·의장'으로, 특히 네덜란드 근대건축운동 중 '더 스타일(De Stijl)' 운동과 관련한 조형이상 및 색채실현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대한건축학회·한국 건축역사학회·일본건축학회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함. 건축사(1997)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저서로 '네덜란드 근대건축', '원주 근대건축', '더 스타일의 역사와 이념' 등이 있다.

1902년에 제정된 주택법

1902년에 제정된 주택법은 도시로의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야기된 주택시장에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 주택법은 당시 자유와 박애주의라고 하는 사회적 환경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¹⁾

이 법 또한 노동자 계급, 부유층 그리고 사회 지도층을 상호 구별하는 독특한 성격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공포와 계급 정치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해결 불가능한 것같이 보이는 것은 거의 없다. 구태의연한 슬럼가는 최저의 임금과 어린이 노동자의 착취와 더불어 그 일부로 발전되었다. 상류 계급에 의한 하류계급의 일반적인 착취는 그들을 어떠한 형태로든 절망시키고 그리고 상류계급이 두려워하는 불안전하고 타협하는 '도의심(conscience)'으로 이어졌다. 이런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혁명, 전염병 그리고 국가적 허약함을 들 수 있다."²⁾

새로운 법 제정의 동기가 어디에 있던 주택법은 주택사업에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주택호수의 증가라든가 질적 개량이라고 하는 요구의 관점에서 보면 주택건설은 기록적인 개선을 달성하였다. 보다 중요한 것은 주택법이 투기세력으로부터 노동자 주택을 보호하고, 지자체의 지역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 이상으로 노동자 주택을 국가적 관심의 대상으로 끌어올렸다는 데에 있었다.

'주택'이라고 하는 전문적 책임의 새로운 영역과 이를 위한 협력이라는 새로운 형태는 주택법의 정신과 고유한 내용으로부터 발전되었다. 시대의 소산인 주택법 규정의

옹호 하에 전개된 독자적인 건축이론과의 관련에 주목하여 고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과 더불어 주택법의 형성배경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추적할 필요가 있다.

주택법 제정이전의 지방자치조례

1902년 제정된 주택법은 네덜란드에서 국가적 규모로 시행된 최초의 합법적인 것이다. 지자체의 규모로 이미 광범위한 법제정의 발전단계에 있었다. 몇몇 경우를 보면 주택법은 기존의 지자체 관습과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지자체 조례는 단편적이며 건설 규제의 본질보다 주택의 외형적인 특징에 대해 더 소극적이었다. 이것은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에 대한 폭넓은 믿음의 결과이며 다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대한 간섭을 기피하는 경향을 말한다.³⁾

19세기 이전 지자체의 역할은 지역적으로 화재라든가 붕괴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것에 머물렀지만, 도시의 인구증가와 더불어 주거환경의 악화는 보다 강한 규제를 요구하게 되었다. 부유층 또한 자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슬럼가는 시민의 거주지에 인접하여 확장되면서 화재의 확산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19세기 의학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전염병 확산에도 관심이 높았다. 거의 모든 지자체의 경우에 있어서 안전을 위생문제 이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⁴⁾

특히, 암스테르담 시(市)는 오래전부터 목재 건축물을 타르(tar)로 마감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1850년대 몇 개의 주택조합의 설립과 동시에 때를 맞춰 중요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조례가 작성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조례는 스킨담(Schiedam) 시(市) 조례를 들 수 있다.

이 조례의 내용에는 시장과 시의회 의원이 열악한 주택에 대해 일정 수준이상으로 개량하지 않으면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⁵⁾ 이런 조례 내용을 모방하여 1855년 제정된 헤이그 시(市) 조례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시장이나 시의회의 허가 없이 공공도로에 면하여 건물의 건축이나 건축물 파사드의 전체 혹은 일부를 변경할 수 없다."⁶⁾

이 조례에는 공적, 사적 영역의 차이가 절대적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규칙적인 규제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건물의 배면이 아닌 정면에 적용되고 있었다. 1860년까지 이와 같은 허가서 없이는 '폐쇄된 공간(closed-off areas)'에 있어서의 주택건설을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되었다. 폐쇄된 자구는 법적으로 호프(hofjes, 그림1~2)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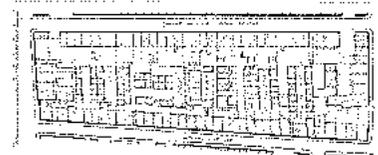


그림 1. 투기성 집합주택 사례의 베치도(헤이그, 19세기 헤이그 시(市)를 시작으로 한 안구호 도시침범은 투기성 집합주택을 위한 토지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다. 베치도에서 보듯이 주동으로 둘러싸여 있는 중정에도 주택이 꼭 들어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에트르연보스 거리의 전경

1) 주택법, 건강법, 사용자 책임 배정법 등의 법률은 4년 이내에 이루어졌다. 50 Jaar Woningwet, 1902-52 (Alphen aan den Rijn, 1952), p.1을 참조하십시오.

2) Bauer, Modern Housing, pp.78-79. 바우어(Bauer)는 '이 책 22페이지에서 19세기의 국가위생(century health)은 국가방위(national defense)와 관련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1880년대 조기 사망(premature death)을 알소 하는데 필요한 실제 비용의 조사가 유럽 전역에 퍼졌고, 1884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생명의 가치에 관한 국제회의는 이를 명백히 하고 있다'

3) Nycolaaas, De huisvesting arbeidende klasse, p.16

4) J.W.G. Floor, Beschouwingen over de bevoeding van de volkshuisvesting (Leyden, 1971), p.4.

5) Brugmans, De arbeidende klasse in Nederland in de 19e eeuw, p.161-162

6) Einge grondslagen voor de stodbouwkundige ontwikkeling van 's-Gravenhage (The Hague, 1948), p.71

그러나, 이 말은 구빈원(救貧院, almshouse)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주동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끔은 부속건물이 지어지는 그 내부의 옥외공간을 가리키고 있다. 토지이용 형태의 강화는 높은 지가(地價)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고 높은 토지가격은 도시의 수평적 확장의 어려움을 가져왔다.

1860년에 제정된 헤이그 시(市) 조례는 폐쇄된 공간에 진입하기 위한 입구를 최소한의 폭으로 규정하였으나 5년 후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수치는 감소되었다. 이것은 시(市) 조례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투기업자의 압력에 따른 동요(動搖)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단계적 발전을 잘 나타내고 있는 헤이그 시(市)의 사례를 보면, 1871년 제정된 조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폭이나 방향이 시의회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 어떠한 도로도 설치할 수 없다”⁷⁾

이 조례가 적용되는 다른 곳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시의회의 결정으로 정하여졌다. 1878년 폐쇄적 호획형식(hofje system)에 대한 비판이 처음으로 공론화되었지만, 이런 이의 제기는 폐쇄형 블록형식의 종말을 고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조례는 폐쇄형 블록 내부에서 옥외공간의 폭이 최소한 6m 정도가 되도록 의무화하였다. 1892년 새롭게 제정된 또 다른 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시의회에 의해서 승인된 치수, 방위, 건물높이에 따라서 계획된 도로 이외에 접하

는 건물 및 건물 배면에서 10m 이상을 띄우지 않으면 건설할 수 없다.”⁸⁾

그러나 이 조례에는 이격거리 10m 이상의 제한에 관한 예외규정이 존재하고 그것이 실제의 규칙으로서 적용되고 있었다.

이 조례에서 볼 수 있듯이 10m 이상의 공유공간을 얻기 위해서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협소한 골목길에 연한 건물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골목길도 조례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지만 불력 내의 공간과 똑같이 제한을 받고 있었다. 헤이그 시(市)에 있어서의 이러한 단계적 발전은 결국 지자체의 투기건설업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게다가 문제의 징후를 대처하기에는 충분치 못하였다.

국가적 개혁의 사례

1840년대 후반부터 1850년대 초반에 걸쳐 발생한 심각한 콜레라는 주거환경과 공중위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콜레라가 열악한 주거지역에서 가장 맹위를 떨친다는 보고는 지금부터 논하고자 하는 개선에 대한 모든 노력의 바탕이 되고 있다.

네덜란드 국왕은 왕립기술자협회에 주거환경과 관련한 위생문제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구제 방법을 연구토록 위탁하였다. 이 연구 결과가 공중위생 문제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였으나 주택건설의 구조적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연구위원회의 보고서에 제안된 개선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건물은 확정된 계획안에 따라서 독

립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건물높이, 부지면적, 도로의 방향, 건물높이에 따라 건축물 상호간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주택설비와 관련하여 양호한 환기, 채광, 난방 그리고 구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주택과 관련한 설비와 마찬가지로 화장실, 하수설비 그리고 낙수흡통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⁹⁾

이 보고서는 발표 후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였다. 그리고 헤이그 시(市)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인구밀도의 영향 하에 건설된 도시 중심부는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인구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건설 가능한 토지공급의 부족 때문이 아니고 토지에 관한 최대한의 자본회수 가능성을 설정하려고 하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¹⁰⁾

1887년 공공복지협회는 노동자 계층을 위한 주택과 관련하여 연구,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개혁을 위한 제안이었다기보다는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에 집중되어 있었다. 1894년 또 다른 연구도 이 협회에 위탁되었고 1896년에는 『국민주택의 질문』이라는 도서가 출판되었다. 이 보고서는 주택조합에 저금리로 자본의 대여, 주택조합에 저가(低價)의 토지제공, 일반적인 주택조합의 제정 그리고 슬럼화 된 주택지 일소(一掃)를 촉진하기 위한 토지 수용권의 사용을 추천하였다.¹¹⁾

이런 제안은 당시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1890년 영국에서 제정된 노동자용 주택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국민주택의 질문』이

7) Ibid., p.71

8) Ibid., p.72

9) Ibid., p.71

10) Ibid.

11) Maatschappij tot nut van 't algemeen. He: Vraagstuk de: Volkshuisvesting, pp.168-170

출간되고 3년 후인 1899년에 제2의회에 주택 법안이 제출되었다. 주택법은 1901년 제2의회에서 거의 이의 없이 통과되었고 제1의회에서는 찬성 25표, 반대 15표로 가결되었다. 제1의회에서의 표결 시 개인재산의 소유권을 규정하는 상위(上位)기구에서 주택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경우는 없었다.¹²⁾ 그리고 주택법은 '정치적 자유주의와 관련한 사회적 소산(所産)'이었다.¹³⁾ 그리고 이것은 노동자 자신들의 직접적인 의지의 결과라기보다는 내무, 법무, 그리고 재정 장관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밝혀졌다. 주택법은 여왕의 최초 승인이 있을 후 1902년 8월 1일 시행되었다.

주택법 : 건축조례

건설수단과 구별되는 구체적인 주택 자체와 관련된 주택법의 규정은 지자체가 건축조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은 결국 네덜란드 전 국토에 걸쳐 주거 수준의 개선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중앙 정부와의 역학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그러나 주택법은 각 지자체 사이의 건축조례가 통일성을 갖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다.

"주택법을 만든 자유 방임주의적 사상을 갖는 장관들에 의해 고정 모델화된 조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제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¹⁴⁾

대규모 지자체는 소규모 지자체에 비해 주택법의 시행에 앞서 어느 정도 법적 관리의 전통적 결과로서 주택법의 의무규정을 수락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대도시보다 소도시의 주택 보급업자가 오히려 더욱 커다란 힘을 발휘하였다. 건축조례

의 시행에 있어서 지역적인 반대세력에 의해 발생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규정의 적용까지는 1년이 연장되어 2년이 걸렸다. 가끔 지역적 이미지에 기초하여 건축조례가 작성된 경우도 있었다.¹⁵⁾ 그리고 어떤 도시는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작성되는 부분적인 도로계획을 허가하였다. 놀랄 일은 아니지만 이런 도시에서의 개인 재산관리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반발이 더욱 강했던 것은 부유한 계층에서 발생하였다.¹⁶⁾

주택법의 의무규정 하에서 작성된 첫 건축조례의 대부분은 화장실, 환기, 상수도, 화재, 오수 그리고 쓰레기에 관한 내용이었다.¹⁷⁾ 1906년 시행된 헤이그 시(市)의 새로운 건축조례는 처음으로 주동으로 둘러싸여 있는 옥외공간(중정을 의미함-역주)에 허가받지 않은 헛간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례 내용은 이미 있던 경향을 계승하고 있었을 뿐이다. 주택법 그 자체는 폐쇄형 주동건물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포함되지 않았다. 몇 군데의 지자체 조례는 보다 특정한 지붕구조를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는 처마 밑에 침실을 만드는 증층형 주택을 가능하게 하였다.¹⁸⁾

이런 구조는 자연히 빛과 환기가 어려운 주택 뒤쪽으로의 확장에 비해 유리하였다. 그러나 서구적인 관련 조례와 비교하여 볼 때 주택법은 불박이형 침상이나 알코브형 취침공간에 대한 미련을 버리도록 지자체에 의무화할 정도로 강력하지는 못하였다.

이 규정이 암스테르담 시(市)에 의외로 빨리 적용되어 이미 1912년 베를라헤가 시행한 암스테르담 시(市) 남부확장계획안에서는 불박이형 침상의 설치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계속 설치해도 좋다는 허가를 하였다. 알코브형 취침공간은 로테르담 시(市)의 건설업자와 개혁자들 사이의 충돌로 1937년까지 금지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주택조합은 알코브형 취침공간을 금지하는 지자체의 조례 이전부터 이미 독립된 형태의 침실을 갖는 주택을 건설하고 있었다(그림 3~4).



그림 3. 펠 로흐다레 주택조합이 건설한 집합주택 (암스테르담, 반 비닝언 거리, 1909)
1902년 주택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건설된 암스테르담 최초의 로흐다레 집합주택은 보다 향상된 주거환경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집합주택이 건설된 이후, 일부의 임주자들은 이전에 살았던 박정형 침상이라든가 알코브형 취침공간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층의 각 세대는 전용 현관이 배치되어 있고 건축물의 외부 파사드는 단순한 형태로 처리되어 있다. 이 집합주택은 같은 시기에 건설된 다른 집합주택과 비교하여 질층적인 요소는 찾아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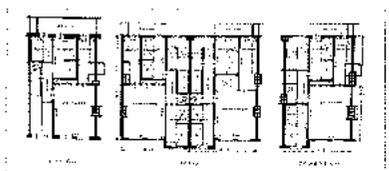


그림 4.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건축조례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택법은 '건강법(Health Act)'이라는 인식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자체내에 건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비록 이와 같은 위원회가 암스테르담, 할렘, 로테르담, 아켄, 그리고 네이메헌(Nijmegen)의 각 지자체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위원회는 연구 대행이라든가 개선조언자 그리고 주택법의 규정이 경고권 (the power of

12) Nycolaas, pp.16-17

13) Floor. Beschouwingen, p.2

14) Prak, Zeventig jaar woningwet, p.30

15) Nederlandsch Instituut voor Volkshuisvesting en Stedebouw. De Woningwet 1902-29(Amsterdam, 1930)

16) Ibid., p.284

17) 50 Jaar Woningwet, p.75

18) Prak, p.30

condemnation)을 행사할 경우의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주택법 : 건설 대행자

주택법의 최대 장점이자 업적 중의 하나는 투기시장으로부터 질 낮은 임대주택을 일소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에 있다. 이 법은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을 유일한 목적으로 한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여왕의 인가를 받았다.

비록 지자체라 할지라도 국가로부터 저당권(mortgages)을 얻을 수 있었다. 협동조합 운동은 주택법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이전 10년 동안에 현저하게 발생하고 더불어 조합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1906년까지 14개의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1918년부터 1920년 사이에는 심각한 주택부족 현상으로 인해 무려 743개의 조합이 1922년까지는 1,341개의 조합이 설립되었다.¹⁹⁾

모든 조합이 협동조합의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1903년 암스테르담에서 설립된 로흐다레(Rochdale)라고 하는 주택조합은 폭넓은 협회운동과 그 당시 사회 민주 정치의 힘으로 주택법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주었다. 로흐다레라고 하는 이름은 1844년에 설립된 영구소비자협동조합-오웬과 포리에(Owen and Fourier)-의 영향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이 지방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협회라든가 지자체의 주택국 및 건설위원회의 수와 힘의 증대는 나중에 건축가가 주택설계의 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의사결정의 일치, 부분보다는 전체의 강조 그리고 건설위원회가 거주자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건축가들이 주택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키는 열쇠가 되었

다. 협동조합이라든가 지자체에 의한 주택계획에서 건축가는 강한 공동체의 상징적, 기능적 의미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주택법: 도시계획

주택법의 규정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것-오늘날의 문제를 적절하게 풀이해 보면-은 도시계획을 규정하는 점에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시의회가 도로건설을 확장한 지역에서 건축을 금지하도록 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²⁰⁾ 도시계획 규정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10,000명의 거주자 및 지난 5년 동안에 20퍼센트 이상의 인구증가를 보여준 지자체는 도시 확장계획을 책정할 것을 의무화시키고, 10년마다 계획이 수정되도록 의무화하였다.

지자체는 이미 이런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도시 확장계획의 대부분은 1886년 암스테르담시의 건축기사인 니흐트릭(Niftrik)이 작성한 암스테르담시(市) 확장계획안과 거의 비슷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확장계획'에 근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의 규정은 간단하게 말하면 시가화 구역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지태의 이념이 보편화될 즈음에 명료해진 것은 '주택은 도시직물(都市織物)의 기본적인 요소'라는 인식을 강하게 부여했다는 것에 있다. 예를 들면, 헤이그(그림 5~6), 암스테르담(그림 7), 유티레흐트의 각 도시에 있어서 중요한 확장계획안을 작성했던 건축가 베를라헤에게 있어서는 건축가가 관여하는 영역의 규모가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찍이 도시에 관한 모든 영역에 걸친 계획에 관여한 베를라헤는 주택이 도시계획가의 기본적 관심 대상이라는 인식을 부가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주택법의 양상이 네덜란드의 도시계획분야에서 공헌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겠다. 1918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국민주택조합'(이 조합의 명칭은 1923년 네덜란드 국민주택·도시건축협회라고 바뀌었다)의 창설자인 후디호(H. Hudig)는 1924년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주택회의에서 지역계획의 이념을 도입하였다. 그 이후 10년 뒤에 작성된 암스테르담시(市) 남부확장계획안은 이 분야에서 가장 세련된 것이다.

발전의 문맥

새로운 주택법의 즉각적인 시행이 뒤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은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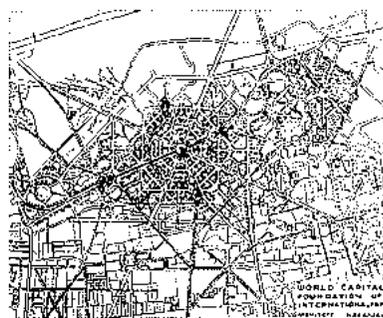


그림 5. 바젤, 세계도시의 계획안(헤이그), 1905
20세기 초기, 도시계획 이념의 다양한 흐름이 세 개의 계획안에 잘 반영되어 있다. 비르크의 계획, 지역적 계획의 전통이 베를라헤와 나탈의 헤이그 시(市) 확장계획안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나탈과 뷔드발트가 같은 시기에 관계하고 있던 신지하 운동(the theosophical movement)은 두 건축가에게 영향을 끼쳤다. 베를라헤가 헤이그의 전역도시이념을 해석하여 그 결과로 나타난 자신의 계획안은 비르크의 계획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뷔드발트 계획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녹지대의 고층 집합주택군은 다른 3개의 계획안과 비교하여 항상색(常綠)색이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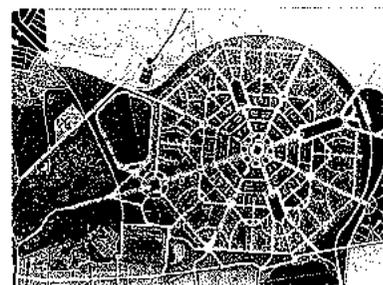


그림 6. 베를라헤, 헤이그 시(市) 확장계획안, 1909

19) J. Bommer, Organen bij de Uitvoering van de Wet: Woningbouwvereniging in 50 Jaar Woningwet, p.58
20) Nederlandsch Instituut voor Volkshuisvesting, Dutch Housing Legislation(날짜 없음, 1920년으로 추정), 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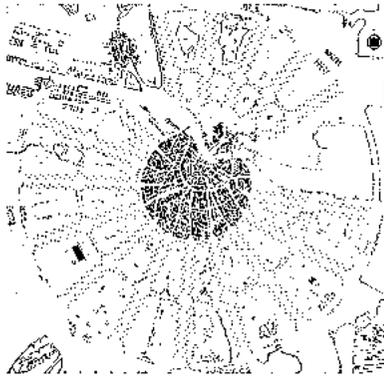


그림 7. 뷔드벨드, 암스테르담 (서남) 확장계획안, 1918



그림 8. 알라, 에르 란싱고 전원마을의 배치도(헨허로), 1911
이것은 헨허로 주택조합(1867)이 건축한 주택단지로, 단지의 형성은 스트르크의 논의와 헨허로 7 업가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 전원마을은 의도적인 남북축 배치계획과 입주자의 수입에 따라 주거형식을 달리하여 계획한 혁신적인 것이다. 이 전원마을은 공간을 속으로 하는 중앙광장과 개방적인 배치계획에 전통적인 주택 이미지를 혼합시킨 수법으로 네덜란드에서 고갱이 되었다.

하였다. 주택법의 재정적인 원조를 받아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건설된 가장 혁신적인 집합주택의 사례로는 헨허로에 있는 에르 라싱크 전원주택단지(그림 9~10)와 로테르담에 있는 브레이베익 전원주택단지를 들 수 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플러크에 의해 노동자용 주택에 현대적 미학을 적용하기 위한 모색의 일환으로 지어진 스파르담머 근린지구에 있는 에이언하르트 집합주택을 들 수 있다.

1918년까지 이런 진전은 급속하게 진행되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중립적 상태가 이를 유지시켜 주었다.²¹⁾ 주택 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은 1921년에 이르러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최고의 전성기를 맞



그림 9. 주택의 전경



그림 10. 주택단지 풍경의 전경

이하여 19,298세대나 건설되었다. 주택법은 민간기업에도 커다란 활력을 주었다. 1923년까지 민간기업은 주택공급의 절반을 담당하게 되고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또한 유아 사망률이 빠르게 감소되면서 1899년부터 1920년에 걸쳐 인구는 27퍼센트 증가하였다. 또한 방 한 개당 점유 인원수가 1900년의 1.65인에서 1930년에는 0.95인까지 감소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같은 시기에 2실 이하로 구성된 주택의 비율은 60퍼센트에서 23퍼센트까지 감소하였다.²²⁾

그러나 이런 사실은 변화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부터는 네덜란드 집합주택의 전개와 집합주택에 거주한 사람들과 관련지어 당시 건축가들이 집합주택의 성격에 어느 정도 공헌을 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런 새로운 아념이 건축가에 의한 성과라 하더라도, 이런 작업이 1920년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보면 10년 앞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카미로 지테의 영향

최근 네덜란드 집합주택과 관련한 자료에서는 카미로 지테(Camillo Sitte:1843-1903)의 중요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지테의 저서인 『예술원리에 기초한 도시계획』이 1889년 오스트리아 빈(Vienna)에서 출판되었다.²³⁾

빈의 현대화 작업과 광범위한 여행의 경험으로부터 이끌어낸 이론은 지테가 결론에 이르기 위한 고전, 중세, 바로크 공간에 대한 분석에 있었다. 지테는 건물을 고립화시키는 고전주의적 배치계획을 비난하고 이미 논한 3가지의 역사적 패턴으로부터 건물상호간의 관계가 그 자체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같이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서 건축을 개념화하였다.

도시계획에서 지테의 접근은 U자형(concave)-둘러싸여 있는(enclosing)-공간적 특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런 공간을 미학적이고 심리학적 측면에서 옹호하고 있었다. 지테는 “공간의 존재적 가치를 강조하고, 무엇이 행위적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었다.”²⁴⁾ 그러나 공간에 있어서의 기본 구성법은 미학에 기초한 것이다.

‘불규칙성, 비대칭, 폐쇄성, 다양성 그리고 매스의 연속성과 요소적 접속(irregularity, asymmetry, enclosure, diversity, continuity of mass, and connecting elements)은 시각적 효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찰된 것이다.

1세대 건축가: 베를라헤

지테의 이론을 네덜란드에 소개한 것은 건축가 베를라헤였다. 1892년 3월초, 건축

21) 1918년 90퍼센트의 국가자금과 10퍼센트의 지자체 자금으로 반영구적인 주택을 건설할 것을 긴급 입법화 하였다.

22) ‘이들 나라 중 어느 한 곳도 네덜란드에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1918년 식점에서 존재했던 대량의 주택공급 부족을 경험하지 않았다’. Bauer, p.120. 여기에서 사용한 숫자는 60 Jaar Woningwet에 의함.

23) 지테의 중요성은 그의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를 들면, 후더호(D. Hudig), Stedebouw, De Socialistische Gids, X(January 1925), pp.63~64를 참조할 것.

24) Choay, The Modern City: Planning in the 19th Century, p.105

축전협회) 암스테르담지구 주위의 강연에서 베를라헤는 지테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베를라헤의 지테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은 지테의 미학적 가정을 거의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데, 실재는 기능주의적 이상을 외삽(外挿)하기 위한 것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베를라헤가 일반대중에게 지테의 이념을 설명하게 될 경우, "폐쇄성 미학(the aesthetic of closure)은 민중을 위해서 유익하고 일상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²⁵⁾라는 것이다. 베를라헤는 이런 해석을 주거에 직접 응용하였다.

"정원이 많은 적든 간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야 한다. 도로에 면해서는 개방적이지만 전체적으로 주택을 둘러싸고 있다. 2개 혹은 그 이상의 서로 다른 출입구로 출입이 가능하다. 비록 이런 정원이 방어적일지라도 결과로서의 주택의 긴 형태는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된다."²⁶⁾

이것은 주택 배치계획의 형식에 관한 언설로 네덜란드 전 국토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테와 베를라헤에 의해서 고찰된 연속성을 갖는 집합주택은 연속하지 않는 주동으로 형성된 도시직물의 결과로서 측면도로와 연속적 전체, 그 이상을 차지하는 모서리 주택으로서 단속적(斷續的) 반복 이상의 미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관심은 특히 바로크 이념으로부터 발전된 것이고, 다양한 도시 확장계획에서 베를라헤는 바로크의 실례로서 폐쇄적으로 개조된 파리를 가장 상찬하였다. 모든 건물들은 하나의 전체(one total)²⁷⁾를 형성하기 위하여 통일되어야 하는 원리는 1899년 암스테르담 시(市) 도시 확장의 초기계획에서부터 적용되었다(그림11~12).



그림 11. 베를라헤, 암스테르담 시(市) 남부확장계획안, 1915
베를라헤의 확장계획안은 브린크만, 지테, 어윈의 영향을 반영한 도시적 배경이 되었다. 거리, 주동 그리고 특히 강조된 랜드마크적 건물은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도시규모로서의 공간적 개방성은 보이지 않는다. 베를라헤는 1915년 계획된 전원도시지구 설계경기 '등 원선 안을 기본으로 하여 확장계획안에 적용시킴으로서 도시확장계획과 전원도시이념'을 통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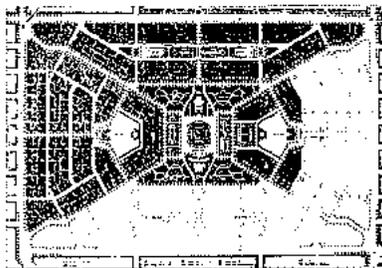


그림 12. 헬코, 전원도시 지구 설계경기 '등 원선 안, 1915
이 설계경기는 '민주적 기술자간건축기로 구성된 사회기술협회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의미는 '주택과 정원'으로, 펠코(J.F. Peckol)가 1등으로 당선되었다. 심사위원장이 베를라헤, 심사위원 비사에 케플러(A. Keppeler)가 감당하였다.

브린크만(A.E. Brinkman)의 『공장과 모뉴먼트』(1906)의 저서가 1915년 베를라헤의 암스테르담 시(市) 남부확장계획안에 넓은 가로수 길(wide avenues)을 도입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지테의 이념은 이런 계획의 정당성에 비판적으로 적용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 베를라헤가 1918년 지테의 이념을 주택 표준화 옹호에 적용한 것을 고찰하고자 한다.

1915년 암스테르담시 남부확장계획안에 대한 베를라헤의 해석은 거의 대부분 실제 계획의 묘사와 주동형식의 옹호로 구성되었다.²⁸⁾

합리성(rationale)은 폐쇄성 그 자체만이 바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규모의 확장 에 따라 요구되는 도시의 통일성을 보다 효

율적 효과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단독주택 건설이 예외인 점을 지적하면, 주택건설이 점점 대량생산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베를라헤는 강조하고 있다.²⁹⁾

베를라헤는 초기에 주어진 주동형식을 관찰한 결과, 이런 형식은 각각의 주택이 독립하고 있다는 예외적인 사례도 고려되고 있다. 그리고 시각적 통합성은 다양한 전체의 일부라는 건축양식의 통일을 통하여 획득하였다. 르네상스와 나폴레옹 시대의 주동 형식은 대규모로 적용되기 시작하였지만, 이런 전통은 19세기 단조로운 가로 나열식 주택 형식만이 통일성의 원리에 대한 해답으로 보여주기를 시작하면서 소멸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게다가 통일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매스의 연속성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베를라헤는 갖고 있었고, 이런 주동형식을 다시 한번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³⁰⁾

베를라헤 또한 통일성을 가로와 광장이라는 언어로 개념화하고, 그리고 도시공간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동형식에 관한 높은 관심은 건축가가 각각의 주택을 분리시켜 보여준 형태의 퇴화(degeneration)에 대한 반영이었다.

나중에 베를라헤의 사회주의적 관점이 좀 더 심화되었을 때, 이것은 미학에 대한 해석이 반복성(repetition), 연속성(continuity), 다양성의 통일(unity in diversity)이라고 하는 사회적 이념의 상징화를 통하여 강조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베를라헤는 본질적인 미학적 기원과 의도를 훨씬 뛰어넘어 지테의 이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영국의 도시계획가 어윈(Raymond Unwin)은 베를라헤와

25) Berlage 강연의 전문은 De kunst in Stedebouw라는 타이틀로 Bouwkundig Weekblad, 12(1892), pp.97-91, 101-102, 121-124, 126-127에 연재되어 있다.
26) Ibid., p. 123
27) Ibid., p. 126
28) Ibid.
29) H.P. Berlage, Memorie van Toelichting behoorende bij het Ontwerp van het Uitbreidingsplan der Gemeente Amsterdam, March, 1915, Gemeenteblad, Part I (Amsterdam, 1917), pp.910-915에 수록되어 있다.
30) Berlage, Memorie van Toelichting, pp.910-911.
31) Ibid.

지테의 영향을 많이 받은 다른 건축가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어원이 1909년 저술한 『도시계획과 그 실제』는 지테(Sittesque) 풍의 논쟁과 그림들을 많이 차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네덜란드에서 많이 알려진 것처럼 보인다. 다양한 지테풍의 특성이 네덜란드 교외지역(garden suburbs)에서 볼 수 있으며 직접적인 지테의 영향이 아닐지라도 그 영향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³²⁾

2세대 건축가 : 아우드

지테의 이념 또한 건축가의 실험을 통하여 네덜란드에서의 적용방법을 발견하게 되는데, 대부분 건축가들은 지테 이론이 베를라헤의 접근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 대표적인 건축가로 아우드(J.J.P.Oud, 1862~1938)를 들 수 있다.

아우드는 1911년 여름, 뮌헨(Munich)에 있는 피셔(Theodor Fischer, 1862~1938)의 사무실에 근무한 적이 있다. 당시 아우드는 베를라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피셔는 "지테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고, 또한 근대 도시계획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³³⁾

그는 1893년 이래 뮌헨의 도시 확장계획에 참여하였고, 그리고 이 작업의 상세도는 스토벤(Stubben)계획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어판의 지테 저서에 게재되었다. 아우드가 1911년 뮌헨에 체재하는 동안 어떤 일에 관여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지테 이념의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어느 정도 남아 있다. 아우드가 뮌헨을 방문한 동기가 지테에 대한 피셔의 열광적인 관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1917년 7월 아우드는 「기념비적 도시경관을 집필하였는데, 이 논문은 같은 해 더 스테일 창간호(1917.8)에 게재되었다. 여기서 베를라헤의 이념을 계승하는 보편성과 기념비성에 대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아우드는 "도시는 일반적으로 가로(the street)와 광장(the square)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특징지을 수 있다. 주택을 잇는 실(線)으로써, 그리고 가로의 초점으로서 광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³⁴⁾라고 기술하고 있다.

무엇이 순수한 지테풍 이념(Sittesque idea)인가를 알기 위해서 아우드는 가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출발점이 '전체로서의 가로 경관(street picture as a whole)'이어야만 한다는 접근이다. 왜냐하면 "블록의 건축물들(building in blocks), 혹은 대규모로 집합화된 건축물군(large groupings)은 개별적인 건물로 대체되어 갈 것이다."³⁵⁾

그러나 아우드는 주동의 아름다움을 현대적 재료의 사용, 리듬의 강조 그리고 슬라브 지붕의 사용으로부터 이끌어내어 베를라헤의 생각보다 한발 앞서 있었다.

로테르담시 건축가로서의 아우드는 당시 두 가지의 대형 프로젝트-스뵐언 집합주택과 푸스센다이크 집합주택에 관여하였다. 여기서 베를라헤-지테의 전통이 강하게 투영되었다. 이런 계획적인 측면에서 아우드는 장래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새로운 미학적 접근을 구체화시켰다.

1919년 브리크만의 스뵐언 집합주택 또한 폐쇄형 전통이라는 축에서 이해되고 있었다. 여기서 폐쇄형 주동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더욱 개방적인 계획에 편승하는 전원도시주택의 접근에도 차용되고 있었다.

매스의 연속성(the continuity of mass)

과 공간으로서의 건축(architecture as space)에 대한 이념은 베를라헤와 지테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아우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폐쇄성의 원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로테르담의 기프홀 집합주택에서 옥외 주거공간의 연속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만큼 폐쇄성의 역사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었다. 절충주의(eclecticism)에 대한 비판이 심해지면서 지테의 이념은 중세주의(medievalism)와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일면이 있다. 게다가 아우드보다도 지테 쪽에 더 거리를 두려는 건축가는 지테의 계획적인 접근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려 하였다.

1932년, 기능주의 건축가 다위커르(J. Duiker, 1890~1935)는 『합리적 건설요강』이라는 논문을 CIAM에서 출판하였다. 여기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지테의 유산인 '미학적 고찰', 이것은 건물의 폐쇄성, 즉 가로의 절점에서 거품 악센트를 주는 막다른 골목길에 대한 고찰이다. 거짓의 친밀성으로 이웃에 남아 있는 소량의 해석성을 없애기 위한 극히 효율적인 방법이다. 가장 최근에 건설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답답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대상으로 변하고 있다. 즉, '폐쇄된(closed)' 주동의 안쪽 코너에 약간의 빛을 얻기 위해서 끊임 없이 혼란스러운 평면계획에 종지부를 찍겠다(한 번 더 반복하면 미학적 고찰에 기초한 폐쇄성인 것이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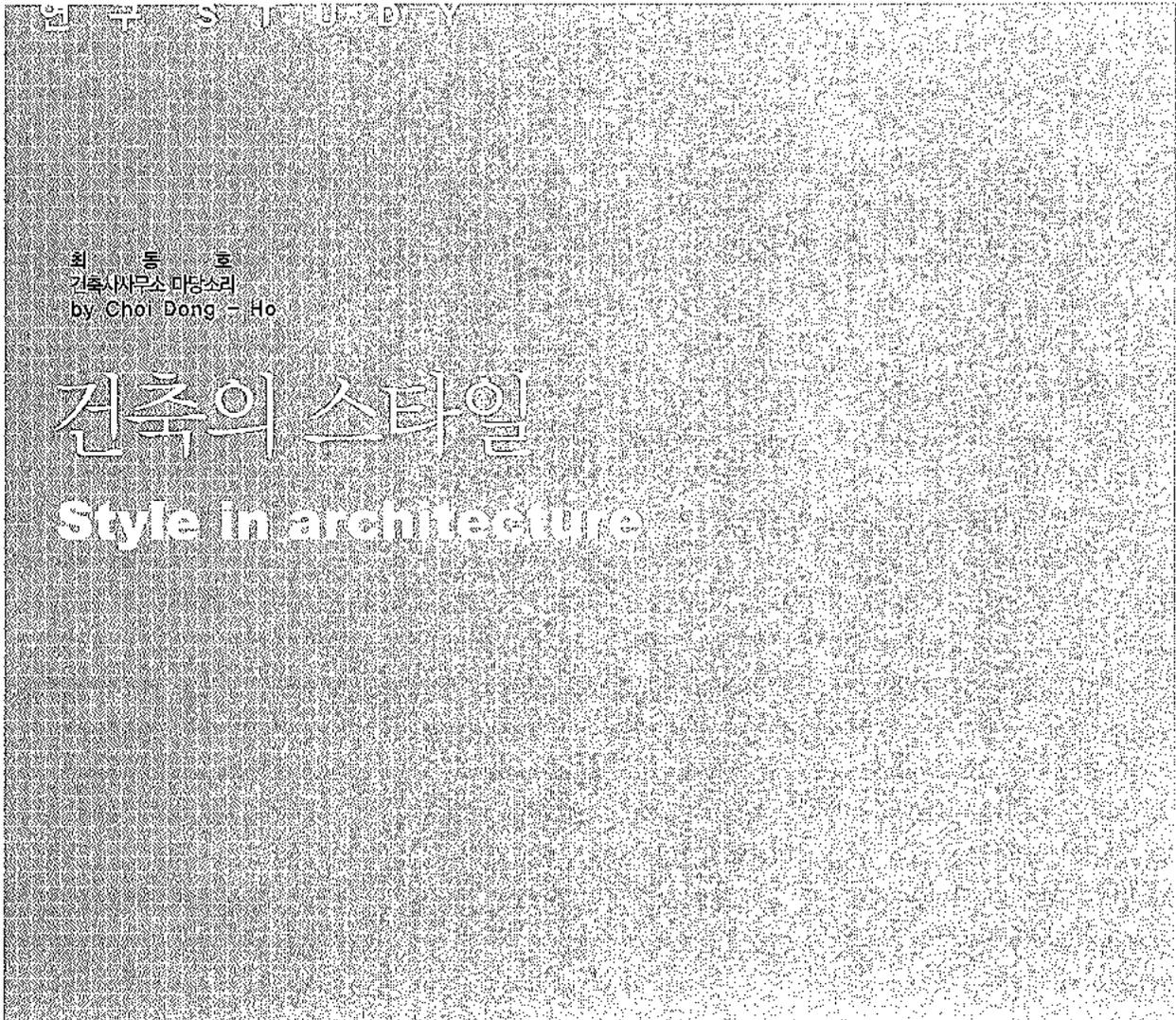
32) H.A. J. Baanders의 서명이 들어간, 1901년 발행의 지테의 저서(3판)가 암스테르담의 Documentatie Centrum voor de Bouwkunst에 보관되어 있다. Baanders는 1915년 로테르담에 건설된 Heyplaats Garden Village의 건축가이다.

33) G.R. and C.C. Collins, Camillo Sitte and the Birth of Modern City Planning (London, 1965), p. 77. 지테의 영어판 City Planning According to Artistic Principles (London, 1965)도 참조.

34) J.J.P. Oud, Het Monumentale Stansbeeld, De Stijl, I, No.1(1917), p. 10.

35) Ibid., p. 10.

36) J. Duiker, Boekbespreking, De 8 en Opbouw, 3, No.6(1932), p. 61. 이것은 CLAM에서 발행된 합리적 건설요강(Rationelle Bauungsweisen) (Frankfurt, 1931)의 서평이다.



머리말

건축 '스타일'에 대한 미학적 담론은 양식적, 예술적, 미디어적 그리고 매체적인 모든 개념을 포괄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곁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테마이다. 스타일이 있는 작품은 그 시대를 나타내는 특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작품이 좋은 스타일을 가지게 되면 영향력도 커지며, 그것이 클수록 어떤 '스타일 적'인 내용을 나타낸다. '스타일 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보편성(Universal)가 아닌 개별자(Individual style)로서 그의 정체성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스타일적 기호(stylistic signs)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

지금과 같은 디지털 시대의 이미지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을 위한 건축 스타일은 매우 빠르게 변하는 새로운 하이퍼스타일을 요청한다. 사이버 공간은 기존의 물과는 다른 새로운 공간 개념을 표출하면서 가상공간을 현재적 이미지로 까지 재현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은 단순한 연락 통화 개념에서 벗어나 문자나 이미지라는 미디어의 세계에서 상호 소통의 쾌락적, 우월적 문화인으로서 탐바꿈시키고 있다. 그들은 이제 시 공간을 초월하는, 실체 없고 지시와 소통이 가능한 노마드 적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보행자는 보도(와 또는 횡단보도)를 걸으면서, 지하철안의 이곳저곳에서, 승용차의 이동성 공간에서,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코드화 된 신호벨이 울리게 되면 마치 자기만의 사이버 공간 속에 있는 것처럼 소통의 춤을 추게 된다. 옆 사람은 끝까지 타인이다. 도시의 질주 차량은 소통 방해꾼이

다. 그래서 편한 모바일 매체 공간을 찾기에 분주하다. 소통 가능한 공간으로서 자기만의 공간을 원한다. 이것은 하이퍼미디어 시대가 낳은 하이퍼스페이스이다. '디지털 스타일적 건축'은 이제 새로운 공간을 요구받는 '한 스타일'이 되었다.

예술 작품으로서의 건축이 스타일적 의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왜 스타일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쉹켈(Schinkel)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모더니즘 건축의 영광과 비참함을 예고하면서, 그는 건축물의 기능과 구조에서 설계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얻으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 결과 건축이 아니라, 자유(정신)이나 의미가 없는 단순한 건물이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쉹켈과 그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스타일이라고 부를 다른 어떤 것을 필요로 하였다."¹⁾

'스타일'에는 분명 '스타일적 힘'이 존재할 것이다. 여기서 힘이라는 의미는 회화의 스타일을 지배하는 것이 색채나 장감 등과 같은 재료들의 그 어떤 힘처럼 건축의 내면적 스타일의 힘을 말한다. 그러면 건축 '스타일적 힘'의 근원은 어디인가? 스타일의 유형적 분류 중 하나인 '역사적 스타일'처럼 시대적 힘에 의한 예술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약화화 함으로서 스타일(포스트모던 건축의 이중약화)을 규정할 수도 있는가? 또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인상과 관념이라는 두 원자적 기본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이비드 흄(David Hume, 1711~76)의 연합관념에서 그 스타일적 힘의 단초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러한 스타일의 제 문제 가운데 그러한 근원 지음이 어디인지를 추론해 보고

자 한다. 특히 영국경험론을 바탕으로 이론을 개진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관념의 정의를 살펴보아 우리들이 건축의 '스타일적 힘'을 이야기 할 때 어떤 토대가 되는 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스타일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체계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살펴, 건축 작품에서 나타나는 '본질' 이해의 출발로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함이다. 건축 스타일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파상적인 스케치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음이다.

영국 경험론 선두 주자인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제1성질과 제2성질의 관념의 산출에서 말하길 붉음의 관념과 본질적인 장미의 붉은 색과는 다른 것이며, 장미가 붉게 보이는 것은 바로 '장미의 힘'으로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광파(光波)의 작용으로 인하여 붉다는 관념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러한 힘이라는 것이다.²⁾

분석 철학자 굿맨(Nelson Goodman, 1906~1999)이 말하는 것처럼 예술을 하나의 언어라고 할 수 있을 때, 또는 퍼스(Peirce, Charles S)가 "사람은 하나의 기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의 언어의 총체이다."³⁾라고 하듯이, 건축이 언어적인 스타일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면 건축 언어의 텍스트는 어떤 구조를 가져야 하는지도 밝혀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건축에서 언어적 스타일이라고 말함은 건축적 형식은 물론, 그 내용까지 포함하는 그 '스타일적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기호 이론으로서의 예술 기호 체계를 말한 굿맨은 건축을 설계도의 흥미로운 혼합물이라고 하면서 수와 언어로 쓰인 그 예술 기호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건축은 상당히 적절한

기호 체계를 갖고 있고, 일부 작품들은 영락 없이 대필적이라는 점에서 그 예술은 대필적이다."⁴⁾라고 하면서 건축 스타일적 언어성을 음악의 악보와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 스케치가 갖는 스타일적 힘은 디지털적 매체를 이용하는 파편화된 도면의 대필적 작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건축은 다른 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그 스타일은 확연한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회합의 조각가인 폴리클레이토스(Polykleitos)는 인체를 통한 비례로부터 이상적인 인간상의 미의 규범의 표준을 만들어 키는(canon)이라 하였다. 건축 스타일은 한 시대를 폭 넓게 지배하는 커다란 그림이다. 이 화폭은 미적 이념의 능력을 가진 천재 작가의 손에 의해서 그려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 채색은 그의 손으로부터 창출되는 창조적 스타일적 힘이 되는 것이다. 만약 스타일이 시대정신을 뛰어 넘는 스타일적 향기를 갖는 것이라면 영원성을 갖는 '건축작품 진리판단에서의 스타일적 힘(Stylistic power in judgements of rightness of a building as a work of architecture)'이라는 미적 판단은 가능할 것이다.

1. 스타일

스타일(양식)은 그 어원이 라틴어 'stilus'로서, 원래의 뜻은 납판(蠟板)에 문자를 쓰는 뾰족한 필기도구인 철필을 의미하였는데, 처음에 수사학과 문체론에서 문장을 쓰는 방법 혹은 문체의 의미로 사용되다가 점차 확대된 이 용법은 예술적 표현 방식에도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1) Caroline Van Eck 외, The question of style in philosophy and the arts, Cambridge Univ. Press, 1995 p. 9.

2) 김효령, 영국경험론, 여기넷, 2002, p.61. 흄은 경험의 기본 단위를 단순지각(simple perception)이라고 하는 개별적 경험에서 인상과 관념으로 나눈다. 그리고 인상은 내재적인 외재적인 지능 내기 경험할 때 갖게 되는 생성함과 활력을 그대로 견직한 것이 인상이고, 그 경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생성함과 활력이 약해진 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관념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순간적이나 순간적이지 아니더라도 극히 짧은 시간만 지속하는 인상이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image)으로 남아있는 것이 관념이라는 것이다.

3) 이재영 역, 영국경험론, 서광사, 1991, p.124.

4) 김해련 외역, 예술의 언어들-기호이론을 향하여, 이화대출판부, 2003, p.215.

예술상의 양식 개념이 빙켈만으로부터 미술사의 영역에 도입되면서, 19C 중엽 이후에는 쟈퍼(1803~1879), 리글(1858~1905), 볼프린 등에 의하여 미술사학의 방법론적 기초를 확립하며,⁵⁾ 스타일이라는 용어는 18세기 말까지는 주로 예술가와 예술 비평가들에 의해 사용되었다.⁶⁾

리글은 『양식의 문제(Sittfragen, 1893)』에서 고대부터 중세 비잔틴 그리고 시라센에 이르는 장식 문양을 연구하여 양식들의 역사성을 해명한다. 또한 후기 로마 시대의 공예에서는 미술의 발전을 ① 촉각적-근시적(觸覺的-近視的, 고대 이집트), ② 촉각적, 시각적-정상시적(正漸視的, 고전시대), ③ 시각적-원시적(視覺的-遠視的, 후기로마제정시대)의 3단계로 나누기도 하였다. 고대의 수사학에서는 문체를 장중(또는 중후), 간소(또는 솔직, 중간(또는 중용)의 세 종류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처럼 양식의 개념은 다의적으로 사용되면서 '보편적인 형식부여'라는 집결의 결과, '대상의 본질 전체를 그것 자체에서 표현으로 가져오는 일정한 요소들의 동형성'이라는 발라하(Robert Wolfgang Wallach)의 입장의 2가지 측면으로 나누기도 한다. 보통 예술상의 양식 개념은 예술적 표현이나 형성방식의 유형적 분화에 관한 기술개념으로 역사적 양식, 장르양식, 기본양식으로서 3가지로 구분한다.

『역사적 양식(Historische Stile)』은 예술 창작 주체의 정신적 특성이나 경향에 의해서 규정되며, 가장 보편적인 양식이다. 이 역사적 양식은 다시 개개 예술가 개인적 정신의 개성의 양식과 집단의 객관적 정신의 차이에 의한 것의 2가지로 구별된다. 후자의 집단양식은 다시 시대양식(고딕양식, 르네상스양식,

바로크양식 등)과 민족양식 그리고 지방양식 등으로 나눈다.

다음 '장르 양식(Gattungsstile)'⁹⁾은 예술의 종류와 장르의 차이로 나누어진다. 끝으로 '기본양식(Grundstile)'은 예술창작 그 자체 속에 존재하는 본질적 형성으로서 니체의 아폴론적 양식과 디오니소스적 양식 그리고 헤겔의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 예술양식이 이에 속한다.¹⁰⁾

이러한 스타일 개념은 건축 스타일은 양식의 변천을 이루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예술상 양식뿐만이 아니라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으로 인한 매체간의 밀접한 연관성은 폭넓은 스타일 장르를 변화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II. 스타일적 힘의 근원

1. 관념의 의미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현대경험론과는 달리 고전경험론(classical empiricism)은 영국에 국한된 철학(16C~18C)을 말한다. 그리고 영국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의 공통점은 '근대적 자아'의 발견이었고, 차이점은 합리론자는 선형적(transcendental)자아였던 반면 경험론자는 경험적인 일상적 자아였다.

로크의 더 큰 관심은 추상적 자아가 아니라 감각하고 느끼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구체적인 일상적인 자아, 즉 그때마다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자아였다. 이러한 경험론적 자아 개념은 귀납법을 강조하는 관찰의 방법으로서 뉴턴(Newton, 1642~1727), 보일

(R.J. Boyle, 1627~1691)은 실험적 탐구의 대상으로서 구체적 자연, 다양한 경험적인 자연의 실험적 방법을 선택하였다.

관념이라는 말의 어원은 그리스 철학의 '이데아'이며, 중세에 오면서 라틴어 '형상(forma)'이라는 말로 번역되었고, 스콜라 철학에서 '관념'이라는 말은 표본(exemplar) 또는 원형(archetype)을 가리키는 것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점차 플라톤의 형이상학의 '이데아'의 원뜻은 점점 퇴색하고, 인간의 마음에 의존하는 어떤 심리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뀌었다. 특히 로크의 철학에 오면서 인간의 인식, 인간의 심리작용과 관련된 것으로 전면적으로 그 내용을 바꾸게 된다.¹¹⁾

간혹 여행을 하게 되면, 떠나기 전에 열심히 모았던 매혹적인 정보 주머니라는 선입견으로 사물을 보는 일이 있다. 그러나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 이미 보았던 많은 서적과 그림 그리고 슬라이드는 내가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인상과는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체험한다. 선입견이라는 생각의 크로키는 인상을 관념을 흐트러 놓을 수가 있다. 심상에 저장하는 것은 바로 순수한 나만의 인상이어야 한다.

관념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왔다. 말브랑시는 "관념이라는 말은 나는 마음이 어떤 것을 지각할 때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대상, 또는 마음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였으며, 데카르트는 『성찰(Meditations)』에서 관념을 3가지로 나누는데 '나에게 원래부터 주어져 있는(innate)' 것, '나 아닌 다른 곳에서 온(adventitious)' 것, 그리고 '나로부터 비롯된(invented by me)' 것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로크는 '관념을 가진다'는 말을 일종의

5) 竹内敏雄, 『미학 예술학 사전』, 미진사, 1990, p.281.

6) Caroline Van Eck 외, p.7.

7) 竹内敏雄, p.110.

8) 竹内敏雄, p.483.

9) 이는 보통 3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로 표현 수단이나 매체의 성질에 의해서 수채화와 유화의 양식 또는 청동 양식과 대리석 양식으로 나누며, 둘째로 표현의 대상이나 제자의 성질로 구분하여 정물화와 풍경화의 양식, 역사문예와 풍속문예의 양식 등과 그리고 미적 성격에 의한 숭고양식, 비장양식 등도 있다. 세 번째는 예술의 각 장르에 고유한 그 자체에 양식적 특징을 부여하는 경우인 서정시와 서사시의 양식 등이 있다.

10) 竹内敏雄, pp.292-293.

11) 김홍영, pp.4-16.

'성향(disposi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인자적 능력¹²⁾을 가리켰다.

2. 힘의 개념

해겔의 나무와 새앗의 예에서 새앗은 개념이고 나무는 실재성이다. 나무의 전체 개념은 이미 새앗이라고 하면서 힘으로서의 맹아¹³⁾속에서 규정들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경험론적 관념 개념과 그 의미를 파악하여 그것이 로크의 『인간오성론(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1690: 4th edn, 1700)』과 흄의 『관념의 연합』에 이르러 어떻게 스타일적 힘의 공간을 이루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자.

먼저 로크의 힘의 개념을 보면, 복합 관념들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능동적 힘의 개념에서, 힘(power)의 개념을 제1, 제2성질의 구분과 관련하여 도입하였다. 즉 로크는 물체가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의 본질적인 성질 이외에도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감각을 일으킬 수 있는 성향(disposition)까지도 가지고 있는 바, 이 성향을 '힘'이라 불렀다. 그리고 제 2성질이란 그러한 성향, 즉 '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일종의 관계적 성질인 성향으로 파악된 힘¹⁴⁾의 개념은 로크에 있어서 분명히 인과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힘이 물체 자체에 본래적으로 내재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힘의 정의와 함께 그는 예를 들었는데, 붉은 금을 녹일 힘을 가지고 있고, 금은 녹여질 힘을 가지고 있다. 로크의 힘은 이중구조를 가진다. 즉 변화시킬 수 있는 측면(능동적 힘)과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측면(수동적 힘)이 그것이다. 그는 의지(will)라는 개념으로서

마음의 힘을 말하고 있으며 의도함(volition)은 실천이 된다. 여기서 사물을 지각하는 힘은 '오성(understanding)'이라고도 불렀다. 정신은 결국 사유하는 힘과 운동하는 힘이라는 두 능동적 힘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흄의 힘의 개념은, 그는 힘의 존재를 구체적인 사물의 존재에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그는 우리의 마음은 그 심리적 결정이 다른 대상으로 넘어갈 때 발생하며, 또한 유사성 관계를 이해하려는 습성이 생긴다고 한다. 그는 힘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것이라고 하면서, "원인과 결과를 결합시켜주는 필연성이나 힘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마음의 결정(determination of the mind)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작용하기에 그러한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 흄은 다음 아닌 관념연합의 현상으로서 본다. 이렇게 정신세계의 인력이라고 하는 단순관념을 서로 결합시키는 원리가 된다. 이 원리를 우리의 기억에 담아 "불가분적 연관성(inseparable connection)의 자리를 우리의 상상력 속에 마련해 준다."¹⁵⁾고 한다.

3. 관념연합의 원리

크록(J. Mordaunt Crook)의 『건축에서의 스타일-딜레마의 역사적 기원』에 보면, 낭만주의적 정원은 꾸불꾸불한 길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된 일련의 무대로서 4차원의 움직이는 예술이었다. 사람들은 3차원 풍경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연상 심리로 신비로운 카펫이 깔린 '시간'을 통하여 회상하게끔 만들었다. 신전, 유적, 온신처 또는 동굴로 둘러싸임으로써 감수성이 예민한 사

람들은 시공간을 통하여 원활한 상상력을 촉발하게끔 하였다. 이것은 관념 연합에 의한 시공간(space-time)이라고 하였다.¹⁶⁾ 시공간의 해석에 의한 적합성의 코드를 찾아내는 설계 방법을 관념연합의 미학적 개념을 응용함으로써, 설계자가 어떤 스타일적 코드로서 관념 연합을 약호화 시키느냐에 따라 건축 작품의 스타일이 만들어진 경우이다. 이러한 관념연합 미학원리는 18세기 영국 건축에 스타일의 한 예를 만들었다.

흄은 관념들이 서로 결합되는 것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말하자면 '관념 연합의 원리들(principles of association of ideas)'인데 단순한 관념들은 매우 기본적인 단순한 인상들로부터 나오고 새로운 복합 관념들은 '인과성(casuality)', '근접성(contiguity)', '유사성(resemblance)'이라는 원리¹⁷⁾들에 의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뉴턴의 중력 법칙과 비유되는 개념으로서, 흄은 관념들의 연합을 정신세계에서의 '인력(attraction)'으로 생각하였다. 뉴턴 법칙이 물리적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결합되는지를 밝힘으로써 자연현상을 설명하였듯이, 흄의 관념연합의 원리들도 정신적 입자라 할 수 있는 여러 지각들이 왜 그러그러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서로 결합하게 되는지를 밝힘으로 인식현상을 설명해 준다.¹⁸⁾

흄은 경험이란 시간, 공간의 접촉에 바탕한 관념의 연합 이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단지 하나의 사건은 언제나 하나의 다른 사건에 따라서 생겨나는데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관념들은 연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한 뒤에는 첫 번째 것이 생기면 두 번째 것이 따라서 생겨리라고 기대하게 된다고 한다.¹⁹⁾ '모든 단순관념들은 단

12) 김효명, pp.17-27.

13) 토마스 페레 외, 헤겔미학입문, 광호서적, 1991, p.114.

14) 또한 그는 『인간오성론』 1권 21장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는데, "마음은 지금까지 부단히 관찰한 비로부터 유사한 변화가 유사한 사물에서 유사한 동인제(agen)들에 의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추리하면서 한 사물에서는 그것에 관한 단순관념이 변화하게 된 가능성을 다른 사물에서는 그러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힘이 있다고 부르는 관념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15) 김효명, pp.178-257.

16) J.Mordaunt Crook, The question of style in philosophy and the arts: Style in architecture: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dilemma, Cambridge Univ. Press, 1965, p.73.

17) 강성위역, 사정철학사학연, p.343. 이렇게 결합을 할 때의 과정은 언제나 순수히 기계적이다. 이런 일은 거의 의상할 나위가 없다고 흄은 믿고 있다. 왜냐하면 한 폭의 그림이 우리들로 생각을 그린 대상과 연결지어 주고(비슷한 연합) 집 안에 있는 하나의 방에 관해서 일하는 것이 열에 붙어 있는 빛들에 관한 관념을 불러일으키고(정족의 연합), 우리들이 상체에 관해 생각할 땐 이쯤을 생각하게 된다. (인과와 연합은 것은 쉽사리 알 수 있는 일이다)

18) 김효명, p.63.

19) 강성위역, p.346.

순인상들의 복사물이다'라는 원리이다. 그는 감각을 통하여만 개념이 생긴다고 하였다. 즉 지각하고 감각을 통하여만 하는 원리가 아니면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III. 건축의 스타일적 힘

1. 카논과 스타일

건축 스타일적 힘의 중심은 예술작품으로서의 건축이라는 진리 판단의 문제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카논이 존재한다. 비트 루비우스는 건축 미학의 이념이 나타나는 건축술의 미적 기본 개념들을, 질서체계(taxis/ordinatio/order), 공간배치(diathesis/dispositio/arrangement)와 경제성(oikonomia)이 고려된 미적구성(eurythmia/eurythmy), 균제(symmetria/symmetry), 적합성(decor/propriety), 분배(distributio/economy)로 보았다. 특히 데코르는 건축의 스타일과 그 적정성의 이론을 다루는 중요한 요소이며, 희랍신전의 양식 설계에서 어울림의 의미로 신전의 양식, 위치 선정 등을 의미하였다. 질서체계, 공간배치, 분배의 이 3가지는 적합성과 실용성(suitability, utility)에 관련되고, 시메트리아, 에우리트미아, 데코르는 아름다움(venustas)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칸트의 경우에 카논에 대한 적정성(適正性)은 '규준이념은 결코 이 류(類)에 있어서의 미의 완전한 원형이 아니라, 단지 모든 미의 불가결한 조건이 되는 형식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류(類)를 현시하는데 있어서의 적정성에 지나지 않는다.'²⁰⁾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굿맨은 적합성 내지는 적정성(some sort of good fit)의 이론에 그 논

리적 적절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코드화 되는 약화(적합성 개념의 약화화/codification of a notion of propriety)²¹⁾로서 스타일을 해석한다는 것이다. 스타일의 개념은 그 실천이 협약 적으로서 인준을 고착화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타 요소들이 부적절한 것으로 배제되기도 한다.

2. 건축의 본질과 스타일

건축 '스타일적 힘'으로서 개념연합의 원리라는 것은 그 본질적 스타일적 힘의 응용이 가능함을 보았다. 베렐 랑(Berel Lang)은 스타일의 체크리스트²²⁾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스타일의 통일성, 스타일과 구조, 스타일과 역사, 스타일과 가치 등이다. 이것들은 미학적 주제를 바탕으로 한다. 결국 스타일은 좋은 스타일과 나쁜 스타일(good style/bad style)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건축 스타일의 양식적 통일성을 가져온 개념 연합의 원리에 근거한 또 하나의 예를 살펴보면, 양식의 결합이란 여러 가지 양식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는 창조적인 노력으로서 예술품이던 박물관은 로마식의 반원주와 그리스식의 주두, 필라디옴의 창, 비놀리종의 코니스, 바로크식의 박공 등을 독창적으로 결합하여 영국건축 중 가장 조화스러운 것으로 만들었다.²³⁾

건축의 본질에서 공간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로저 스크러튼(Roger Scruton)은 건축의 진실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건축은 결국 공간으로 말해야 하는 숙명과 만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공간이라는 철학적 테제는 건축가를 매혹하고 있으며, 중대한 우주적 비례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아마

이 문제는 데미우르고스가 최초의 건축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편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건축의 '스타일적 힘'이 되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美)의 덕(德)이 선(善)이듯이, 신체의 덕인 아레테(arete)는 건강일 것이다. 이것이 다른 아닌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짐치가 영혼을 보살피는 기술이라고 한다면(Nom. 650), 도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설계를 해야 하며, 건축은 사람을 위한 공간의 설계이다. 이러한 명제들이 다른 아닌 본질(ousia)일 것이다.

마치 폭포의 본질은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아니라 폭포소리가 다시 폭포를 부르는 '소리'이듯이, 또한 '빅토리아'의 굉음을 침묵의 소리로 바꿀 수 있는 그 폭포의 본질은 영원한 '소리'라고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화려한 재료의 차장을 칭찬한다고 하여도 건축은 여러 가지 구성으로 연출할 수 있는 인간을 위한 공간으로 말하지 않으면 건축의 본질에 다다르기는 어렵다.

마당의 본질도 흙이 깔려져 있는 '적당한 공간'을 말한다. 흙 대신 나무 깔기 후로잉으로 차장을 하는 것은 무스타일 적 허용 끼 있는 패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한옥마당에서는 진정한 폭포의 소리처럼 마당에도 빗소리가 들리는 마당소리의 의미를 담았기 때문이다. 한옥마당은 바람을 몰고 오고 소리를 가슴에 담는다. 이것이 우리의 마당이 담고 있는 본질이다. 이러한 한옥 마당의 스타일은 지금에도 적절한 적합성으로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건축을 경험한다는 것은 취미의 원리 아래에서 건축의 카논을 검토해 보는 일이다. 카논은 스타일적 힘을 나타내는 매개가 된

20) Kr. d. u. 58-59.

21) Caroline Van Eck 외, p.4.

22) Berel Lang, The Concept of Style, Cornell Univ. Press, 1987, p.293.

23) 로저 스크러튼, 건축미학, 서광사, pp 195-196

다. 건물이 건축이 된다는 것은 단지 벽들과 같은 재료에 의한 단순한 쌓여짐과는 물론 다르다. 건축의 경험은 진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좋은 경험의 뒤에는 미를 판정하는 능력인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취미판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본질이며 스타일이 되는 것이다.

3. 건축의 판단과 스타일

인상과 관념이라는 관점에서 본 스타일의 문제에서, 혹은 인상과 관념의 관계에서 마음의 내용을 경험에서 끌어낸다. 그러나 로크와는 달리 '지각들'이라는 낱말을 마음의 내용 일반을 망라하는데 사용한다. 그는 지각들을 인상들과 관념들로 나누며 인상은 감각과 같이 경험의 직접적인 자료가 되며, 관념은 사유와 추론에서 인상의 모사물이거나 회미한 심상으로 기술된다.²⁴⁾ 아무튼 우리의 "정신은 한시도 쉬는 일이 없이 끊임없는 점진적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²⁵⁾

로크가 모든 지식을 단순관념에서 이끌어 냈던 것처럼 혹은 인상에서 찾는다. 그는 관념과 인상의 정확한 구분을 이렇게 설명한다. "만약 내가 내 방을 본다면 나는 그것의 인상을 얻을 것이다. 내가 눈을 감고 내 방을 생각할 때 내가 형성하는 관념은 내가 느꼈던 인상의 정확한 표상이다. 인상에서 발견될 수 없는 관념의 상황은 있을 수 없다. 관념과 인상은 항상 서로 상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관념'이라는 낱말은 여기서 명백하게 심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혹은 단순 지각과 복합 지각을 구별하는데, 만약 몽마르뜨 언덕 위에서 파리 시를 내려다본다면, 그 도시, 자붕, 굴뚝, 거리의 복합인상을 갖게 될 것이며, 그 후 파리를 생각

하고 이 복합인상을 회상할 때는 복합 관념을 갖는다고 하였다. 작가가 작품을 구성하고자 하는 그 예술 작품의 본질로 향한 작가의 관념을 추적해 본다면, 예술의 근간은 다음 아닌 상상력을 매개로 하는 관념일 것이다. 결국 그러한 관념이 이루고자 하는 생각은 자유로운 관념의 연합미학적 것이다. 흄이 말하는 상상력은 어떤 결합 원리에 의하여 유연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즉 그는 "상상력은 한 관념에서 다른 관념으로 쉽게 옮겨간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오랜 습성에 의해 공간과 시간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근접해 있는 관념들을 연합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²⁶⁾고 하였다. 상상력의 결합원리인 셈이다.

판단력은 무엇인가?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는 오성과 이성의 근원적인 차별화를 시도한다. "오성은 감각의 객체로서의 자연에 대하여 선천적으로 입법적이며, 기능적 경험에 있어서의 자연의 이론적 인식을 성립시킨다. 이성(이성)은 주관에 있어서의 초감성적인 것으로서의 자유와 자유의 고유한 인과성에 대하여 선천적으로 입법적이며, 무조건적-실천적 인식을 성립시킨다."고 말하며 판단력은 오로지 주관에만 관계한다고 한다.

결국 미를 판정한다는 것은 스타일적 힘을 찾았다는 일이다. 스타일이 그 '스타일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스타일(style)', '비스타일(non-style)', '무스타일(style-less)'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면 작품의 미적 판단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맺음말

스타일이 있다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스타일을 보여 줄 수는 있어도 스타일을 갖지는 못한다.²⁷⁾는 것처럼 엄청난 진리의 괴리를 갖는다. 지금까지 스타일 속성이 가지는 진리 개념과 관념 이론 등을 통하여 스타일적 힘이 되는 본질적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시대에 철학자들은 스타일을 단순히 예술이나 문예적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스타일은 예술과 미학의 경계를 넘어섰고 형이상학, 과학철학, 정치철학, 윤리학 등의 영역을 침범하였다. 스타일은 단순한 내용과 형식의 2분법적인 문제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스타일적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외부적이고 자의적인 틀로서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독자들을 위해 우리가 그 내용을 발견하고 구성하는 방식으로서의 형식을 말한다.'²⁸⁾라는 점이다. 즉 스타일은 좋은 철학²⁹⁾ 내지는 미학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해 주는 실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적 건축의 스타일을 말한다면 우리가 할 이야기는 분명하다. 이것은 스타일의 정글 속에서 헤매는 무스타일이 아니라, 그리고 비스타일적으로 본질을 착각하는 패션적인 건축으로 몸을 감싸는 것이 아닌 '스타일적 힘'이 존재하고 스타일적 딜레마를 벗는 '스타일 숲'을 그려야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건축의 스타일적 힘의 판단은 결국은 그 미를 판단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바 그러한 판단력은 미학적 근거 지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비트루비우스의 비례조화 질서의 이론이나, 칸트의 판단력 비판의 판단력과 (천재)이론, 또는 흄의 경험론에서 밝히는 관념의 연합 미학원리 등을 통하여 어떻게 작품을 판단하는 것인지를 살펴야 하며, 그것들을 통하여 '건축작품 진리판단에서의 스타일적 힘'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

24) 이재영 역, pp.347-348.

25) 임석진 역, 정신현상학, 지식산업사, 1995, p.68.

26) 이재영 역, p.347-354.

27) Danto A., p.28.

28) Caroline Van Eck 외, pp.1-3.

29) 헤겔은 정신현상학(철학의 원리, p.129) 머리말에서 철학을 이렇게 말한다. "다른 모든 학문들이 지이우려 철학의 도움이 없이는 능동적인 사유만으로 갖은 시도를 다한다 할지라도 철학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끝내 그 모든 학문 속에서 아무런 생명도, 정신도 그리고 진리도 색트게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통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실
 한국집지학회 회장 겸 주택문화사 발행인
 by Lee Sim

점점 잊혀져만 가는 한옥에 대한 단상(斷想)

Random Thoughts on Your Forgotten Hanoks

주거문화를 다루는 전문 언론사를 30여년 이끌어 오면서 수많은 건축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 그 때마다 나름대로 느낀 바는 주택만큼 어렵고, 또 새로운 가능성과 변수를 지닌 건축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공간과 표현 욕구를 드러내고 자연과의 관계까지 있는 주택설계가 가장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물론 한 도시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만큼 우수한 건축물도 많지만, 일면 도시적 특성과 함께 상징적인 의미로만 존재하기가 쉽다. 그에 비해 주택은 주거라는 확연한 성격을 띠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생성변화의 과정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하지만 오늘날 주택은 단지 부를 늘리기 위한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1인당 10평 정도의 공간이 인생(人性)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데 끼닥 없이 넓고 큰 집, 화려하고 웅장한 집만을 바라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이들에게 집은 경제력을 과시하기 위한 척도이거나 아픈 곳을 가리는 장소로서의 역할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다.

현학(玄學)이 곧 지혜의 드러남이 아니듯이, 화려하고 웅장한 집이라 해서 충실한 삶을 담고 있으리라는 가설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더구나 정신없이 돌아가는 현대생활 속에서 그러한 주택의 형태와 기능 변화는 물론 멋을 담고 찾아내는 건축적 맥락을 투영해 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나는 우리의 한옥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 싶다.

우리는 '한복', '한식' 과 같이 '한옥' 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고 있다. 글자 그대로 한국의복이나 한국음식처럼 한국주택이라는 뜻으로 통용되겠지만, 여기에는 한국식이 아닌 것과 대비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듯하다. 하지만 단순히 한옥을 '한국주택' 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을 것 같다. 한국 땅에는 한옥도 양옥도 있을 수 있으니 한국에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더욱이 한국인이 지었다고 해서 반드시 한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이 지은 주택을 말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주택에 대하여 '이것은 한국식이고 저것은 한국식과 서양식이 결합되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어디에 있건, 누가 지었건, 한국식으로 지은 주택을 한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자연을 관조하며 그곳에서 생의 유연함을 배웠던 한국인들은 한옥을 지을 때 반드시 주위의 경관요소와 어울리도록 결코 사치스럽지 않으면서 궁색하지 않은 단정한 집을 지었다. 기본 향을 정하는 핵심으로 건물마다 고유한 안대(案帶 : 바라보는 산 또는 봉우리를 보고 사랑채와 마루 등을 정했는데, 받아들이고 끌어드리는 불거리를 찾은 옛 사람의 지혜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리고 집 주위에 산재해 있는 바람, 풀 그리고 하늘까지 포함한 모든 자연요소를 포용의 대상으로 삼았다. 즉 자연을 살리고 인공을 겸양하는 우리의 정신이 한옥에는 깊게 배어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루와 구들의 탁월한 기능, 빛을 조절하는 깊은 처마, 추위와 더위에 대응하는 자연조절기법 등 아파트라는 서구의 주거형태에서는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 새 구들 아랫목의 따끈함보다는 침대의 폭신함에 익숙해져 버렸다. 물론 지금의 주거가 기술과 기능면에서는 발전했고 편리하지만, 그보다도 한옥에 담긴 깊은 정서는 잃어

가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나라의 한옥은 한마디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에 중심을 둔 주거공간이었다. 시대가 지나 모습과 기능은 변화하거나 사라졌지만, 그 고유한 가치는 여전히 유효한 한옥을 우리는 단지 '옛것' 으로서만 바라보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담아온 한옥에서 그 가치를 다시금 찾아내고 현대적 계승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민들레 한포기 조차 보살핌이 미치는 집

마음의 영상으로 남아 있는 유년시절의 집. 빗장을 지를 필요가 없는 문을 밀면 한가한 뜨락에 가득히 쏟아지는 햇살, 성큼 집안으로 들어서면 가만히 움츠려 있던 고즈넉한 정적대신 들어앉은 평화로움과 아늑함이 그립다. 바로 그러한 집은 홀로 존재치 않으며, 혼자 불협화음을 내지도 않고, 인간 혹은 자연과 어우러져 그 기쁨을 드러낸다. 빈객이라도 정성껏 맞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담긴 집, 마당 한구석에 어쩌다 핀 민들레 한 포기조차 보살핌이 미칠 수 있는 집, 그것은 공간의 문제를 넘어 생활의 문제이기도 했다.

살기 좋은 집의 의미는 식당, 화장실, 방 등이 거실을 둘러싸면서 얼굴만 돌리고 손만 내밀면 접근되는 기능적 구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소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나가서 대문을 열어주고, 손으로 문을 여닫으며, 좀 일어서서 걸어가 직접 얘기하고, 빗자루로 쓸고 걸레도 훑치면서 움직이며 생각할 수 있는 집이어야 한다. 바로 한옥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

오늘날에도 한국인들이 집을 짓는데 사용하는 일정한 방식이 있고, 그에 따라 많은 살림집들이 지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한국의 현대식 주거문화에 의해 현대식 주택들이 산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들

을 한옥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현대식 주택들은 산업화 이후 서구에서 들어온 기술이나 방법 등 외국의 건축지식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여기에 한국식이라고 할 만한 고유한 방식을 계승하고 점목하는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옥을 전승함에 있어 단순히 골동품처럼 수집하고 보존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한옥 속에 담겨 있는 우리 주거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오늘날의 방법으로 되살려 낼 수 있어야 한다.

시대마다 당연한 시대적 상황과 가치가 있으므로 그 구성원들에게 적합하고 필요하다면 굳이 외국의 것이라 하여 버려질 것도 아니고, 과거의 우리 것이라 하여 무조건 고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역사가 현재를 반영하는 거울이듯 현재의 우리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상황과 가치관에 적합한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우리문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방법론을 구하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이다.

한옥은 한국의 전통 주거문화에 의한 결과물이며, 우리는 한옥을 통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치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한옥 속에 담겨진 지속적인 정서와 가치들을 재조명하고 이를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되살려 내는 것이 주거문화의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창달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양 건
 기우건축사무소
 by Yang Gun

어느 지방건축사의 일상

One Local Architect's Daily Life

제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서울대학교도 아닌 서울소재 대학에 유학 보냈다고 자랑스러워하던 부모님의 기대를 채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제 다시 고향 땅에 내려와 사업을 한답시고 조그만 설계사무소를 차려놓은 평범한 지방 건축사의 하루가 시작된다.

아침 7시 30분

오늘 새벽까지 붓듯이 마신 술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신이 혼미하다. 아내가 출근한다며 깨우지만 몸은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한참이 흘렀는지 둘째, 셋째 녀석이 유치원에 갈 시간이 넘었다며 성화를 부리니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다. 아내와 큰애는 벌써 출근한지 오랜 시간이다.

오전 10시

유치원 선생님의 눈치를 보며 거의 매일 지각하는 딸애들을 들여보냈다. 이 유치원을 설계한지도 벌써 2년이 넘어 동네에서는 이름난 유치원이 되었고, 이제 아이들도 아빠가 우리 유치원을 설계한 건축사라고 우쭐해 하며 잘 다니고 있다. 얼마 전에는 7살 반인 햇님반 친구들에게 유치원의 탄생비밀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대학 강의 7년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쏟아지는 예상외의 질문에 당황스러워 진땀을 흘렸다. 문득 애들의 분위기를 휘어잡고 가르치는 젊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존경스러워 보인다.

오전 10시 30분

평상시보다 한 시간 이상이나 늦었다. 사무실 식구들은 벌써 자신의 일에 열중한 모습이다. 소장으로서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이다. 오실장은 오늘 2시까지 전자 입찰에 투찰한다고 보고한다. 작년 말에는 오실장 덕에 개업 6년 만에 처음으로 2등과 총액1원 차이로 낙찰되었는데, 설계를 하려면 우선은 '운이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 우리네 현실에 쓴웃음만 흐른다. 하야간 그 덕으로 올해 초는 전복양식장이라는 특수시설을 설계해야 했다. 사람이 살 집은 자신 있는데, 그 비싼 전복이 살 집을 설계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하야가 세상에 쉬운 설계가 어디 있으랴.

오늘은 해양경찰대의 해안초소라니 조금 경직된 사고만 벗어나면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제주도에서 으뎀인 절경에 집을 지으면서도 발주청의 건축적 마인드는 그리 훌륭한 편이 아니니 어느 건축사가 낙찰되든 쉽지 않은 프로젝트일 것이다. 이런 일들은 현상설계를 해서 조금 수준 있는 설계를 하면 항상 외치는 '제주 해안경관'의 개선에 커다란 자극제가 되겠는데, 실제 현상설계를 참여하는 우리들도 힘들지만 업무를 주관하는 공무원들은 무척이나 피곤한 업무로 생각하니 좀처럼 현상설계로 치러 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전 11시

요즘 진행 중인 한라 문예회관 현상설계의 배치계획에 대한 내부 미팅이다.

이런 현상은 응모자격에 실적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제주 소재 업체는 실적이 없어 참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다행히 양소장님의 사무실에 실적이 있으니 파트너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와 어렵게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내심 오기가 생기는 프로젝트이다.

사실 현상공모라는 것이 작품을 미리 평가하고 선정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같은 선행 조건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우리 같은

신인들은 어느 세월에 실적을 쌓아 현상공모에 당당한 모습으로 참여 할 수 있을지 안타까움이 드는 현실이다. 하야간 어저서야 컨소시엄을 맺은 양소장님과 마지막으로 배치안에 대해 결정을 내렸으며, 지금은 회의의 결과를 팀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이다. 팀원들은 최종 배치계획이 너무 강하다고 불평이다. 사실 초기의 대안 중에 하나였으나 이미 탈락한 대안이었기에 다시 피드백 하는 것에 대한 허탈감의 표현이라 이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팀 입장에서보면 어제 회의가 공염불만은 아니었다. 대극장의 이미지를 바다에 떠 있는 섬(제주)의 형상으로 그려보면 어떠냐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건축적 아이디어와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라 흥미롭게 받아들여졌다. 현상설계라는 것이 깊은 건축적 탐구의 작업을 거쳐 그것의 평가로써 평가음이 나와 하는 것인데, 너무 표피적인 것에 치중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긴 하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심사의원의 눈에 들어야하고, 심사위원들 또한 건축의 본질과 같은 심오한 문제의식에 앞서 좋은 그림을 찾는다는 것도 현실이기에 낙점되기 위해서는 자연히 보여지는 모습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 또한 우리네 현상설계가 아닌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손질하고 건축물 디자인을 정리해야 한다.

오전 12시

어제 서울에 있는 대학동기의 소개로 제주도에 사업을 시작해보겠다는 건축주와의 상담이다.

제주에서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무슨 법이 그리 많은지 이미 짜증어 난 얼굴이다. 건축사가 부동산업이나 개발업자도 아닌데, 지적도 한 장 달랑 갖고 와서는 '건축행위가 가능해요?' 하고 대화를 시작할 때면 무엇인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 질문에 제주에서 건축사무실을 하는 우리들도 대답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담당 공무원이 확실하게 답해주지도 못한다.

이유인즉 관련법이 동시적으로 크로스체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인데, 즉 관련 법조항의 관계에 따른 심문화가 되어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 건축사, 부동산업자 등 어느 누구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하야간 건축주가 갖고 온 지적도를 검토하니 해발 200M이상에 위치한 중 산간 지역으로 G.I.S등급에서 1등급이고 목장용지로서 초지법등에 의한 초지전용 등의 문제가 있어 당장은 건축행위가 어려운 지역이다. 건축주의 표정은 굳어지고 검토를 해준 나 역시 마치 죄인처럼 죄스러운 마음으로 건축주를 배웅한다.

오후 1시

시간강사로 나가는 제주대학의 2학년 2학기 건축설계수업에 대해 교수님과 강사진과의 만남의 시간이다.

2학기에 전임교수님은 이론 강의를, 실무에 있어서는 강사진이 실기시간을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학기에는 처음 설계를 하는 친구들이라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데, 연말에는 학과의 건축전시회도 계획도 있고 하니 조금 이른 대접을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다. 매일 그저 그런 건축과 상대하는 우리 건축가들에게 학생들과 건축을 얘기하는 시간은 재충전의 기회이기도 하다. 실제 자신의 건축물 모두에 건축적인 실험을 시도하기는 어려운 현실상황에서 볼 때 강의 중에 진행되는 건축과정 속에는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일방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자극이 있다.

오후 2시 30분

매주 목요일은 제주시청에 가는 날이다.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제주시 건축계획심의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오늘은 점심 겸 회의가 늦어져 30분 지각이다. 위원회의 제일 막내가 지각하면 예의가 아닌데 선배위원들의 눈치를 살피며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심의에 상정된 건은 30여

건, 한창 많았을 때를 생각하면 현저히 줄어든 건수이지만 요즘의 경기를 고려하면 적은 것도 아니다. 심의위원으로서 건축형태와 디자인부문을 담당하고 있기에 내 자신의 개인적 취향과는 달리 형태구성의 객관적 기준을 항상 일관되게 유지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형태를 제한하는 법 규정중 하나인 '경사지붕의 면적을 2/3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디자인이 우수하여 심의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은 건축가로서는 나 자신도 수긍하기 힘든 조항으로 심의위원 간에도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어쩌면 이러한 법조항은 제주의 건축이 고전주의의 사실주의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음을 알리는 구체적 증거이며, 다원화의 패러다임을 아직까지 인정치 않는 지역적 상황일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심의 현장에서는 '상징된 건축물의 지붕 디자인이 경사지붕으로 볼 수 없다.', '이 건물은 평지붕을 인정할 만큼 디자인이 우수하지 못하다.' 등의 동시대의 건축적 상황과 유리된 논란이 있는 것이다. 건축가의 작가적 취향이 강한 작품이 심의라는 공적인 잣대로 손질되는 것을 보며 "그래 프랭크게리가 제주도에 미술관을 설계한다면 아마도 절대로 지을 수 없을 거야"라는 우스운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갑자기 잘된 건축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진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건축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주도의 건축계 핵심의를 단 번에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나의 대학시절에 건축설계를 가르치셨던 스승님의 작품도 어의 없이 무너지는 것을 무척이나 무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아 했으니까.

심의를 끝내고 저녁 식사를 하며 또 한 번 심의의 문제성에 대한 토론이 오간다. 심의 과정을 통하여 건축의 평균수준이 좋아지는 긍정적인 평가의 이면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건축가들의 여지가 좁아든 것만은 사실이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심의제도가 필요 없는 시대가 빨리 오

기를 기대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오후 8시

이제 사무실에 걸려오는 전화벨소리가 현저히 줄고 더불어 소장을 찾는 전화도 드물다.

요즘은 현상설계 막판이라 비상시국으로 거의 매일 존 철야이다. 주말까지는 C.G회사에 도면을 보내야 하니 직원들의 키보드소리가 요란하다. 어느 소장은 사무실의 키보드소리가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교향악으로 들린다더니 오늘의 키보드소리에서는 비장함마저 느껴진다.

오전에 결정했던 형태의 윤곽이 대략 그려진 캐드도면위에 입면정리를 위해 스케치를 해나간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 지금 디자인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 건축가에게 가장 고귀하며 동시에 고독한 순간이다. 스케치를 붙여놓고 팀원들을 불러 모았다. 스테디 모델에 의한 검증작업과 캐드 드로잉이 다음 순서이다.

다음날 새벽2시

내일을 위해 조금 쉬어야 할 시간이다. 많이 지쳐있는 모습들이다.

제주의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근래 최고의 더운 여름이었다는 1994년에도 현상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일요일이라 공조 설비를 가동하지 않는 커튼월의 사무실에서 여자 동료도 안중에 없이 거의 벌거벗고 설계 설명서를 작업하던 기억이 난다. 10년이 훌쩍 지난 일이다.

늦었지만 사무실 앞의 꼬치구이 집에서 생맥주나 한잔씩 하고 가자고 분위기를 잡았다. 여름휴가도 없이 밤낮으로 매달린 일이니 결과에 관계없이 좋은 시간이었다고 서로를 위로한다. 나 역시 이런 친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하며 건축의 어떤 마력이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건축이 존경스러울 뿐이다.

어느 지방 건축사의 하루 일상을 스케치하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라 전체가 경기가 어려워지며 신나게 진행되던 프로젝트들이 제자리걸음이다. 동시에 우리의 주머니도 가벼워진다. 할 일이 없어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있는 직원들을 보면 책이라도 읽으라며 괜히 핀잔을 준다. 요즘 다이어트에 성공한 어느 개그맨이 '목욕탕에 가서 냉탕의 참 맛을 느껴려면 사우나 실에 앉아 이를 악물고 땀을 흘려야 한다'라는 멘트가 떠오른다. 지금의 우리 건축사들은 대부분 사우나 실에 앉아 있다. 그러나 땀을 많이 흘릴수록 저 앞에 놓여있는 냉탕의 절실한 물줄기가 더욱 시원하리라. 그리고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도에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 건축사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

김 선 양
(주)한리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Sun-Yang

신의주 출장기

My Business Trip to Sinui-ju

출장사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에서 용천지역 재난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천소학교 건립에 건설업계의 참여를 권유받고 5월 4일 단체장들과 회의를 개최하여 참여기로 결정하였다

지원금은 약5억원 범위내로 하고 그중 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에서 3억, 나머지 15개 단체에서 2억원을 분담기로 잠정합의 하였으며, 5월 17일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측으로부터 북한출장시 건축사가 동행 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필자가 다녀오게 되었다

두단체의 소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단연(KFCIS)으로도 부르며 1997년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17개건설단체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증진과 연대강화등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 및

국가신뢰구축을 목적으로 주무부처장관의 설립승인을 받은 단체로, 회원사는 아래와 같이 17개 단체이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엔지니어링 공제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참고로 대한건축사협회는 회비분담을 12번째 규모이며, 지원금 분담을 1.924%이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민족화해와 공존'을 위해 1996년 창립된 이후 1998년까지 북한의 식량난 극복을 위해 긴급구호물자 지원사업에 주력했으며 1999년부터는 남과 북, 해외 동포들과의 다양한 인적·물질·문화적 교류에 주력,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데 앞장서 왔다. 북한의 농업생산량 제고와 보건의료체계 복구 등 중·장기적인 남북간 협력사업과 중국 조선족·러시아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인 생활 터전 마련, 문화교류사업을 통한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족봉사단체로 김수환 추기경 등이 교문으로 되어있다.

울란바타르에서 단둥까지

올여름 건축사 교류행사차 몽골의 울란바타르에서 380km 떨어진 옛수도 카리코람에 머물고 있는 동안 이틀후인 7월 15일에 신의 주로 들어가야한다는 연락을 받게되었다.

그동안 북측의 사정으로 세치레나 연기대 왔던터지만 하필 몽골 출장중에 연락을 받게 되어 초행길인데다 일행과 별도로 혼자 중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담감이 엄습해왔다.



베이징(북경)을 거쳐 국내선으로 선양시양에 도착하여 한국에서 출발한 다섯분 그리고 단둥에서 온 조선족 한분과 합류하였다. 그분들은 용천의 유치원, 탁아소, 병원들을 지원하는 각지방과 단체에서 오신분들로 15일 아침 인천을 출발, 필자와 합류하기 위하여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터였다. 모두 초면이지만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다.

준비된 폭스바겐 승용차로 나누어 타고 약 두시간을 달려 신의주와 가장 가까운 단둥시에 도착하였다. 이제 압록강만 건너면 북한이다.

잠시 휴식도 취할겸 면세점에 들어서 기념으로 생필품을 구입하였다.

주로 중국술, 약간의 화장품, 담배들이 진열되어있어 마치 시골 담배가게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신의주 소감

봉고차 한대로 옮겨 탄 우리 일행은 가능한 서서히 압록강을 건너기로 했다. 문득 시계를 보니 4시 43분이다.

백두산 천지를 수원으로 하는 790km의 한국에서 가장 긴 강으로서, 이 강을 가로지르는 압록강 철교는 제일한강교보다 8년 앞선 1908년에 착공된 길이 944m(한강교는

1005m)의 철교이다. 절단된 압록강 철교를 우로한 채 감개무량함에 젖을 새도 없이 잠시 후 인민군이 손짓하여 하차하니 마중 나온 북측 '민화협'측 대표와 우리 민족측의 사무총장 간의 친근한 인사가 오간다. 마치 가까운 친척이 버스정류장에 마중 나온 느낌이 든다.

이곳이 한국의 북문, 평북의 도청소재지 신의주다. 그들이 가져온 낡은 벤스 2대와 HYUNDAI 중 UND만 남은 겔로퍼 1대로 신의주 시내로 들어와 보니 도차자가 면사무소 같은 분위기의 '압록강 여관'이었다.

현관 위에는 적색 붓글씨체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써여 있고, 현관 안에도 낮 익은 부지가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서 있는 벽화 그림이 있었다. 현관 밖에서 기념촬영을 할 때는 북측에서 잠깐만 하더니 현관 문을 닫았다.



숙소와 회의 장소인 압록강여관 앞에서

방 배정을 받고 여장을 푼 후 우리가 보낸 시멘트가 어찌 도착했다고하여 확인 차 신의주역에 다녀오기로 하였다.

승용차로 잠깐 가면서 보이는 풍경은 나로 하여금 타임머신을 타고 1950년대 말 나가 자리던 동네에 온 듯 착각 속에 빠졌다.

빨간 마후라를 두르고 교복을 입은 어린아들이 줄을 맞춰 행진기를 부르며 하교하는 모습, 녹슨 자전거에 어울리는 복장을 한 중년들, 손수레를, 간닐목을 아주 천천히 지나가는 기차, 잿빛 도시인 이곳에서 튀는 색은 오히려 백색이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사진을 찍지 말아달라

는 부탁을 존중했다. 찍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찍을 대상도 없었다. 역무원이 보여주 는 시멘트는 중국산이었다. 그들은 질이 좀 나쁘니 처라리 북한산을 싸주길 원했다.

좋은 발상 같으나 우리의 원조 의미가 자칫 퇴색해질 우려가 있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다시 여관으로 돌아왔다. 약 천 여평 정도의 대지를 울타리로 격리 시켜 외국인 전용으로 쓰는데하다. 여관 내에 식당, 매점, 이발소, 사상책들만 파는 서점 등이 구비 되었고, 현관근처에는 운전기사들이 쫓고리고 앉아 있었다.



신약주역에 도착한 시멘트 선적화물차 앞에서

북측 민화협 측 주최로 환영 만찬회를 가졌다. 무진한 음식에 접대원 동무라고 하는 뱃지를 단 교양있고 상냥한 여성들이 시중을 들었다. 시중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만찬을 마쳤다. 구내 맥주 파는 곳에서 우리끼리 2차를 즐겼다. 불 나간 껌점한 곳에서 소리로만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여관방은 종종 단수되고 샤워는 아예 안 되고, 정전도 잦았다.

이침에 일어나 보니 역시나 엘리베이터에 평양 여성들이 간혀 '거기 아무도 없어요!' 라고 연신 소리를 질러댄다. 조식 장소는 한 면이 찰보산이 잘 그려져 있는 꽤 좋은 방의 원탁에 찬들이 잘 준비되어 있었다. 식사를 시작하려는 순간 정전이 되고 접대원들은 바로 양초 서랍을 열어 불을 밝혔다. 잠시 후 불이 들어와 내가 농담을 하였다. 지금 나의 30번째 생일 잔치를 하기 때문에 촛불을 필자가 고향이라고 하며 입바람으로 세 개를 다 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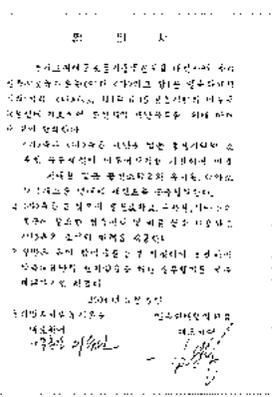
박수를 칠 줄 알았는데 그 중 한 접대원이 '그건 우리식이 아니잖아요' 한다. 어떤 것이

우리식이지? 그들 말에 "고깃국 먹고..." 우리 어렸을 때와 똑같이 하는 것이다. 난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지 모르는 체 좀 멋쩍게 웃고 말았다.

회의

오전, 오후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협상은 항상 우리 측이 불리하게 끝나는 듯한 감은 우리 전 국민이 느껴온 바다. 승용차와 자전거가 부딪혔는데, 승용차가 별로 잘 못한 일이 없어도 좀 손해를 봐야 협상이 끝나듯...

우리는 한 동을 정하여 설계에서부터 준공과 비품까지 풀셋으로 협조한 후 머릿들에 새기고 인수인계 행사를 가지고 싶어한다. 그러나 북측은 그 지원 범위로 여겨지기 요소요소에 자재를 공급하여 보수하고, 증고품으로라도 좀더 많은 비품을 받고 싶어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설게도면을 제시하지 않는 점, 요구물량 내용이 자꾸 달라지는 점 등으로 보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다. 협상



조점장

협력사업에 위하여 《우리안축치모든가본점》 관저가들이 리문선, 김성일, 허현의, 권영진, 리광식 장영래, 최영록의장 북이 7월 9일과부러 신의주를 방문하도록 조종하면서 제후기관 하당 기관에서 신의주현과 문화를 모정할것입니다.



4409130911-27번



북측출입국 관리소장에서 본 인도교(좌측단교는 북측측은 교각만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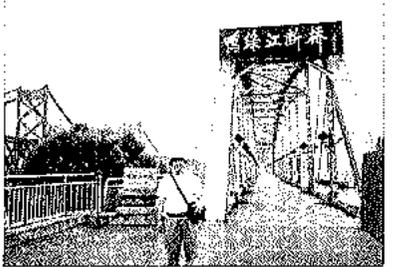
이 마무리 되지 않은 채 24시간 만에 다시 압록강을 건넜다. 소나기 퍼붓는 관리소미당에서 짐검사와 함께 맞겨놓은 휴대폰, 여권 등을 찾느라 자못 분주한데에 압록강 철교를 찍은 일행 중 한명이 필름을 압수당했다. 고맙게도 카메라는 후레시가 작동하지 않아 불상사는 면했다.

다시 단동으로

공교롭게도 방금 출국검사를 받은 북측 출입국관리소가 반히 보이는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동부이촌동에서 동작동으로 자리를 옮긴 셈이다. 북측은 압록강다리 이미에 '조중친선다리'라고 한글로 써놓았는데, 중국은 절단된 압록강철교 이미에 '압록강단교'라고



압록강 철교 국경에서 민화협팀과 함께



단동에서 본 압록강 단교(좌측은 조중친선다리)

써놓고 입장료를 받고 있었다. 압록 강변을 따라 정처 없이 걸어보았다. 활기찬 단둥에서 보이는 신의주는 먹구름 속에 연기 없는 오래된 굴뚝 몇 개와 돌아가지 않는 커다란 회전놀이 시설이 보이는데, 중국은 압록강에 유람선, 모터보트를 띄워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듯하였다. 강을 따라 길게 나있는 강변공원은 디자인이나 재료들이 돌과 천막 등을 사용하여 몇몇 조각 작품들과 어울려 북한과 강한 대조를 보였다. 주석께서 "단둥은 수직으로 올라가도 우리 신의주는 수평으로 놓아두자"고 했다는 어제 만난 접대원의 말이 생각난다.

실무방문단 출장보고요약

•출장기간 : 2004. 7. 15 ~ 7. 17

•인 원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김선영(건단련,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박현석(한민족복지재단 사무처장)
정영재(광주·전남 통천동기 집행위원장)
최양욱(익산 통천동포돕기 실무책임자)
이정식(문화방송 차장) 등 총 6명

•일 정

- 7. 15 (목)

- ① 압록강 여관 도착
- ② 우리가 보낸 시멘트를 확인하기 위해 신의주역 방문
- ③ 북측 민화협 주최 만찬 참석(북측=3명참석)

- 7. 16 (금)

- ① 10시 1차 회의 개최(압록강여관 면담실)
- ② 12시 남측 주최 오찬(압록강여관 식당, 북측 3명 참석)
- ③ 14시 2차 회의 개최(압록강여관 면담실)

•1차 회의 (10시30분)

남과 북 각 6인씩

- 북측 참가자

장송근(룡천피해복구대책위 부위원장)

최성일(룡천군 교육부장)

김창식(룡천군 도시설계 책임자)

백문길(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 실장)

조철수(민화협 참사)

최철남(민화협 참사)

- 남측

남측 참석자 소개 및 경과보고 (이 사무총장)

1) 기 민화협과 맺은 합의서의 내용과 취지 설명

2) 이 사업은 남측의 여러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각 건물 의 설계에서 시공, 비품 자원과 준공 축하방문까 지가 합의서의 취지임을 재인식 시킴

- 북측

1. 인사와 룡천 상황보고(장 부위원장)반경 3.2Km내가 모두 파괴 됨. 사망 총 161명 (추가발견자 7명 포함)

북구현황 : 살림집(주택)과 룡천소학교는 80% 진전

소학교	지하 1층, 지상 3층	3,500㎡	골조공사 완료
유치원	지상 2층	250명 수용	40% 공사완료
탁아소	지상 2층		40% 공사완료

준공 : 10월 예정이며 단, 소학교는 2학기 개학(9월 1일)을 위해 7월말까지 준공 예정

2 룡천 현장방문

군인들이 평북도에서만 1만명 이상 투입되어 작업하고 있음으로 당분간은 보여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룡천에 신도시를 준공한후 '날리 보여라'고 한 고위층의 지시가 있었다기에 준공 이후 방문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요구사항

현재 공사가 진행중임을 감안할 때 마감재와 비품에 관심을 가져주기 원하며, 요구 자재표를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이 기 합의한 소학교와 유치원, 탁아소, 병원 등 각 1개소

용이 아니라 룡천지역의 전문학교, 4개중학, 4개소학교, 4~5개유치원, 4~5개 탁아소, 병원 등의 것이 모두 망라되어 있었음.

- 남측

오후 2차 회의시까지 전반적이고 개략적인 자재 및 비품 요구가 아닌 마감 자재와 필요 비품을 각 건물별, 공사별로 상세히 구분하고 도면과 함께 제시해 주도록 제안하고 회의를 마침.

• 2차 회의 (14시40분 속개)

김창식 기사장 불참 (룡천현장 업무차)

- 북측

1차 합의 시점은 5월초이었으나 현재 7월에는 공사 마감 단계임으로 현단계부터 필요한 자재를 지원해 주 기 원하며 요구 명세서 제시 함 (장송근 부위원장)

요구명세서 내용:오전보다 더 간략하게 한 장으로 제시

컴퓨터 500대	1차 회의는 210대 요청
TV	
강제 200톤	
말기루 2,000톤	남측 : 공사와 무관한 사항임을 지적 함
디젤류 200톤	
설방	
* 동 총 약 7~8종 요청	

- 남측

오전 1차 회의서 상호 합의대로 각 시설별로 자재와 비품을 구별하여 제시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북측의 '기 합의시설의 공사와 무관한 내용과 컴퓨터 과다요구 등 무리한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힘.

결론 민화협의 백문길 실장이 신의주에 남아 남측의 요구대로 각 시설별 건축자재와 비품명세서, 전달방법, 기본설계 등을 작성하여 다음 주 중에 FAX로 남측에 전달한 후 평양에 귀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면담을 마치고 헤어짐

○ 참고 ① : 2004. 6. 15, 7. 4, 7. 9, 7. 15
 북측의 사정으로 계속 지연 되다가 4차
 례 만에 성사되어 방북한 것이나, 김
 주석 10주기 조문 파동으로 북측 방문
 이 전면 중단되었지만 '통천습기담' 만
 우선 방북이 허용된 것이라고 함.

○ 참고 ② : 또다시 400여명의 탈북자
 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일시 냉각 상
 태인 관계로 2004. 7. 28 현재 7. 24
 까지 FAX 전달기로 한 북측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나 민화협 관계자
 는 FAX 자료를 준비한 후 평양에 귀
 환했다고 확인되었음.

○ 참고 ③ : '우리민족돕기운동' 사무실에
 2차례방문하여 평안북도 인민위원회가
 8월7일 작성한 소요자재설비비품 명세
 서를 분석하고 지급범위, 지급순서, 구
 입방법 등을 정하여 9월 2일에 최종
 정리하였음.

그 후 상황과 기대

최근 그들이 요구한 물품을 잠시 소개하면



북측에서 보내온 통천소학교 투시도

건설자재요구서

자재	4층/5,100㎡(1,543평)
시멘트	187톤
파치	5톤
강철	283개
수지창 150 X 150	170개
수지창 120 X 150	2개
수지창 90 X 50	39개
변압기 30K	1대
무리등	10개
형광등	100개
레자	2000㎡
크림기계	1대
천장텍스판	1000㎡
발동발전기 200K	1대
100K	1대
50K	1대
타일	1000㎡
콩우유차 1대 또는 오토바이 1대	○
자동카메라	1개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품요구명세

① 학습하는 교실에 필요한 비품

교실거울	200개
옷걸이	200조
전등(컴팩트)	200개
전기종	10개
목화기	10대
칠판	40개
책상 의자	2000조
교탁	50개
책가방	2000개
학습장	5000권
연필	1만자루
필립	5천개
벽시계	100개
보온병	100개
램프등기	10개
전자종금	10개
레자	2200㎡

② 기타 컴퓨터 및 목화조종실, 음악실,
 체육실, 위생실, 강당, 교원실, 자연실, 리
 발실, 도서실, 경비실에 필요한 비품일체.

등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요구를 하여 우

리측에서도 조정하여 조속히 매듭을 짓기로
 하였으나, 한편 우리 건단연측은 설계나 시
 공과정의 합의서 내용대로 정확히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최초 예정금액의
 60%이상을 지원키로 재조정 할 것으로 추
 측된다.

요구명세서에서 물랭기, 무리등, 콩우유
 차, 자동카메라, 전기종, 목화기, 필립, 전자
 풍금, 축구볼, 탁구판, 탁구알, 체육마다라
 스, 량수책상 등 좀 생소해진 용어들이 눈에
 띈다.

지금 그들은 남측이 잘살고 물건의 질도
 좋다는 것을 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노력
 의 결실일진데,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한명
 도 배짐없이 마음속에 그리고 가슴에 뺏지를
 달고 다닌다. 그리고 외화벌이용 단동 북측
 운영 식당에서는 매일 밤 '동포여러분 반갑
 습니다' 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가 울
 려 퍼진다.

6.25때 UN의 원조를 받아 펴낸 '이 책은
 운크리에서 지원한 교과서...' 생각이 난다.
 기왕 지원받는 입장이라면 계획에서 설계,
 시공, 준공 그리고 비품까지 일체로 지원받
 고 머릿물에 고마운 뜻까지 새겨놓을 수 있
 어야 완벽한 지원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

협회소식_kira news

제11회 이사회

2004년도 제11회 이사회가 지난 9월 14일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임시총회 일시 및 장소 결정안과 2004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일자 변경안, 건설기술자경력관리회계 재정지원금 배분의안, 입회비적립금 대여금 연체이자 및 지연배상금 감면에 관한 안, 지역건축사회설치및 운영규정중 개정규정안, 지역건축사회 설치에 관한 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밖에도 감사통보서에 관한 협의, 건축연구원 운영에 관한 협의, 문화·체육 행사 개최에 관한 협의, 건축사 위상 제고방안에 관한 내용이 기타사항으로 협의되었다.

▲ 부의안건

- 제1회의안 : 2004년도 제1회 임시총회 일시 및 장소 결정의 건
 - 일시 : 2004. 10. 1(금) 14:00
 - 장소 :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
 - 부의안건 : 제1회의안 : 임원선출의 건,
제2회의안 : 감사 불신임의 건,
제3회의안 : 회장 신임여부에 관한 건,
제4회의안 : 2004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제2회의안 : 2004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일자 변경에 관한 건
 - 2004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일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기로 함.
 - 개최장소 : 역도경기장(제3체육관)
 - 개최일자 : 당초(2004. 10. 7/목) → 변경 (2004. 11. 29/월)
- 제3회의안 : 건설기술자경력관리회계 재정지원금 배분의 건
 - 건설기술자경력관리회계 재정지원금 배분 방안은 제3-1안으로 확정기로 하되, 내년부

타는 3-2안을 권고기로 함.

- 제3-1안 : 균등 배분액(지원금 2/3) + 인원 수기준배분액(1/3)
- 제3-2안 : 균등 배분액(지원금 1/2) + 인원 수기준배분액(1/2)
- 제4회의안 : 입회비적립금 대여금 연체이자 및 지연배상금 감면에 관한 건
 - 1998년도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내년 2월 이사회에 총회안건으로 재 상정기로 함.
- 제5회의안 : 지역건축사회설치및운영규정중 개정규정(안)에 관한 건
 - 지역건축사회설치기준 등의 내용을 좀더 보완하여 차기 이사회에 재 상정기로 함.
- 제6회의안 : 지역건축사회 설치에 관한 건
 - 차기 이사회에 재 상정기로 함.

▲ 협의사항

- 제1회의안 : 감사통보서에 관한 건
 - 시·도건축사회 회장에 대한 징계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6차 원칙에 따라 징계요건을 구비하여 다시 제출토록 통보기로 함.
- 제2회의안 : 건축연구원 운영에 관한 건
 - 책임연구원은 9월중으로 임용계약을 하기로 하고, 연구원은 모집공고나 추천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임용을 추진기로 함.
- 제3회의안 : 문화·체육 행사 개최에 관한 건
 - 한·일 건축사 친선 축구행사는 대표성 등의 문제로 협회의 주최명칭사용은 곤란하고, 금년도 예산에 사업계획 등 자금근거가 없으며 예산을 지원할 수 없음을 확인함. 다만, JIA 회장 방문 및 향후 국제 교류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제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함.
 - 건축사미술향 행사도 금년도 예산에 사업계획 등 자금근거가 없으므로 분협회가 주최하거나 예산 지원이 불가함을 확인함.

- 「건축문화연구포럼」은 비공식기구이고 공
문요청도 없는 등, 예산의 지급근거가 없
어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없음을 확인함.

- 제4호의안: 건축사 위상 제고방안에 관한 건
- 실천방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디자인
과 실효성, 수익자 부담방안 등 세부사항을
보완하여 차기 이사회에 재 상정키로 함.

인천광역시 건축사회

인천건축사회는 지난 9월 9일(목) 인천건축사
회 회의실에서 2004사업계획추진의 일환인
'2004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이무열 인천건축사회장은 각급 학교장
이 추천한 학생 8명에게 총 700만원의 장학금
을 증정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대학생 이형욱, 김경철, 방설희, 김진우 학생과
고등학생 권혁진, 박정규, 고정원, 현보람 학생이
인천건축사회가 마련한 장학금을 수여 받았다.

• 문의: 인천건축사회 032-437-3381



경남건축사회, 구마모토현 건축사회와 국제교류 체결

경남건축사회는 지난 9월 9일(목) 마산로얄
호텔에서 경남건축사회와 구마모토현 건축사회
의 국제교류 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국제교류식에는 경남건축사회 정응규
회장과 40여명의 회원, 구마모토현 건축사회에
서는 무라하시 회장과 회원 9명, 또한 경남도내

대학교수 6명, 도청 건축관계 직원 2명, 구마모
토현 토목부 건축과장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번 국제교류조인식은 양단체간 상호 우의
증진 및 선진건축기술의 교류를 통해 양국의 건
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교류를 체결하
게 되었으며, 앞으로 양 단체는 정기총회 시 격
년제로 상호방문을 갖기로 하고, 경남건축사회
는 오는 11월경에 구마모토현 아트플러스 기간
에 맞추어 답방키로 하는 등 양 회간 교류 사업
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 단체는 이
번 국제교류조인식을 계기로 건축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회원의
국제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양국의 건축환경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국제교류조인식을 위해 방문한 무
라하시 회장을 비롯한 9명의 일본 공식대표단은
합천 해인사, 창원 컨벤션센터 건립 현장 및 도
립 미술관 탐방 등 2박3일간의 공식일정을 마치고
9월 11일 부산항을 통해 출국했다.



2004 경남건축사대회 개최

경남건축사회는 지난 9월 11일(토) 회원과 가
족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남대학교 실
내체육관에서 회원단합 및 친목도모를 위한
2004 경남건축사대회를 개최하였다.

체육대회 형식의 화합 한마당 축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비가 오는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참석하여 행사에 대
한 열정을 보여 주었으며, 참가자들은 지역별 총
4개의 팀으로 나누어 영광운동회 및 족구, 피구,

줄다리기 등 다양한 경기와 함께 노래자랑, 초대
가수 및 치어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시종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경남건축사회 정응규 회장은 "오늘 행사
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모두가 화합·단결
하여 희망찬 내일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 행사의 의의를 밝히
고는, 행사를 더욱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빈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해준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종합우승은 청룡팀(진주, 거창, 사
천, 하동), 준우승은 현무팀(마산, 창원)이 차지하
였고 각각 상금이 주어졌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도 행운권 추첨을 통해 김치냉장고 등 푸짐한
경품이 주어졌다.



우리협회 세무·회계정보 운용

우리협회는 세무·회계에 대한 회원들의 업
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세무·
회계정보를 개설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 정보는 정회원이 로그인하여 '참여광장 -
세무회계정보'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
코너에서 서비스하는 내용은 ▲ 세무 정보: 회
계 및 세무와 관련하여 각종 세무 신고 방법, 예
규, 국제 행정의 방향과 세법 개정 내용 등 회원
들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상담 사례: 회계
및 세무에 대한 상담결과 중 중요한 사항

한편 상담신청은 회계 및 세무에 대한 민원
상담으로서 질의 및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지만
확인할 수 있으며, E-Mail을 게재한 경우에는
E-Mail로도 회신내용을 통보해준다.

「건축서비스팀」 운영

건설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최근 웰빙(well being) 열풍 등으로 건축에 대한 관심과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건축민원의 상담 및 안내를 전담하는 「건축서비스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건축서비스팀에서는 단순한 법령질 의와 진정 또는 조사가 필요한 민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건설교통부내 건축민원은 연간 평균 1만 여건(부내 최대)을 처리함에 따라 폭증하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해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건축서비스팀 운영으로 민원인은 보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행정부서(건축과)는 새로운 행정수요인 건축환경·문화 및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 등 정책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등 효율적인 행정체제의 개편으로 지속적인 고품질의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서비스팀은 건설교통부 1층 종합민원실 안에 건축민원서비스 전담공간을 설치, 건설교통부(건축과) 직원 3명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대한주택공사와 대한건축사협회 직원 2명 등 총 5명이 건축민원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 문의 : 02-2110-8437

(기존 건축과 2110-8172)

○○○소장을 ○○○건축사로 부름시다

우리 협회에서는 건축사의 위상제고와 상호존중을 위해 현행 000소장으로 통용되던 호칭을 000건축사로 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제고 및 상호존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소식 archi-net

2004한국목조건축대전

KOREA WOOD DESIGN AWARDS 2004



한국목조건축대전은 우리건축의 본질과 이 시대의 정서 그리고 기능성이 목조로 구현된 역할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한국목조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건축제전이다. 현재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으로 목재 등 재생이 가능한 자연재료를 활용한 건축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서, 작년에 이어 한국목조건축의 정통성과 맥을 이어나갈 '제2회 한국목조건축대전'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행사이다.

내용

▲ 준공건축물부문

응모작품 : 2004년 8월 20일 이전 준공된 국내 목구조건축물, 목재를 활용한 혼성구조물

▲ 계획건축물부문

응모작품 : 목구조물, 목조친환경디자인 등으로 공법과 재료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미발표 창작작품 (작품의 주제 : 목조건축의 텍토닉의 설명을 참조)

▲ 제출서류

• 준공건축물부문 : 출품신청서, 작품설명서, 건축물대장 각 1부 및 PRESENTATION용 CD 1매

• 계획건축물부문 : 출품신청서, 작품설명서 각 1부

▲ 작품접수

• 준공건축물부문 - 2004. 8. 2(월) ~ 2004. 10. 11(월)

• 계획건축물부문 - 1차 : 2004. 8. 2(월) ~ 2004. 9. 20(월), 2차 : 2004. 10. 11(월)

• 신청 및 접수장소 :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8-2 시화빌딩 5층, (사)목재문화포럼 사무국(한국목조건축대전)

• 문의 : 목재문화포럼 사무국(한국목조건축대전) (Tel. 02-508-5106, Fax. 02-2006-6214)

www.woodforum.or.kr,

wooddesign@hanmail.net,

woodforum@hanmail.net

제7회 울산광역시 건축·실내건축대전

9월 1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제7회 울산광역시 건축·실내건축대전'은 '울산의 지역성을 찾아서 - 역사, 자연, 문화'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상작품집이 발간된다.

▲ 접수

• 기간 : 2004. 9. 1(수) ~ 10. 9(토)

• 작품접수 : 2004. 11. 11(수) 14:00 ~ 20:00까지

• 작품접수처 :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

▲ 전시기간 및 장소 : 2004. 11. 13(토) ~ 11. 17(수)까지(5일간)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 2, 3전시장

▲ 출품자격 : 1인 1작품

• 건축, 실내건축부분 시니어부 : 대학 3학년 재학생(5학기차)이상, 대학원생 및 일반(실무자 포함)

• 건축, 실내건축부분 주니어부 : 대학 1, 2
학년 재학생 및 전문대학 재학생

• 문의 : 건축가협회 울산시지회 052-249-
9005, <http://www.ulsankia.or.kr>



2004 광주비엔날레

'2004광주비엔날레'가 오는 9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광주중외공원 일원과 5·18자유공원, 광주지하철 일대에서 개최된다.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와 광주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문예회관 대극장과 문예회관 광장 및 야외공연장에서 9월9일 오후 6시에 개막되어 장장 두 달여간 개최된다.

광주비엔날레의 주제는 '먼지 한 톨, 물 한 방울'로 동양적 사유의 담론을 바탕으로 하여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질서에 능동적으로 제안하는 동양정신을 담고 있다. 또한 전시는 주제를 포괄하는 종합전시와 주제를 세분화하고 재해석하는 소주제별 전시로 구분된다. 종합전시는 비엔날레의 5개 전시관에서 열리며, 소주제별 전시는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한 주변 공간과 광주시내의 현장들, 공공건물 그리고 대안 공간 등에서 열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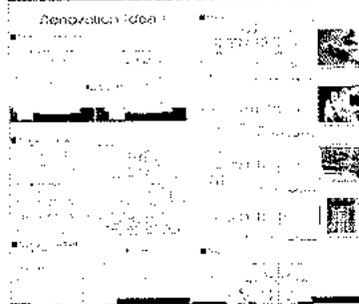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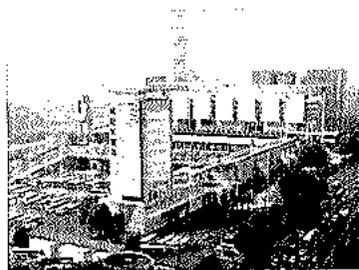
• 문의 : 광주비엔날레 홍보팀 062-608-4264

제1회 쌍용 리모델링 공모전

'제1회 쌍용 리모델링 공모전'은 쌍용건설이 주최한 최초의 리모델링 공모전으로서, 향후 5년간 5조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아파트 리모델링 분야에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 두 부분으로, 실존하고 있는 건축물의 리모델링 설계안이 과제였으며, 이 공모전에는 모두 303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각축을 벌였다. 금상에는 고속터미널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안 'Infra-Nexus'가 수상하였는데, 수상자인 이정환, 서정석(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학)은 터미널을 도심의 중심에서 각 지역의 만남을 이루게 하는 공공시설로 인식하고, 새로운 인프라의 기능을 가지고 도시의 넥서스로서 인프라 스트럭처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묘사하여 첫 번째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여하게 되었다.

은상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리모델링을 제안한 모성범, 권남근(국민대학교 건축학과)의 'Urban Reaction'과 광주광역시 화정동 남부아파트 리모델링을 계획한 최상웅, 정세나(광주대학교 건축학과)의 'Semi-Public Space, Semi-Private Space'가 수상했다. 이밖에도 동상 5점, 입선 34점이 선정되었고, 동상 이상은 주최 업체에 지원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금상 / Infra-Nexus

• 문의 : 쌍용건설 02-3433-7117

2004 한양건축학술제

한양대학교 건축대학과 건축대학원은 오는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지는 일정으로 한양건축 학술제를 개최한다. 이 축제는 제2회 세계건축석학연속강좌와 한양대학교 건축대학·건축대학원 작품전으로 이루어진다.

▲ 제2회 세계건축석학연속강좌

〈2004년 10월 15일(금) 14:00~18:00〉

- 한양대학교 종합기술연구원 6층강당
- 위베르 다미쉬(Hubert Damisch) : 추상의 개념 (Notion of Abstraction)
- 테리 웨인(Teri Wehn) : 마이클 스노우의 파장에 관하여(On Snow's Wavelength : Zoom Out)

〈2004년 10월 16일(토) 14:00~18:00〉

-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 위베르 다미쉬(Hubert Damisch) : 구축의 개념 (Notion of Construction)
- 테리 웨인(Teri Wehn) : 로버트 모리스 : 마음과 몸의 문제(Robert Morris : The Mind, Body Problem)

▲ 2004 한양건축학술제 작품전

작품전시회 기간 중 특히 10월 9일 토요일에는 미국 'The Leonard Parker Associates, Architects, USA'의 President인 허승희씨의 초청강연을 비롯하여 리셉션, 와인 페스티벌이 있을 예정이다.

- 전시기간 : 2004, 10, 8(금) ~ 10, 12(화)
- 장소 : 대학로 서울국제디자인프라자 (구, 디자인포장센터)
- 일정
- 2004년 10월 9일(토)/11:00 초청강연회 /16:30 개막식/14:00~16:00 공개비평회 /16:45 리셉션 및 동문회 주최 와인 페스티벌

IPEC21-2004 동경 건축자재 박람회

오는 10월 13일(수)~15일(금)까지 일본 Tokyo Big Sight 전시장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건축자재 박람회가 개최된다. 실내건축과 연관된 자재, 소품, 신기술, 시스템 및 디자인 등이 총망라되는 이 전시는 일본 및 인근 아시아 지역의 바이어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건축사, 유통업체 등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국제적인 인테리어 자재 및 디자인 전문 박람회다. 150여 업체 1,800여 개 사 제품이 전시된다.

- 전시품목 : 각종 인테리어·실내건축용 자재, 상업시설용 자재·설비 사무공간용 자재·가구,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용 자재·설비 인테리어·건축·환경 관련 서비스 및 간행물
- 홈페이지 <http://www.ipec21-jp>
- 문의 : TEL. 02-736-4191
FAX. 02-753-8435
코리아나투어스 www.koreanatours.net
담당 : 김혜정대리

Para 'Zane' 2004 Winter Workshop

'PARA-ZONE'을 통하여 새로운 개념의 건축 워크숍과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첫 번째 워크숍은 프랑스 파리에 인접한 샹피에서 진행되며, 여행장소는 프랑스 및 스페인, 포르투갈이다. 총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2004년 12월 27일 시작해서 2005년 1월 27일까지 진행된다. 그 중 절반은 여행 프로그램으로, 절반은 현지에서의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워크숍의 첫 주제는 'PARA-TERRA 문화총틀'이다.

- 대상 : 건축관련학과 학부 2년 재학 이상
- committee/구성인, 박준호, 박태홍, 제갈업, 전인호, 전진삼
- 문의 : 02-515-7595(PARA-ZONE 임시 사무국) 사무국장 홍윤식

www.para-zone.com

제1회 베이징건축비엔날레

제1회 베이징건축비엔날레(ABB2004)가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이번 제1회 베이징건축비엔날레(ABB2004)의 개최측은 중국 역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건축 관련 주제를 소개하고, 중국과 해외 건축 관련 전문가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이징은 지난 20년 동안 세계건축계에서 가장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장소로서, 비엔날레는 전시·포럼·건축테마파크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세계 유명건축가들과 학생들의 작업, 도시계획, 공동체문화, 인테리어디자인, 공공 공간, 새로운 건축재료, 테크놀로지 등을 주제로 펼쳐지며, 포럼은 건축과 문화 그리고 국제적인 건축테마파크 계획이 이뤄진다.

특히 2008년 베이징올림픽 관련 프로젝트들이 논의될 계획이며, 베이징의 뛰어난 주거와 현대적 건물들을 답사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베이징 건축계의 개발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으로 보인다.

- 문의 : Tel : +86-10-88083260/62/63,
Fax : +86-10-88083328
E-mail : zhd@ABBeijing.com,
infinite@ABBeijing.com

제22차 UIA 총회 개최

'도시-건축물들의 시장(Cities-Grand Bazaar of Architectures)'이라는 주제로 '제22차 UIA총회'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다. 개최 일시는 2005년 7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이다.

- ▲ 세부 행사 주제
 - Celebration of the World's Cities
 - Architecture And Life in Cities

- Architecture of Cities
- Architectural Profession and Education Facing the Cities

▲ 주제 논문 접수

- 신청서 및 논문 개요 접수 : '04. 11. 13.
- 논문 발표자 발표 : '05. 1. 14
- 논문 접수 : '05. 4. 15

▲ 등록

구분	'04.12.31 이전 등록	'05.1.1~3.31 등록	'05.6.1 이후 등록
일반참가자	300 US\$	350 US\$	400 US\$
학생	150 US\$	150 US\$	150 US\$
동반자	200 US\$	250 US\$	300 US\$

제1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동시대의 건축문화-아시아 도시 특유의 건축의 정체성(Contemporary Architectural Culture-The Architectural and Urban Identity of the Cities of Asia)'이라는 주제로 '제11차 아시아건축사대회'가 마카오의 마카오 대학 내 마카오 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 개최 일시는 2004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5박 6일간이다.

▲ 행사일정

- FORUM ARCASIA 24
- 11.27 : Fellowship Meeting, 환영만찬 Fellowship dinner
- 11.28 : 아카시아 이사회, 교육위원회, AAM전시회 개막
- 11.29 : 아카시아 이사회, 교육위원회, 이사회, ACA-11 환영만찬
- ACA-11
- 11.30 : ACA-11 개막식, Session I, II, III, ACA-11 우정의밤, 학생점포리
- 12.1 : Session IV, V, 건축물탐방, 폐회식
- 12.2 : 건축을 탐방

신간

네덜란드 근대건축

이 책은 1900년부터 1940년까지 40여 년 동안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근대건축운동을 심도 깊게 다룬 연구서로서 그 동안 저자가 네덜란드 건축 방문과 연구한 것을 수정, 가필하여 하나의 책으로 엮어 낸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De Stijl, Amsterdam School, Opbouw, De 8, De 8 en Opbouw 그리고 Greop 32 등과 같은 건축운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왜냐하면 이 건축운동은 건축가와 예술가간에, 건축가와 건축가간에 협력과 갈등을 서로 반복하면서 전개되었지만, 건축의 도시적인 측면에서는 공동체 정신을 그리고 디자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실험정신을 발휘하여 근대건축운동 중에서 현대건축(post-modern architecture)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방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전체를 칼라로 다루었으며,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근·현대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 맵을 부록으로 게재하여 직접 보는 듯한 네덜란드 근대건축이 펼쳐진다.



최재석 지음/182쪽/15,000원/도서출판사 서우 발행 02-383-1696

문헌과 유적으로 본

구들이아기 온들이아기

이 책은 손진태 선생의 「온돌고」 이후 반세기 만에 구들(온돌) 관련 문헌 자료를 재정리 및 추가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구들 유적(遺跡)들을 200여 컷의 화려한 사진 자료와 함께 다루고 있어 구들(온돌) 연구에 있어서 한 획을 긋고 있다. 또한 구들(온돌)과 그와 유사한 중국의 '캉(炕: 炕)'과 서양의 고대 로마 시대의 '하이퍼코스트(Hypocaust)'와의 비교를 통하여 구들의 우수성을 밝혀내고 있다.



김남웅 지음/548쪽/30,000원/단국대학교 출판부 발행 02-709-2195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3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 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 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 1530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60) 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99-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 6'00 · 성동구건축사회/(232-5855) · 성북구건축사회/(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 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문정구건축사회/(398) 1486 · 중로구건축사회/(795-38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동양구건축사회/(437-30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6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6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평택건축사회/(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8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67~6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간성건축사회/(031)450-9130 · 민밀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아천지역건축사회/(031)65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1-2410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3-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 0128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5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9-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6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6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6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356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834-335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51-425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3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91-2229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3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5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3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3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시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61)726-6377~8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0689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6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0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94-8256 · 울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 6028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 69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령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5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3-6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94-3050 · 진주시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시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건축마당
현상설계
competition

울산동구보건소·종합사회복지관	102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M/P	106
오송생명과학단지	108
광주시립미술관	114
지리산 자생식물원경공원	120

울산동구보건소·종합사회복지관

Social Welfare Center, Public Health Center of Dong-gu, Ulsan

당선작 / 수영종합건축사사무소(박재현·김강현)
+ 울산과학기술대학교(장훈익)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222-11번지
지역지구 지역
대지면적 9,990.00㎡
건축면적 1,981.37㎡
연면적 7,101.95㎡
건폐율 19.83%
용적률 54.73%
구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대수 88대(법정 36대)-지하(직원):26대, 지상
(민원):62대, 장애인:5대
외부마감 화강석 물갈기
설비개요 시스템 공조설비

계획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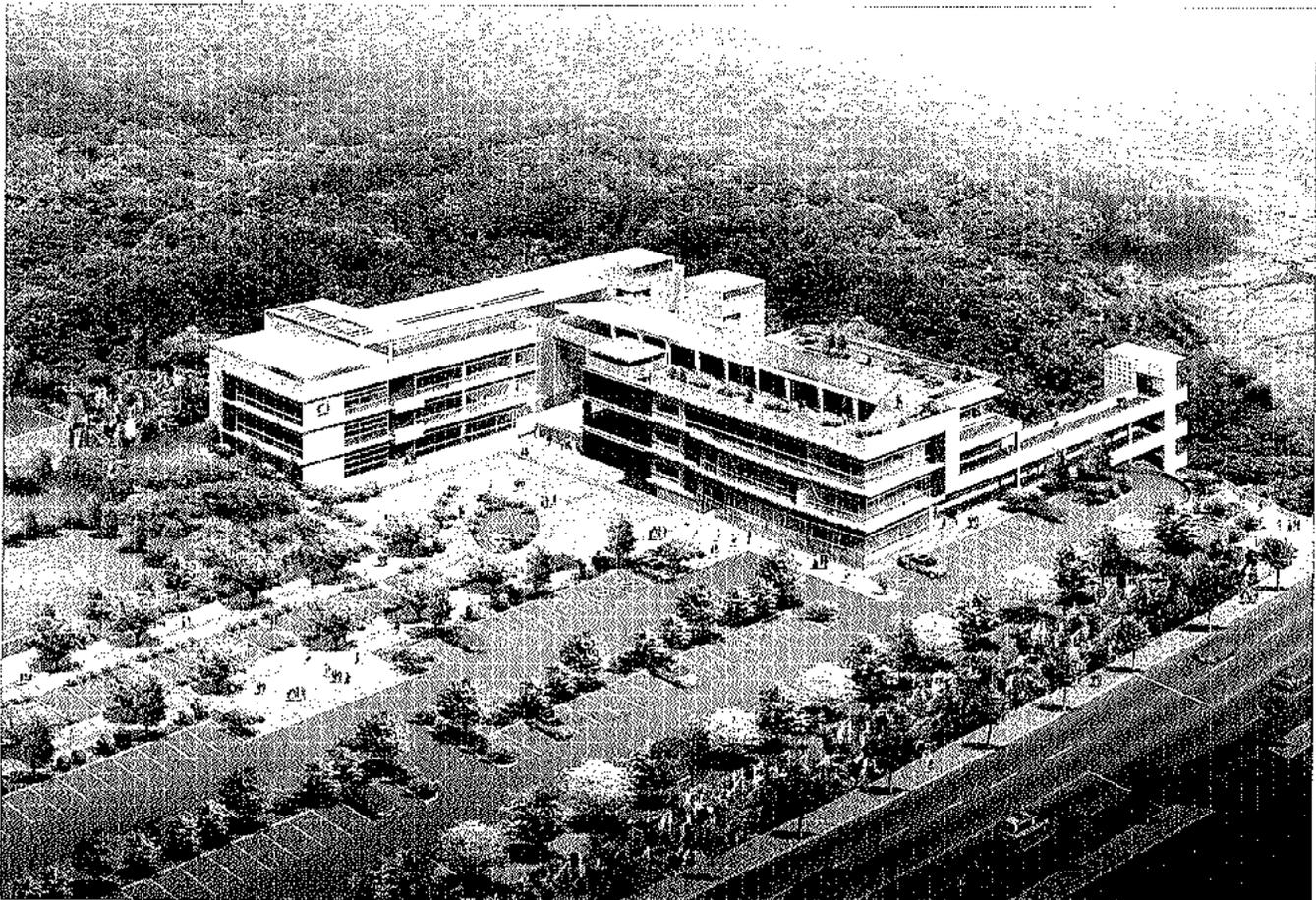
-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들의 건강 증진 극대화
- 주민들의 문화, 교육, 집회장소의 공간, 상호간의 유대감, 친밀감 형성의 공간 제공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 부흥

계획의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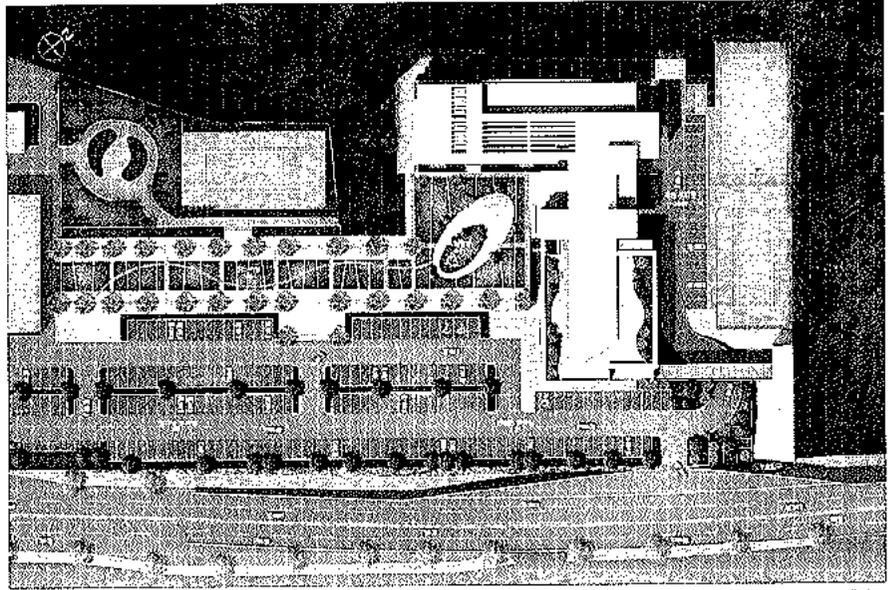
- 주어진 대지조건과 주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배치의 공공성, 쾌적성 형태의 조형미, 상징성 기능의 경제성, 효율성 추구

계획의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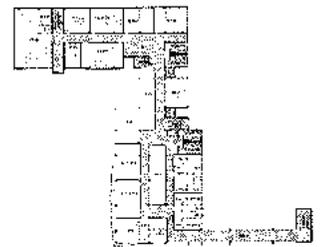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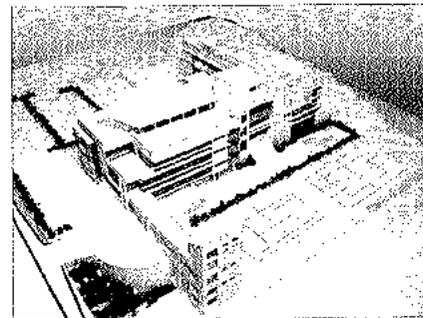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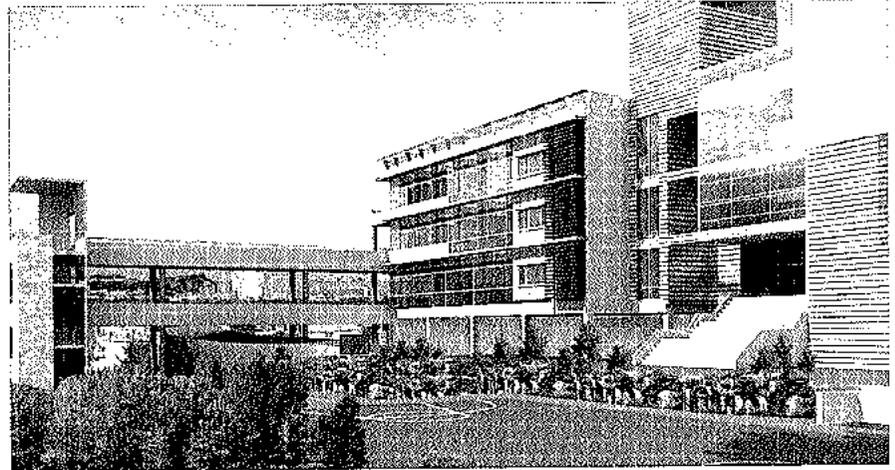
- 공공성
- 접근성, 개방성 고려, 진·출입 원활하게 하여 주민활용 용이성
- 주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공간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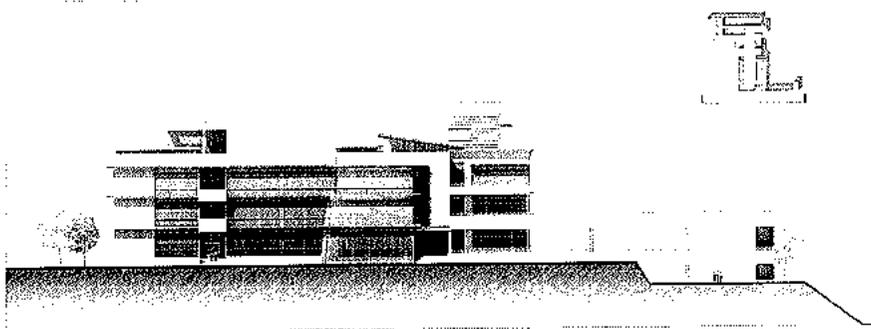
- 주민마당 구성으로 각종 행사 자원가능
- 개방감이 확보된 평면 및 외부공간 구성과 휴게공간 최대화
- 객관성
- 단열 및 습도 조절과 진동 및 소음을 고려한 쾌적함 증진을 위한 계획
-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옥상 녹지 공간 형성 및 에코 플리스 계획 시공
- 옥상개방에 의한 이용자를 위한 운동의 장 마련
- 조형미
- 지역적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건물의 조형미 해결
-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대지 고저차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매스로 이용자 동선 유도
- 매스의 분절로 위압감 해소 및 친근감 유도
- 상징성
- 지역사회의 중심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성격상 주민들에게 존재를 알려야 하는 상징적 이미지 필요성
- 경제성
- 경제적인 건축비로 공간활용 극대화
- 주변 자연과 건축의 유기적 결합으로 생태건축 계획
- 대지형태와 주변 지형을 활용한 공간계획
- 기능을 고려한 외부 형태의 구성
- 친환경적인 건축 소재계획 웰빙건축 창출
- 효율성
- 효율적인 업무지원 시스템 형성과 기능별 동선을 분리하여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
- 계획 대지 전면부의 기존 동구청 청사와 연계한 동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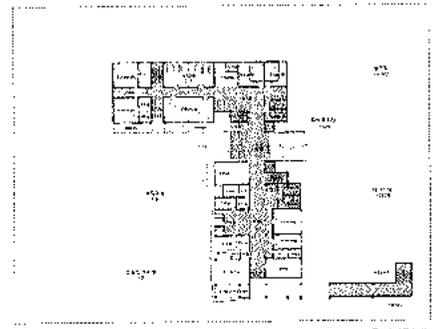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경면도



1층 평면도

울산동구보건소 · 종합사회복지관
 Ulsan Dong-gu Health Center, Welfare Center, Dong-gu, Ulsan

우수작 / 서울건축사사무소(서 응)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222-11번지
 대지면적 9,900.00㎡
 건축면적 1,965.15㎡
 연면적 6,590.00㎡
 건폐율 19.85%
 용적률 66.57%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규모 지상 1층, 지상 3층
 주차대수 67대
 외부마감 화강석, 플라스틱 소성재, 실리콘수성페인트
 설계팀 임성준, 박재원, 장경국, 정 아, 정성민

배치개념

대지는 산업도시 울산의 본거지를 앞으로 내려다보는 위치로, 동쪽으로 한없이 트인 동해를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위치다. 동쪽으로 시원한 도로에 접하나 가로형상에 지장이 있으며, 서쪽으로 염포산을 등진 배산임수의 지형이다. 반면, 꼭 짜여진 프로그램에 동구 청사와 나란히 보차를 공용해야 하는 입지제약은 계획 초기부터 절반, 절대적 해답을 부추기고 있다. 전체적으로 동적이고 개방적인 종합사회복지관을 도로 쪽에 배치하고, 반면 정적이고 기능적인 보건소를 안쪽인 서쪽에 배치했다. 서비스 기능 등은 북사면의 한계 층 정도의 낮은 지형을 활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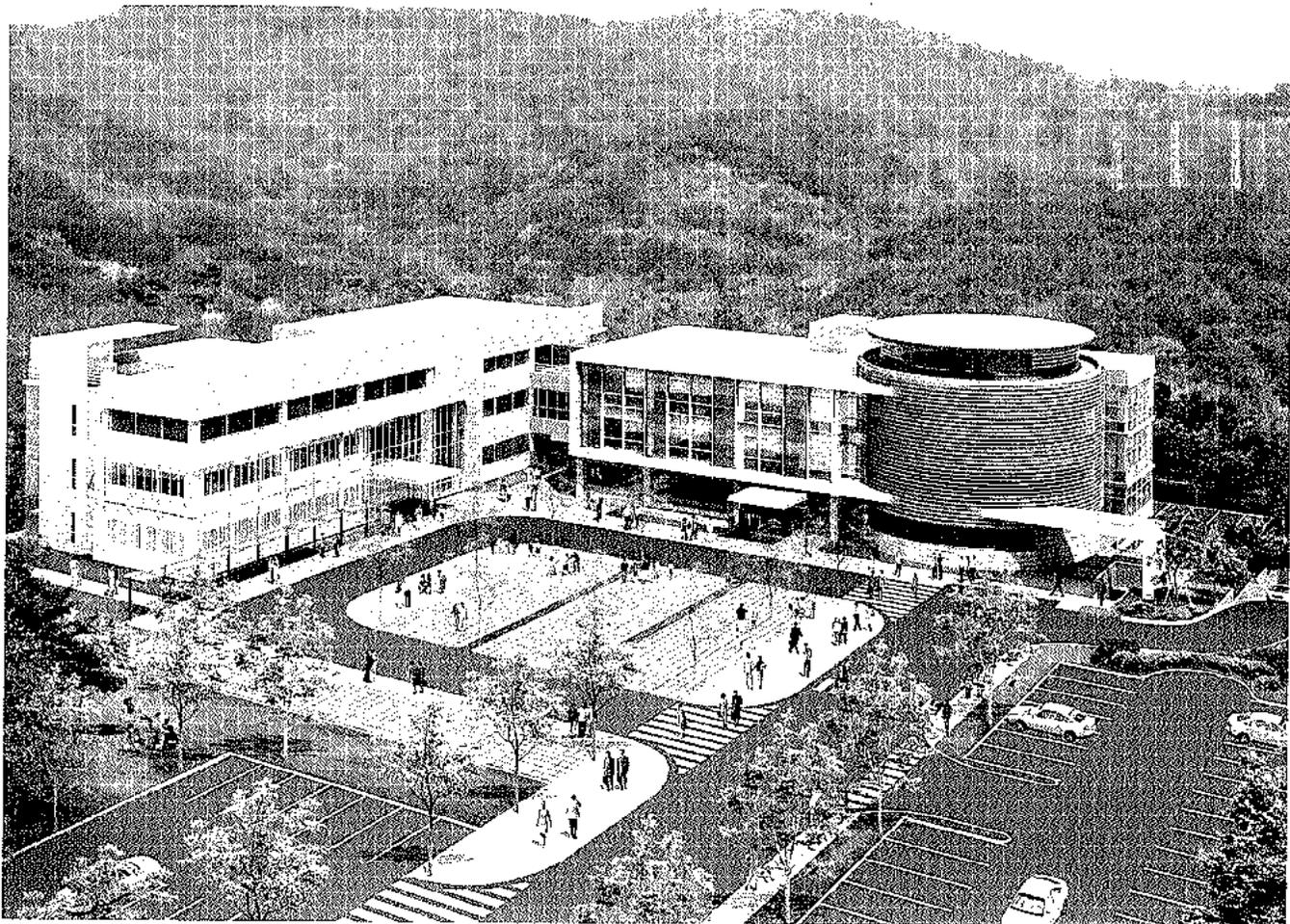
매스개념

기존 청사와 축을 나란히 하고 단지 전체를 편안히 감싸 안은 그자 형태이다. 이것은 설계지

침에 의한 단일형 복합건물이 적절히 귀속된 부분이기도 하다. 신라 천년 도읍 배후도시로서의 위상과 공공건물로서의 형태가 동쪽으로 내민 종합사회복지관 매스에 귀결되고, 뒤쪽으로 정적인 형태의 보건소가 병풍처럼 펼쳐진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대적 흐름과 넘기 어려운 산업도시의 건조함이 건축에 반사되어 절실함만이 내재된 형태, 그에 비껴 서지 못한 운영적 매스가 스스로 탄생한 듯 하다.

평면계획

기능별, 영역별로 1차적으로 분리된 공간은 내외부에 걸쳐 상호 연관되어지며 반복된 형태에 의해 자리매김한다. 규정 지워진 공간을 비집고, 제 색을 확보하려는 진부한 움직임이 요소 요소에서 잦빛으로 반짝인다. 복합 목적건물에 우선시 되는 동선의 분리와 장치 효율적인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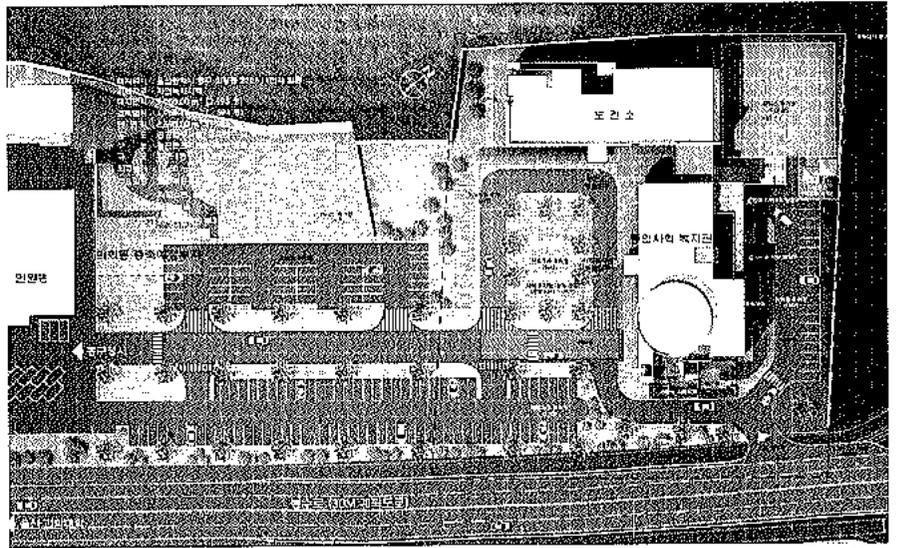
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데 주력했다. 외부에서 내부에 이르는 점차적인 공간진입을 유도했다.

입면 및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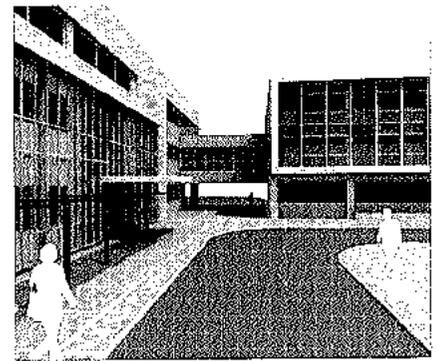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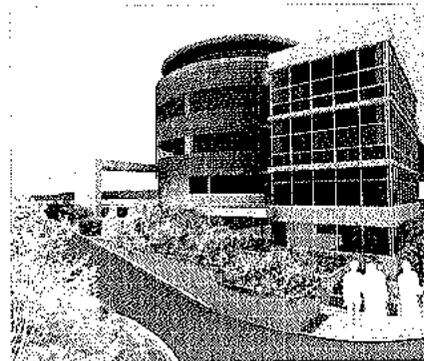
비야흐로 건강과 환경의 비중이 높아지는 시대다. 또한 올산은 무엇보다도 환경문제에 예민해져 있다. 입면은 공공청사로서의 단정함과 대중성 그리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절약형 입면에 동구 주전 봉수대의 상징적 이미지가 더해졌다. 보건소 전면은 남쪽의 따뜻한 공기의 대류를 활용한 글라스 홀의 설치로 보다 양호한 실내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단면을 구상했다. 주차 지하주차장 증축시의 진입구는 대지고저차를 활용해 경사로 없이 사용가능토록 설계했다.

구조 및 설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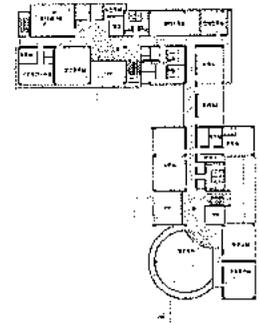
건물의 이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변형과 재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구조와 설비를 채택했다. 적극적으로 남향을 활용하며 자연적인 열순환으로 경제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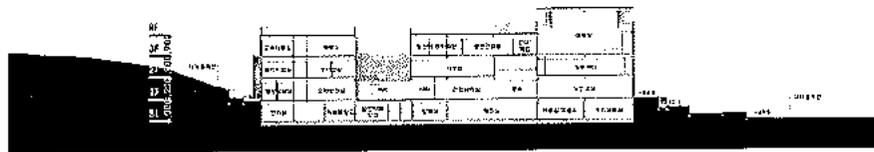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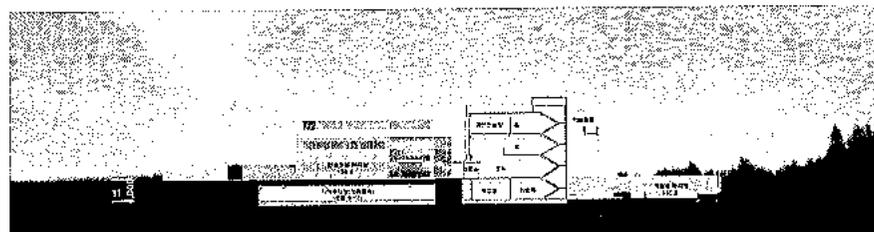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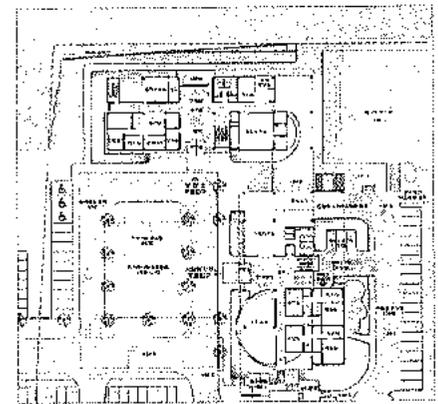
2층 평면도



단면도



단면도



1층 평면도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M/P

DongA Univ. Bookin Campus M/P & Business, Social Science Academy Building

당선작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박 승 · 김관중)

-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2가 1번지의 11필지
-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 용 도 교육연구시설(대학교)
- 대지면적 34,943.20㎡
- 건축면적 8,782.71㎡
- 연 면 적 77,988.56㎡
- 건 폐 율 1단계-25.13% , 2단계-33.62%
- 용 적 륜 1단계-121.25% , 2단계-154.19%
-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규 모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관, 행정시
설-지하 2층, 지상 15층, 기숙사-지상 10
층, 국제회관, 국제교육원, 다목적강당, 체
육시설-지상 2층, 지상 9층, 도서관(리노베
이션)-지하 1층, 지상 5층
- 주차대수 법정 - 307대, 계획 - 503대
- 외부마감 유리, 알루미늄패널, 회강석
- 설 계 팀 허 인, 크리스토프 코너버트, 김형철, 최
민, 김중웅, 김상훈, 감혁진, 최지영

배치개념

- 캠퍼스의 중심이 되는 위치에 경영대 · 사회과
학대를 배치, 강한 상징성으로 지역의
Landmark화
- 보 · 차의 확실한 분리로 협소한 부지에서 보
행자위주 캠퍼스구축

인공대지의 적극적인 도입

- 주변대지의 형태(경사지)에 순응하여 대지의 흐름
을 자연스럽게 인공대지로 연결, 캠퍼스 내 각종
기능을 연결하는 Campus Corridor 개념도입
- 협소한 도심형 캠퍼스에서의 외부공간의 확장
을 통한 공간활성화
- 캠퍼스에서의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공
간제공

각 단과대별기능(mass) 분리 및 통합

- 각 단과대별 Privacy 확보 및 후면 부 주거지역의

일조, 통풍 및 조망권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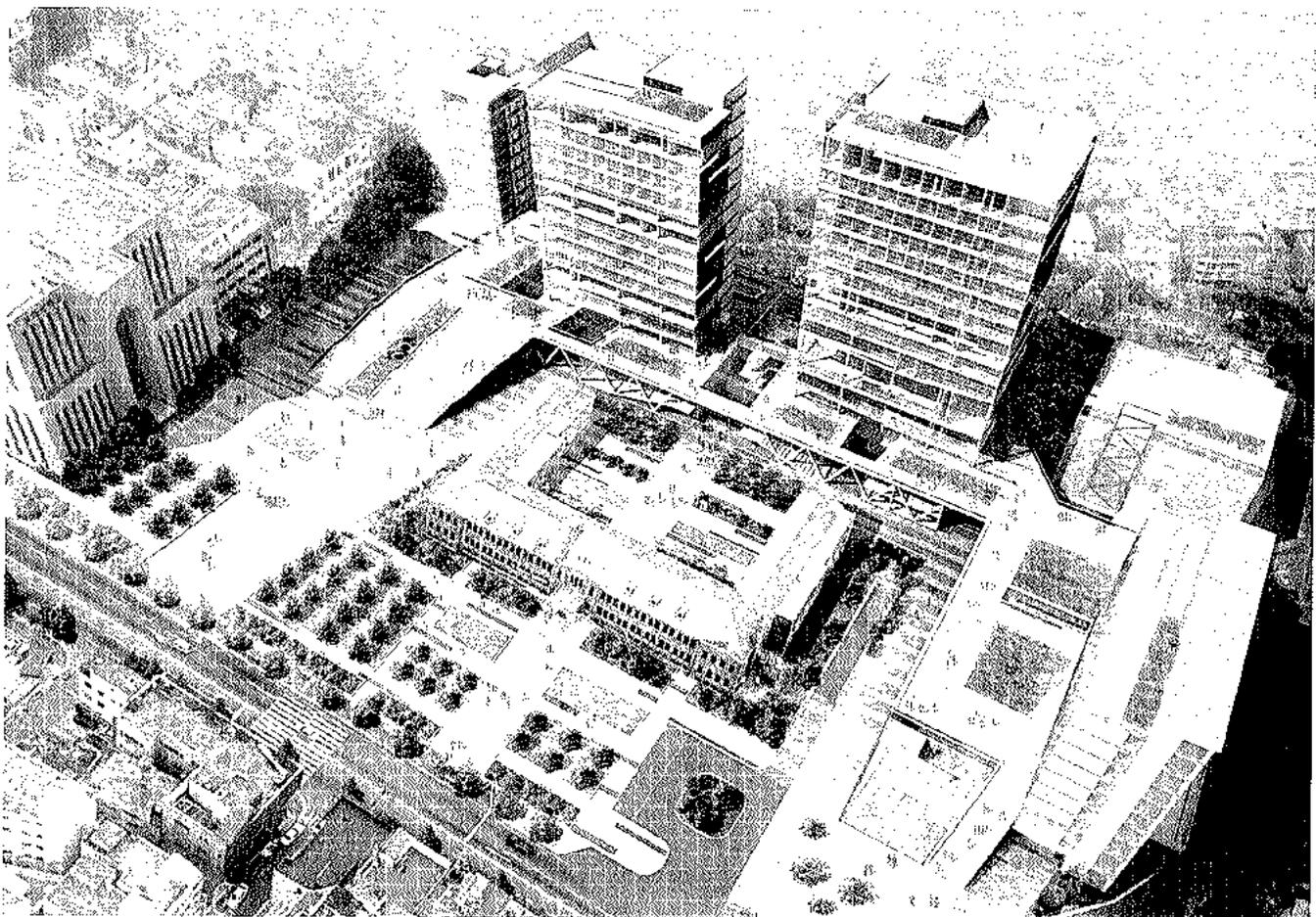
- 저층 데크 부분: 공용강의실 · 휴게공간, 학생회관
- 고층타워부분: 세미나 · 연구실, 교수연구실

입면계확요소

- 역사적 건축물인 박물관을 포용하는 배경역할을
수행하며, 첨단화된 대학의 이미지를 상징하기 위
한 유리커튼 월의 입면구성
- 대지 주진입으로부터 정면성 강조
- 투명유리 커튼 월 구간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활동을
외부에서 조망, 일체감과 동질성을 느낄 수 있
도록 고려
- 미래와 정보화를 지향하는 디지털 코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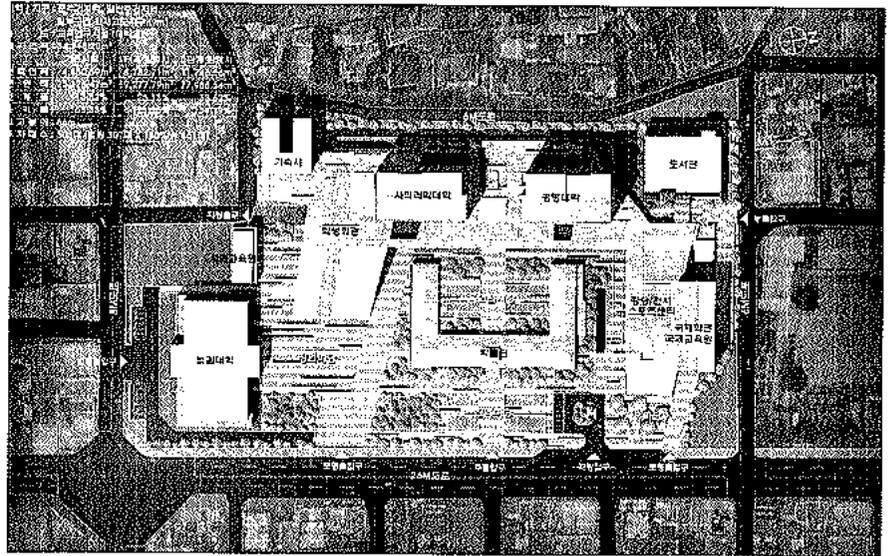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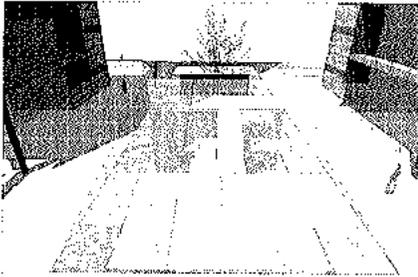
다양한 외부공간계획

- 도시로부터의 다양한 진입 및 Open Space를 통
한 열린 캠퍼스 이념구현
- 2단계 확장부분(지역사회 개방시설)과의 유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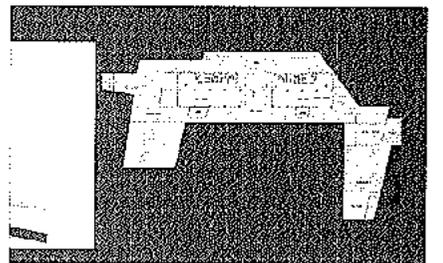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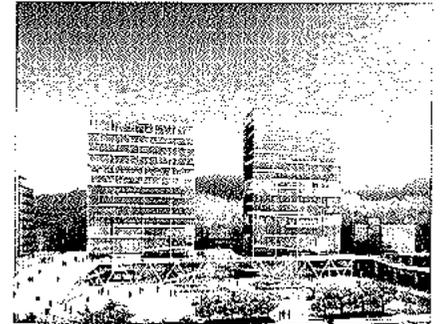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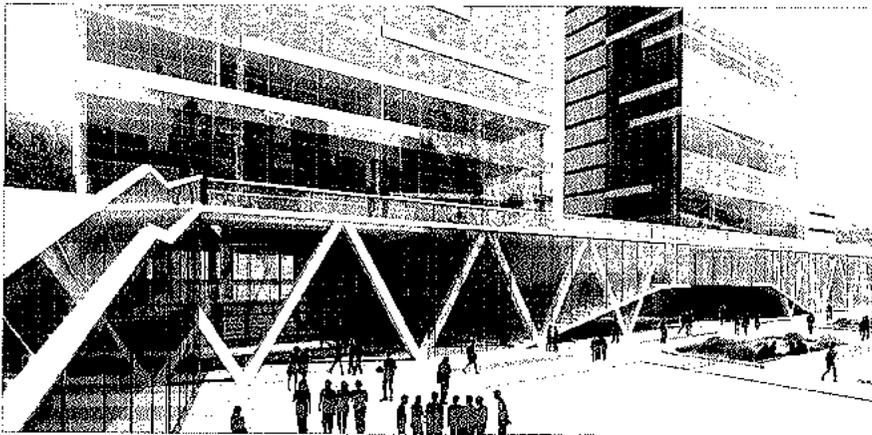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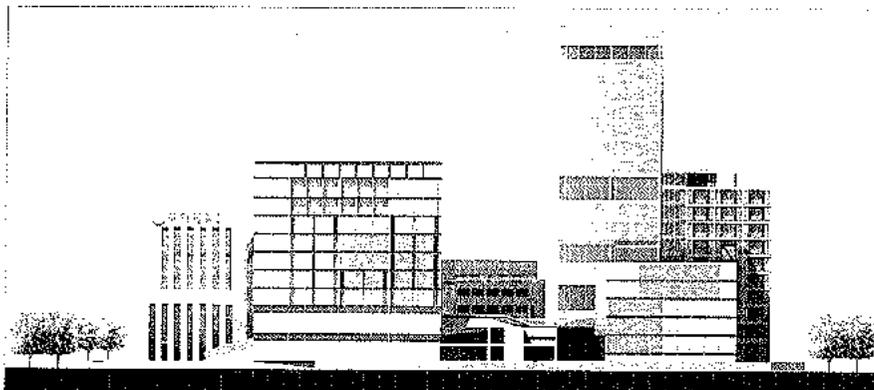
- 대지전면에 동아대의 교사인 자유, 진리, 정의
를 따서 이름 붙인 3개의 특징있는 광장설치
- 역사와 미래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옥외전
시장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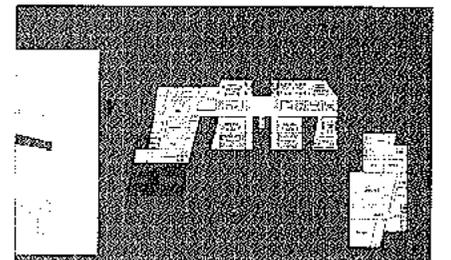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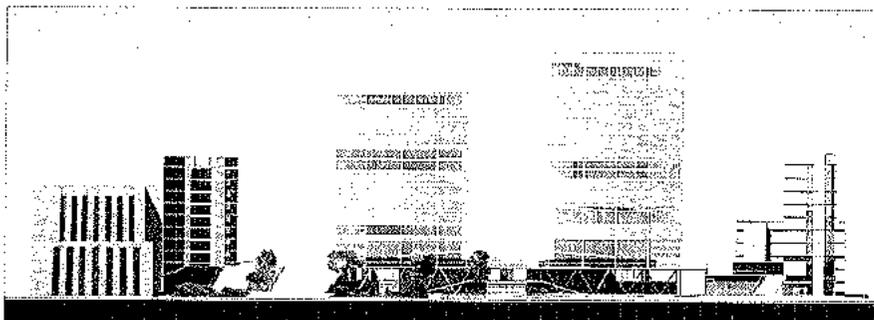
Deck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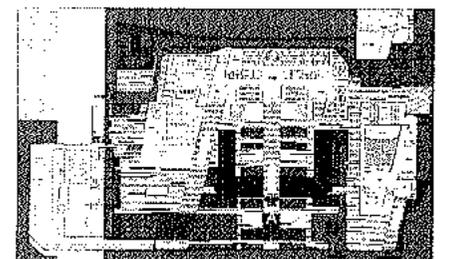
입면(측면)도



Mezzanine층 평면도



입면(정면)도



Ground층 평면도

오송생명과학단지

Osong Bio-Health Science Technopolis

당선작 / (주)원양건축사사무소(이종찬·성진용·박기성) +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윤세한·남기홍·김태만)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일대
대지면적	402,600.00㎡
건축면적	37,740.21㎡
연면적	128,443.35㎡
건폐율	9.37%
용적률	24.46%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압출성형시멘트패널, 고밀도 목재패널, 테라코타 타일, 알루미늄 복합판넬, THK24 컬러복층유리
설계팀	원양건축-김성기, 김경욱, 김태영, 심재한, 안철영, 조덕상, 이선영, 구양희 해안건축-주상선, 김재식, 이동준, 최원익, 박주영, 김경곤, 김철희, 김태중, 김해식, 문봉주, 윤정택, 임주은, 하경우

Green

"자연지형의 능선에 따른 배치계획을 통한 자연과 하나되기"

오랜 침식으로 복잡한 단층(斷層)의 지형이 남아있는 표면(자연)에 프로그램을 담기위한 볼륨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복잡한 도심지 안에서의 일반적인 구축형태가 아닌 대지의 흐름에 따라 빈공간을 만들고, 그 주변으로 프로그램이 채워질 수 있도록 자연의 여백을 만들어본다. 각 프로그램의 볼륨들을 응집시킴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접지성을 확보하고, 대지가 가지고있는 특징인 경사지의 흐름에 따라 능선의 연속적인 선적 요소가 건축물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볼륨의 형태는 자연의 나무와 그 나무의 잎이 성장하면서 유기적으로 커나듯, 공간의 확장을 고려하여 대지가 갖고있는 경사지라는 환경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Mer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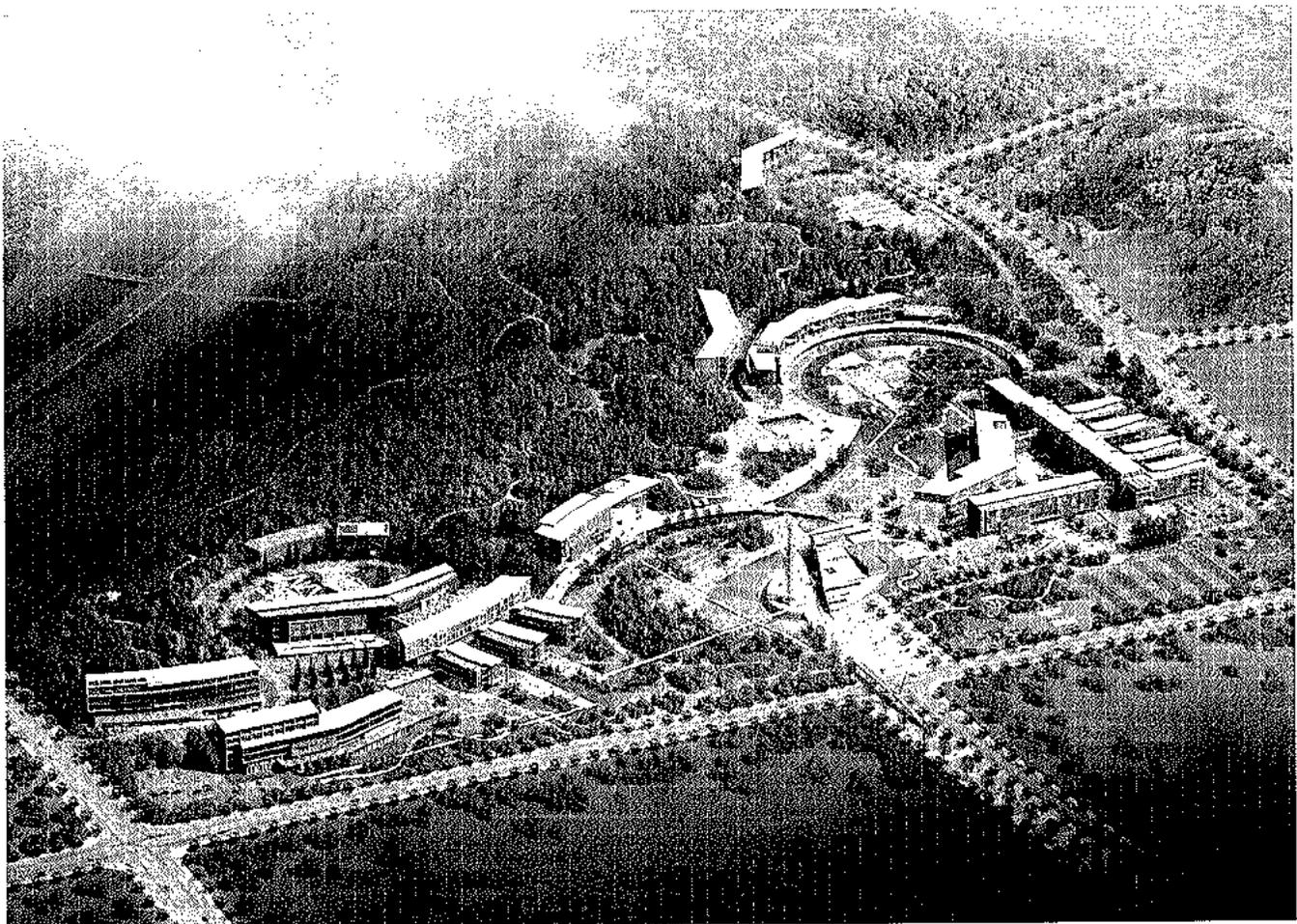
굴곡이 이어지고 변화하는 독특한 수평선은 소나무의 자연스런 곡선과 정재되지 않고, 거친듯한 자연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여유로운 흐름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기를 의도해본다.

Human

Layers

"경사진 땅의 해석과 공간의 위계를 설정하여 여백만들기"

- Layer-1 (48 Level), 열어주기(Public Zone)
 - SITE 전면 도시의 녹도축을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개방적인 영역
 - 공적공간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지역주민들의 도심속 휴식공간 제공
 -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을 배치하여 지역사회에 열린 연구소 의도
- Layer-2(48~53 Level), 이어가기(Semi-Public



Zone)

- Public과 Private Zone을 연결하는 전이공간 (Semi-Public Zone)의 영역
- 전시, 휴게, 이벤트, 퍼포먼스 등 일반인의 다양한 행위를 담을 수 있는 열린마당 계획
- 방문객들의 접근이 용이한 민원관련 시설(행정동, 공동이용시설 등)을 배치

Layer-3(58 Level), 채워주기(Private Zone)

- Deck에 의한 입체적인 보·차 분리 및 일반인과의 독립된 연구원 영역 확보
- 연구원 상호간의 다양한 커뮤니티로 채워지는 공유공간 형성
- 도시경관을 볼 수 있는 조망점으로 자연의 능선이 자연스럽게 관입되는 미당

Layer-4(63 Level), 비워내기(Natural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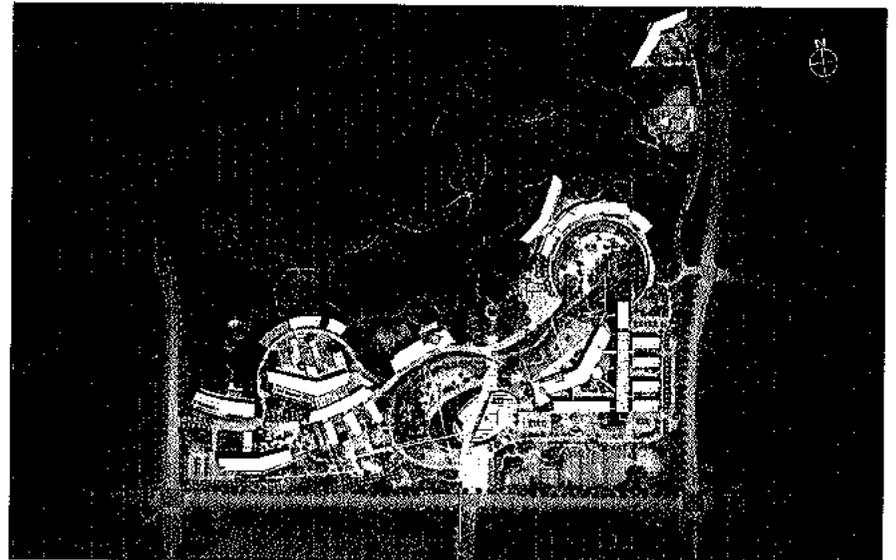
- 기존 수림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최대한 기존지형을 보존하는 여백의 영역
- 수림대의 녹지를 대지내로 흘러내려오게 함으로써 단지 내부로 자연을 연장
- 도시내 녹지축의 끝부분이자 녹지확장(근린공원의 시발점

Community

Double Ground

"연구원 상호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판(Deck) 만들기"

연구, 실험, 행정 등의 개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소 폐쇄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이 될 수 있는 기존의 연구단지의 구성기법에서 벗어나, 연구원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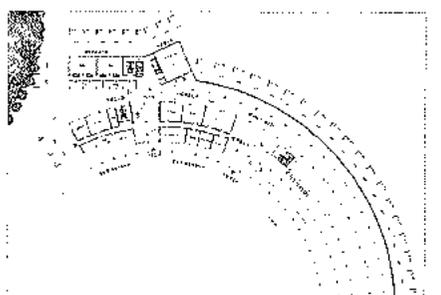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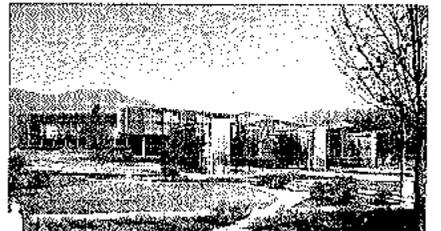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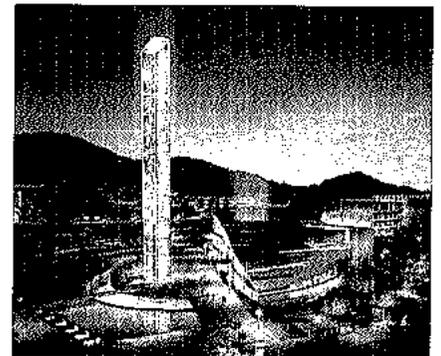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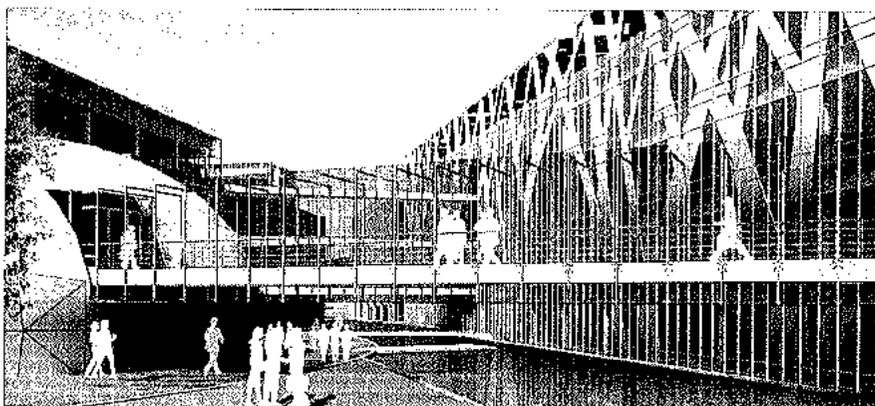
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사진 자연지형이 자연스럽게 교차하는 곳에 각 독립적인 기관들의 동선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판(Deck)을 만들어본다. 이 판(Deck)은 하부 Level의 Public Zone과의 동선을 분리시켜 연구원들의 독립성을 유지시켜주는 건축적인 장치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서비스주차, 코아, 민원관련 사무행정, 설비배관 등의 시설들이 마치 혈관과도 같이 각 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상부 판(Deck)은 건물 내부의 기능과 외부의 자연환경이 서로 자연스럽게 관입되며, 연구원들이 가닐 수 있는 몰(Mall)의 성격으로 사색과 여유의 공유공간으로 거듭난다.

자연 지형위에 만들어진 수평선은 입체적으로 다시 생성된 표면(Rebuilding Ground)으로 자연스러운 대지의 흐름과 방향성, 연속성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1층 평면도(국립독성 연구원)



오송생명과학단지

Osong Bio-Health Science Technology

우수작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정영균·
금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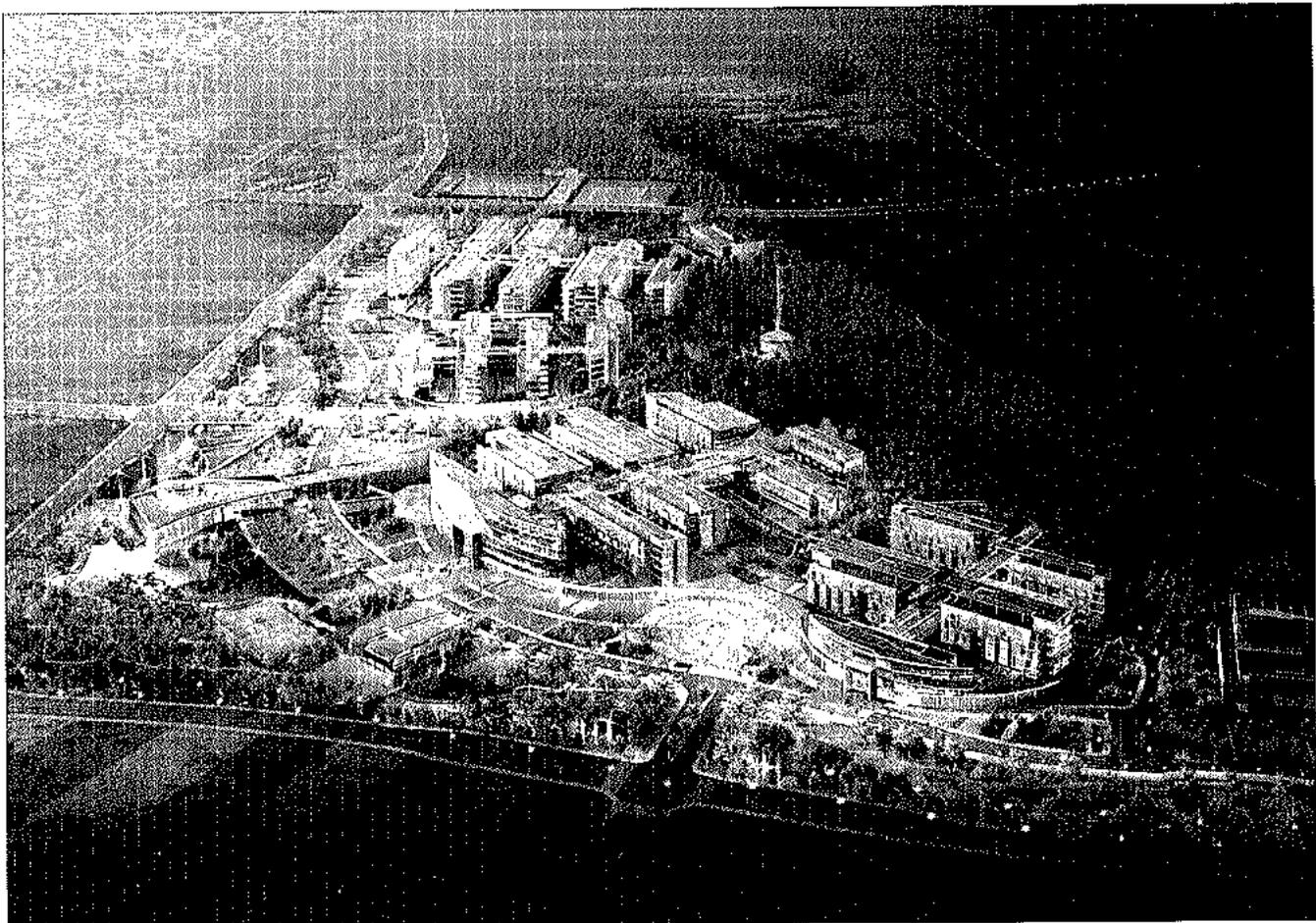
대지위치	충청북도 충원군 강외면 오송리 일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변경예정)
대지면적	402,600㎡
건축면적	67,103.78㎡
연면적	127,636.78㎡
건폐율	16.67%
용적률	31.37%
규모	지상 6층, 지하 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주차대수	1,060대
외부마감	THK24 철리복층유리, 알루미늄패널, 아연도강판
설계팀	김 상, 이승우, 양 응, 최은석, 조 일, 류무열, 김정희, 류재희, 이인수, 구자해, 홍창래, 정우준, 안대호

신행정수도 이전·건설이라는 지정학적 지척의 분위기 속에서, 생명-과학단지로 명명된 새로운 도시구조는 과연 무엇을 오송(Osong), 나아가 대한민국에 제시해야 할 것인가가 우리가 당면한 과제였다. 이는 연구소, 실험실, 관련병원, 연구시설 및 기숙사를 아우르는 총체적 연구시설(research and laboratory facility)의 미래를 무엇으로 재정의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속해서 추구한 것은 광고(advertisement)로서의 랜드마크미학(aesthetic)도, 형태실험(form)도, 첨단기능(function)도 아니었다.

우리의 바이오시메(Bio City)는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원을 위시한 4가지 개별 기관의 독립성과 통일성의 전제 하에, 3만평이 넘는 대단지들 넘

어 하나의 소도시(City)를 창출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며, 이 모든 것은 생명존중이라는 대전제를 머금고 있다. 바이오시메의 대지, 벽면, 볼륨의 경계 내외부에서 인지되는 갖가지 표현(gesture)의 형상들은 사설 자체의 필요충분한 프로그램을 담은 데리다(J.Derrida)류의 개별 '경계' 그릇들일 뿐 아니라, 하이데거(M.Heidegger)가 제시한 결합된 '사이' 공간의 시너지효과로서 조직된 것이다. 바이오의 퀘적에 있어서는 동떨어진 형상의 차이(difference)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기적 조화(accord)가 주가 되는 것이라 판단하였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조각나거나 끊어진 간극의 개별 요소들(elements)을 서로 매우거나 변형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엮음(combination)의 능력이 외부에 은유적으로 담겨져 있다. 이러한 바이오시메의 건축적 완성을 위해 설정된 '결(結, 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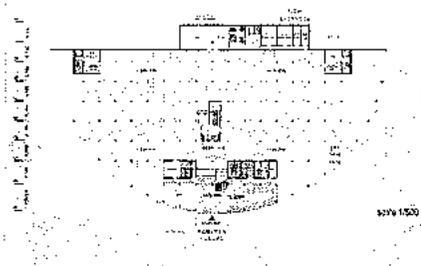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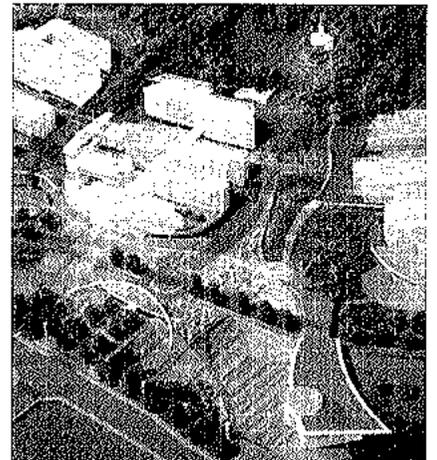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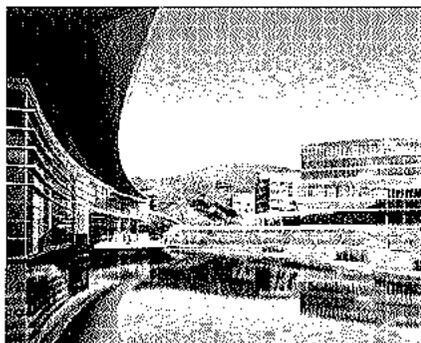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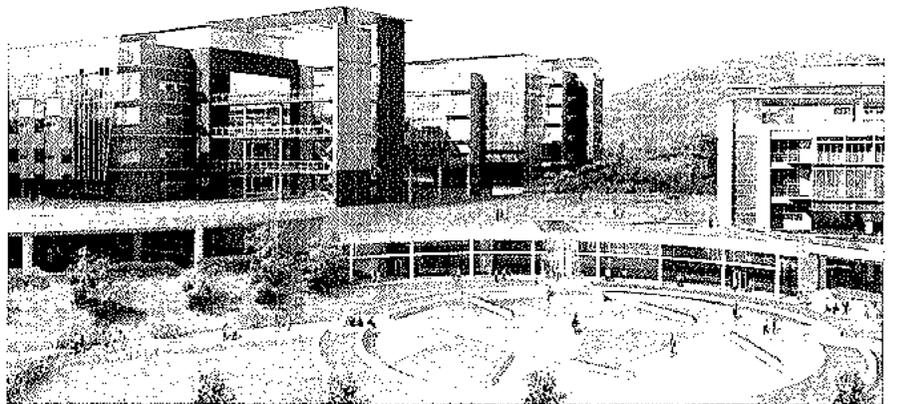


기)'이라는 개념은, 북쪽의 자연(natural topography)과 남쪽의 도시적 맥락(urban condition)의 중립적 위치에 마치 오송의 자연(landscape)이 편안한 옷을 입은 듯 생명의 근원, 즉 알(cell)의 형상으로 표현된 4개 기판의 배치 및 결속을 영태하게 된 것이다. 또한, 내부에서 연유된 일련의 공공적 녹지체계(green corridor, community garden, roof garden)는 바이오시데 클러스터(cluster)의 내외부를 휘감는 띠(band)로 존재하며, 이를 차로 및 보행로에서의 인간적 척도(human scale)와 원거리에서의 도시맥락적 관점(urban scale)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관통의 시선축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울동하는 바이오의 랜드마크 미학, 강한 생명에너지를 발산하는 유기적 알 형상의 형태실험과 추후확장 및 명확한 프로그램의 해석에 따른 첨단기능은 바이오시데를 위한 우리의 설계적근법론의 일부이며, 품어가야 할 자연과 신도시의 상호작용으로 바이오시데가 의미를 갖게 된다.

오송의 주민들은, 연구시설 그 물리적 문맥 자체를 넘어 환경친화적 매체로서 보다 큰 공공의 체계적 영역을 향유하게 되고, 풍요로운 도시맥락적 상황에 침잠할 수 있으며, 건축의 가시성을 활성화시키는 일종의 촉매를 느낄 것이다.



배치도



1층 평면도(국립독성 연구원)



동측기로입면도

오송생명과학단지 Osong Bio-Health Science Technopolis

가작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안길원·서학조·최창섭) +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김상길·김희옥)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일대
 지역지구 일반 공업지역 - 준공업지역(변경예정)
 대지면적 402,600㎡
 건축면적 33,144.25㎡
 연면적 1234,933.38㎡
 건폐율 8.23%
 용적률 29.80%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16층
 주차대수 637대(법정 : 416대0)

21세기 보건 의료·생명산업 분야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집중육성하고자 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국책기관단지 연구소들과 생산시설을 유치하여 첨단 바이오산업의 메카를 만들고자 오송생명과학단지가 계획되었다. 이중 맨 처음 건립되어지게 될 국책기관단지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전체의 기능적, 상징적 중심시설이자 핵심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앞으로 건립되어질 연구시설 및 생산시설들의 계획에 지표가 될 것이다. 기존까지 행해지던 개발논리의 도시개발과는 다른 개념의 도시개발이 혹은, 단지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바이오와 생명이라는 테마를 가진 자연과 사람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울어진 생명과학연구도시로의 오송을 희망하며 본 설계는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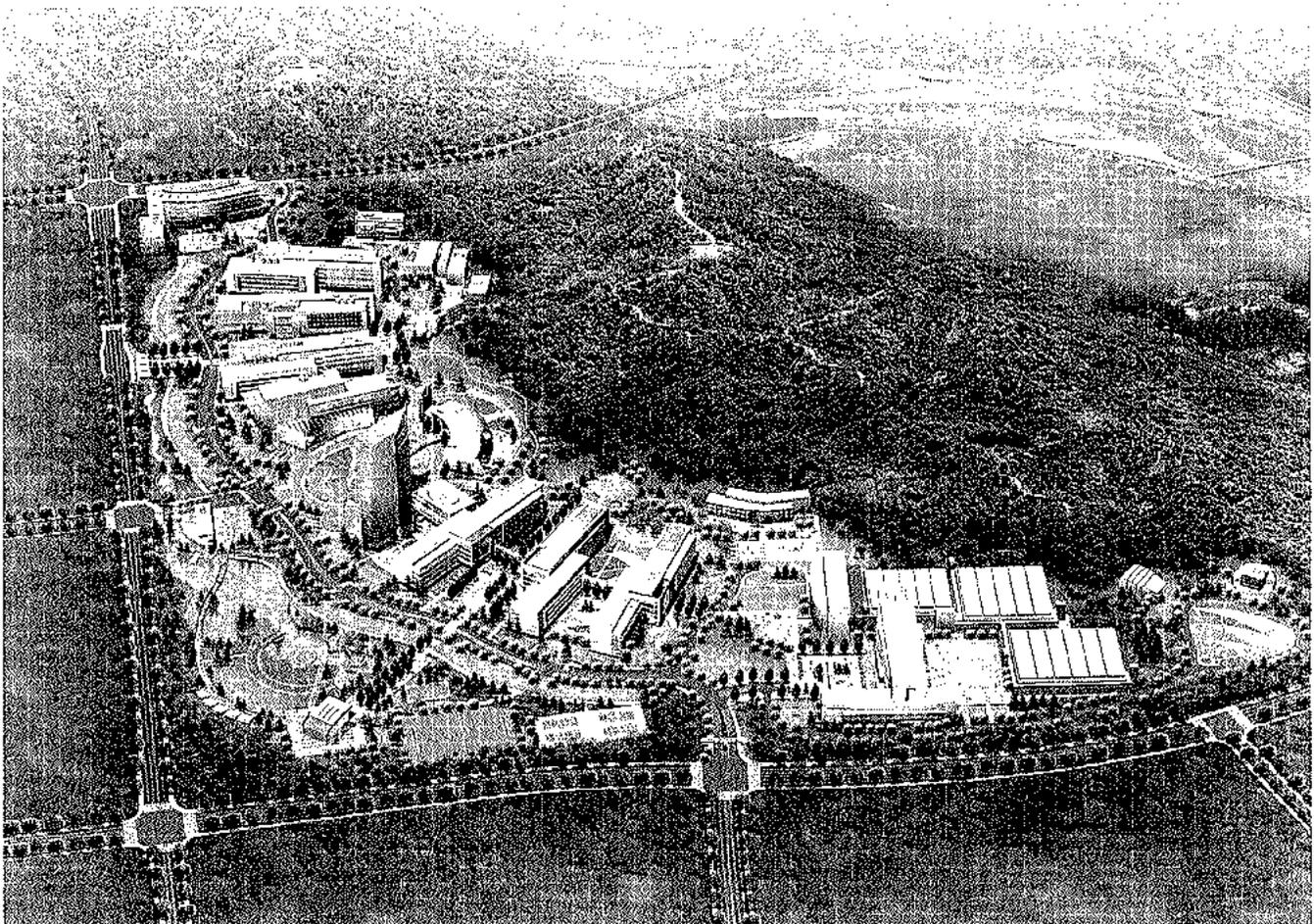
도시와 자연 사이에 존재하기

북쪽의 병마산과 대지후면의 녹지는 그린네트워크

크를 형성하며, 향후 생명과학단지 전체의 허파 역할을 하면서 이곳에 근무하게 될 근무지들과 거주민들에게 훌륭한 자연경관을 제공할 중요한 숲으로 판단되었다.

바이오 생명과학단지라는 위상에 걸맞는 도시환경이란, 자연과 도시가 서로 시각적·공간적으로 연결되어있고, 그 사이에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설정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도시와 자연 사이에 존재하기'라는 내부의 원칙이 세워졌으며, 이를 위한 세부지침들을 마련하였다.

- a.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열려 서로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b. 녹지의 흐름과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 c. 숲을 가로 막아서 도시와 자연이 시각적, 공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지양한다.
- d. 기능을 담은 Solid와 자연을 담은 Void의 반복적 공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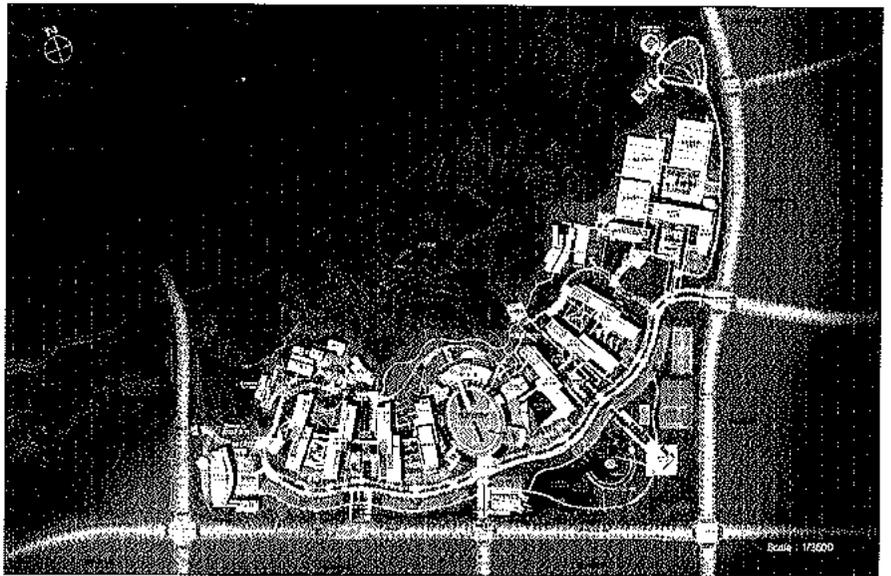


e. 경사도 분석을 통해 60m 이상의 대지에는 건
축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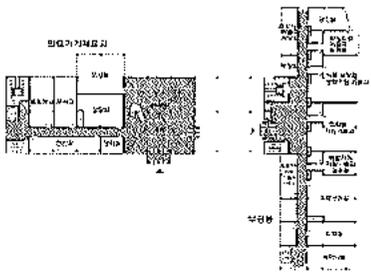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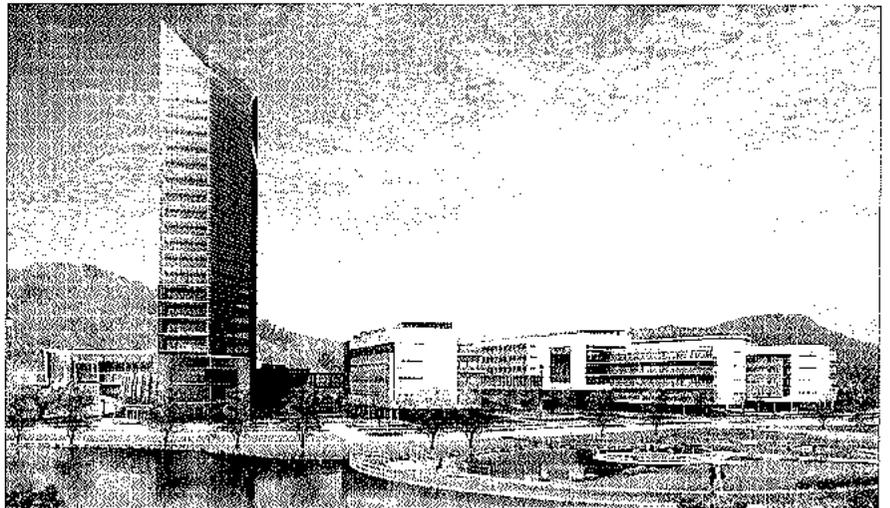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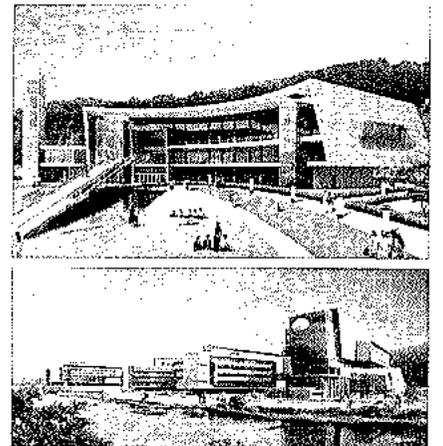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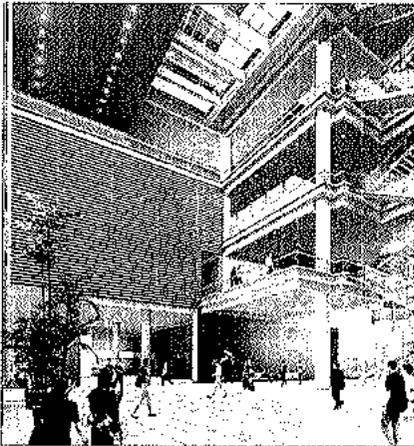
전체성과 개별성

하나의 부지에 4개의 기관이 건립됨으로서 각각
의 기관이 가지는 개별성과 국책기관으로서의
전체성이라는 서로 상반된 가치를 모두 수용해
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각각
의 기관들이 규모에 따라 일정지분의 토지를 소
유해야하고, 각각의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각자의 영역을 가져야 한다는 지침은
일관된 흐름을 가지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야 하고, 국책기관단지로의 전체성을 유지해
야한다는 지침과 상충하며 설계기간내내 수없이
많은 논의를 유발시킨 요인이 되었다.

결국 절충적으로 도출된 결론은 일관된 흐름을
가진 배치계획으로 국책기관단지의 통일성을 부
여하며, 대지의 중앙에 주된 기관의 행정동 및
공동이용시설과 광장을 투여 전체의 중심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전체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각각의
기관에 특성화된 중심마당을 두어 Identity를 부
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형으로 이루어진 건
물군들을 브릿지로서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특화
된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각각의 기관 및 건물들
사이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어지게 계획함
으로서 개별성을 가진 기관들이 전체라는 틀 안
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조화되어질 수 있도
록 계획하였다.



배치도



1층 평면도(부분등)

광주시립미술관

Gwangju Museum of Art

당선작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정영균·김서균)
+ (주)유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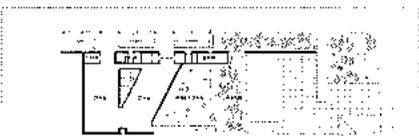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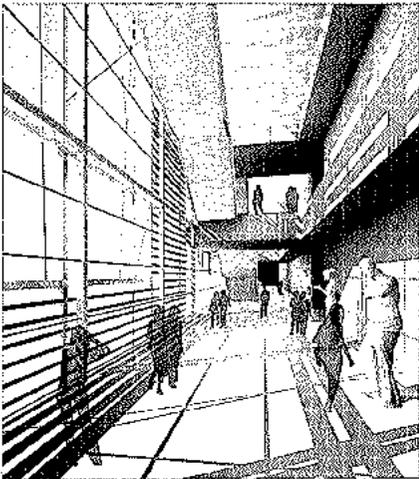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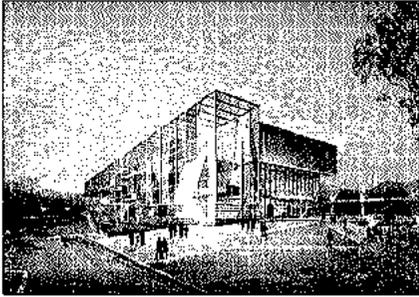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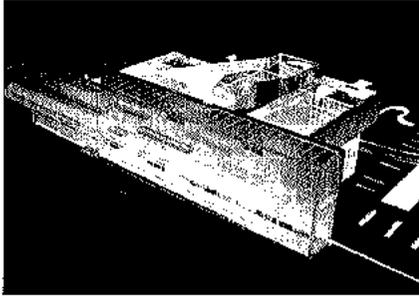
대지위치	광주시 북구 운암동 산 42-3(어린이대공원지구내)
지역지구	자연보존지구(일부 일반주거지구)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대지면적	2,439,118.6㎡(계획대지 6,610㎡)
건축면적	2,974.14㎡
연면적	7,632.79㎡
건폐율	44.99%
용적률	115.47%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일부 철골 트러스)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대수	법정 : 51대(7,632.79㎡/150㎡/대) 계획 : 146대(장애인주차 8대 포함)
외부마감	현장제작 컬러조색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 컬러복층유리
설계팀	김시형, 전자용, 전민영, 주성, 문정기, 안대호

과거의 미술관은 작가와 큐레이터, 혹은 미술관 자체가 중심이 되어 예술의 의미를 결정하고, 관객과 비예술적인 부분은 주변부로 간주되는 뚜렷한 '중심+주변'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미술의 흐름은 그러한 중심성을 해체하고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관람객의 참여와 나아가 놀이로서의 예술로 보다 확대되는 경향이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에 발맞추어 미술관의 건축도 분산적, 개별적, 탈 중심적, 탈 권위적인 미술관이 현대미술관의 패러다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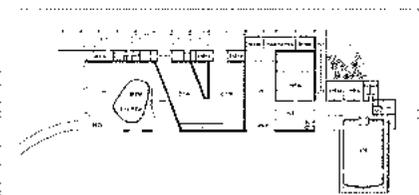
특히 광주시립미술관은 그 장소적 의미에서 이미 탈 중심적이다. 넓은 공원지구의 한 귀퉁이에 세워질 이 미술관은 하나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자유로움과 자연환경이 중심이 되는 곳에서 어떤 배경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넓은 공원지구 내에 질서 없이 분산 배치된 다양한 문

화시설들이, 신축되는 미술관으로 인해 새로이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광주시립미술관의 계획에 있어 장소에 관한 부분을 보다 매크로(Macro)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남측의 문예회관과 북측의 박물관을 연결하는 중외공원의 문화벨트로 형성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벨트는 선형의 형태를 가지면서 민속박물관 및 비엔날레관과 함께 중외공원 광장에서 이루어질 행위에 대한 배경이 되도록 배치하였다. 이 배치 방법은 흩어진 각종 문화시설을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유연한 증축도 가능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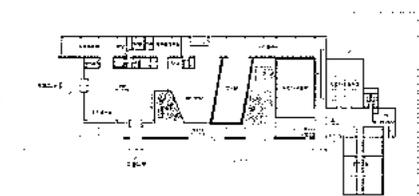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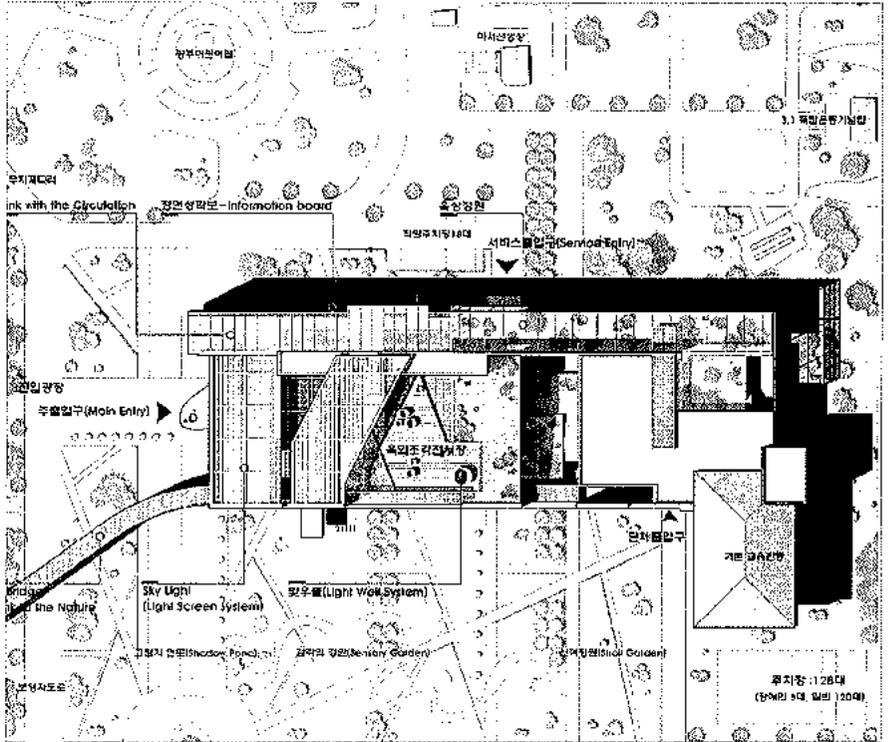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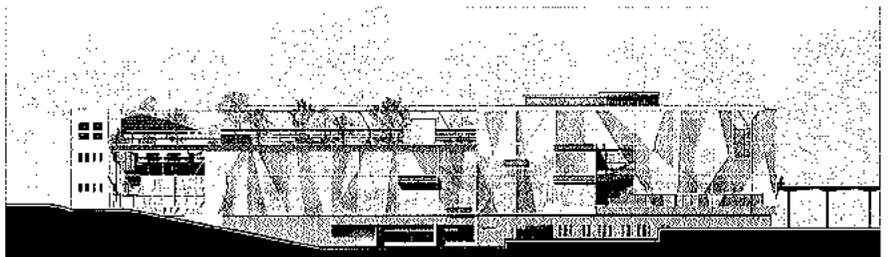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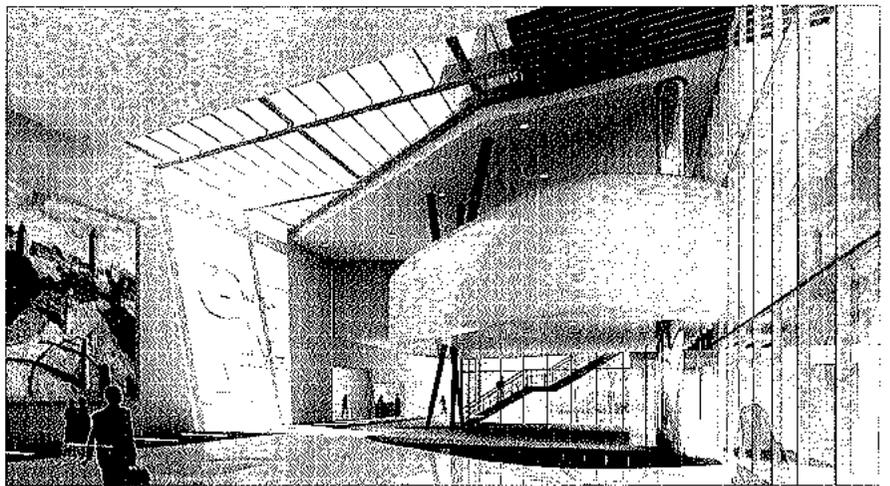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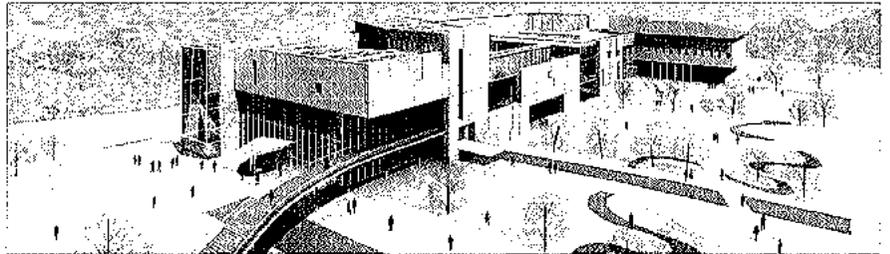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서쪽입면도

광주시립미술관 Gwangju Museum of Art

우수작 / (주)건우사 종합건축사사무(공순구) +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박동준) +
김용승 한양대학교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산 42-3번지(여
린이 대공원지구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2,439,118.60㎡

건축면적 3,363.20㎡

연면적 7,599.82㎡

건폐율 0.14%

용적률 0.22%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주차대수 24대 (장애인 주차3대 포함)

외부마감 골강판, T24투명절합유리, 목재패널, T12
강화유리

설계팀 황창석, 이익주, 윤성규, 이시진, 이수경,
지훈상, 권영주, 이현선, 서한서, 조현구,
이현정, 이강준, 유승호, 신의재

본 계획안은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시가
중외공원의 비엔날레전시장, 시민민속박물관, 교
육홍보관 등 기존시설과 주변 경관을 아우르는
예술성 상징을 지닌 랜드마크적인 미술관을 건립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건립목적에 맞추어 본 계획안에서는 대중
미술관 개념을 도입하여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교류를 위하여 참여의 장, MAJOR
SPACE(대공간)의 마련, 공원과외의 적극적 열린관
계, 공원의 중심마당 조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
였다.

대중을 위한 공공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통합화
로 인해, 최근 국내 박물관(대규모 미술관)의 형
태적 경향은 MAJOR SPACE를 중심으로 통합
적 내부공간을 가지는 단일 매스의 형태가 주된
경향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의 형태적 위상은 이러
한 최근 경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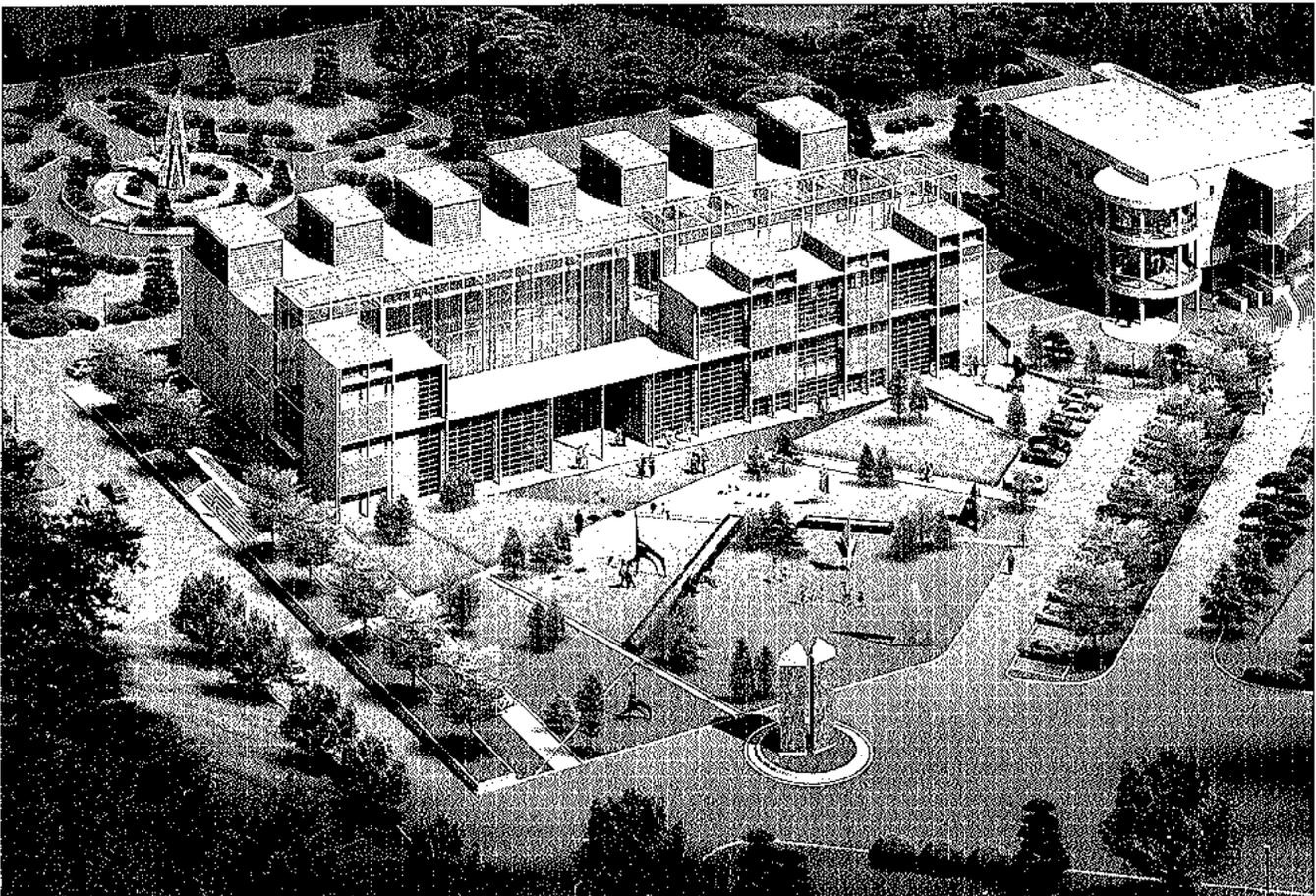
특히 공공문화시설로서 단일 매스는 그 기념성

(Monument)을 강하게 인식시키는 형태로서 광
주를 대표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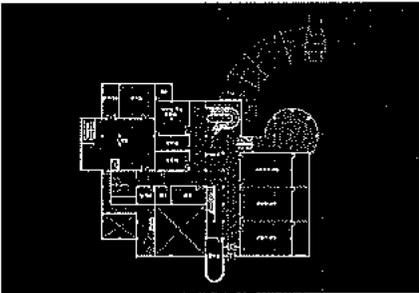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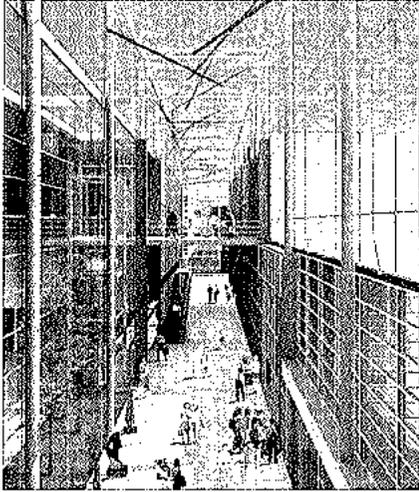
광주시립미술관의 대공간은 복도형이 갖는 강한
시각축을 형성하며, 동시에 중심형의 방향감각
제공과 집회공간의 역할을 한다.

또한 MAJOR SPACE 전체를 아트리움으로 계
획, 주간에는 태양을 활용하여 자연광이 충만토
록 하며, 야간에는 인공조명을 활용하여 중외공
원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하여 밝고 따뜻한 분위
기를 연출, 미래지향적인 회담, 정열, 꿈의 형상
화를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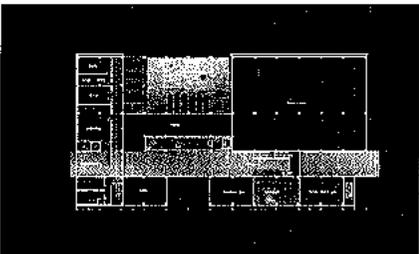
MAJOR SPACE를 이벤트의 중심공간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다양한 출입구를 제공, 공원의 모든
곳에서 건물로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공원내부로 면하여 열린광장 공간을 제공하고 홍
보관과 연하는 대지의 북측에도 아늑한 열린공간
과 어린이를 위한 EVENT 공간을 마련하여 연령
대를 고려한 공간을 다양하게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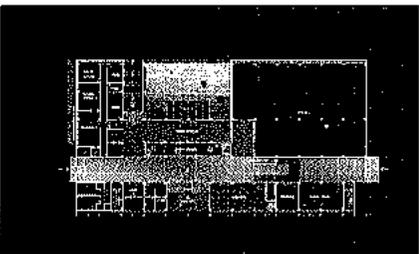
건물내부는 수공간, 조각갤러리, OUTER SPACE, 공공서비스 공간 등 순차적으로 중첩되는 공간적 커의 형성으로 다양한 공간감을 연출하였으며, 내외부의 강한 시각적 개방 및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통한 공간감의 확장을 도모하였다. 상설전시장은 6개의 천장을 통한 자연채광(확산광)과 보조 광원을 통해 전시실 전체의 균등한 조도를 확보하여 미술관의 기본적 기능에 충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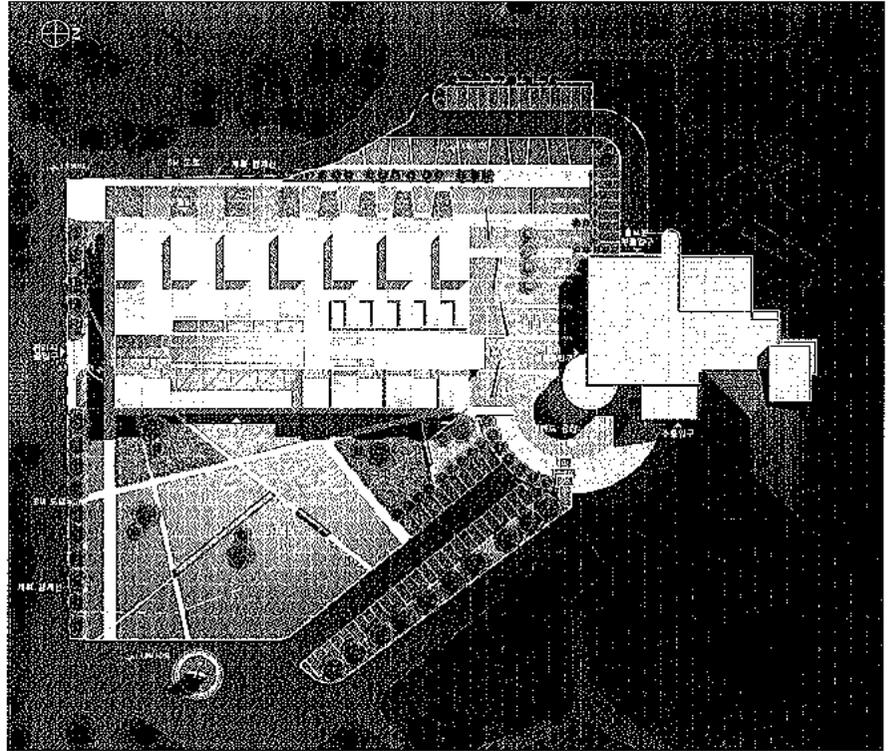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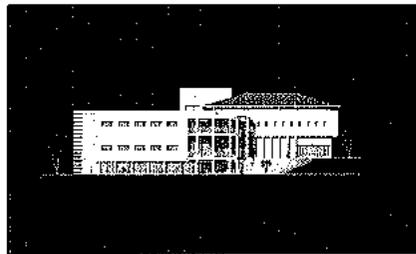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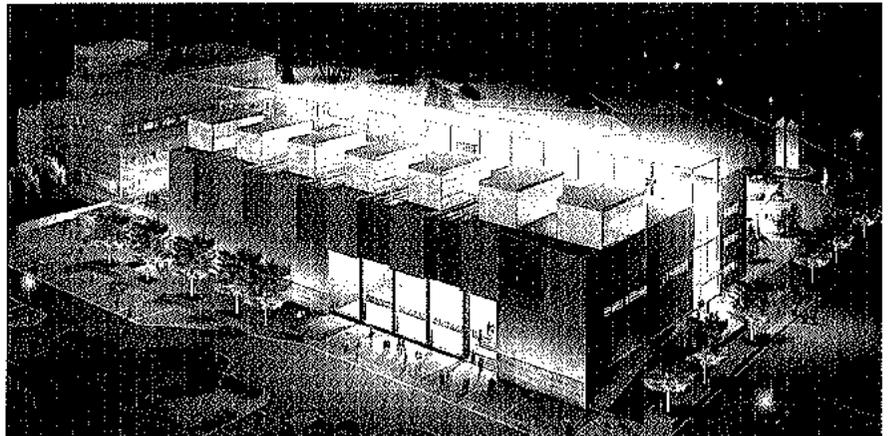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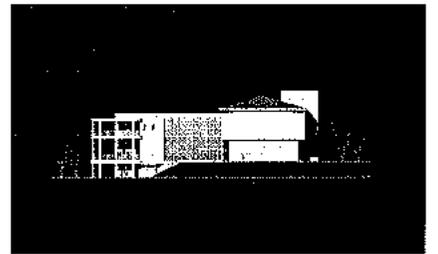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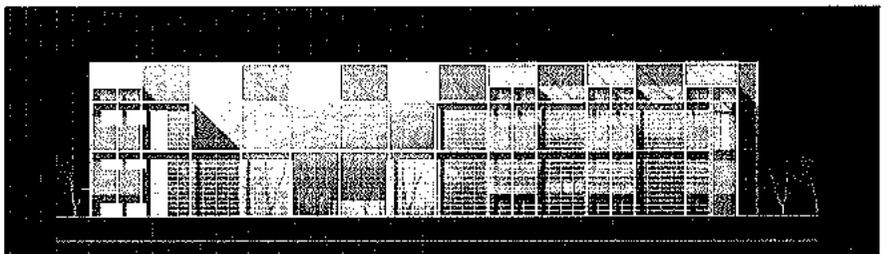
배지도



남측입면도



동측입면도



동측입면도

광주시립미술관 Gwangju Museum of Art

가작 / (주)단우건축사사무소(최명철) + (주)건축사사무소
이우(임경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상보이엔지
(장정수) + 제일 교수목포대학교 건축학

대지위치 광주시 북구 운암동 산 42-3 (어린이대공
원지구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

용도 미술관

대지면적 6,610㎡

건축면적 3,543.74㎡

연면적 7,617.52㎡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50대

외부마감 THK8 목재패널, THK24 컬러복층유리,
THK30 화장석

설계팀 최홍연, 박기선, 서지영, 김수호, 최현영,
김승연, 박우만, 이황희, 이승준, 정관성

계획의 전제

문화예술도시로서 광주가 갖고 있는 문화적 상징
성 및 인자성을 강화하고, 중의공원의 비엔날레
전시관, 시립민속박물관, 교육홍보관 등 기존시
설과 주변경관을 아우르는 랜드마크적인 미술관
을 건립하여 세계적인 문화전시공간을 확보한다.

접근

계획부지의 북측에 교육홍보관, 동측에 비엔날레
전시관, 서측에 중의공원이 위치하여 대지 동서
방향에서의 진입이 주된 접근이 되므로, 양방향
에서의 정면성을 살리면서 주변 CONTEXT와의
소통을 존중하는 경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쪽 진입도로보다 약 4m 높이에 건물의 기반부
를 형성하고 그 하부는 레벨차를 이용한 주차장
을 계획, 대지 내에는 보행자 위주의 동선 구성
이 되도록 하고, 외부에는 올림의 연못, 민중의
광장, 미래의 동산, 명상의 연못 등을 조성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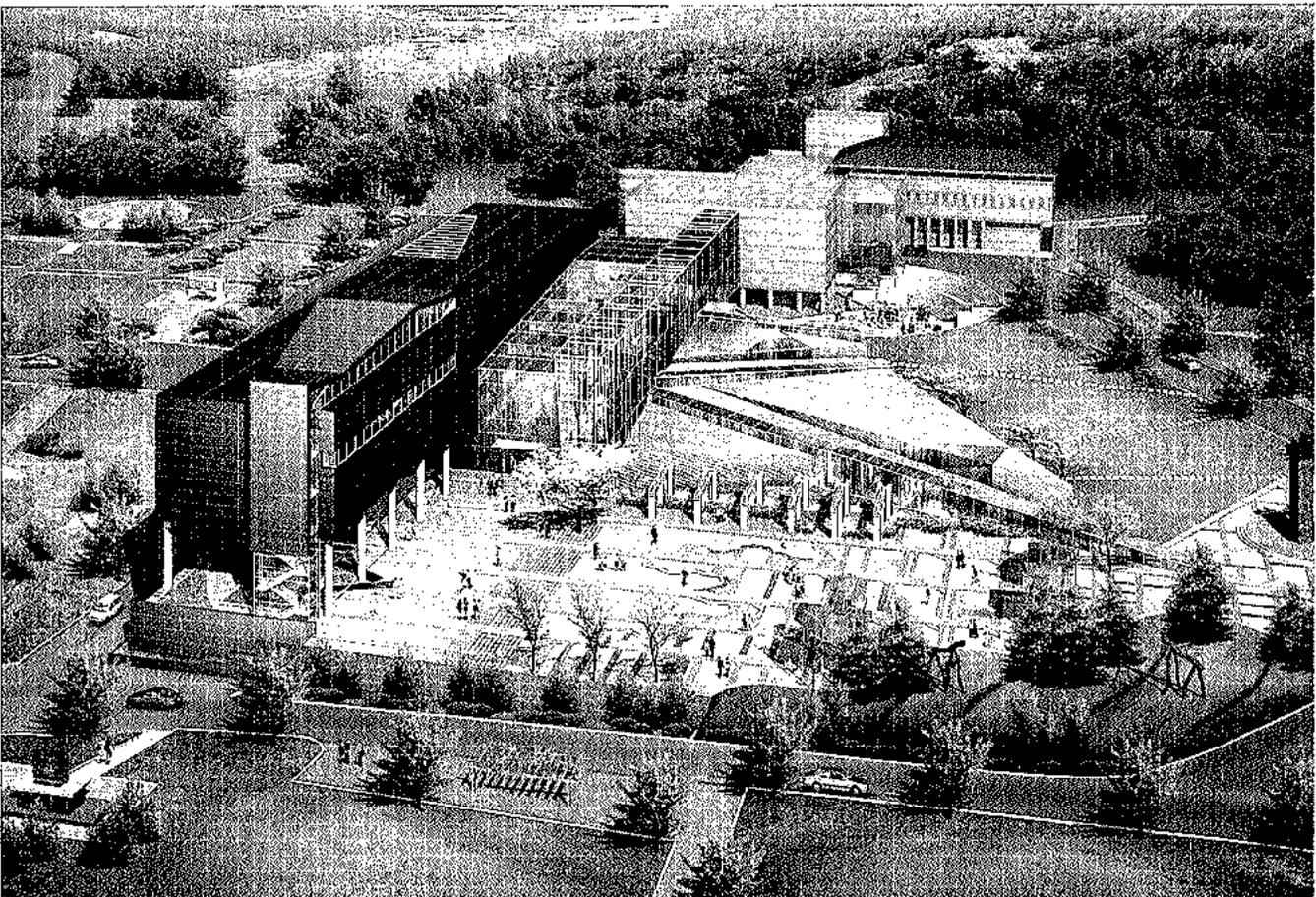
광주시의 문화생태적인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였다.

인지

광주 어린이 탐과 천인의 탐을 잇는 공원내 상징
축과 교육홍보관 내부로의 확장축과의 관계성 설
정에 의해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를 디자인하였다.
수평성을 강조한 기획전시 MASS와 땅의 회복을
통한 지형의 생성을 의도하는 상설전시 MASS로
조형적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중심부에는
출입 및 출 기능의 아트리움을 두어 분절된
형태의 어우러짐을 계획하였다.

SOLID / VO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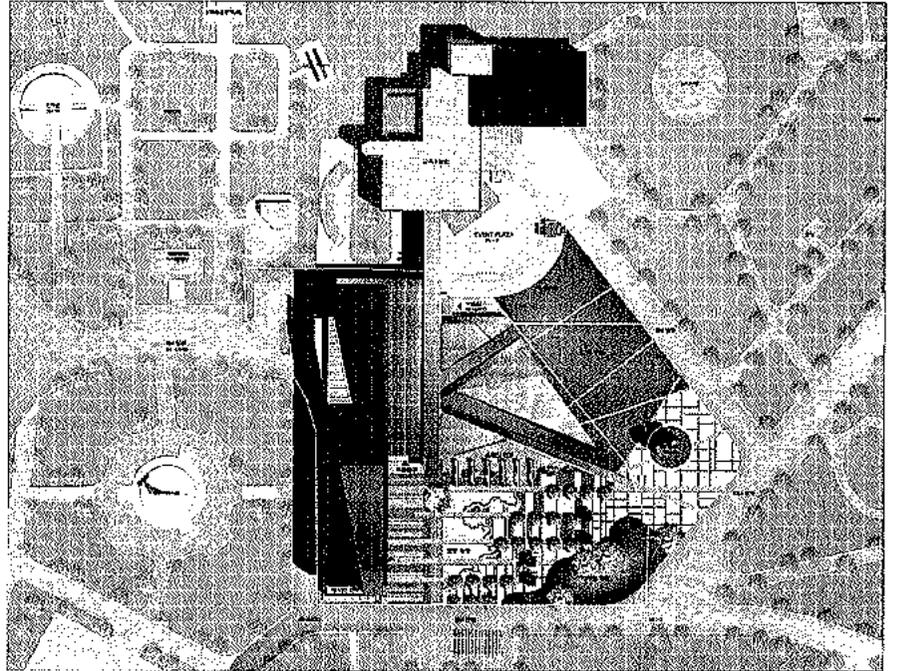
미술관의 진입부와 교육홍보관을 연결하는 홀-
VOID MASS를 중심으로, 도시적 의미를 지닌
축방향의 기획전시 공간-SOLID MASS와 역동
적인 상설전시 공간을 배치하여, 관람객의 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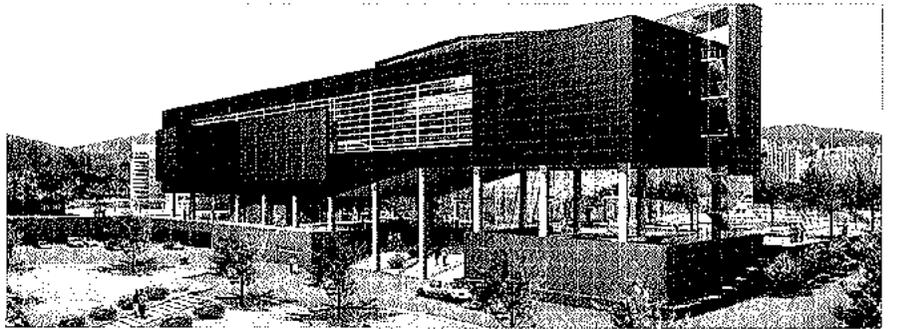
찬 Activity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1층의 상설전시실을 시작으로 Circulation 형태의 전시공간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으며, 전시 에필로그를 통해서 나가면 관람객의 편의 및 주변 자연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휴게시설을 계획하고, 공원의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미술관 휴관시에도 이용이 자유롭게 배치하였다.

GROU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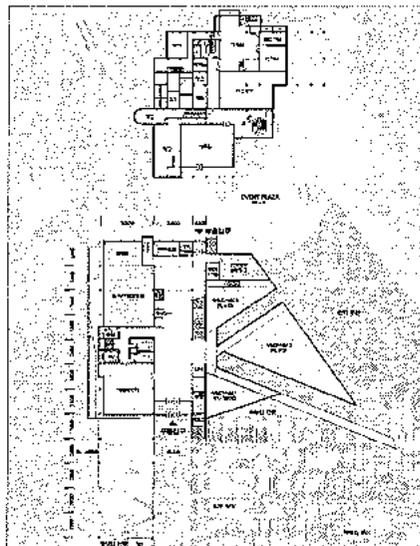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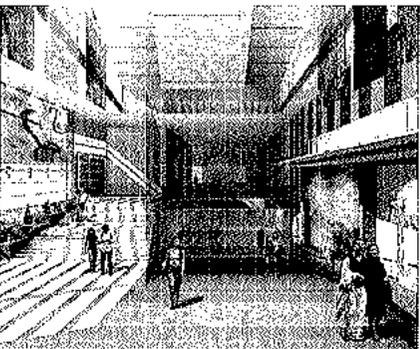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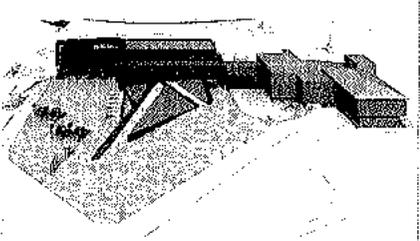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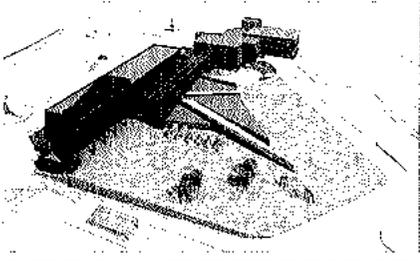
땅의 재해석을 통한 기존 지형의 회복을 위해 천인의 탑 주위의 아스팔트를 잔디 공원으로 구성하여 탑의 의미를 되살리고, 지형의 회복을 통한 인공적인 지반 자체가 전시공간을 형성하는 랜드스케이프화된 공간으로서의 상설전시 형태를 제시하였다. 어린이 천장탑으로부터의 진입공간을 연장하여 남쪽을 향한 열린 외부공간을 구성하고, 기단부와 전시매스를 지지하는 필로티 공간으로 수평성과 접지성을 강조, 땅의 회복을 통한 지형의 생성으로 전시의 움직임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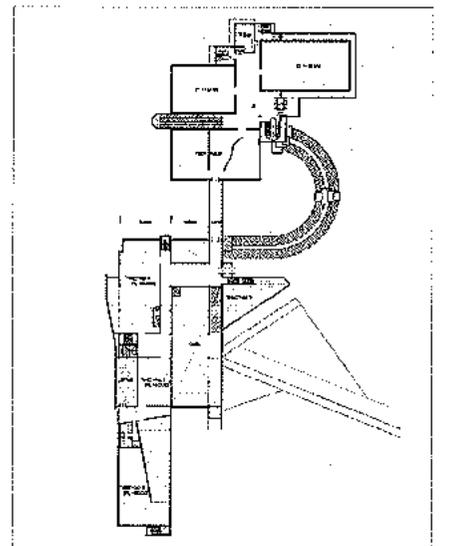
배치도



등측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지리산 자생식물환경공원

Jirisan Native Plants Environmental Park

당선작 / 다주종합건축사 사무소(유병환)

대지위치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응산리 산 4-8번지외 13필지
건축면적	5,600㎡
연 면 적	6,184.10㎡
건 폐 율	3.56%
용 적 륜	3.45%
규 모	자생식물관 지하 1층, 지상 2층, 허브관 지하 1층, 지상 1층
구 조	철골+카튼월
주차대수	소형 190대(장애자 주차 17대 포함), 대형 38대
외부 마감	외부마감 : 알루미늄시트판 + 18mm 복층 유리 카튼월
설 계 팀	신희철, 고명신, 변효선

계획의 전제

지리산 아래봉 일대의 자연생태환경(기존 목장지) 복원과 국제적인 관광환경도시 개발 방향에 따른 친환경 자연체험 학습관광을 네트워크화한 고부가가치 테마형 관광 상품 개발로 지역 소득 창출

계획의 방향

- 공공성 : 자연환경 및 식물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생태 탐방 자연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문화 공간을 제공
- 상징성 : 식물의 형태를 건물디자인으로 형상화하여 관광객의 지리산 Gate(관문) 성격을 부여함
- 기능성 : 자연속에 의한 건물과 옥외 테마공원을 배치하여 자생식물과 허브의 합리적인 동선체계 구축
- 경제성 : 지리산 자생식물의 연구개발 지역 특화상품으로 개발 판매하여 지역 소득을 창출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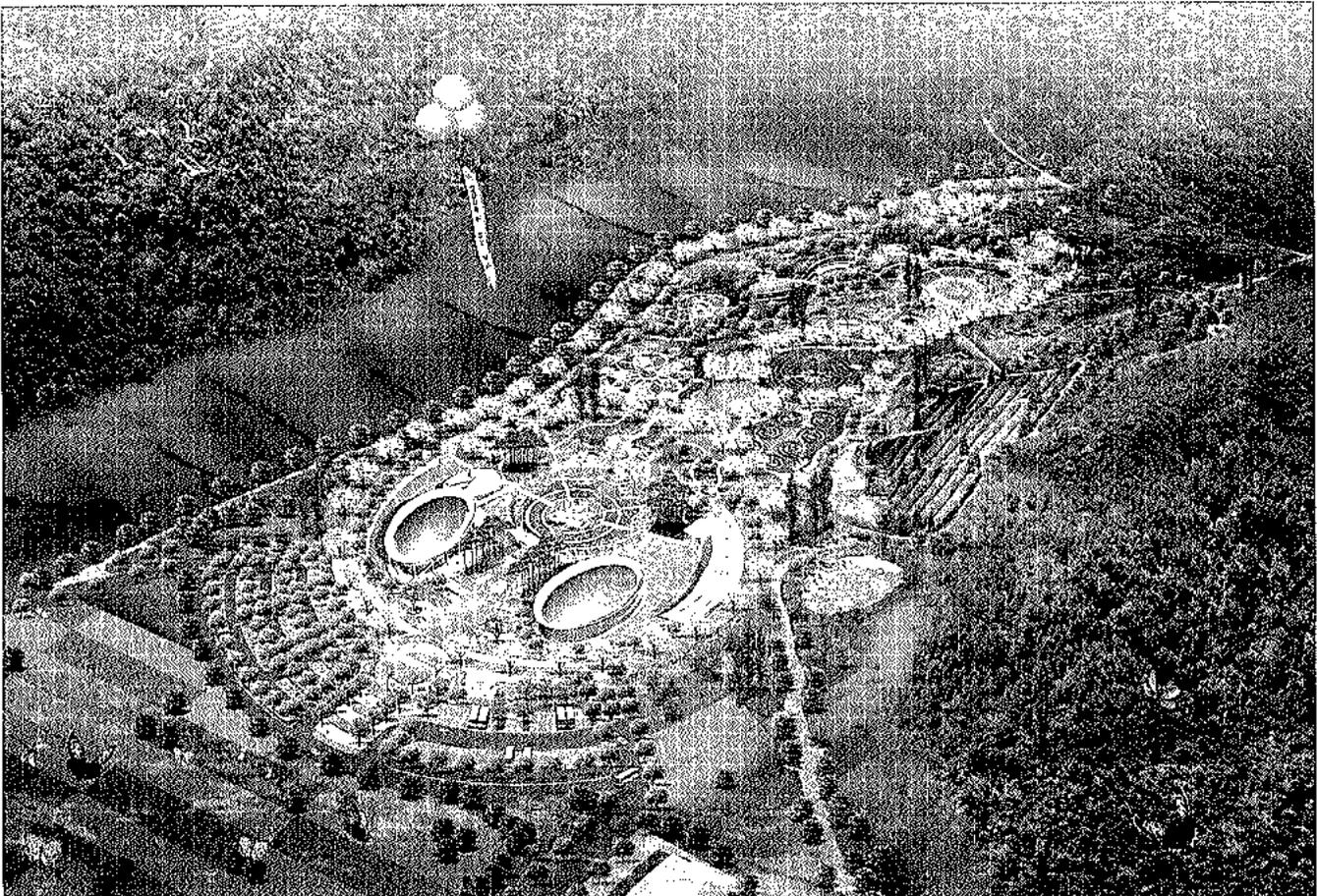
- 지리산 아래봉 자연속과 연결한 Sky Line 형성에 따른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설계
- 입구부분(Gate)의 상징성 부여
 - 건물에 부드러운 원형을 사용하여 남원시의 발전을 기원하였음
 - 차량동선과 보행동선 분리

평면계획

- 자생식물의 씨앗과 새싹을 형상화한 디자인 계획
- 자생식물관(800평) : 연구, 전시 관리동(조직배양실 포함) 300평, 유리온실 500평 계획
 - 허브식물관(853평) : 연구, 전시, 관리동(조직배양실포함) 300평, 유리온실 513평 계획

입면계획

- 기존 온실의 단조로움을 탈피하여 직역 상징물로써 식물의 형태를 형상화한 디자인 계획



- 자생식물관 : 씨앗과 새싹을 형상화하여 씨앗의 싹트임을 입면에 반영하였고, 자연 순리에 따라 생명의 순환을 연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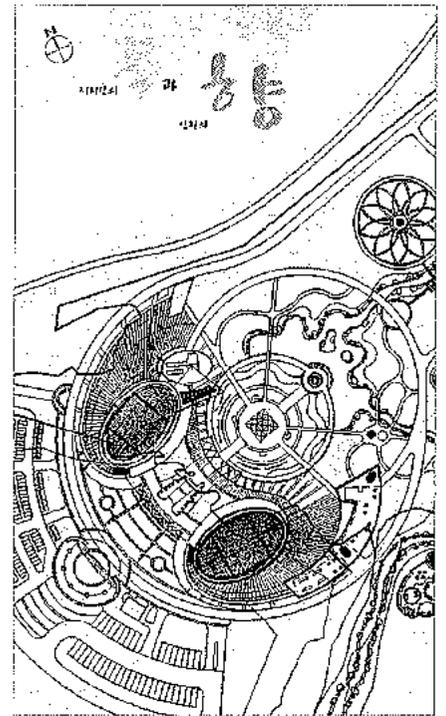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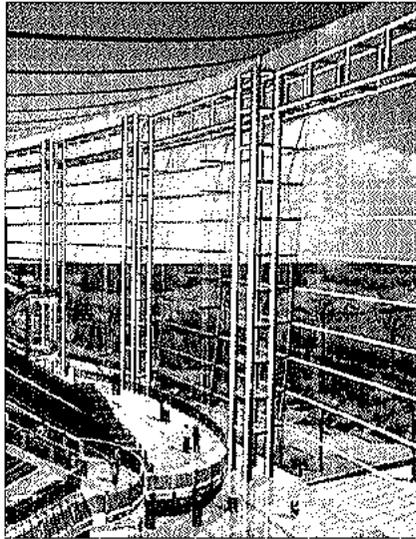
- 허브식물관 : 씨앗과 새싹 꽃봉우리를 형상화하여 향기의 발산을 입면에 연출하였음

방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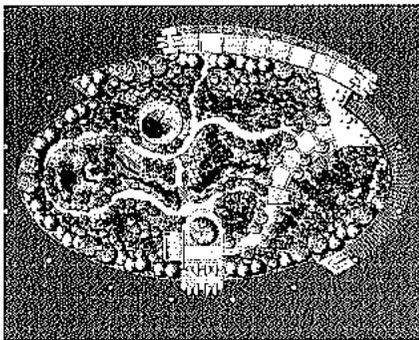
피난 계단과 출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와 지진 및 안전에 대한 설계를 계획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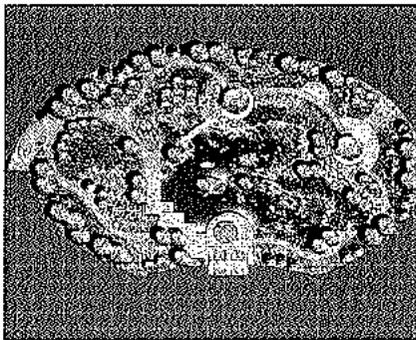
자생식물관 스팬은 최대 36m 트러스 구조와 높이 12m로 계획하였고 허브관 스팬은 최대 36m 트러스구조와 높이 9m로 계획 하였으며, 전시실의 특성을 살린 내외부 개방감과 천장에 의한 환기 및 일조에 의한 차양막을 설치하였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실시설계를 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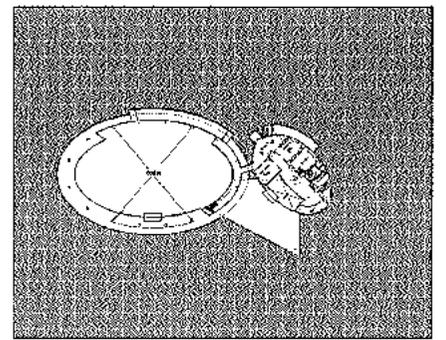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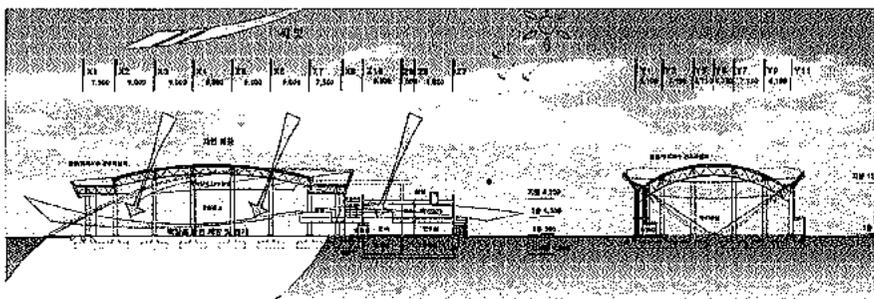
자생식물관전시관(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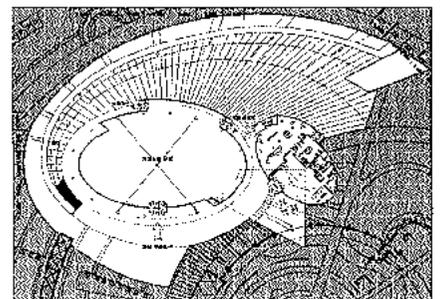
허브전시관(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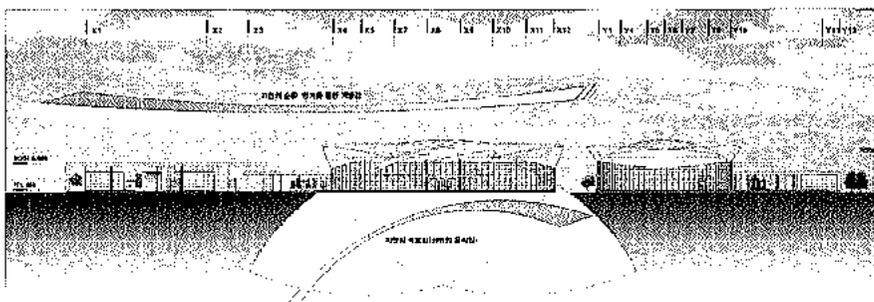
2층 평면도(자생식물관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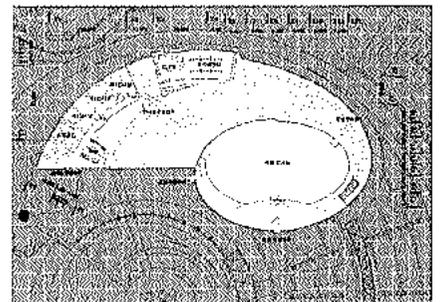
단면계획도(자생식물관전시관)



1층 평면도(자생식물관전시관)



입면계획도(허브전시관)



1층 평면도(허브전시관)

지리산 자생식물환경공원
Jirisan Native Plants Environmental Park

우수작 / (주)명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선우 정호 · 김기현 · 정왕영) + 유림조경 기술사사무소(김은성)

대지위치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산 4-8번 지외 13필지
대지면적 132,146.00㎡
건축면적 2,633.05㎡
연면적 2,581.34㎡
건폐율 1.99%
용적률 1.95%
규모 전시관리동 1동, 온실동 1동, 각 지상 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THK30 화강석버너구이, 점토벽치장생기, THK24 컬러복층유리
설계팀 명광건축-유재환, 김경연, 김준영, 홍석일, 이경숙, 원영주, 조정형, 유림조경-이병훈, 남은희, 이태호, 조근영, 허성진

배치계획

주차장

- 기존도로와 산실도로에서의 접근 용이성 확보
-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관광객 유치시 원활한 주차가능

진입광장

- 가벽설치로 각종 행사 안내 역할
- 플라워월 사이로 건물을 경향하며 진입

전시광장

- 꽃으로 장식된 전시가벽을 터널형태로 배치 전시 및 조형의 역할 및 꽃의 공간 경험

중정부분

- 관리자 휴식공간으로 배강실 및 기계 전기실과의 연결통로 역할을 하여 사무 및 관리 효율 증

대효과

수자·하역공간

- 관리차량 및 식물 이동 역할

물의 공간

- 광장과 축제의 장으로서의 분수이벤트의 유치 및 정적이면서 동적인 공간

온실동

- 지리산을 형상화한 온실 매스의 최고봉은 노고단을 상징한다. 산속의 산, 그 안에 식물공원이라는 대전제부터 온실은 시작된다

평면계획

- 진입광장에 대하여 수평으로 계획, 도로에서의 인지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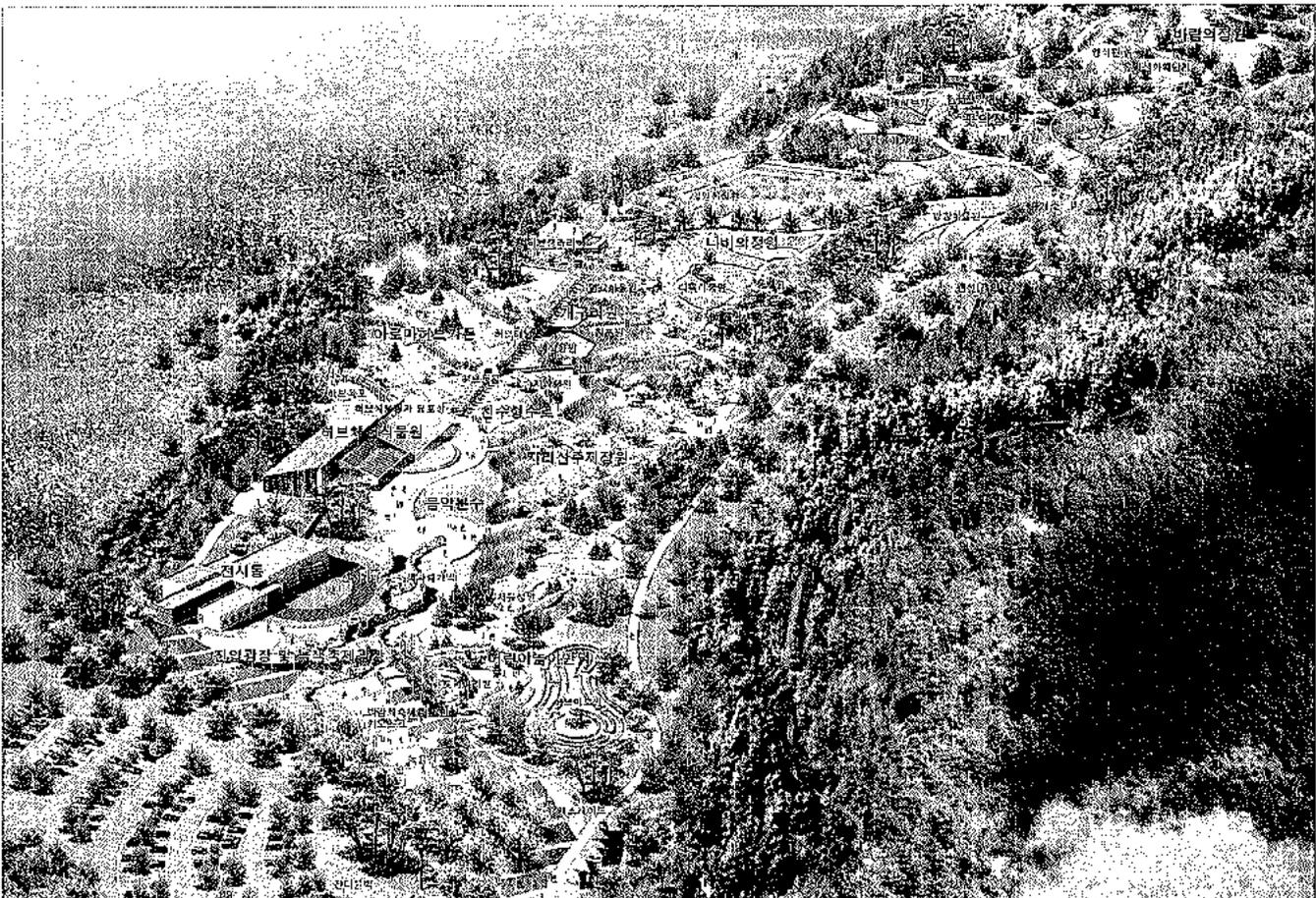
- 기능에 따른 매스(전시시설-편의시설-저시시설-외부공간)

- 각각의 장소에서의 동선의 흐름을 원활하도록 배치

동선계획

외부동선계획 - 접근

내부동선계획 - 관람



- 동선의 간략화 : One-Way의 동선구성으로 알기쉬운 동선 유도 강조
- 새로운 관람동선 : 일련된 전시 관람이 아닌 관람객 자의에 의한 관람을 최대한 배려

입면계획

전시관리동

- 온실동과 외부공간과의 연결성을 위해 수평성을 강조한 현대적 이미지 강조
- 매스(MASS)의 분절과 연결에 의한 다양성 표출
-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MASS형태 설정으로 눈에 거슬리지 않고 친근한 전시관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 온실동과의 상호연계 공간인 회랑부분은 막힌 통로가 아닌 트인 공간으로 외부공간인 식물공원의 연계성 강조
- 관람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입면이 되기 위하여 전면 출입구와 측면 중정부분을 트임과 막힌공간의 변화로 내, 외부공간의 상호 연계적 역할을 함으로써 열린 식물공원 전시관으로서의 자리 매김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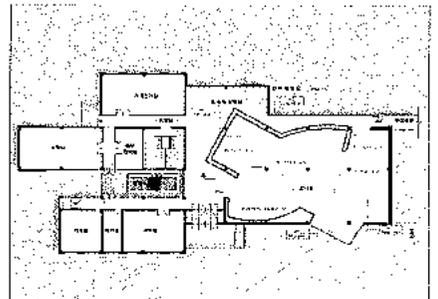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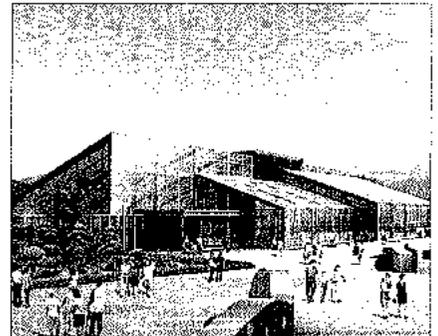
온실동

- 외부공간과의 연결성을 주기 위해 수평성을 강조한 현대적 이미지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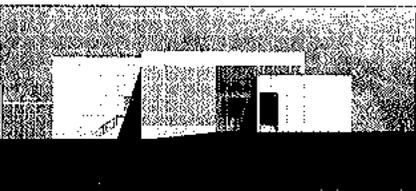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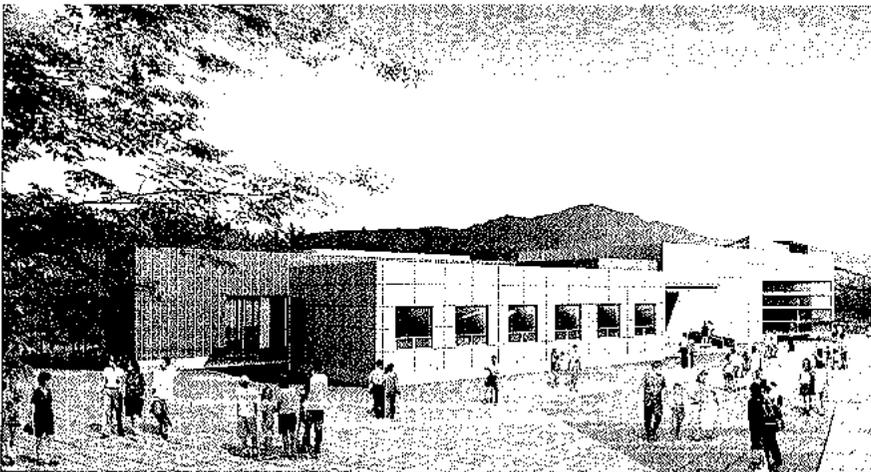
- 백두대간의 끝자락인 지리산을 현대적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산속의 산' 그 안에 다시 생태공간의 탄생이라는 이미지 구축
- 온실의 특성을 살림과 동시에 건물에 의해 가려지는 시야를 유리의 사용으로 전면의 자연을 수용
-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매스 형태 설정
- 채광조절 및 수평요소연결과 입체감 및 발란스 조절용 루버 사용

단면계획

- 기능별로 구분한 수평조닝
- 내외부공간의 연계성 고려
- 전시물의 높이에 따른 공간감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정 층고를 확보하였다
- 동선 및 설비의 합리적 사용
- 합리적인 모듈과 공간계획으로 단면계획
- 각 기능별 시설의 효율적 연계를 고려한 원할한 수평 Zone을 구성하였다
- 부분적으로 자연채광을 도입하여 쾌적함을 줄 수 있는 단면을 계획하였다
-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단열, 공조, 채광시스템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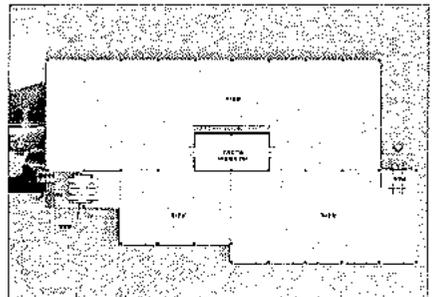
1층 평면도(전시관리동)



좌측면도(전시관리동)



좌측면도(온실동)



1층 평면도(온실동)

Architectural Record

2004년 8월

이번 호에서
는 특집으로 현
재 미국 전역에
서 불고 있는
대학시설 재개
발 붐의 사례들
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건물타
입별로 최신 경
향을 살펴보는 칼럼에서는 부미크 호텔을 다루고
있다.



■ 특집 - 대학 캠퍼스 계획

현재 10억 달러 규모의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UCLA를 비롯,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 건설붐이 일어나고 있다. 통신편이의 혁신, 다부문간 학문의 확산, 과학 발전, 학생들의 소비문화, 지역 사회와의 연계, 1990년대의 경제 호황 등 다양한 인자에 의해 촉발된 이러한 캠퍼스 재개발은 특히 장기적 계획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캠퍼스 계획은 단기적인 필요성과 장기 계획 사이의 절충에 의해 진행될 수밖에 없으나, 시설들의 수와 종류가 점차 늘어나면서 장기적인 안목의 마스터플랜이 갖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계획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또다른 특징은 그 대상이 건물이 아니라 랜드스케이프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숙소계획에 있어 복합시설을 통해 '기숙사'에서 '주거'로 변화되어가고 있다는 점, 지역 사회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는 등 인근 도시와의 유기적 연계가 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미래지향적인 학문을 추구하면서도 건축양식은 고딕 등 과거의 형태를 선호하는 것은 캠퍼스 계획의 오랜 모순이었는데, Frank Gehry 등 혁신적인 건축형태를 사용하는 건축가들의 건물이 전체적인 대학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면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건축계의 주요한 후원자이기도 한 대학과 관

련된 계획들은, 특히 전후 캠퍼스 붐을 타고 지어진 건물들에 대한 개보수가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면서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Gehry Partners의 미국 매사추세츠 주 Stata Center

MIT 대학 내에 들어선 Frank Gehry의 신작은 타워형의 건물들이 조금씩 뒤들리면서 서로 얹혀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천장을 통해 건물 곳곳에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계획되었다. 건물 내부에서도 중앙 홀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들이 서로 들춰지면서 얹혀있어 피라미드의 그림을 연상시키며, 다양한 공간이 연출되는 작은 도시로 얹혀진다. 이는 보다 개방적이고, 보다 넓은 공공면적을 갖고 있으며, 협업을 용이하게 하는 컴퓨터과학 관련 연구공간을 필요로 했던 대학측의 요구에 잘 부합되고 있다. 특히 근래 대부분의 과학적 발견이 팀작업, 부문간 교류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서로 유기적으로 엮인 건물군의 구성은 매우 중요한 목표였으며, 이를 위해 Gehry의 사무실에서는 일본주택의 쇼지 스크린 등 다양한 요소들을 실험하며 교류 공간의 모형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Stata Center는 연구 공간 이외에 체육시설과 매점 등 공공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캠퍼스 전체에 대해 열려있는 심리적으로 자유로운 공



Gehry Partners의 미국 매사추세츠 주 Stata Center

간을 구축하였다. 보는 이들 사이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형태 자체가 서로 논쟁하는 듯한 Gehry의 건물군은 대학의 진보적인 연구 방식을 잘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MIT는 우수한 학생과 교수진을 포섭하고, 그들의 발명을 재빠르게 전파하는데 있어 이 혁신적인 형태의 건물군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외에 Weiss/Manfredi Architects의 미국 매사추세츠 주 Smith College Campus Center, Brian MacKay-Lyons Architect의 캐나다 Academic Resource Centre, Alsop Architects의 캐나다 Sharp Centre, Jensen & Macy Architects의 미국 캘리포니아 주 CCA Graduate Center가 소개되어 있다.

■ 건물타입별 연구 - 호텔

특색 없는 호텔이 지배하던 1950~60년대, 빅토리아 양식 등 고풍적인 디자인이 유행했던 70년대에 이어 80, 90년대에는 소위 부띠끄 호텔이 주류를 이루었다. 건축가보다는 Philippe Starck, Andree Putnam 등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주도했던 이 움직임은 새로운 감각을 직은 규모의 공간들에 채움으로써 방문객들의 미의식을 충족시켰다. 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부띠끄 호텔들이 체인을 형성하며 그 영향력을 넓혀 나갔다. 최근의 특징은 도심에 지어지는 호텔들의 경우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의 리노베이션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과 미국보다는 유럽, 아시아에서 흥미로운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밀라노의 경우 Ed Tuttle의 Park Hyatt Milano, Vincenzo De Cotiis의 Straf Hotel 등 다양한 호텔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부띠끄 호텔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올랐으며, 중국에서는 아시아 건축가들이 참여한 만리장성 인근의 클럽 하우스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이러한 호텔들은 디자인을 위해 편의성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너무 화려하지 않은 근대양식을 선호하는 장년층의 요구를 등안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뉴욕을 방문하는 많은 건축가들이 여전히 고전적인 Four

Seasons Hotel에서 머문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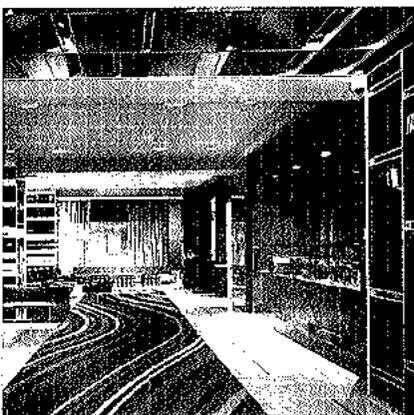
Lucien Lagrange Architects의 미국 시카고 시 Hard Rock Hotel

20세기 초 시카고와 뉴욕의 마천루 건축으로 유명한 Daniel Burnham의 아들들이 설계한 1929년도 고층 건물을 개조한 호텔이다. 각 공간은 테마를 갖고 설계되어 있다. 로비와 지하의 바는 거울과 철재마감을 사용하여 공간의 깊이에 착시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물걸 패턴의 카펫은 1970년대 록앤롤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건물의 파사드와 엘리베이터 홀은 1929년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복원하고 있다. 아울러 대지 옆으로 4층의 증축부를 두어 볼룸과 회의실 등을 수용하고 있다.

기타 최신 호텔의 사례로 Deborah Berke & Partners Architects의 미국 아리조나 주 Scottsdale의 James Hotel, Antonio Citterio and Partners의 이탈리아 밀라노 Bulgari Hotel을 다루고 있다.

■ 기타

The Phaidon Atlas of Contemporary World Architecture 등 신간 서적 리뷰, 디트로이트 재활 도시 계획에 대한 에세이, 제1회 런던 건축비엔날레 단신, 베니스 비엔날레 미국 전시관 등을 다루고 있다. (번역 / 최원준)



Lucien Lagrange Architects의 미국 시카고 시 Hard Rock Hotel

신건축

2004년 8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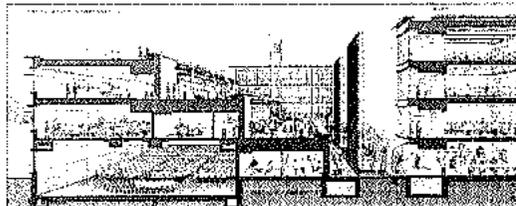
이번 호의 작품소개에서는 4개의 중·고등학교가 소개되면서 이쪽을 끌고 있다. 교과서적인 배치에서부터 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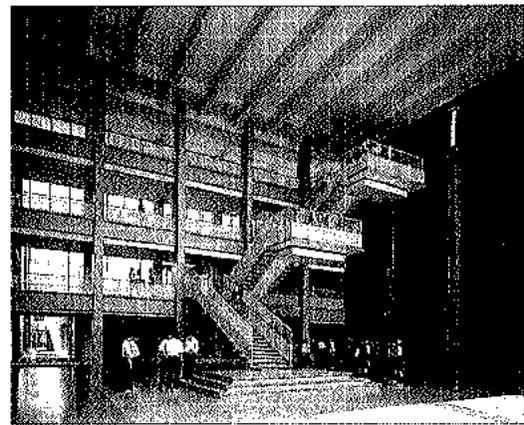
소한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새로운 학습과 생활공간을 만들어낸 예까지 그 양상은 다양하나, 아직까지 정형화된 교사 건축에 익숙한 국내의 학교건축에 비교하면 모두 새롭고 충실한 학교 건축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학교건축은 모두 학교를 배움의 장일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생활하는 작은 도시, 제2의 주거로 해석하고 있다.

타쿠소쿠(拓植)대학 제1고등학교 (설계:니혼세카이日本設計)

1948년된 이 학교는 본래 있던 지역(小平市)의 재개발로 2004년 4월 현 소재지인 도쿄의 武蔵村山市로 옮겨면서 새로운 교사를 갖게 되었다. 새로운 타쿠소쿠대학 제1고등학교의 교사에서는 공용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람들이 모이고, 동선들이 중첩되는 공간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교실들이 배치되는 형태를 취한 것이다. 부지는 그리 넓지 않아 학교건축의 전형적인 배치, 즉 공용시설동을 척추로 하여 교실동들이 연결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모'자형의 중정형 배치를 택했다. 이 교사 건축의 특



타쿠소쿠(拓植)대학 제1고등학교



티쿠소쿠(拓殖)대학 제1고등학교

징은 계단형의 중정과 4개 층을 오픈한 엔터런스 홀이다. 한개 층마다 셋백(set back)되어지며 계단형의 모습을 이룬 중정은 1층에 대공간, 2층에 중공간, 3층에 소공간을 둔 매스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서로 다른 크기의 공간을 짝 짝여진 중정형의 배치에 효과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각 층에 접지성을 부여하여 실내외 공간의 연결을 1층에서 3층까지 연장시켰고, 4층 높이의 건물로 둘러싸여 답답하게만 느껴지기 쉬운 중정을 생동감 있는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 또한 4개 층을 오픈한 대공간인 엔터런스 홀은 이 학교의 또 다른 메인 스페이스다. 대형 공연장에서나 맞출 수 있는 공간감을 학교의 엔터런스 홀에서 제공하고 있다. 중정이 학교 생활의 중심공간이라면 이 엔터런스 홀은 학교를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학교 학생으로서의 동질감과 자부심을 이 엔터런스 홀에서 느끼기를 건축가는 바랐다. 또한 마치 도시의 광장과 같은 중정에서 보낸 3년간의 기억을 이 학교 졸업생들은 추억으로 간직할 것이다.

토카이(東海)대학 부속 제2고등학교 (설계:다이세이건설 설계본부)

토카이대학 부속 제2고등학교는 전형적인 학교건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교실동과 공용부분을 분리하고, 3개동으로 분동된 교실동은 6~7개 교실이 중복도형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동을 이루면서 각각 공용시설동에 브릿지로 연



토카이(東海)대학 부속 제2고등학교

결되고 있다. 교실공간과 공용공간의 명확한 분리가 배치의 주된 컨셉이다. 그러면서도 교사는 '인터랙티브 캠퍼스'를 표방하고 있다. '센터 하우스'로 명명된 공용공간동의 미디어 라운지, 도서실, 네트워크 센터 등은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소로 계획되었으며, 소모임이 용이하도록 계획된 이들 공간은 강단을 향해 줄지어 좌석이 배치된 교실의 공간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공용시설동과 교실동의 사이에는 마루를 깔 데크와 녹지공간이 마련되어 학생들의 휴식과 생활공간이 되고 있으며, 이 옥외공간은 '교감의 장'으로 명명되었다.

케이센(惠泉)여학원 세타가야(世田谷)캠퍼스 (설계: 카지마 디자인)

케이센 여학원의 세타가야 캠퍼스는 여자 중



케이센(惠泉)여학원 세타가야(世田谷)캠퍼스

학교와 고등학교가 함께 자리한 캠퍼스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중정을 중심으로 연결된 교사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교실마다 마련된 마치 공동주택을 연상시키는 발코니와 보통교실과 특별교실 사이에 마련된 아트리움공간이다. 학교의 중정은 이들 발코니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 발코니로 인해 보통교실의 입면은 공동주택의 입면을 연상시키는데, 학교가 학생들에게는 제2의 거주공간임을 상기시킨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마련된 중정은 이들 발코니들로 둘러싸여 있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발코니에 나와 담소를 나누며, 중정은 이와 같은 생활들로 둘러싸이면서 공동주택단지의 광장과 같은 공간이 된다. 학교를 청소년들이 거처게 되는 작은 도시, 혹은 제2의 주거로 해석한 부분은 앞의 두 학교와 공통된 부분이라 하겠다. 고등학교의 보통교실과 특별교실 사이에 위치한 아트리움 공간은 4층의 천장에 마련된 천창의 빛을 1층의 미디어센터에까지 제공하며, 1층부터 4층까지를 엮는 또 다른 생활의 중심공간이 되고 있다. 건물의 각 부분 부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이 공간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일어나는 여러 활동들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이 아트리움 공간은 학생과 교사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상호 교감할 수 있는 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번역 / 강상훈)